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2002 ~ 2011)

2003. 1

제 주 도

목 차

제 1 편 계획의 기초

제1장 계획의 개요	1
제1절 계획의 배경과 목적	1
1. 계획의 배경	1
2. 계획의 목적	1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2
1. 계획의 성격	2
2. 계획의 역할	2
제3절 계획의 범위 및 접근체계	3
1. 계획의 범위	3
2. 계획의 접근체계	4
 제2장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5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5
1. 자연환경	5
2. 사회기반시설	6
3. 인구 및 지역경제	7
4. 지표로 본 제주도의 위상	10
제2절 국내·외적 여건 변화 분석	11
1. 국외 여건의 변화	11
2. 국내 여건의 변화	11
3. 제주도의 여건 변화	12

제3장 관련계획 검토 및 평가	13
제1절 관련계획 검토	13
1. 제주도 개발계획의 연혁	13
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14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	16
제2절 추진실적 평가 및 과제	22
1. 추진실적 평가	22
2. 과제 및 개선방안	23
3. 본 계획 수립의 주안점	24

제 2 편 기본 구상

제1장 발전 잠재력과 도민의식	25
제1절 발전 잠재력과 제약요인 : SWOT 분석	25
1. 강점(Strength)	26
2. 약점(Weakness)	26
3. 기회요인(Opportunity)	27
4. 위협요인(Threat)	27
제2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28
1. 조사 개요	28
2. 조사 결과	28
제2장 계획지표의 설정과 전망	32
제1절 인구지표	32
1. 총인구	32
2. 인구구조	33
3. 시·군별 인구 구성	33

제2절 경제지표	35
1. 총생산	35
2. 산업별 산출구조	37
3. 산업별 취업구조	39
4. 취업자 1인당 산출액	41
5. 관광 관련 지표	42
제3절 사회기반시설 지표	43
1. 교통지표	43
2. 에너지시설	45
3. 통신시설	45
제4절 생활환경지표	46
1. 주택보급률	46
2. 상·하수도시설	46
3. 교육환경	47
4. 사회복지	48
 제3장 발전 목표와 기본 전략	 49
제1절 발전 목표	49
제2절 기본 전략	55
제3절 선도프로젝트 추진	59
1. 7대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구상	59
2. 7대 선도프로젝트의 공간 구상	60
제4절 2011 비전	64

제 3 편 국제자유도시 추진전략

제1장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65
제1절 지역 발전축 설정	65
제2절 교통망 확충 및 정비	67
1. 현황	67
2. 교통수요 예측	70
3. 교통부문의 사업계획	74
제3절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물류산업의 선진화	83
1. 현황	83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84
3. 유통·물류부문의 사업계획	85
제4절 사이버제주 실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88
1. 현황	88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90
3. 정보·통신부문의 사업계획	91
제5절 국제교류·협력 강화	100
1. 현황	100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01
3.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및 접근 모형	102
4. 국제교류·협력부문의 사업계획	104
 제2장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113
제1절 전통의 토대위에 피어나는 문화·예술	113
1. 현 황	113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115
3. 문화·예술부문의 사업계획	116

제2절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 실현	125
1. 현황	125
2. 제주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설정	130
3. 관광지 정비 및 개발	135
4.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진흥	141
5. 관광조직 개편 및 관광시장의 확대전략 수립	150
제3절 세계인과 함께하는 체육·스포츠 진흥	157
1. 현황	157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160
3. 체육 및 스포츠부문의 사업계획	162
 제3장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169
제1절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및 인재육성	169
1. 현황	169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171
3. 교육 및 인재육성부문의 사업계획	171
제2절 첨단 과학기술 육성	181
1. 현황	181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183
3. 과학기술부문의 사업계획	184
제3절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192
1. 현황	192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194
3. 지식기반산업부문의 사업계획	196
제4절 내실있고 차별화된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육성	201
1. 현황	201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04

3.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부문의 사업계획	205
제5절 금융서비스업의 기능 강화	213
1. 현황	213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15
3. 금융서비스업부문의 사업계획	216
제4장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220
제1절 일반농업의 경쟁력 향상	220
1. 현황	220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23
3. 일반농업부문의 사업계획	224
제2절 감귤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감귤산업 육성	232
1. 현황	232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36
3. 감귤산업부문의 세부계획	237
제3절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246
1. 현황	246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49
3. 축산업부문의 사업계획	250
제4절 신해양시대 개척을 위한 해양·수산업 육성	258
1. 현황	258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61
3. 해양·수산업부문의 사업계획	262
제5절 산림·임업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	273
1. 현황	273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74
3. 산림·임업부문의 사업계획	275

제5장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280
제1절 보건의료의 선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280
1. 현황	280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283
3. 보건의료부문의 사업계획	285
제2절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295
1. 현황	295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300
3. 사회복지부문의 사업계획	301
제3절 지역안전관리의 정보화로 안전 제주 구현	315
1. 현황	315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317
3. 소방·방재부문의 사업계획	318
제6장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328
제1절 토지이용 및 도시지역 개발	328
1. 현황	328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333
3. 토지이용 및 도시지역개발부문의 사업계획	334
제2절 읍·면 및 도서지역 개발	341
1. 현황	341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342
3. 읍·면 및 도서지역 개발부문의 사업계획	343
제3절 친환경적 주거·건설 개발	348
1. 현황	348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352
3. 주거·건설부문의 사업계획	353

제7장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359
제1절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보전	359
1. 현황	359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363
3. 환경보전부문의 사업계획	367
제2절 물부족에 대처한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388
1. 현황	388
2. 수요 추정 및 기본방향	392
3. 수자원부문의 사업계획	395
제3절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399
1. 현황	399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401
3. 에너지부문의 사업계획	402

제 4 편 계획의 집행 · 관리

제1장 계획의 추진 체계	405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405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체계	406
제2장 재정 및 투자계획	407
제1절 재정운영계획	407
1. 현황	407
2. 재정수요 및 기본방향	410
3.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411
제2절 투자계획	416
1. 투자사업 선정 및 방향	416
2.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집행	417

제3절 재원확충계획	419
1.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419
2. 외자유치사업의 활성화	421
3.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423
 제3장 개발사업의 주민참여	425
제1절 지역주민 참여방안	425
1. 기본방향	425
2. 분야별 지역주민 참여방안	425
제2절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428
1. 기본방향	428
2. 개발이익의 지역화 방안	428
제3절 특별개발우대사업 육성	430
1. 기본방향	430
2. 육성방안	430
 제4장 지방행정 체계 정비	432
제1절 행정계획	432
1. 현황	432
2. 계획의 기본방향	434
3. 지식기반형 글로벌 행정체제 구축	435
4. 환경대응적 행정관리체제 구축	439
제2절 특별자치계획	442
1. 현황	442
2. 특별자치계획의 목표와 원칙	443
3. 특별자치계획의 최적 대안	444

표 목 차

<표 I -2-1> 제주국제공항 현황	6
<표 I -2-2> 전력공급 현황	6
<표 I -2-3> 전화시스템 및 가입자 수	6
<표 I -2-4> 총인구 변화 추이	7
<표 I -2-5>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7
<표 I -2-6>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8
<표 I -2-7> 산업별 취업인구 현황	9
<표 I -2-8> 지역내 총생산 현황	9
<표 I -2-9> 지표로 본 제주도의 위상	10
<표 I -3-1> 부문별 투자계획 및 실적 (1994~2001년)	16
<표 I -3-2> 계획인구 및 달성도	18
<표 I -3-3> 시 · 군별 인구지표 및 달성도	18
<표 I -3-4>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예측지표와 달성도	19
<표 I -3-5> 농업분야 발전지표 및 달성도	19
<표 I -3-6> 관광분야 발전지표 및 달성도	20
<표 I -3-7> 문화시설 확충계획 및 달성도	21
<표 I -3-8> 도로 포장 및 자동차 보급률	21
<표 II-1-1> SWOT분석 결과	25
<표 II-1-2> 관광개발의 성과	28
<표 II-1-3> 관광개발의 필요성	29
<표 II-1-4> 관광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방안	29
<표 II-1-5>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중요 요소	29
<표 II-1-6> 관광 진흥을 위한 과제	29
<표 II-1-7>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정도	30
<표 II-1-8>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민혜택 여부	30

<표 II-2-1> 전국대비 총인구 추이 및 예측	32
<표 II-2-2>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 및 예측	33
<표 II-2-3> 시·군별 인구 추이 및 예측	34
<표 II-2-4>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및 예측	36
<표 II-2-5> 지역내총생산(GRDP) 예측	36
<표 II-2-6>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및 예측	37
<표 II-2-7> 제주지역 산업별 산출구조 추이 및 전망	38
<표 II-2-8>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추이 및 예측	39
<표 II-2-9> 산업별 취업인구 추이 및 예측	40
<표 II-2-10> 취업자 1인당 산출액 추이 및 예측	41
<표 II-2-11>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이 및 예측	42
<표 II-2-12> 도로 및 차량 대수 추이 및 예측	43
<표 II-2-13> 해운여객 및 화물 수송 추이 및 예측	44
<표 II-2-14> 항공여객 및 화물수송 추이 및 예측	44
<표 II-2-15> 발전량의 추이 및 예측	45
<표 II-2-16> 전화시설 및 전화가입자 추이 및 예측	45
<표 II-2-17> 주택보급률 추이 및 예측	46
<표 II-2-18> 하수도 보급률 추이 및 예측	47
<표 II-2-19> 학교 수 및 교원당 학생 수 추이 및 예측	47
<표 II-2-20> 사회복지시설 추이 및 예측	48
<표 III-1-1> 발전권역별 개발전략	66
<표 III-1-2> 향만 SWOT 분석	69
<표 III-1-3> 존별 통행수요 전망	71
<표 III-1-4> 전체 품목별 물동량 예측 결과	72
<표 III-1-5> 연안여객수송 수요 예측	73
<표 III-1-6> 크루즈 관광여객 수송수요 예측	73
<표 III-1-7> 항공 수요 예측	73

<표 III-1-8> 도로의 등급 조정	75
<표 III-1-9> 도로의 신설과 확장	75
<표 III-1-10> 제주국제공항 시설 확충계획	78
<표 III-1-11> 항로 현황 (2000년)	79
<표 III-1-12> 도·소매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83
<표 III-1-13> 도·소매업 판매액 추이	83
<표 III-1-14> 전국 대비 제주지역의 전화회선 수 및 가입자 수 비교 (1999년)	89
<표 III-1-15> 전국 대비 제주지역의 CATV 가입 현황 (2000년)	89
<표 III-1-16> 정보통신망 가입 현황 (2000년)	89
<표 III-2-1> 국가 지정 유·무형문화재 현황 (2000년)	113
<표 III-2-2> 도 지정 유·무형문화재 현황 (2000년)	114
<표 III-2-3> 공연 현황 (2000년)	114
<표 III-2-4> 전시 현황 (2000년)	115
<표 III-2-5> 관광자원 현황	126
<표 III-2-6> 개최 목적별 축제 현황	127
<표 III-2-7> 23개 관광단지·지구 개발 현황	128
<표 III-2-8> 목표 연도별 최종 관광객 수요 예측지표	130
<표 III-2-9> 세분 시장별 목표연도 관광객 수요 예측지표	131
<표 III-2-10> 목표 연도별 최종 관광객 수요 목표지표	131
<표 III-2-11> 1인당 평균 도내 관광지출액(항공요금 제외) 기준	132
<표 III-2-12> 세분시장별 목표연도 관광수입 예측지표	133
<표 III-2-13> 목표 연도별 관광수입 목표지표	133
<표 III-2-14> 관광권역 설정	136
<표 III-2-15> 관광진흥지역의 범주	138
<표 III-2-16> 주요 도입 시설물	143
<표 III-2-17> 관광인력 수급 분석 결과	149
<표 III-2-18> 오염되지 않은 자연관광자원을 지닌 관광지	153

<표 III-2-19> 특이한 문화자원을 지닌 관광지	153
<표 III-2-20> 레저 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	153
<표 III-2-21>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는 관광지	154
<표 III-2-22>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관광지	154
<표 III-2-23>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현황(1995~2000년)	158
<표 III-2-24> 체육·여가시설을 위한 발전 지표	160
<표 III-3-1>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생수 변화 추이	169
<표 III-3-2>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급당 학생 수	170
<표 III-3-3> 전국 대비 제주지역 교원 1인당 학생 수	170
<표 III-3-4> 과학기술관련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181
<표 III-3-5> 과학기술진흥의 기본방향	183
<표 III-3-6> 지식기반산업의 선정기준	193
<표 III-3-7> 지식기반산업 육성 단계별 추진계획	195
<표 III-3-8> 제주도의 생산구조 (경상가격 기준)	201
<표 III-3-9> 도내 제조업 현황 (5인 이상)	201
<표 III-3-10>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1999년 경상 GRDP기준)	202
<표 III-3-11> 농공단지 현황	202
<표 III-3-12> 벤처기업 현황	203
<표 III-3-13>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	203
<표 III-3-14>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	203
<표 III-3-15> 벤처 집적 시설 현황	204
<표 III-3-16> 금융기관의 점유율 추이	213
<표 III-3-17> 예수금시장에서 제주은행의 점유율 추이	214
<표 III-3-18> 제2금융권의 점유율 추이 (연말잔액 기준)	214
<표 III-4-1>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변화	220
<표 III-4-2> 경지규모별 농가 및 총경지면적	221
<표 III-4-3> 작목별 재배면적 변화	222

<표 III-4-4> 농산물 수출 현황	223
<표 III-4-5> 일반농업 발전지표	223
<표 III-4-6> 감귤재배 및 생산 추이	232
<표 III-4-7> 감귤 용도별 처리 현황	233
<표 III-4-8> 감귤농가의 경영규모별 농가 현황 (2000년)	234
<표 III-4-9> 감귤 선과장 설치 현황 (2000년)	235
<표 III-4-10> 선과장별 선과실적 현황	235
<표 III-4-11> 감귤산업 발전지표	236
<표 III-4-12> 품종 및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목표	237
<표 III-4-13> 묘목생산 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	239
<표 III-4-14> 연차별 선과장 정비계획	241
<표 III-4-15> 가축 사육 현황 (2000년)	246
<표 III-4-16> 젓소 증식계획	247
<표 III-4-17> 돼지사육 현황	248
<표 III-4-18> 마필사육 현황	248
<표 III-4-19> 경주마 공급계획	249
<표 III-4-20> 한우 증식계획	250
<표 III-4-21> 우유 및 유제품 생산계획	251
<표 III-4-22> 종빈마 도입계획	253
<표 III-4-23> 양돈 증식계획	253
<표 III-4-24> 초지 조성 및 보완계획	257
<표 III-4-25> 어업가구 및 인구 (2000년)	258
<표 III-4-26> 수산물 생산량	258
<표 III-4-27> 어선세력 추이	259
<표 III-4-28> 어항 현황 (2000년)	259
<표 III-4-29> 수산물 수출 추이	260
<표 III-4-30> 해면양식 현황	260

<표 III-4-31> 해양·수산업부문의 사업계획	262
<표 III-4-32> 해양 관광개발의 권역 설정	263
<표 III-4-33> 산림면적 현황 (2000년)	273
<표 III-4-34> 개발수요 및 발전지표	274
<표 III-5-1> 의료기관 현황(2000년)	280
<표 III-5-2>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2000년)	281
<표 III-5-3> 의료인 현황 (2000년)	281
<표 III-5-4> 의료인력 비교 (2000년)	282
<표 III-5-5> 의료보장종별 입원의료 이용률 및 지역별 친화도	283
<표 III-5-6> 2011년도 제주도 의료(한의사 포함)인력 추계	285
<표 III-5-7> 보건의료자원 수급정책의 기본방향	286
<표 III-5-8> 제주대학병원 단계별 건립방안	287
<표 III-5-9>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현황 (2000년)	295
<표 III-5-10> 장애인 등록현황 (2000년)	296
<표 III-5-1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0년)	297
<표 III-5-12>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000년)	297
<표 III-5-13>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현황	298
<표 III-5-14>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000년)	298
<표 III-5-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0년)	299
<표 III-5-16> 풍수해 발생 현황	315
<표 III-5-17> 연도별 재난사고 유형	315
<표 III-5-18> 119 구조·구급대 활동 현황	316
<표 III-5-19> 사고 종류별 구조활동 현황	316
<표 III-5-20> 주요 재해위험지구 현황	318
<표 III-5-21> 재해위험지구 등급별 기준	318
<표 III-5-22> 하천 지역지구 지정(지방 2급 기준)	319
<표 III-5-23> 소하천 지역지구 지정	319

<표 III-5-24> 농업용수 개발 대상지역(소규모 지표수 개발)	320
<표 III-5-25> 대형 화재취약 대상 시설	321
<표 III-5-26> 입산통제구역 지정(2000년)	322
<표 III-5-27> 재난위험시설 현황 (2000년)	322
<표 III-6-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328
<표 III-6-2> 도시계획구역 면적 현황 (2000년)	329
<표 III-6-3>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현황 (2000년)	329
<표 III-6-4>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현황	330
<표 III-6-5> 도시계획 현황	330
<표 III-6-6> 시·군별, 도시계획별 용도지역 현황 (2000년)	331
<표 III-6-7>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2000년)	331
<표 III-6-8>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2000년)	332
<표 III-6-9> 중산간지역 GIS 구축 현황 (2000년)	332
<표 III-6-10> 가구 수 및 주택 수 변화 추이	348
<표 III-6-11> 주택유형 변화 추이	349
<표 III-6-12>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	350
<표 III-6-13> 연도별 건설업체 증가 추이	350
<표 III-6-14> 연도별 건설 수주액 추이	351
<표 III-6-15> 발주공사의 지역업체별 수주 구성 (1999년)	351
<표 III-7-1> 환경지표	366
<표 III-7-2> 건축물의 고도기준	376
<표 III-7-3> 오·폐수 발생량	381
<표 III-7-4> 수역별 물 수지	389
<표 III-7-5> 용수 수요 추정(상수도)	392
<표 III-7-6> 연도별 상수도 용수 수급 전망	393
<표 III-7-7> 지역별 상수도 용수 수급 전망	393
<표 III-7-8> 에너지 소비 현황	399

<표 III-7-9> 석유저장 시설 현황	400
<표 III-7-10> 전력수급 추이 및 전망	400
<표 IV-2-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망	407
<표 IV-2-2> 세입전망(일반회계)	408
<표 IV-2-3> 경상지출	409
<표 IV-2-4> 투자가용 재원 추정	409
<표 IV-2-5> 부문별 · 재원별 투자계획	418
<표 IV-4-1> 관공서 및 주요기관 분포 현황 (2000년)	433
<표 IV-4-2> 지방행정 인력 분포현황 (2000년)	434
<표 IV-4-3> 계층구조 개편대안	443
<표 IV-4-4> 계층구조 개편 대안의 장 · 단점	444

그림 목 차

<그림 I -1-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접근체계	4
<그림 I -3-1> 「제4차 국토계획」상의 국토개발축 구상도	15
<그림 II-3-1> 기본목표 및 중점과제	49
<그림 II-3-2> 선도 프로젝트 대상지역	59
<그림 II-3-3>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예시	60
<그림 II-3-4> 중문관광단지 확충 예시	61
<그림 II-3-5>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예시	61
<그림 II-3-6>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예시	62
<그림 II-3-7>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예시	62
<그림 II-3-8> 2011년 비전	64
<그림 III-1-1> 교통권역 설정	70
<그림 III-1-2> 통행배정 결과	70
<그림 III-1-3> 유통·물류산업의 발전방향	84
<그림 III-1-4> 종합정보망(JEJU-NET) 구성도	88
<그림 III-1-5> 정보·통신계획의 기본방향	90
<그림 III-1-6>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구상도	92
<그림 III-1-7> 「제주종합정보센터」구성 체계도	93
<그림 III-1-8> 도시관리 시스템 구축	98
<그림 III-1-9> 국제화부문의 기본방향	101
<그림 III-2-1> 문화·예술 부문의 발전방향	116
<그림 III-2-2> 「제주관광 2011」 비전과 목표	134
<그림 III-2-2> 체육·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161
<그림 III-3-1> 교육부문의 발전방향	171
<그림 III-3-2> 종합멀티미디어 교육정보지원 인프라	173
<그림 III-3-3> 지식기반형 제조업의 육성방향	195

<그림 III-3-4> Cyber 연구센터의 운영 체계도	196
<그림 III-3-5>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의 발전방향	205
<그림 III-3-6> 제주 벤처 넷 구성 체계도	209
<그림 III-3-7>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입지지원	210
<그림 III-3-8>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215
<그림 III-4-1> 일반농업의 발전방향	224
<그림 III-4-2> 감귤산업의 발전방향	236
<그림 III-4-3> 공동계산제 체계도	242
<그림 III-4-4> 감귤수급 및 가격안정협의회 조직도	245
<그림 III-4-5> 해양·수산업의 발전방향	261
<그림 III-4-6> 산림·임업 육성의 기본방향	274
<그림 III-5-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및 비전	284
<그림 III-5-2> 사회복지부문의 계획방향	300
<그림 III-5-3> 소방·방재 부문의 기본방향	317
<그림 III-5-4> ‘재난관리센터’ 운영체계	327
<그림 III-6-1> 주거 및 건설계획의 기본방향	352
<그림 III-7-1> 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365
<그림 III-7-2> 수자원 관리 및 이용방향	394
<그림 III-7-3> 에너지 공급계획의 기본방향	401
<그림 IV-1-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체계	406
<그림 IV-2-1>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410
<그림 IV-2-2> 투자사업의 선정방향	416
<그림 IV-4-1> 지식기반형 글로벌 행정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435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과 목적

1. 계획의 배경

-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변경하여 2002년 1월 26일 공포되었음.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21세기 지역의 자율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기간이 1994년부터 2001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지식화 등 21세기 국내·외 환경 변화를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됨.

2. 계획의 목적

- 전면적인 세계경제의 개방화와 자유화,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정보화, 삶의 질과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도민의식의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의 창의적인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함.
- 지역이 지닌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여 21세기 창조적인 제주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함.
- 향후 수립될 분야별 발전·사업계획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계획을 수립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등 관련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 골격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을 통해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실천 발전방향을 제시함.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 본 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과 ‘세계평화의 섬’ 조성을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 물적 시설, 산업경제, 생활환경, 사회, 문화 등 지역의 전 부문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역의 최상위 종합계획임.
- 21세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전략계획임.
- 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을 조화시켜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도모하는 실천계획임.

2. 계획의 역할

- 본 계획은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의 각종 자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존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장래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함으로써 21세기 도민생활의 안정성, 쾌적성, 균형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조화된 지역사회를 구현함.
 -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통합성을 이루어 나감.
 - 생활환경 개선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 주민참여의 보장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화를 실현함.
 - 국내·외 여건 변화를 적극적·합리적으로 수용하여 21세기 지역발전을 창출함.

제3절 계획의 범위 및 접근체계

1. 계획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계획기간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개년 간으로 하고 전반기(2002년~2006년)와 후반기(2007년~2011년)로 구분하여 계획기간을 설정함.
- 기준연도는 2000년을 원칙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2011년으로 하되,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계획기간 중 초기 5개년 동안에 추진할 중점사업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공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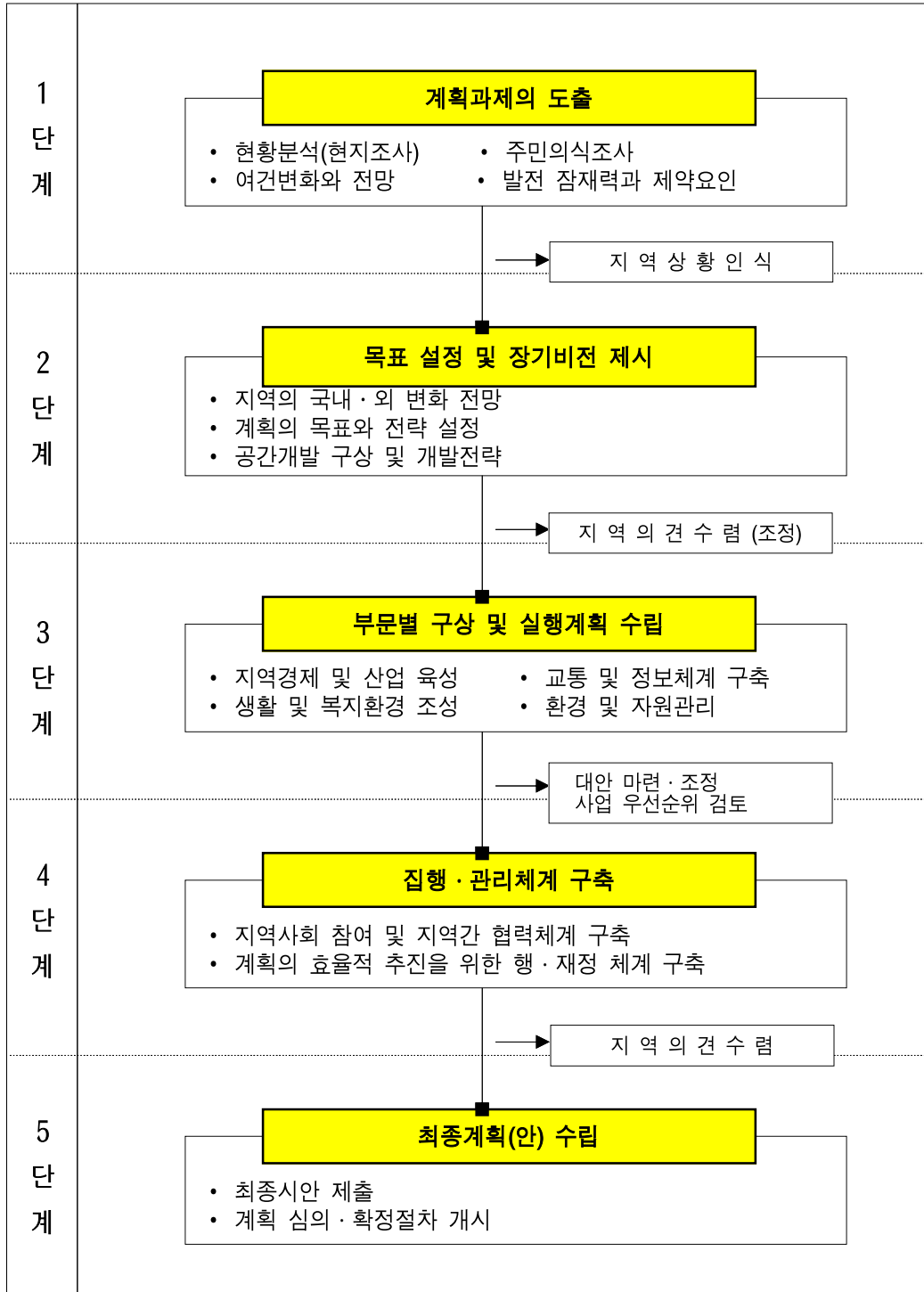
- 제주도 전지역(2시·2군 : 총 1,846.28km²) 및 접속해역을 계획대상구역으로 함.

다. 내용적 범위

- 지역현황 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추진계획, 계획의 집행과 관리 등을 내용적 범위로 함.

- 시간적 범위 : 2002년 ~ 2011년(10년간)
- 공간적 범위 : 제주도 행정구역 전체
- 내용적 범위 : 현황 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추진계획, 집행과 관리

2. 계획의 접근체계



<그림 I-1-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접근체계

제2장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1. 자연환경

- 제주도는 한반도의 남서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북으로 목포시와의 거리는 141.6km, 북동으로 부산광역시와의 거리는 286.5km, 동으로 일본 대마도와의 거리는 255.1km임.
- 제주도는 남북간의 거리가 약 31km, 동서간의 거리가 약 73km이며, 해안선을 따라 이어진 일주도로의 길이는 182km임.
- 총면적은 2000년 현재 1,846.28km²로 남한 면적의 1.84%이며, 부속 도서로는 8개의 유인도(우도, 비양도, 상추자도, 하추자도, 가파도, 마라도, 추포도, 횡간도)와 55개의 무인도가 있음. 가장 큰 섬은 우도(5.999km²)이며, 유인도 중 가장 작은 섬은 추포도(0.126km²)임.
-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소화산, 계곡, 절벽, 능선 등의 산악자원과 해안단애, 폭포, 중산간 초지 등 육지부에 비해서 매우 특이한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는 1,800여종의 풍부한 식생과 삼림을 보유하고 있음.
- 기후는 바람이 심하고 강수일이 연간 100일 이상이며 일조시간이 짧고 여름에는 몇 차례의 태풍이 통과함. 연평균 기온은 제주시 15.3℃, 서귀포시 15.9℃이고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음. 연평균 강수량은 제주시 1,423.6mm, 서귀포시 1,771.4mm로 한반도의 최다우지역에 속함.
- 토양은 전반적으로 척박하나 지형상으로는 산악지대, 중산간지대, 해안지대로 구분형성됨. 지표의 90% 이상이 현무암으로 덮여 있으며 ‘화산의 보고’라고 칭할 정도로 화산지형이 다채롭게 발달되어 있음.
- 인구의 90% 이상이 표고 200m 이하의 해안지대에 거주하며 북쪽은 제주시, 남쪽은 서귀포시가 지역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동·서부 지역은 도시 발달이 미흡함.

2. 사회기반시설

- 제주국제공항은 매년 14만3천회의 운항 능력과 764만명의 승객 및 34만 톤의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현재 12개의 국내노선과 7개의 국제노선이 운항되고 있음.

<표 I-2-1> 제주국제공항 현황

구 분	활주로	계류장	여객 터미널		화물 터미널		주차장
			국 내	국 제	국 내	국 제	
크기(㎡)	3,000×45m 1,499×45m	252,000	30,823	15,825	13,955	3,123	56,610
용 량	143,000회/년	A300:15대	649만 명/년	115만명/년	280천톤/년	60천톤/년	1,525대

자료 : 한국공항공단, 현황자료, 2001.

- 2개의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과, 5개의 연안항(성산포항, 화순항, 한림항, 애월항, 추자항)이 있음. 총선적량은 대략 486만3천 톤에 달함.
- 현재 4개의 발전소와 제주-육지간 전력연계선(HVDC)등 총 682.7MW의 설비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2000년도 발전량은 1,900GWh임. 2000년도 판매전력량은 1,705GWh로 가정용 21%, 서비스부문 43%, 생산부문이 30%를 차지하고 있음.

<표 I-2-2> 전력공급 현황

공 급 원	설비용량(MW)	발전량(MWh)
제 주 화 력 발 전 소	365.0	544,151
남 제 주 화 력 발 전 소	60.0	320,510
한 림 합 계	105.0	272,531
추 자 합 계	2.7	6,918
제 주 - 육 지 전 력 연 계 선	150.0	756,130
합 계	682.7	1,900,240

자료 :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자료, 2000.

- 통신의 경우, 2000년 전화회선 및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6만5,570회선, 22만5,736명임.

<표 I-2-3> 전화시스템 및 가입자 수

구 분	전화회선 수	가입자 수
제 주 전 화 국	97,648	83,368
신 제 주 전 화 국	73,906	64,230
서 귀 포 전 화 국	94,016	78,138
합 계	265,570	225,736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0.

3. 인구 및 지역경제

가. 인구변화 추이

- 인구 변화 추이 : 2000년 현재 인구는 약 54만2천명이고, 제주시지역에 집중됨.
- 1990년 약 51만5천명에서 2000년 약 54만2천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의 약 59.3% 정도로 인구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줌.

<표 I-2-4> 총인구 변화 추이

구 분	총인구 (단위: 천명)			인구밀도			연평균 인구증가율(%)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전 국 (A)	43,411	45,093	47,274	431	454	475	0.86
제주도(B)	515	519	542	279	281	294	0.51
제 주 시	233	255	279	915	1,002	1,091	1.81
서귀포시	88	85	85	336	336	336	- 0.35
북제주군	109	98	100	154	136	139	- 0.86
남제주군	85	80	78	141	130	127	- 0.86
B / A (%)	1.19	1.15	1.15	64.73	61.89	61.89	59.3

주 : 1) 각 시·군별 인구는 소수점 두 자리에서 반올림함. 2) 외국인 제외
 자료 : 2000년 통계청 홈페이지 및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0을 재구성함.

- 남녀 인구 구성비 및 연령별 인구 : 전국 평균에 비해 지역 여성 인구의 비율이 약 1% 내외로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음. 14세 미만의 유년층과 30세 미만의 젊은층이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의 고령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음.

<표 I-2-5>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

(단위 : %)

구 분	1990		1995		2000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성별 구성비(남/여)	50.3/49.7	49.4/50.6	50.6/49.4	49.4/50.6	50.4/49.6	49.6/50.4
0 ~ 14 세	25	25.5	23.3	21.2	21.7	22
15 ~ 29 세	30	32.8	28	27.8	25.3	25.2
30 ~ 49 세	27	25.2	30.7	28.2	32.9	31.4
50 ~ 64 세	11	10.8	12.2	12.6	13	13.2
65세 이상	7	5.7	5.8	6.2	7.1	8.2

자료 : 2000년 통계청 홈페이지 및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0을 재구성함.

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 전국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00년 12월 현재 2,195만 명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1.73%로 총인구 대비 46.4%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인구는 총 2,106만1천명으로 취업률은 95.9%임.
- 제주도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00년 12월 현재 27만6천명으로 도내 인구의 50.9%이며 전국 경제활동인구 비율인 46.4%를 상회하고 있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4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기간 총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0.51%의 2.8배에 해당하는 수치임.
- 2000년 12월 현재 제주도내 취업인구는 26만9천명이며 취업률은 97.5%로, 전국의 취업률 95.9%를 약간 상회하고 있음. 동기간 동안 취업인구 증가율이 1.19%로 전국증가율인 1.54%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음.

<표 I -2-6>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총 인 구	43,411 (100.0)	515 (100.0)	45,093 (100.0)	519 (100.0)	47,274 (100.0)	542 (100.0)	1.17	0.51
경 제 활동인구	18,487 (42.60)	240 (46.2)	19,803 (44.2)	250 (49.9)	21,950 (46.4)	276 (50.9)	1.73	1.41
취업인구	18,085 (97.8)	239 (99.2)	19,253 (97.2)	248 (99.2)	21,061 (95.9)	269 (97.5)	1.54	1.19

자료 : 통계청, 각년도 자료 및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자료를 재구성함.

다. 산업별 취업인구

- 200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취업인구 구조를 보면 총 취업인구는 2,106만1천명으로, 이중 농림·어업 부문은 228만8천명으로 전체의 10.86%, 광·공업 부문이 426만2천명으로 전체의 20.24%,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부문이 1,451만1천명으로 전체의 68.9%를 점유하여 가장 많음.

- 반면 취업인구는 전국의 1.3%인 26만9천명이며, 이 중 농림·어업 부문이 7만3천명으로 도내 취업인구의 27.1%, 광·공업 부문은 1만 명으로 3.7%,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부문은 18만6천명으로 69.2%를 나타내고 있음. 전국 대비 농림·어업 부문은 2.4배 이상 높은 반면 광·공업 부문은 1/5수준에 불과함.
- 산업별 취업인구 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2000년 기간 중 취업인구가 매년 1.19% 증가하는 동안 농림·어업 부문은 연평균 3.0%로 감소되고 광·공업은 1990년 대비 변화가 거의 없으며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부문은 동기간 매년 3.64%의 현저한 증가 추세를 기록함.

<표 I-2-7> 산업별 취업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취 업 인 구	18,085 (100.0)	239 (100.0)	19,253 (100.0)	248 (100.0)	21,061 (100.0)	269 (100.0)	1.54	1.19
농 립 · 어 업	3,237 (17.9)	99 (41.4)	2,534 (12.4)	77 (31.0)	2,288 (10.86)	73 (27.1)	△3.41	△3.0
광 · 공 업	4,990 (27.6)	10 (4.2)	4,824 (23.6)	13 (5.2)	4,262 (20.24)	10 (3.7)	△1.56	0
사회간접자본 및 서 비 스 업	9,858 (54.5)	130 (54.4)	13,074 (64.0)	158 (63.7)	14,511 (68.9)	186 (69.2)	3.94	3.64

자료 : 통계청, 「산업총조사보고서」, 각년도 및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를 재구성함.

라. 지역내 총생산

- 2000년 현재 잠정 지역내총생산(GRDP)은 4조7,880억원으로 전국 지역내총생산 503조 4,520억원의 약 1.0%로 매우 적은 경제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0.4%로 전국 수준보다 약간 낮음.

<표 I-2-8> 지역내 총생산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전 국	177,114 (100.0)	357,722 (100.0)	503,452 (100.0)	11.0
	제주도	1,788 (1.0)	3,742 (1.0)	4,788 (1.0)	10.4

주 : 2000년 지역내 총생산 자료는 잠정수치임.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및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를 재구성함.

4. 지표로 본 제주도의 위상

-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1%로 전국 연평균 증가율 1.17%보다 낮으며 인구밀도는 1km²당 294명으로 전국 인구밀도 477명보다 훨씬 적음.
- 1인당 총생산은 892만6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72만원이 적음.
- 도로포장율 82%, 상수도 보급율 99.9%, 주택보급율 97.08%로 전국평균율보다 높음.
- 하수도 보급율은 62.5%로 다소 낮음.
- 의사수는 인구 1천명당 4.6명임.

<표 I-2-9> 지표로 본 제주도의 위상

구 분		단 위	1990			2000		
			전 국(A)	제주도(B)	B/A	전 국(A)	제주도(B)	B/A
연 평 균 인 구 증 가 율		%	1.60	1.12	0.70	1.17	0.51	0.44
인 구 밀 도		인/km ²	438	282	0.64	477	294	0.61
고 용	1차 산업 종사자	천인	3,292	99	0.03	2,288	73	0.03
	2차 산업 종사자	천인	4,298	9	0.002	4,262	10	0.002
	3차 산업 종사자	천인	10,446	128	0.01	14,511	186	0.013
소 득	1인당 총생산	천원/인	4,007	3,337	0.83	10,649	8,926	0.84
기 반 시 설	도 로 연 장	m/인	1.3	4.3	3.31	1.89	4.78	2.53
	도 로 포 장 율	%	71.5	63.6	0.89	74.7	82	1.07
	상 수 도 보 급 율	%	78.3	99.9	1.28	86.1	99.9	1.16
	용 수 사 용 량	ℓ/인/일	369	259	0.70	388	319	0.82
	하 수 도 보 급 율	%	61.3	38.1	0.62	65.9	62.5	0.95
생 활 환 경	주 택 보 급 율	%	63.0	68.4	1.25	94.1	97.08	1.03
	전 화 보 급 율	대/100인	31.0	27.4	0.88	52.2	40.7	0.78
	의 사 수	인/천인	1.2	0.5	0.42	5.1	4.6	0.9

주 : 2000년 1인당 총생산 자료는 잠정수치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및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1 자료를 재구성함.

제2절 국내·외적 여건 변화 분석

1. 국외 여건의 변화

- 글로벌(Global)화된 세계경제로 인해 국경의 의미가 점차 감소되고 노동, 상품, 자본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음.
- 산업의 중심적 영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정보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
- 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동북아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함.
- 일본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장기 불황 속에 있으며 중국은 WTO 가입 등 적극적으로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도모하고 있음.
- UN 해양협약의 발효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가 도입되어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경쟁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 국가간 교류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NGO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

2. 국내 여건의 변화

- 중앙집권적 행정구조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지방정부의 책임이 증가하고 있음.
- IMF 관리체제 이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광개발과 외자유치에 전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 남북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긴 하지만 교류가 확대될 경우, 북한의 개방은 제주관광에 부분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02년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경기대회는 한국의 국가적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행정서비스가 점차 민간부문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경영마인드와 고객 지향적 행정의 이념이 강조되고 있음.

3. 제주도의 여건 변화

가. 내부여건

-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발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동법을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으로 개정·공포함.
- 2001년 6.15 남북정상 회담 이후 남북고위급 회담, 북한 감귤보내기 운동,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 추진 등 제주도가 남북교류의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주도는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은 지역으로 1998년부터 4개 시·군이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여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추진중임.
- 1998년 4월부터 중국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됨.

나. 외부여건

-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제중추관리부문, 국제교류·협력부문, 국제행정·외교부문, 지역기업의 국제화부문, 국제물류·유통부문, 국제 문화관광부문 등을 대상으로 한 교류·협력기능 강화가 과제임.
-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 학자, 외교관, 언론인, 경제인들이 참가한 “제주평화포럼” 개최와 4·3의 인도주의적 해결 추진 등 평화의 섬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평화 관련 기구 유치를 추진 중임.
- 세계경제권의 블록화 추세와 남북통일을 고려하여 동북아경제권의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이업종 공동연구, 신소재 개발, 정보통신산업 및 창업보육(TBI), S/W 응용 개발, 자원 활용 및 에너지 개발, 시제품 생산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구축함.

제3장 관련계획 검토 및 평가

제1절 관련계획 검토

1. 제주도 개발계획의 연혁

가. 제주도자유지역 설정 구상(1963년)

-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에 따라 ‘제주도건설연구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었음. 자유항 혹은 자유지역 조성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음.

나.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71년)

- 1971년 건설부가 수립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권역별 계획으로 수립되었음.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최초의 도계획으로, 중문관광단지 개발이 착수되었음.

다. 제주도관광종합개발계획(1973년)

- 국제수준의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관광기획단’ 주도로 수립되었음. 이 계획에 따라 중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관광지 조성이 추진되었음.

라.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2001년)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하여 도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고 장래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였음.

마. 제주경제발전5개년계획(1999년)

- 제주지역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경제 정책을 제시한 계획임.

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2001년)

-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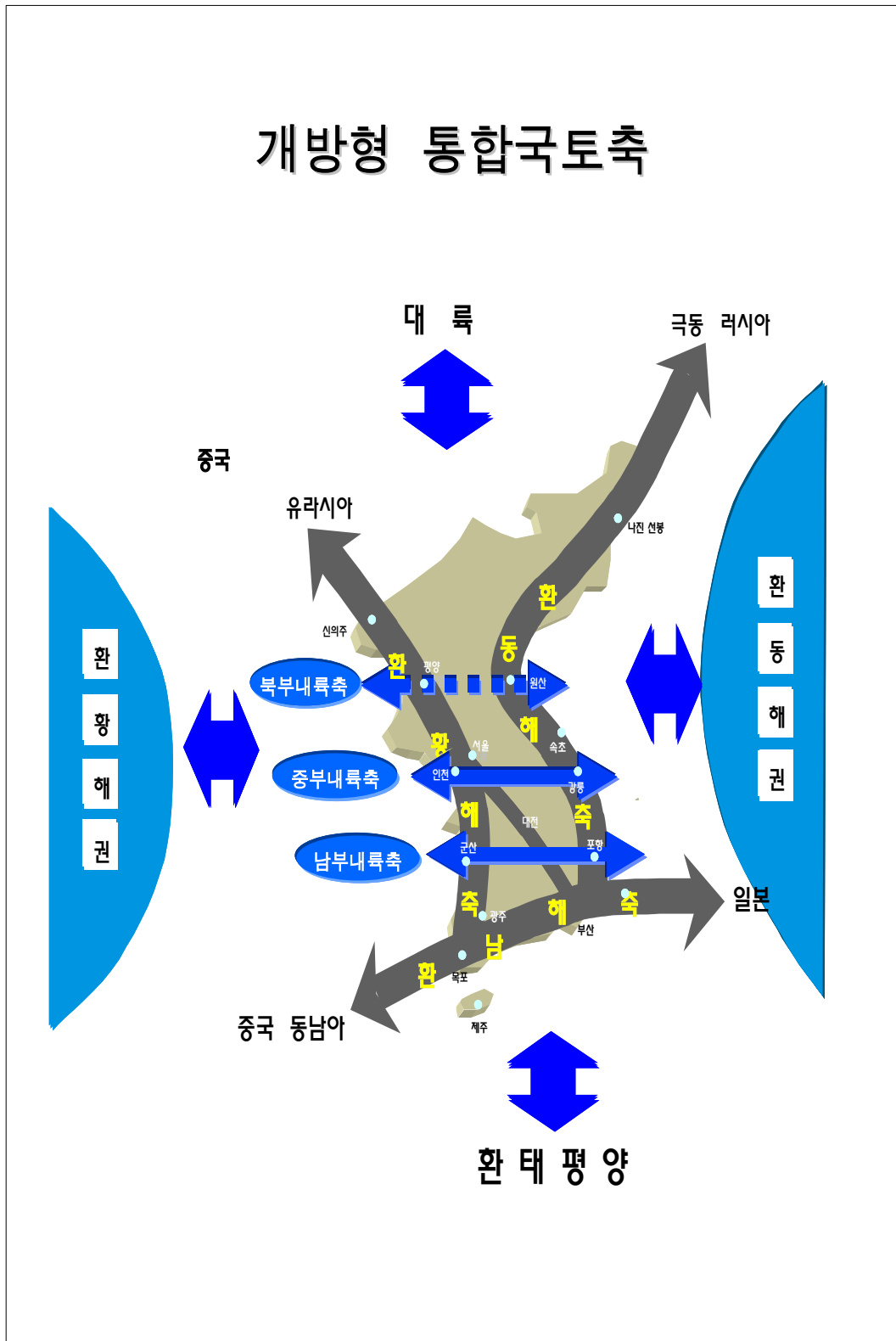
2.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가. 기본목표

- 21세기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기반을 확충하며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관광, 비즈니스, 물류, 교역, 금융 등 지식기반산업의 복합적 전략기지로써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
-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존·개발을 통하여 첨단생명공학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족관, 미래해양관 등을 갖춘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을 건립하는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자립경제 기반체제를 구축함.
- 제주국립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관광민속관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탐라시대 역사문화권을 개발을 통하여 제주문화의 세계화를 통한 동북아 관광 중심축으로 부상함.

나. 발전방향

-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자유도시 건설 : 동북아 경제 및 학술 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분쟁해결의 장으로서 각국 정상회담 및 주요 국제회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리조트형 컨벤션센터 등 물적 기반을 구축함.
- 첨단생명공학산업의 육성 : 다양한 생물자원과 유전자원을 활용한 첨단생명공학 산업을 육성하고 농·수·축산물의 종자생산기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해양수족관, 미래해양관 등을 갖춘 해양수산종합과학관을 건립함.
- 동북아 국제관광의 중심지로 부상 : 2천년 역사를 지닌 탐라문화의 보전과 재조명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특이한 섬문화 등 관광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세계적 관광 휴양지로 개발함.
- 지역문화의 세계적 관광자원화 : 제주국립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관광민속관 등 인근 문화시설을 연계한 제주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성읍민속마을, 표선민속관광단지, 표선해수욕장 등을 연계한 동부권 문화 관광벨트를 구축함.
-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 보전 : 수문지질도 작성 등 수자원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정해역을 보전함으로써 21세기 관광·환경도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함.



<그림 I-3-1> 「제4차 국토계획」상의 국토개발축 구상도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

가. 투자계획 및 실적

- 계획기간 중 11조2,097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9조9,580억원의 113%를 달성하였음.
- 이는 생활권 정비와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결과임.
- 경제적 성장과 투자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농외소득개발과 관광개발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계획투자액보다 매우 부족하여 도민들은 전반적으로 투자가 미진하다고 느끼고 있음.

<표 I-3-1> 부문별 투자계획 및 실적 (1994~2001년)

(단위 : 억원)

구 분	1994~2001 투자계획				1994~2001 투자실적				투자율 (%)
	계	국비	지방비	민자	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 계	99,580	24,770	15,291	59,519	112,097	28,699	17,624	65,774	113
I. 지역산업진흥	64,705	7,558	5,588	51,559	42,399	6,730	4,646	31,023	66
1.농 업	14,244	4,072	2,159	8,013	10,894	3,844	2,239	4,811	77
2.축 산 업	3,266	285	444	2,537	4,044	636	416	2,992	123
3.임 업	436	131	203	102	434	161	249	24	100
4.수 산 업	5,287	2,120	1,873	1,294	3,522	1,501	1,080	941	67
5.농외소득개발	1,433	195	86	1,152	269	30	71	168	19
6.관 광 개 발	38,843	339	611	37,893	22,692	452	426	21,814	58
7.제 조 업	1,196	416	212	568	544	106	165	273	45
II. 자연환경보전	3,731	2,157	1,344	230	3,258	1,369	1,654	235	87
1.한 라 산 보 전	426	389	30	7	128	95	32	1	30
2.환경 오염 방지	3,018	1,691	1,216	111	2,955	1,219	1,545	191	98
3.중 산 간 보 전	287	77	98	112	175	55	77	43	61
III. 생활권 정비	14,261	5,369	5,297	3,595	35,828	7,459	6,940	21,429	251
1.생활환경정비	8,425	2,318	3,118	2,989	26,798	1,989	4,003	20,806	318
2.교 육	1,527	1,033	294	200	3,949	3,186	451	312	258
3.향토문화보존	2,196	984	962	250	3,064	1,437	1,511	116	140
4.청 소 년 육 성	186	58	63	65	351	123	144	84	189
5.보 건 의 료	1,927	976	860	91	1,666	724	831	111	86
IV. 기반시설	16,883	9,686	3,062	4,135	30,612	13,141	4,384	13,087	181
1.도 로	10,667	7,804	2,783	80	13,039	9,319	3,688	32	122
2.항 만	1,070	1,070	-	-	2,267	2,267	-	-	212
3.공 항	280	-	-	280	1,357	395	-	962	485
4.에 너 지, 통 신	3,775	-	-	3,775	12,180	103	33	12,044	324
5.수 자 원 개 발	1,091	812	279	-	1,551	991	560	0	142
6.교 통 시 설	-	-	-	-	218	66	103	49	218

자료 : 제주도 내부자료, 2001.

-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2조8,699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2조4,770억원의 115%, 지방비는 1조7,624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1조5,291억원의 115%, 민자는 6조5,774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5조9,519억원의 110%를 달성하였음.
- 부문별로 보면 지역산업진흥 분야에 4조2,399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6조4,705억원의 66%에 불과하였음.
- 이는 농외소득개발 분야(계획액의 19%), 관광개발 분야(계획액의 58%), 제조업 분야(계획액의 45%)에서의 투자가 미진한 결과임.
- 특히 국비와 민자투자가 부진함(농외소득개발 분야 : 국비 15%, 지방비 83%, 민자 15% 달성, 제조업 분야 : 국비 25%, 지방비 78%, 민자 48% 달성, 관광개발 : 국비 133%, 지방비 70%, 민자 58% 달성).
- 자연환경 보전 분야는 3,258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3,731억원의 87%를 달성하였음. 이는 한라산 보전 분야에서의 투자가 미진한 결과임(계획액의 30% 달성).
- 생활권 정비 분야는 3조5,828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1조4,261억원의 251%를 달성함. 이는 생활환경 정비 분야(계획액의 318%)에서 민자유치, 교육분야(계획액의 258%)에서 국비 투자, 향토문화 보전 분야(계획액의 140%)에서 지방비 투자가 초과 달성된 결과임.
- 기반시설 분야는 3조612억원이 투자되어 계획액 1조6,883억원의 181%를 달성하였음.

나. 계획상 발전지표 및 달성도

(1) 인 구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에서 제시된 2001년의 계획인구는 57만8천명이었지만 실제인구(2000년)는 목표 대비 3만6천명이 부족한 54만2천명임.
- 지표상 1.05%의 연평균 증가를 예상하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0.51%에 불과하고, 전국 연평균 인구증가율 0.98%보다 낮음. 이는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부진과 더불어 산업구조가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사회적 유동인구를 강하게 유인할 수 없었기 때문임.

<표 I-3-2> 계획인구 및 달성도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7		2001		연평균 증가율	
		지표	실제치	지표	실제치('00)	지표상('90~'01)	실제상('90~'00)
전 국	42,869	45,642	45,991	47,150	47,274	0.87	0.98
제 주 도 총 인 구	515	557	528	578	542	1.05	0.51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제주통계연보」 및 제주도 내부자료, 2001.

- 제주지역의 시·군별 인구 동향을 보면 2001년 제주시 계획인구는 30만명이었지만 실제 인구는 (2000년) 27만9천명임.
- 2001년 서귀포시 계획인구는 10만 명으로 설정되었으나 실제인구 (2000년)는 목표대비 1만5천명이 부족한 8만5천명임.
- 2001년 북제주군 계획인구는 10만 명이었으며 실제인구도 목표를 달성하였음.
- 2001년 남제주군 계획인구는 7만8천명이었으며 실제인구도 목표를 달성하였음.
- 실제적인 인구증가 추세를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지역은 연평균 1.27% 증가한 반면 군지역은 연평균 0.86% 감소하였음.
- 제주시로의 집중화 현상은 제주시의 심각한 도시문제 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도 저해시킴.

<표 I-3-3> 시·군별 인가지표 및 달성도

(단위 : 천명, %)

구 분	1990	1997		2001		연평균 증가율	
		지표	실제치	지표	실제치('00)	지표상('90~'01)	실제상('90~'00)
전 체	515(100)	557(100)	528(100)	578(100)	542(100)	1.05	0.51
시 지 역	321(62.3)	373(66.9)	351(66.5)	400(69.2)	364(67.1)	2.02	1.27
제 주 시	233(45.2)	277(49.7)	266(50.3)	300(51.9)	279(50.5)	2.32	1.82
서귀포시	88(17.1)	96(17.2)	84(16.2)	100(17.3)	85(16.6)	1.17	△0.35
군 지 역	194(37.7)	184(33.1)	177(33.5)	178(30.8)	178(32.9)	△0.78	△0.86
북제주군	109(21.1)	104(18.7)	98(18.5)	100(17.3)	100(18.4)	△0.78	△0.86
남제주군	85(16.6)	80(14.4)	78(15.0)	78(13.5)	78(14.5)	△0.78	△0.86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제주통계연보」 및 제주도 내부자료, 2001.

(2) 경제 및 산업분야

-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1년 6조6,560억원을 목표로 하였지만 실제적(2000년)으로는 4조7,876억원에 불과하였음.
- 실제적인 연평균 증가율은 11.2%로 전국 지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1990~1998년) 11.4%보다 낮게 나타났음.
- 산업별로 보면 1차산업은 목표대비 69%, 2차산업은 목표대비 57%, 3차산업은 목표대비 74%에 불과하였음.
- 산업구조를 보면, 2001년 1차산업 23.3%, 2차산업 4.7%, 3차산업 72.0%로 예측하였으나 실제(2000년)는 1차산업 22.4%, 2차산업 3.8%, 3차산업 73.8%임.

<표 I -3-4> 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예측지표와 달성도

(단위 : 억원, %)

구 분	1990	1997		2001		증가율	
		지 표	실제치	지 표	실제치('00)	지표상('90~'01)	실제상('90~'00)
계	16,637(100)	39,810(100)	44,660(100)	66,560(100)	47,876(100)	13.43	11.15
1차산업	6,009(36.1)	10,990(27.6)	10,772(24.1)	15,510(23.3)	10,719(22.4)	9.00	5.96
2차산업	913(5.5)	2,010(5.1)	1,653(3.7)	3,160(4.7)	1,799(3.8)	11.95	7.02
3차산업	9,715(58.4)	26,810(67.3)	32,235(72.2)	47,890(72.0)	35,358(73.8)	15.61	13.79

주 : 지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지표이며 실제치는 2000년도 기준임.

자료 : 「제주통계연보」 및 제주도 내부자료, 2001.

- 계획기간 중 농가인구는 1990년 16만4천여 명에서 2001년 11만4천여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실제(2000년)로는 지표보다 1만5천여 명이 증가한 12만9,187명임.

<표 I -3-5> 농업분야 발전지표 및 달성도

(단위 : %)

구 분	단 위	1990	1997		2001		증가율	
			지 표	실제치	지 표	실제치('00)	지표상('90~'01)	실제상('90~'00)
농 가 인 구	명	164,123	139,000	135,193	114,000	129,187	△3.26	△2.37
농 가 구	호	40,147	37,568	40,223	32,571	39,105	△1.88	△0.26
경 지 면 적	ha	54,788	52,600	56,517	51,000	59,207	△0.59	0.84

주 : 지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지표이며 실제치는 2000년도 기준임.

자료 : 「제주통계연보」 및 제주도 내부자료, 2001.

- 계획기간 중 농가인구는 연평균 3.26%의 감소를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2.37%가 감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경지면적은 1990년 5만4천여ha에서 2001년 5만1천ha로 예측하였지만 실제로는(2000년) 지표보다 8,207ha가 증가한 5만9천여ha임. 계획기간 중 경지면적은 연평균 0.5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실제로는 0.84% 증가하였음.

(3) 관광분야

- 계획기간 중 관광객 수는 1990년 299만2천명에서 2001년 549만7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실제(2000년)로는 411만 명에 머물렀음.

<표 I -3-6> 관광분야 발전지표 및 달성도

구 분		단 위	1990	1997		2001		연평균 증가율(%)	
				지표	실제치	지표	실제치('00)	지표상 ('90 ~ '01)	실제상 ('90 ~ '00)
관 광 객 수	외국인	천명	235	A) 400	184	A) 470	288	7.18	2.32
				B) 380		B) 460		6.95	
				C) 370		C) 480		7.40	
				D) 470		D) 660		10.88	
	내국인	천명	2,757	A) 3,950	4,179	A) 4,810	3,822	5.72	3.70
				B) 3,960		B) 4,650		5.37	
				C) 4,080		C) 5,280		6.71	
				D) 4,320		D) 5,180		6.51	
관 광 수 입		억원	4,319	-	10,756	-	14,975	14.81	

주 : 1) A는 Brown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치임, 2) B는 Holt 선형평활법에 의한 예측치임, 3) C는 추세 분석법에 의한 예측치임, 4) D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예측치임.

- 외국인 관광객 수는 1990년 23만5천명에서 2001년 51만7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실제(2000년)로는 목표대비 56%에 불과한 28만8천명임.
- 제주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 2.32%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연평균 증가율 4.5%보다 낮은 편임.
- 내국인 관광객 수는 1990년 275만7천명에서 2001년 4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실제(2000년)로는 목표대비 76%에 불과한 382만2천명에 그쳤음.
- 관광수입은 1990년 4,319억원에서 2000년 1조4,9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0년도부터 새로운 여행경비기준 산출표를 적용한 결과임.

(4) 문화·예술분야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에서는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지표를 설정하지 않고 다만 199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자치단체의 확충계획만을 언급하였음.

<표 I -3-7> 문화시설 확충계획 및 달성도

구 분	1992	2001	
		확충계획	실제치('00)
공 공 도 서 관	7	2 (총 9개)	9 (총 16)
박 물 관	5	2 (총 7개)	2 (총 7)
전 시 시 설	7	2 (총 9개)	4 (총 11)
공 연 시 설	15	4 (총 19개)	2 (총 17)

주 : 지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지표이며 실제치는 2000년도 기준임.
 자료 : 「제주통계연보」 및 제주도청 내부자료, 2001.

- 계획기간 중 공공도서관은 1992년 7개에서 2001년 9개로 확충할 계획이었지만, 실질적(2000년)으로는 16개로 초과 달성하였음.
- 박물관은 1992년 5개에서 2001년 7개로 확충할 계획이었고 실제(2000년)에 있어서도 7개로 목표 달성하였음.

(5) 사회간접자본 분야

- 2001년 총도로연장은 2,379km로 계획되었으나 실제(2000년)는 2,619km로 초과 달성함.
- 2001년 자동차는 17만9,4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적(2000년)으로는 16만4,360대임.

<표 I -3-8> 도로 포장 및 자동차 보급률

구 분	단 위	1990	1997		2001	
			지표	실제치	지표	실제치('00)
총 도로 연 장	km	2,206	2,287	2,526	2,379	2,619
도 로 포 장 율	%	63.6	79.3	78.2	91	82
국 도	%	95.8	100	100	100	100
지 방 도	%	73.4	91.2	86.2	100	85.4
시 군 도	%	54.2	71.2	72.2	86.8	77.3
자 동 차 등 록 수	개	43,185	133,510	137,351	179,400	164,360

주 : 지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지표이며 실제치는 2000년도 기준임.
 자료 : 「제주통계연보」 및 제주도 내부자료, 2001.

제2절 추진실적 평가 및 과제

1. 추진실적 평가

- 지역의 개발고권 확보 및 주민참여의 제도화 기틀 마련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하여 개발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계획 수립 및 집행, 그리고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을 행사함.
-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한라산과 오름 일부 등을 ‘국제연합 교육과 학문화기구’(UNESCO)의 ‘생물권 보전지역(Biosphere Reserve Area)’으로 등록을 추진하여 세계 생물권 보전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자연환경 보전의 기틀 마련 :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특별관리지구로 나누어 지정하고, 습지보호지역·생태계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등 다양한 환경보전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 중이어서 자연환경 보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 전국 최초로 도내 습지 분포실태 조사 : 습지분포에 대한 전국 최초 조사 실시. 제주도를 전국 유일의 청정지역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음.
- 향토문화의 창조적 계승 : 지역의 문화예술을 체계적·전문적·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제주예술의 세계화 기반을 조성하며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설립함.
- 1차산업의 보호 육성책 추진 : 감귤농가의 안정적 소득 확보를 위해 「감귤생산조정및 유통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등 생산 조정 및 유통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환경농업기반 조성 : 구제역 청정지역 지정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축산단지 조성 등 제주의 양돈산업을 깨끗한 이미지와 연계하여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어촌복합경영기반 조성 : 기르는 어업 육성, 어촌종합개발,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어민 소득과 수출 증대의 기반을 마련하였음.
- 국제적 수준의 관광여건 조성 : ‘제주세계섬문화축제’, ‘국제시민마라톤대회’, ‘아·태 영화제’ 등 국제적 이벤트 개최를 정례화하고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2. 과제 및 개선방안

- 환경 변화에 부응한 정기적인 보완계획 미수립 : 급변하는 시장 및 경제 상황에 부응한 정기적인 보완계획을 수립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관광단지 및 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투자, 금융시장, 관광시장, 1차산업, 첨단산업 시장 등과 관련된 제도와 상황 변화를 추적하는 전문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개발계획도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피드백(feed-back)장치를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보완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함.
- 종합개발계획과 하위부문별 계획 간의 상충 : 현행 종합계획과 독립적 계획으로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여타의 부문별 진흥계획과 충돌,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음.
 - 부문별 진흥계획 수립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계획 간의 상충 문제를 조정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민간자본 유치의 부진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가 부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투자금융시장의 상황 변화, 제시된 개발목표의 비현실성, 투자인센티브의 부족 등으로 파악됨.
 - 개발목표의 현실성 제고, 투자금융시장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접근 노력 제고 등을 통하여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유치체제를 구축함.
- 지역간 형평성 논리에 근거한 정부투자의 소극성 : 중앙정부는 지역간 형평성 논리로 인해 제주에 대한 집중 투자가 곤란한 상태이고 특히 IMF 관리체제 이후 변화하는 중앙정부의 산업 정책적 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국익과의 조화된 지역개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제주 개발투자에 대한 경제적·정치적 유인을 확보하지 못함.
- 공급자 위주의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개발방식에 대한 제고 필요 :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를 우선 지정하고 여기에 개별허가 방식을 일부 수용하는 혼합방식 개발방식을 채택하였으나 투자 상의 장애요인과 외부여건의 변화로 투자유치가 순탄치 않음.

3. 본 계획 수립의 주안점

- 21세기 발전패러다임과 지식기반경제 개념을 도입·적용함 : 인간, 환경, 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21세기 발전패러다임을 근간으로 지역의 물리적·경제적 성장 도모를 계획의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20세기 산업화사회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부응하여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지향함.
-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21세기 미래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쟁력을 확보함 : 총량적인 지역경제 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역의 전통산업인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을 고도화하면서 IT, BT, 문화산업 등 21세기 핵심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 구조를 개편함.
- 지역혁신과 성장의 추진체인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둠 : 열악한 도세에도 불구하고 지역혁신과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열쇠는 지역의 인재 양성에 있다는 인식 아래 지역적 시각과 국제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둠.
- 지역의 잠재력 분야를 현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 : 국제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과 정보를 수집·가공·활용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는 다루지 않은 정보화전략을 제시함.
- 국제화 전략을 강화함 : 경제적 세계화에 부응하여 해외자본 및 상품시장에 대한 공략을 기본전략의 하나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발전전략에 반영함. 특히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이익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제주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함.
- ‘하나의 제주’라는 단일 생활권 개념을 적용하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함.
- 기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는 각 부문별 계획은 정책의 일관성과 생활의 안정성 차원에서 수용하였지만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현실적 타당성이 부족한 내용은 수정·보완하였음. 나아가 지역의 지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중앙인사를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과 중앙시각과의 연계를 도모함.

제1장 발전 잠재력과 도민의식

제1절 발전 잠재력과 제약요인 : SWOT 분석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강점의 극대화, 약점의 극복, 기회의 활용 및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표 II-1-1> SWOT분석 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강 점 (Strength)	· 지정학적 동북아지역의 중심지
	· 도서지역으로서 차별화된 법령 적용 가능성
	· 뛰어난 자연환경과 양호한 기후 조건
	· 환경 친화적인 양질의 1차 산업
	· 낮은 범죄율과 안전한 생활환경
	· 국제공항과 수심 깊은 항구 보유
	·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 입지
	· 광범위한 편의시설과 관광산업 기반시설 확보
	· 도로 및 전력·통신 기반시설 확보
약 점 (Weakness)	· 지리적 고립성과 높은 물류비용
	· 중산간지역 개발의 한계
	· 인구 규모의 한계와 제조업 수요의 부족
	· 체류형 관광상품 자원의 부족
	· 지역경제 규모의 영세성
	· 숙련된 노동력의 부족과 고급인력의 역외유출
	· SOC의 한계
기 회 (Opportunity)	· 전·국·수·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과 외국인 투자유인책 부족
	·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도서지역의 입지적 한계 극복
	· 중국의 해외여행자유 확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 예상
	· 남북교류의 확대와 교차관광 특수기대, 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
위 험 (Threat)	· 월드컵축구경기대회 개최와 국제적 지명도 제고
	· IMF 이후 국가경제의 침체와 지역 생산활동의 위축
	· 중국의 WTO 가입과 감귤산업의 불투명한 미래
	· 동북아 여타 지역의 유사한 개발계획
	·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경쟁 심화
	·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관광지역과의 경쟁
	· 남북교류의 확대로 관광수요 감소 가능성

1. 강점(Strength)

- 지정학적으로 중국, 대만, 일본의 주요 도시들과 인접해 있어 동북아지역의 중심이라는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도서지역으로 국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법령 및 계획의 적용이 가능함.
- 뛰어난 자연환경과 양호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환경 친화적 양질의 1차산업 생산품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마케팅에 유리함.
- 하이테크 산업에 적합한 깨끗한 공기와 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들이 입지하고 있음. 나아가 광범위한 편의시설과 국제수준의 호텔을 포함하는 관광산업 기반시설을 갖춘.
- 범죄율이 낮고 치안 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적 수준의 공항과 수심 깊은 항구 보유, 간선도로의 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진 편임. 신뢰할만한 전력 및 통신기반 시설을 구비함.

2. 약점(Weakness)

- 지리적 고립성으로 높은 물류비용, 섬의 상당부분이 중산간지역으로 개발에 부적합함. 인구 규모의 한계로 독자적 제조업 수요시장 미형성
- 체험형 혹은 체류형 관광상품 자원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음. 대외 의존적 지역경제체 제와 열악한 지방재정
- 숙련된 노동력과 국제 비즈니스 및 관광산업 종사자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함.
- 젊고 우수한 인력의 역외유출 현상이 심화됨.
-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자본 투자가 요구됨.
- 전국수준보다 강화된 환경기준 적용과 지역개발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행이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3. 기회요인(Opportunity)

- 제주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제주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됨.
- 고도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도서지역의 입지적 한계가 극복됨.
-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확대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
- 남북교류가 확대될 경우 한라산-백두산 교차관광의 특수를 기대할 수 있고 남북한 고위급 회담의 개최지로 평화의 섬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음.
-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대회 개최지로 제주도의 국제적 지명도가 높아질 수 있음.

4. 위협요인(Threat)

- 시장개방에 따라 특히 1차산업의 타격이 예상됨. 중국의 WTO 가입으로 감귤산업 등 농업부문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됨. 국내 및 동북아 여타지역의 유사한 개발계획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가능성이 위축됨.
-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경쟁이 심화됨.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지역 관광지와 관광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타 자치단체 및 북한과의 관광경쟁 관계가 예상됨.
- 국제적인 교역자유화가 진전됨에 따라 상품, 서비스, 자본, 심지어는 인력까지도 국제간 자유거래가 실현됨과 동시에 정보와 문화의 실시간 교류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존의 국경이 큰 의미가 없는 지구촌 경제 사회가 형성될 것임.
- 특히 정보기술과 생명과학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신생산업의 경우 선진기업들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국제공통규격 및 표준을 설정하고 기술을 독점함으로써 신규기업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국제적 독점화를 추구하고 있음.
- 더구나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함. 이에 따라 국내기업 투자의 공간적인 범위는 국경을 초월하여 급격히 해외로 확대될 것임.

제2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 모집단 :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남·녀
- 표본크기 : 1,050명
- 표본추출방법 : 지역별 할당표본추출법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방법 : 1:1 개별 면접에 의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법
- 조사기간 : 2001년 2월 22일 ~ 2001년 2월 26일

2. 조사 결과

- 관광개발의 성과에 대해 53.8%가 ‘보통’, 24.1%가 ‘있음’, 22.1%는 ‘없음’으로 나타남.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의견조사에서는 관광개발의 성과에 대해 47.2%가 ‘성과 있었다’, 44.7%가 ‘그저 그렇다’, 8.1%가 ‘성과 없었다’로 나타났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47.2%→24.1%로 나타남에 따라 관광개발의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줄어들고 있음.

<표 II-1-2> 관광개발의 성과

성 과 있 음	보 통 이 다	성 과 없 음	계
24.1%	53.8%	22.1%	100.0%

- 관광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 필요’ 62.7%, ‘필요하지만 방법의 전환 필요’ 23.4%, ‘현재 속도로 추진’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의견조사에서는 관광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관광개발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81.5%), ‘더 이상의 관광개발은 필요 없다’는 사람들(5.5%)보다 ‘지금과 같은 관광개발이 지속되는 것이 좋다’(11.5%)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1-3> 관광개발의 필요성

지금보다더적극적인 추진필요	방법의 전환 필요	현재 속도로 추진	계
62.7%	23.4%	8.6%	100.0%

- 관광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유치 방법 활용’ 37.2%, ‘공공재원’ 37.1%, ‘외국자본’ 8.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II-1-4> 관광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방안

구분 비율	모든 투자 유치 방법	공공재원	외국자본	국내자본	도내자본	기타
계(100%)	37.2	37.1	8.6	8.5	7.3	1.3

-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32.7%, ‘지역주민의 확고한 의지’ 24.9%, ‘지역주민의 의사 적극 수용’ 20.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II-1-5>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한 중요 요소

구분 비율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지역주민의 확고한 의지	지역주민 의사 적극수용	외부자본 적극적 유치	도민자본 최대한 활용	기타
계(100%)	32.7	24.9	20.4	13.0	7.1	1.8

- 관광 진흥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주민소득 증대’ 25.2%, ‘자연환경 보호’ 24.7%, ‘도민참여 확대’ 17.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표 II-1-6> 관광 진흥을 위한 과제

주민소득 증대	자연환경 보호	도민참여 확대	고용 창출	전통문화 보존	편의시설 확충	도민주체 개발	사회문제 예방 등	합계
25.2	24.7	17.2	11.0	7.6	6.6	5.5	2.2	100.0%

-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54.7%가 ‘불충분’, 41.4%가 ‘보통’, 3.9%가 ‘충분’으로 나타나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남.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의견조사와 비교해 볼 때, 제주지역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은 57.2%→54.7%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충분하다는 의견도 14.8%→3.9%로 감소하였음.

<표 II-1-7>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정도

불	충	분	보	통	충	분	계
	54.7%		41.4%		3.9%		100.0%

-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사회·문화·경제적 혜택 여부에 대해서는 51.5%가 ‘없음’, 29.6%가 ‘보통’, 18.9%가 ‘있음’으로 나타나 그 혜택이 없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1-8> 지역개발 과정에서 주민혜택 여부

혜	택	없	음	보	통	혜	택	있	음	계
	51.5%			29.6%		18.9%				100.0%

-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역특산물 육성’ 37.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21.5%, ‘과학영농기술 보급’ 12.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다양화’ 27.9%, ‘재정적 지원과 적극적 홍보’ 24.6%, ‘대중화’ 16.6%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59.2%가 ‘보통’, 28.9%가 ‘불만족’, 12.0%는 ‘만족’으로 나타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의 주거분야 만족도에 대해서는 49%가 ‘만족’, 43.6%가 ‘보통’, 7.4%는 ‘불만족’으로 나타나 거주지역의 주거분야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에서 자녀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시설 열악’ 35.8%, ‘학생수 감소’ 26.8%, ‘자녀의 타지 학교로의 통학’ 14.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확충되어야 할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수영장’ 46.9%, ‘기타’ 12.8%, ‘축구장’ 11.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거주지역에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32.6%, ‘하수종말 처리시설’ 30.4%, ‘쓰레기 소각·매립장’ 28.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해양개발을 위해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오염 방지 및 관리’ 42.7%, ‘해양관광’ 21.0%, ‘수산업·수산물 가공업’ 13.5%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어교육’ 40.4%, ‘친절 서비스’ 36.7%, ‘정보통신’ 12.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정보화를 위해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화 교육’ 45.0%, ‘관광 분야’ 14.0%, ‘농·수·축산업 분야’ 12.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재해·재난체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55.6%가 ‘보통’, 27.8%가 ‘그렇지 않다’, 16.6%는 ‘그렇다’로 나타나 보통이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6.1%가 ‘필요’, 35.1%가 ‘불필요’, 28.7%가 ‘보통’으로 나타나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남.
- 행정구역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1도 2시 2군 체제’ 26.8%, ‘시·군제 폐지’ 21.7%, ‘1도 2시 체제’ 19.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국제화를 추진하는데 가장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의식’ 44.6%, ‘외국어구사능력’ 33.2%, ‘문화’ 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1세기 제주도가 나아가 할 발전방향(중복응답)은 ‘쾌적한 생활환경’(92.1%), ‘국제관광지역’(87.4%), ‘국제적 교역중심지역’(70.4%), ‘과학영농의 중심지역’(69.4%), ‘첨단산업지역’(58.2%), ‘물류·유통의 중심지역’(5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년)상의 의견조사에서는 바람직한 제주도의 미래상은 무엇인가에 대해 ‘자연이나 농촌경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소박한 생활분위기’라고 보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61.8%), 다음이 현대적인 관광지(12.3%)로 나타났음.

<표 II-1-9> 제주개발 방향의 미래상

발전방향 지지율	쾌적한 생활환경지역	국제 관광지역	국제적 교역중심지역	과학영농의 중심지역	첨단산업지역	물류·유통의 중심지
찬성비율	92.1	87.4	70.4	69.4	58.2	57.3

제2장 계획지표의 설정과 전망

제1절 인구지표

1. 총인구

- 제주도 총인구의 예측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음.
 - 첫째는 시계열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면서 최근의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인 Holt-Winters 예측모형을 이용하였음.
 - 둘째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서의 인구 예측치를 이용하였음.
 - 이 두 가지 방법에 근거하여 최대 및 최소 시나리오에 따른 인구를 예측한 후 두 시나리오의 평균치를 최대확률 시나리오로 정의하고 최종예측치로 정함.
- 최대확률 시나리오에 따른 경우 제주도의 총인구는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1.21%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58만4천명에 달하고,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1.2%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62만 명에 달할 것임.
- 제주도 총인구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13%에서 2011년에는 1.2%로 증가함.
- 장래 제주도 인구전망을 전국 인구 전망보다 다소 높게 산정한 것은, 첨단산업단지 조성, 자유무역지대 조성, 외국인 장기체류 허용,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으로 인한 국제자유도시추진 인구유입 효과가 전국 평균 인구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표 II-2-1> 전국대비 총인구 추이 및 예측

(단위 : 천명, %)

연 도		1995	2000	2006	2011
구 분					
전국(A)		45,982	47,977 (0.85)	50,214 (0.76)	51,661 (0.57)
제주(B)	실 제 치	519.4	543.3 (0.9)	-	-
	최 소 시 나 리 오	-	-	574	600
	최 대 시 나 리 오	-	-	594	640
	최 대 확 률 시 나 리 오	-	-	584 (1.21)	620 (1.2)
비 중(B/A)		1.13	1.13	1.16	1.2

주 : 1)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나타냄. 2) ()는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1.

2. 인구구조

- 연령별 인구구조를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유년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2.07%였으나 2006년에는 22.63%, 2011년에는 20.76%에 달할 것임.
- 65세 이상의 노령화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99%였으나 2006년에는 9.83%, 2011년에는 11.0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년도인 2020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15~64세의 경제활동 가능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94%였으나 2006년에는 67.54%로 다소 줄었다가, 2011년에는 68.19%로 다소 늘어날 것임.

<표 II-2-2> 연령별 인구구조 추이 및 예측

(단위: 명, %)

구 분 연 도	0~14세	15~24세	25~54세	55~64세	65세 이상	합 계
1990	131,553 (25.57)	118,687 (23.07)	202,505 (39.36)	31,859 (6.19)	29,832 (5.79)	514,436 (100)
1995	118,927 (22.92)	102,338 (19.73)	222,845 (42.95)	41,003 (7.9)	33,723 (6.5)	518,836 (100)
2000	119,663 (22.07)	87,053 (16.05)	246,961 (45.53)	45,357 (8.36)	43,334 (7.99)	542,368 (100)
2006	131,885 (22.63)	75,839 (13.01)	268,442 (46.07)	49,318 (8.46)	57,261 (9.83)	582,745 (100)
2011	128,331 (20.76)	81,425 (13.17)	281,771 (45.59)	58,257 (9.43)	68,226 (11.05)	618,010 (100)

주 : 1) 1990년은 외국인을 제외한 인구주택총조사이며 그 외는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등록인구를 나타냄.

2) ()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3. 시·군별 인구 구성

- 시·군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제주시 인구는 2000년 현재 27만9천여 명으로 제주 지역 전체인구의 51.36%를 점하고 있음. 직장, 자녀교육, 생활환경 등의 요인으로 인한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제주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에는 전체인구의 52.66%, 2011년에는 53.7%를 점하여 2011년 제주시 인구는 33만3천여 명에 달할 것임.

- 인구의 제주시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타 지역의 인구 구성비는 감소할 것임. 서귀포시의 경우 2000년 현재 8만5천7백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5.78%를 점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5.56%, 2011년에는 15.6%를 점하여 2011년 서귀포시 인구는 9만6천7백여 명에 달할 것임.
- 북제주군의 경우 2000년 현재 10만3백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8.48%를 점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21%, 2011년에는 17.66%를 점하여 2011년 북제주군 인구는 10만9천4백여 명에 달할 것임.
- 남제주군의 경우 2000년 현재 7만8천백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4.38%를 점하였으나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06년에는 13.57%, 2011년에는 13.04%를 점하여 2011년 남제주군 인구는 8만8백여 명에 달할 것임.

<표 II-2-3> 시·군별 인구 추이 및 예측

(단위 : 명, %)

연 도 \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합계
1990	232,687 (45.22)	88,292 (17.16)	108,805 (21.14)	84,824 (16.48)	514,608 (100)
1995	255,602 (49.22)	85,489 (16.45)	98,409 (18.95)	79,894 (15.38)	519,394 (100)
2000	279,087 (51.36)	85,737 (15.78)	100,395 (18.48)	78,104 (14.38)	543,323 (100)
2006	307,603 (52.66)	90,869 (15.56)	106,363 (18.21)	79,265 (13.57)	584,100 (100)
2011	333,041 (53.7)	96,772 (15.6)	109,497 (17.66)	80,870 (13.04)	620,180 (100)

주 : 1) 외국인포함 인구를 나타냄. 2) ()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2절 경제지표

1. 총생산

가. 지역내총생산(GRDP)

- 2000년 잠정 우리나라 및 제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각각 503조원과 4조7천8백억 원임. 경상가격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지역내총생산에 대한 예측치는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지역총생산 예측치와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더하여 산출하였음.
-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10%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8조4천8백억 원으로 전국대비 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9.3%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3조2천3백억원으로 전국대비 1.14%에 달할 것임. 따라서 2011년 제주지역의 경제규모는 2000년의 2.76배에 달할 것임.
- 1995년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2000년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4조4천억 원으로 전국대비 구성비는 0.95%임.
- 제주의 지역내총생산 예측은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음.
 - 첫째는 시계열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면서 최근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인 Holt-Winters의 예측모형을 이용하였음.
 - 둘째는 국제자유도시 용역보고서의 지역내총생산 예측치를 이용하였음.
 - 이 두 가지 방법에 근거하여 최대 및 최소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내총생산을 예측한 후 이 두 시나리오의 평균치를 최대확률 시나리오로 정의하고 최종예측치로 정함.
- 최대확률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제주의 지역내총생산은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6.0%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6조2천3백억 원으로 전국대비 구성비는 1.0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5.7%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8조2천3백억 원으로 전국대비 구성비는 1.14%에 달할 것임.

<표 II-2-4>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및 예측

(단위: 10억원, %)

구 분 연 도	경상가격				불변가격('95년기준)			
	전국	증가율	제주	증가율	전국	증가율	제주	증가율
1990	177,114	17.1	1,788 (1.01)	18.3	247,735	10.1	2,796 (1.13)	8.3
1995	357,722	15.1	3,742 (1.05)	15.9	357,722	7.6	3,742 (1.05)	6.0
2000	503,452	7.1	4,788 (0.95)	5.1	465,188	5.4	4,401 (0.95)	3.3
2006	807,833	8.2	8,482 (1.05)	10.0	595,435	4.2	6,234 (1.05)	6.0
2011	1,165,152	7.6	13,231 (1.14)	9.3	724,437	4.0	8,232 (1.14)	5.7

주 : 1) 2000년 자료는 잠정치이고 전국은 국방 및 수입세가 제외된 금액을 나타냄. 2) 증가율은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3) ()는 전국대비 제주지역의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1.

<표 II-2-5> 지역내총생산(GRDP) 예측

(단위 : 10억원)

구 분 \ 연 도	2006	2011
최 소 시 나 리 오	5,864	7,203
최 대 시 나 리 오	6,604	9,262
최 대 확 률 시 나 리 오	6,234	8,232

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2000년 제주의 1인당 GRDP는 892만6천원이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7,895달러임.
- 2001~2006년 기간 중 제주지역의 1인당 GRDP는 연평균 8.77%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1,477만7천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2000년 환율로 계산하면 1만3,070달러임.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8.33%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2,205만1천원 또는 1만 9,504달러에 달할 것임. 이에 의하면 2011년 제주지역의 1인당 GRDP는 2000년의 2.47배에 달할 것임.
- 우리나라 1인당 GRDP에 대한 제주지역 1인당 GRDP의 비율은 2000년에는 83.8%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제주지역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전국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2006년에는 90.5%, 2011년에는 96.3%에 달할 것임.

<표 II-2-6>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추이 및 예측

(단위 : 천원, 달러, %)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전국	천 원	4,131	7,933 (13.9)	10,649 (6.07)	16,336 (7.39)	22,906 (6.99)
	달러(A)	5,836	10,289	9,419	14,449	20,260
제주	천 원	3,515	7,313 (15.78)	8,926 (4.07)	14,777 (8.77)	22,051 (8.33)
	달러(B)	4,964	9,485	7,895	13,070	19,504
비율(B/A)		85.1	92.2	83.8	90.5	96.3

주 : 1) 2000년 자료는 잠정치임. 2) 1인당 GRDP의 달러 전망치는 2000년 환율(1달러당 1130.6원)에 근거하여 산출함. 3) ()는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1.

2. 산업별 산출구조

- 199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 2000년 제주의 지역경제 규모는 4조4,010억원이었으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한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2006년에는 6조2,340억원, 2011년에는 8조2,320원에 달할 것임.
- 농림·어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농림·어업은 지속적인 생산 증대를 이루어 왔으나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2000년 농림어업의 경제규모는 1조1,970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임. 2001~2006년 기간 중 제주지역 농림어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3.47%에 달하여 2006년 농림·어업의 비중은 23.56%로 낮아짐.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3.2%에 달하여 2011년 농림·어업의 비중은 20.89%로 낮아질 것임.
- 자연적·지리적 입지조건 특성상 한계가 있는 제주지역 광공업(제조업)의 2000년 경제규모는 1,730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3%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T와 IT 등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2001~2006년 기간 중 제주지역 광공업(제조업)은 연평균 7.3%로 증가하여 2006년 광공업(제조업)의 비중은 4.24%가 되고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7.91%에 달하여 2011년 광공업(제조업)의 비중은 4.6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제주지역 중추산업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2000년 경제 규모는 1조3,140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86%에 달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함께 2001~2006년 기간 중 제주지역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달하여 2006년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31.1%로 높아지고,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달하여 2011년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비중은 32.5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기타 서비스업의 2000년 경제규모는 1조7,170억원으로 제주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01%에 달함. 2001~2006년 기간 중 제주지역 기타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6.9%에 달하여 2006년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41.1%로 높아지고,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은 6.1%에 달하여 2011년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41.85%로 다소 높아질 것임.
- 결론적으로 그 동안 관광산업 육성 등에 힘입어 제주도의 생산구조는 1차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3차산업 위주로 변화해 왔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추진으로 이러한 구조 변화는 관광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2-7> 제주지역 산업별 산출구조 추이 및 전망

(단위 : 10억원, %)

연 도 \ 구 분	농림·어업	광공업	SOC 및 기타 서비스업		합계
			관광관련*	기타 서비스	
1990	908 (32.47)	200 (7.15)	674 (24.11)	1,014 (36.27)	2,796 (100)
1995	1,161 (31.02) [5.11]	141 (3.77) [-6.75]	1,053 (28.14) [9.33]	1,387 (37.07) [6.68]	3,742 (100) [6.0]
2000	1,197 (27.2) [0.61]	173 (3.93) [4.18]	1,314 (29.86) [4.53]	1,717 (39.01) [4.36]	4,401 (100) [3.3]
2006	1,469 (23.56) [3.47]	264 (4.24) [7.3]	1,939 (31.1) [6.7]	2,562 (41.1) [6.9]	6,234 (100) [5.98]
2011	1,719 (20.89) [3.2]	386 (4.69) [7.91]	2,682 (32.57) [6.7]	3,445 (41.85) [6.1]	8,232 (100) [5.7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1.

주1 : 1995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2000년 자료는 잠정치임.

주2 : ()는 구성비를 나타냄.

주3 : []는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냄.

주4 : * 관광관련서비스업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나타냄.

3. 산업별 취업구조

가. 경제활동인구

- 경제활동인구는 2000년 현재 27만6천명임. 경제활동인구는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1.73%에 달하여 2006년에는 30만6천명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2.31%에 달하여 2011년에는 34만3천명이 될 것임.
- 취업인구는 2000년 현재 26만9천명임. 취업인구는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이 1.78%에 달하여 2006년에는 29만9천명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2.36%에 달하여 2011년에는 33만6천명이 될 것임. 이에 따라 실업률은 2000년 현재 2.5%에서 2006년에는 2.3%, 2011년에는 2.0%로 감소할 것임.
- 지역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현재 68.1%임. 농림·어업 비중의 감소는 경제활동 참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나 여성의 취업 증가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6년에는 2000년보다 2.1% 높은 70.2%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2006년보다 2.8% 증가한 73.0%에 달할 것임.

<표 II-2-8>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추이 및 예측

(단위: 천명, %)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15세 이상 인구 (A)	367	381 (0.75)	405 (1.23)	436 (1.23)	470 (1.52)
경제활동인구 (B)	240	250 (0.82)	276 (2.0)	306 (1.73)	343 (2.31)
취업인구 (C)	239	248 (0.74)	269 (1.64)	299 (1.78)	336 (2.36)
경제활동참가율(B/A)	65.4	65.6	68.1	70.2	73.0
실업률((B-C)/B)	0.4	0.8	2.5	2.3	2.0

주 : ()는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1.

나. 산업별 취업인구

- 산업별 취업구조는 산출구조의 변화와 산업별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함. <표 >에서 나타난 것 같이 산출구조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과 함께 취업구조에서도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임.
-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27.1%에서 2006년에는 2000년보다 4.4% 하락한 22.7%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2006년보다 2.5% 하락한 20.2%를 기록할 것임.
- 전체 취업자 중 광공업(제조업) 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2000년 3.7%에서 2006년에는 2000년보다 0.7% 증가한 4.4%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2006년보다 0.1% 증가한 4.5%를 기록할 것임.
- 산출구조에서 SOC 및 기타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취업구조에서도 증가할 것임. 전체 취업자 중 SOC 및 기타 서비스업 분야의 취업자의 비중은 2000년 69.2%에서 2006년에는 2000년보다 3.7% 증가한 72.9%를 기록하고, 2011년에는 2006년보다 2.4% 증가한 75.3%를 기록할 것임.
- 기존의 제주지역의 경제성장은 산출구조 및 취업구조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1차산업에서 3차산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달성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 변화는 가속될 것임.

<표 II-2-9> 산업별 취업인구 추이 및 예측

(단위 : 천명, %)

연 도 \ 업 종	농림·어업	광공업	S O C 및 기타 서비스업	합 계
1990	99 (41.4)	10 (4.2)	130 (54.4)	239 (100)
1995	77 (31.1)	13 (5.2)	158 (63.7)	248 (100)
2000	73 (27.1)	10 (3.7)	186 (69.2)	269 (100)
2006	68 (22.7)	13 (4.4)	218 (72.9)	299 (100)
2011	68 (20.2)	15 (4.5)	253 (75.3)	336 (100)

주 : ()는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및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1

4. 취업자 1인당 산출액

- 산업별 산출구조와 취업구조를 이용하여 취업자 1인당 산출액(생산성)을 계산해 보면, 2000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1인당 산출액은 1,639만7천원에서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7%에 달하여 2006년에는 2,160만3천원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19%에 달하여 2011년에는 2,527만9천원이 됨.
- 2000년 광공업(제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1인당 산출액은 1,730만원에서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2.71%에 달하여 2006년에는 2,030만8천원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85%에 달하여 2011년에는 2,573만3천원이 됨.
- 2000년 SOC 및 기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1인당 산출액은 1,629만6천원에서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4.02%에 이르러 2006년에는 2,064만7천원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24%에 달하여 2011년에는 2,421만7천원이 될 것임.

<표 II-2-10> 취업자 1인당 산출액 추이 및 예측

(단위: 천원, %)

업종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S O C 및 기타 서비스업	평균
1990	9,172	20,000	12,985	11,699
1995	15,078 (10.45)	10,846 (-11.52)	15,443 (3.51)	15,089 (5.22)
2000	16,397 (1.69)	17,300 (9.79)	16,296 (1.08)	16,361 (1.63)
2006	21,603 (4.7)	20,308 (2.71)	20,647 (4.02)	20,850 (4.12)
2011	25,279 (3.19)	25,733 (4.85)	24,217 (3.24)	24,500 (3.28)

주 : 1) 1995년 불변가격 기준이며 2000년은 잠정치임. 2) ()는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및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2001.

5. 관광 관련 지표

-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IMF관리체제 이후 감소세로 반전하였다가 최근 다시 회복되어 2000년 현재 총관광객 수는 내국인 382만여 명, 외국인 28만8천여 명 등 총 411만1천여 명임.
- 2001~2006년 기간 중 관광객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4.99%로 2006년에는 5백50만7천 명이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55%로 2011년에는 655만7천명이 될 것임.
- 2000년 현재 관광수입은 내국인 1조877억원, 외국인 4,098억원으로 총 1조4,975억원임. 2001~2006년 기간 중 관광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87%로 2006년에는 2조1,080억이며,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은 3.54%로 2011년에는 2조5,090억원이 됨.

<표 II-2-11>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이 및 예측

(단위 : 천명, 억원, %)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관광객수	계	2,992	3,997 (5.96)	4,111 (0.56)	5,507 (4.99)	6,557 (3.55)
	내 국 인	2,757	3,755	3,823	5,149	6,131
	외 국 인	235	242	288	358	426
관광수입	계	4,319	9,814 (17.84)	14,975 (8.82)	21,080 (5.87)	25,090 (3.54)
	내 국 인	3,308	7,844	10,877	15,487	18,440
	외 국 인	1,011	1,970	4,098	5,593	6,650

주 1) : ()는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3절 사회기반시설 지표¹⁾

1. 교통지표

가. 도로

- 2000년 현재 도로 총연장은 2,619km이며 포장율은 82%임. 지속적인 도로 확충 및 포장사업에 따라 2001~2006년 기간 중 도로길이는 연평균 1.1%로 증가하여 2006년 도로 길이는 2,766km, 도로포장율은 8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현재 차량 대수는 16만4,360대에 이르고 있으나 이러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면서 2001~2006년 기간 중 차량 대수는 연평균 6.05%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23만 3,808대, 2007~2011년 기간 중 차량 대수는 연평균 5.32%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30만2,980대가 될 것임.

<표 II-2-12> 도로 및 차량 대수 추이 및 예측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도 로 길 이(km)	2,207	2,250 (0.39)	2,619 (3.08)	2,766 (1.1)	2,929 (1.15)
포 장 율(%)	63.6	79.2	82	85	87
차 량 대 수(대)	43,185	109,353 (20.42)	164,360 (9.82)	233,808 (6.05)	302,980 (5.32)

주 : ()는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나. 해운

- 2000년 현재 여객 수송은 73만3천여명이지만 항공 이용에 따른 비용 증가와 새로운 해운항로의 개설로 2001~2006년 기간 중 여객 수송은 연평균 4.65%로 증가하여 2006년 여객수송은 96만3천명, 2011년에는 128만8천명이 될 것임.
- 2000년 현재 해운화물 수송은 837만1천 톤이지만 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제주의항을 비롯한 항만시설의 꾸준한 확충으로 2001~2006년 기간 중 해운화물 수송은 연평균 4.46%로 증가하여 2006년 해운화물 수송은 1,087만3천 톤이 되고, 2007~2011년 기간 중 해운화물 수송은 연평균 5.5%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421만1천 톤이 될 것임.

1) 사회기반시설 지표의 예측치는 시계열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면서 최근의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인 Holt-Winters의 예측모형을 이용하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효과를 고려하였음.

<표 II-2-13> 해운여객 및 화물 수송 추이 및 예측

(단위: 천명, 천톤)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여 객 수 송	1,054	854 (-4.12)	733 (-3.01)	963 (4.65)	1,288 (5.99)
해 운 화 물 수 송	6,409	7,170 (2.27)	8,371 (3.15)	10,873 (4.46)	14,211 (5.5)

주 : ()는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도청 내부자료.

다. 항공

- 1990년대 들어 항공 여객 수송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였으나 IMF관리체제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어 2000년 현재 여객 수송은 국내선 860만1천명, 국제선 41만1천명임.
-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으로 2001~2006년 기간 중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 수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55%와 9.35%로 2006년 국내선 여객 수송은 1,331만3천명, 국제선 여객 수송은 70만3천명이 될 것이며, 2007~2011년 기간 중 국내선 및 국제선 여객 수송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44%와 10.37%로 2011년 국내선 여객 수송은 1,906만2천명, 국제선 여객 수송은 115만1천명이 될 것임.

<표 II-2-14> 항공여객 및 화물수송 추이 및 예측

(단위 : 천명, 천톤, 회)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구 분						
국 내 선	여 객 수 (천 명)	5,592	8,281 (8.17)	8,601 (0.76)	13,313 (7.55)	19,062 (7.44)
	화 물 량 (천 톤)	128	202 (9.55)	267 (5.74)	394 (6.7)	548 (6.82)
	운 항 회 수	40,211	52,626 (5.53)	52,721 (0.04)	80,614 (7.34)	115,515 (7.46)
국 제 선	여 객 수 (천 명)	214	290 (6.17)	411 (7.22)	703 (9.35)	1,151 (10.37)
	화 물 량 (천 톤)	0.35	2.33 (46.1)	3.11 (5.95)	5.35 (9.46)	10.35 (14.11)
	운 항 회 수	1,525	2,280 (8.38)	2,131 (-1.34)	3,883 (10.52)	6,776 (11.78)

주 : ()는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건설교통부, 「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기본계획(2000~2020)」, 1999 및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2. 에너지시설

- 2000년 현재 지역의 발전량은 190만239MWh이며 전력사용량은 170만 4,939MWh임.
- 2001~2006년 기간 중 발전량 및 전력사용량은 모두 연평균 7.42%로 증가하여 2006년의 발전량은 291만9천MWh, 전력사용량은 261만9천MWh가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발전량 및 전력사용량은 모두 연평균 6.3%로 증가하여 2011년의 발전량은 396만1천 MWh, 전력사용량은 355만1천MWh가 될 것임.

<표 II-2-15> 발전량의 추이 및 예측

(단위: MWh)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발 전 량	636,414	1,203,782 (13.6)	1,900,239 (9.56)	2,919,000 (7.42)	3,961,000 (6.3)
전 력 사 용 량	545,294	1,052,013 (14.05)	1,704,939 (10.14)	2,619,000 (7.42)	3,551,000 (6.3)

주 : ()는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및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내부자료, 2001.

3. 통신시설

- 2000년 현재 전화시설 수는 26만5,570대, 전화가입자 수는 22만5,736명임.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3.19%와 1.8%로 증가하여 2006년의 전화시설 수는 32만630대, 전화 가입자 수는 25만1,239명이 될 것이며, 2007~2011년 기간 중 전화시설 수와 전화가입자 수는 각각 연평균 3.66%와 1.96%로 증가하여 2011년의 전화시설 수는 38만 3,760대, 전화가입자 수는 27만6,845명에 달할 것임.

<표 II-2-16> 전화시설 및 전화가입자 추이 및 예측

(단위: 대, 명)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전 화 시 설 수	155,352	239,256 (9.02)	265,570 (2.11)	320,630 (3.19)	383,760 (3.66)
전 화 가 입 자 수	141,627	203,219 (7.49)	225,736 (2.12)	251,239 (1.8)	276,845 (1.96)

주 : ()는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4절 생활환경지표²⁾

1. 주택보급률

- 2000년 현재 가구 수는 13만3,265가구, 주택 수는 12만9,369호, 주택보급률은 97.1%임.
-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가구 수 증가율은 2.22%로 2006년 가구 수는 15만2,030가구, 같은 기간 중 연평균 주택 증가율은 2.89%로 주택 수는 15만3,486호, 주택보급률은 2000년보다 3.8%포인트 증가한 100.9%가 될 것임.
- 2007~2011년 기간 중 연평균 가구 수 증가율은 2.56%로 2011년 가구 수는 17만2,512호, 같은 기간 중 연평균 주택 증가율은 2.96%로 주택 수는 17만7,587호, 주택보급률은 2006년보다 2.0%포인트 증가한 102.9%가 될 것임.

<표 II-2-17> 주택보급률 추이 및 예측

(단위: 호, %)

구 분 \ 연 도	1995	2000	2006	2011
가 구 수(A)	117,918	133,265 (2.48)	152,030 (2.22)	172,512 (2.56)
주 택 수(B)	110,277	129,369 (3.25)	153,486 (2.89)	177,587 (2.96)
주 택 보 급 률(B/A)	93.5	97.1	100.9	102.9

주 : ()는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임.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2. 상·하수도시설

- 2000년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99.9%에 달하고 있음 하수처리률은 62.5%이나 군지역 하수처리 계획 및 마을별 계획을 감안하면 2001~2006년 기간 중 하수처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62%로 2006년에는 하수처리 보급률이 2000년보다 16.0%포인트 증가한 78.5%가 되며, 2007~2011년 기간 중 하수처리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03%에 달하여 2011년에는 하수처리보급률이 2006년보다 11.5%포인트 증가한 90.0%에 이를 것임.

2) 생활환경지표 예측치는 시계열의 장기적 추세를 고려하면서 최근의 자료일수록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지수평활법(exponential smoothing)인 Holt-Winters의 예측모형을 이용하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효과를 고려하였음.

<표 II-2-18> 하수도 보급률 추이 및 예측

(단위: 천명, %)

구 분 \ 연 도	1995	2000	2006	2011
총 인 구	519	543 (0.95)	584 (1.15)	620 (1.2)
하 수 처 리 구 역 내 인 구	215	339 (11.64)	458 (4.62)	558 (4.03)
하 수 처 리 보 급 율	41.5	62.5	78.5	90.0

자료: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3. 교육환경

- 2000년 현재 학교 수는 291개이나 제주도 교육청의 교육여건 개선정책에 따라 학교 수는 2005년에는 302개, 2011년에는 327개로 증가할 것임.
- 2000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1.21명이며 2005년에는 19.29명, 2011년에는 17.08명으로 감소할 것임.
- 2000년 현재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수는 각각 6개이나 교육개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표 II-2-19> 학교 수 및 교원당 학생 수 추이 및 예측

(단위: 개, 명)

연 도		1990	1995	2000	2005	2011
구 분						
학교수	유 치 원	122	125	115	125	143
	초 등 학 교	115	109	106	106	109
	중 등 학 교	39	40	41	42	44
	고 등 학 교	27	28	29	29	31
	계	303	302	291	302	327
교원당 학생수	유 치 원	23.91	22.61	24.17	20.65	19.92
	초 등 학 교	31.36	24.05	25.93	23.13	19.89
	중 등 학 교	23.04	21.73	17.48	17.07	14.46
	고 등 학 교	22.07	18.26	17.63	14.44	15.01
	계	25.97	21.6	21.21	19.29	17.08

자료: 제주도교육청,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2000을 기초로 재구성.

4. 사회복지

- 2000년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5개소이나 2011년에는 6개소로 증가할 것임.
- 2000년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9개소이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수요 증대로 2006년에는 12개소로, 2011년에는 14개소로 증가할 것임.
- 2000년 현재 장애인복지시설과 여성복지시설은 각각 1개소와 3개소이나 2011년에는 각각 6개소와 5개소로 증가할 것임.

<표 II-2-20> 사회복지시설 추이 및 예측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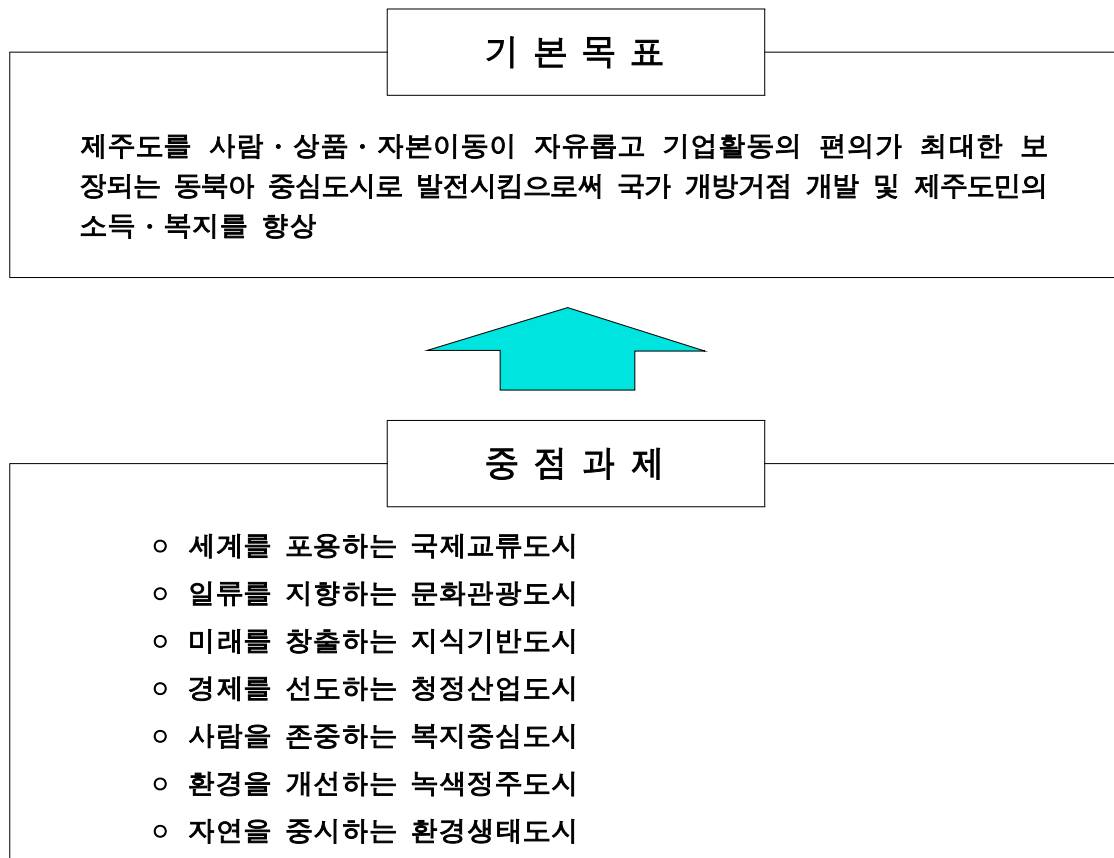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아 동 복 지 시 설	6	5	5	6	6
노 인 복 지 시 설	5	6	9	12	14
장 애 인 복 지 시 설	1	1	1	3	6
여 성 복 지 시 설	1	1	3	4	5

주 : 2006년 및 2011년은 정책목표치임.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제3장 발전 목표와 기본 전략

제1절 발전 목표



<그림 II-3-1> 기본목표 및 중점과제

1.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가. 기본방향

- 세계화의 새로운 흐름을 적극 수용하고 세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공헌하며 21세기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지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제화·개방화를 지향함.
-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

나. 중점 추진과제

- 도로, 교통, 항만 시설 확충 및 운송체계 개선
-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물류산업의 선진화 추진
- 사이버제주 실현을 위한 행정정보, 산업정보, 생활정보 시스템 구축
-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아·태권 국제교류 거점화 사업,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사업 추진

2.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가. 기본방향

- 제주도의 전설, 민요, 민속 및 전통적인 생활양식 등과 같은 고유문화를 발굴 정리하여 향토문화의 독창성과 주체성을 유지·보존하며 이를 기초로 고유문화를 현대화, 세계화, 관광산업과의 연계로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신경제시대에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의 기반으로 기능하게 함.
- 관광시설확충(휴양주거·복합레저단지, 관광항, 테마공원 등), 관광수요창출(쇼핑아울렛, 내국인 면세점, 컨벤션시설 등), 관광비용인하(골프장 입장료 인하, 휴양펜션업 활성화 등) 등을 통한 내·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친화적 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함.

나. 중점 추진과제

- 제주문화의 정체성 구현 사업, 제주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광자원화,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 추진
-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 건설
-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확충 및 운영·관리의 체계화, 스포츠산업 육성

3.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가. 기본방향

- 지식기반경제는 부의 중심이 지식·정보산업으로 이동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음.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도 제주지역 산업의 지식기반화가 필요함.
- 지식기반사회와 정보화에 부응한 도민의 국제화 능력향상,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과학 등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도입·응용하여 21세기 첨단문명을 추구함.

나. 중점 추진과제

- 기초능력 배양 교육, 수요자 중심 교육, 평생교육 체제 확립
-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지식기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과학기술 연구 및 교류기반 조성, 과학기술 진흥 행정체제 정비
- 지식산업 기반구축, 문화산업·바이오산업 육성
- 지역특화형 중·소 제조업 육성, 개방형 벤처집적지 조성 및 육성체계 구축
- 금융기관의 기능 강화, 금융기능의 확충과 역외금융센터 도약 기반 조성

4.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가. 기본방향

- 청정한 지역이미지와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임업, 축산업, 해양수산업을 첨단 산업이자, 바이오산업으로 재편하고 자연경관·향토문화유산·주민들의 인심을 결합한 ‘6차산업’이자 복합산업으로 육성함.

나. 중점 추진과제

- 농업생산구조 개선,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친환경 농업 전개, 농업의 지식기반산업화 추진
-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구조 조정, 품질경쟁력 제고, 지속적 수용창출 강화,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 축종별 차별화된 육성계획 수립, 청정축산지역 지정 및 위생관리 체계 마련,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생산·기술 기반 구축
-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 도모, 자원관리형 어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고품질·고소득 양식산업 육성, 신해양 관광메카 실현
- 임산자원의 보전과 개발, 임업의 복합산업화, 고소득 임산물 기반 확충

5.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가. 기본방향

- 경제적 활력과 능률을 바탕으로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여 소득 및 소비의 수준을 높임.
- 의료, 주거 등 주민의 기본수요 충족 뿐만 아니라 분배의 공평성을 증진시키며 제주의 자연적·인문적 환경을 보존·개선함으로써 쾌적한 복지사회를 구현함.

나. 중점 추진과제

- 보건의료 기반 조성, 평생 도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국제자유도시 보건의료 인프라 제공
- 공공복지서비스 조직과 민간복지자원간의 연계 활성화 도모, 사회참여형 개방적 복지 시스템 정착, 통합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 효율적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 생산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적극적 구조·구급 활동 강화, 통합적 소방방재관리 시스템 구축

6.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가. 기본방향

-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자원 이용의 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효율성 및 비형평성을 예방하고 일부 지역의 편중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며 개발을 둘러싼 지역간의 갈등을 최소화함.
-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토지 투자 등 자본적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 개발과 연계하여 주민의 산업적 기회가 많아지는 부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함으로써 개발 혜택의 형평성을 높임.

나. 중점 추진과제

- ‘선계획 후개발’체제 구축,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계획 수립, 자연 친화적 토지이용 및 공급 도모,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의 유기적 공간체계 정립
- 중심지와 배후지간의 유기적 상호 의존성 제고, 지역간 균형 발전과 농촌지역의 기능 강화, 주민의 기초수요 충족에 역점을 둔 도서지역 개발
- 택지 및 주택 공급 확대,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건설업의 건실화 도모

7.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가. 기본방향

- 한라산국립공원 등 주요 자연경관을 보전하며 경관파괴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사전 통제하고 관리기능을 강화함.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인문환경의 보존과 진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향상시킴.
- 뉴라운드 출범 등으로 인한 국제적 개방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Aenda 21, Green Round 등 환경가치를 수용하고 발전시킴.

나. 중점 추진과제

- 육상 및 해양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연안통합관리체계 구축, 연안해역관리인제 도입, 해양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원인자 부담원칙 적용
- 부존 수자원의 체계적 개발, 광역 용수 공급체계의 완성, 용수이용의 합리화와 대체 수자원 확보, 지하수 자원의 과학적 보전·관리체계 구축
-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대체 에너지 활용·개발, 에너지 수급체계 정비

제2절 기본 전략

가. 국제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투자환경 조성

○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개선

- 무사증 입국 확대 :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을 점차적으로 확대,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본토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 확대
-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허용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관련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필요시 재연장 가능)

○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

○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특례 : 제주도의 제조·물류기반 확충을 위해 제주도에 설치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입주자격 확대 및 조세지원 강화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단지보다 조세지원이 강화되는 과학기술단지 조성

○ 영어서비스 및 영어교육 강화 :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주도에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영어 공문서를 접수 및 제공, 제주도는 제주도민에 대한 외국어교육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

○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 외국 대학원·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대학 설립 및 운영요건 완화, 외국인의 초·중등교원 임용 확대, 초·중등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완화, 초·중등 자율학교의 자율권 확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교육재정지원 확대

○ 금융·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국제금융도시 발전기반 마련, 제주국제공항 및 항만의 물류기능 확충

나. 내·외국인 관광유인 시책의 강화

- 내국인 면세점 운영 :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세제를 면제하는 내국인 면세점을 운영하여 내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
- 골프장 건설 확대 및 입장료 인하 : 19개 골프장 추가 건설 지원(현재 8개), 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취득세 5배, 종합토지세 최고 25배, 재산세 17배)를 일반과세로 전환, 골프장 건설에 따른 개발부담금·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골프장 입장료 인하
- 저비용 관광을 위한 노력 강화 :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펜션업 활성화, 관광업계의 경영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적극 유도·지원, 관광객 유치 과당경쟁 억제 등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

다. 선도프로젝트의 추진

- 선도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개발, 개발이 부진하거나 종합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공공부문에서 지원
- 관광·휴양분야를 중심으로 7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중문관광단지 확충,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쇼핑아울렛 개발,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사업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

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지속적 확충

- 공항시설 확충 : 제주공항의 처리능력을 대폭 확충
- 항만시설 확충 : 제주의항을 개발('99~2010)하여 제주항을 중추항만으로 육성
- 도로 신설 및 확장 : 2011년까지 총 675.3km의 도로신설 및 확장, 교통혼잡구간 및 선도프로젝트 진입도로 등을 우선 시행

- 정보통신망 구축 확대 : 2005년까지 초고속통신망 구축 완료, 정보통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건설 추진('02~'06)
- 전력공급능력 확충 : 2010년까지 전력공급능력을 39만Kw 추가 확충, 한전 및 민간발전사업자의 공급능력 확충방안 강구
- 용수공급 원활화 : 광역상수도 공급능력 확충 14.5천톤(2000)→24.5천톤(2010)
- 하수처리능력 향상 : 하수처리율 제고 67%(2000) → 90%(2010)

마. 제주도민 소득향상 및 환경보전 대책

- 제주도민의 소득향상 및 고용기회 확대 : 도민출자 및 도민고용비율이 높은 개발사업을 특별우대사업으로 선정,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창업지원·경영지도 등 실시, 중소지역상인의 상업시설 입주기회 확대 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 현행 「농·림·축·수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내용 보완 : 육종산업 육성, 수출확대전략, 1차산업과 3차산업의 연계방안 등을 추가
 -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수익의 일부를 1차산업 발전 재원확충을 위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및 도민고용업체 등에 지원
 - 과학기술단지에 농업·해양생물 연구시설 및 전문연구인력을 적극 유치하여 1차산업의 품질고급화 기반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 해외홍보·마케팅시 제주의 청정 농·임·축·수산물 브랜드마케팅을 연계 추진하고, 관광호텔 등 관광업소에 지역산품 판매확대 등 판로개척을 적극 지원
- 환경보전 강화방안
 - 현재 제주도는 국가환경기준치 보다 강화된 EU, 스위스 수준의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운용
 - 국내최초로 GIS를 이용한 엄격한 지하수 보전관리체제 운영

- 제주도 전지역을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로 구분하고 각 지구를 1~4등급으로 세분하여 개발행위를 차등 규제
- 개발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환경평가를 엄격히 이행
- 경관·미관·보존녹지지역 등에서 건축물 건축시 형태·색채 등에 대한 건축심의를 강화
- 천연가스 자동차·자전거도로 등 저공해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풍력발전 등 대체에너지 개발·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제주도를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

2. 7대 선도프로젝트의 공간 구상

가.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 실버산업이 미래의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노인계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시장규모, 입지, 개발방식 및 제도적 접근 등을 분석한 후 우리의 현실에 맞는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함.
-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세계적 수준의 휴양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
-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226,800㎡(68,000평) 규모에 주거시설(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 골프장(연계 주거지 포함), 의료시설, 상업시설, 스포츠센터 등을 갖춘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토록 함.



<그림 II-3-3>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예시

나. 중문관광단지 확충

- 개발담보상태인 중문관광단지에 상업시설과 해양공원을 조성하여 제주를 대표하는 종합 위락관광단지로 육성
-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101,180㎡(30,000평) 규모에 소매점, 레스토랑, 면세점, 리조트식 상업센터, 세계적 규모의 수족관 및 해양전시관 등을 유치
- 개발센터가 관광공사 등으로부터 부지인수 검토·추진 : 해양공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건설(아웃소싱)하여 민간에 장기 임대하는 방안 검토

- 중문관광단지 기능 확충사업 추진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관광공사 등과 개발주체 및 방법 등을 협의하여 추진



<그림 II-3-4> 중문관광단지 확충 예시

다.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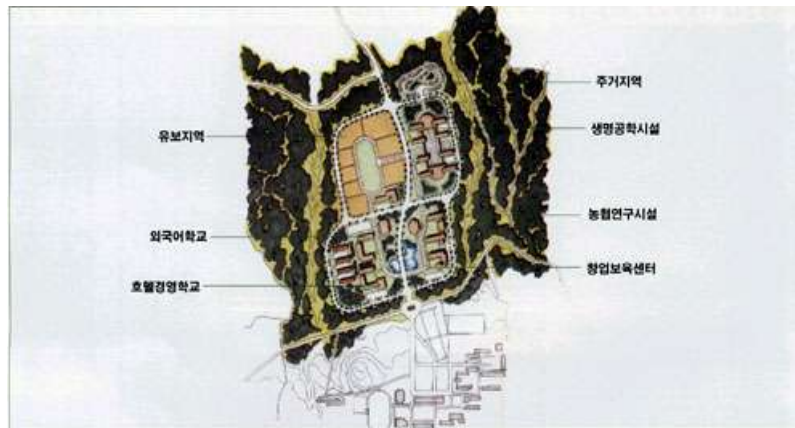
- 서귀포항을 수려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미항(美港)으로 개발하여 레저·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
- 서귀포시 송산동 일원 약 47,500㎡(14,000평) 규모에 호텔, 낚시빌리지(Fisherman's Wharf), 유람선 접안시설, 면세쇼핑점·상업시설, 휘리터미널, 어류 도·소매시장 등을 민자유치로 추진



<그림 II-3-5>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예시

라.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그림 II-3-6>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예시

마.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 제주공항 인근에 1차산품·첨단제품의 가공·수출 촉진과 항공물류산업의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조성



<그림 II-3-7>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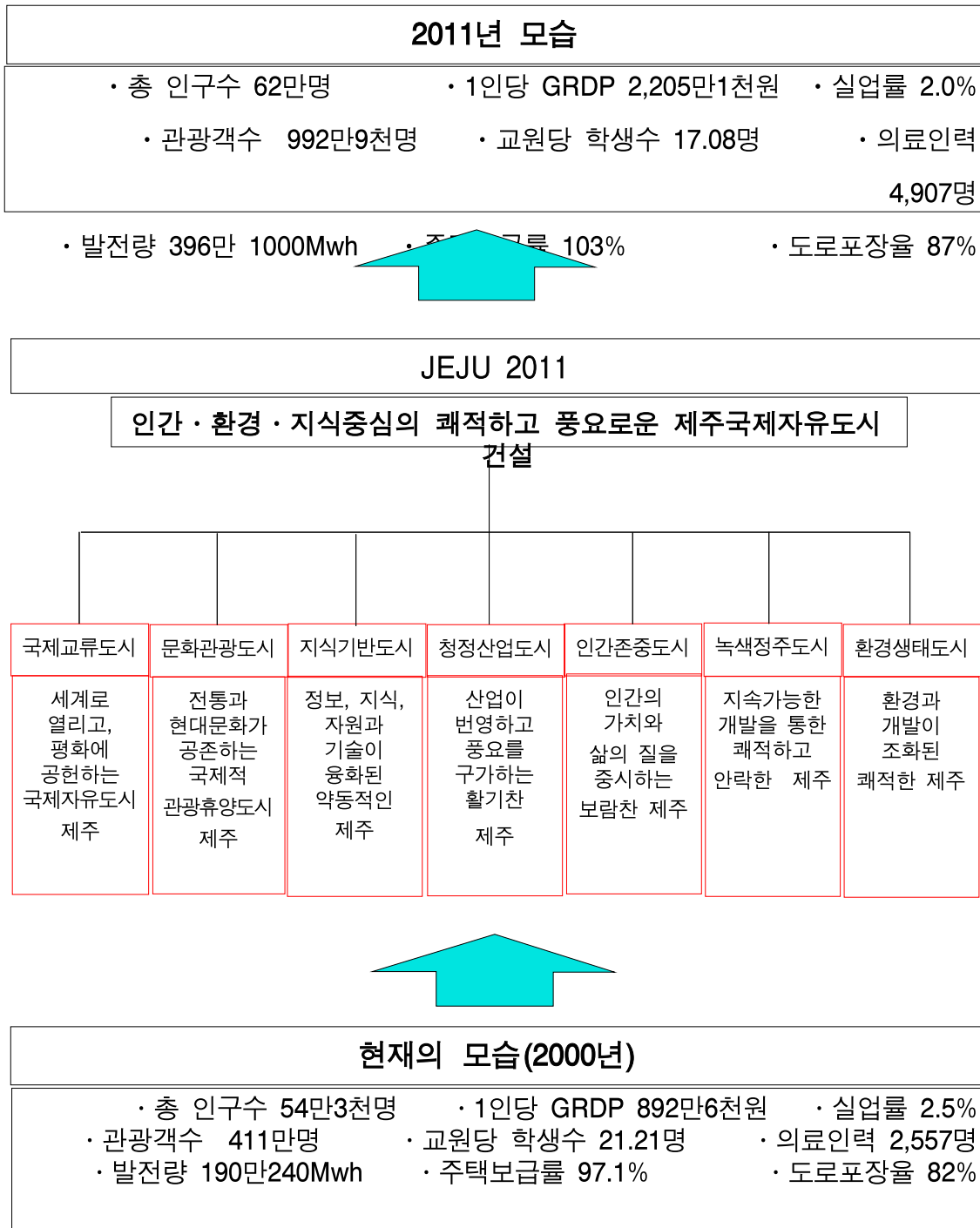
바. 쇼핑아울렛 개발

- 중국인관광객 등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 간선도로변에 대형 쇼핑아울렛 설치
- 기존 도내 상권에 영향이 미비한 지역, 교통이 원활한 지역, 시·군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고 200,000㎡(60,000평) 규모에 쇼핑센터·특산물판매장, 패스트푸드점, 식당, 주차장 등을 유치하고 기존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도내 도소매업자 참여 유도
- 기존의 할인점·백화점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외국의 유명 쇼핑 아울렛 업체인 첼시사 소유의 쇼핑아울렛처럼 샤넬, 크리스찬 디올 등 유명 브랜드의 아울렛 센터로 활용 되도록 함.

사.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 제주도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제주만의 독특한 관광상품 개발 제공
- 생태·역사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선정, 시·군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약 490만㎡(148만평) 규모에 생태공원과 신화·역사공원으로 구성

제4절 2011 비전



<그림 II-3-8> 2011년 비전

제1장 세계를 포용하는 국제교류도시

제1절 지역 발전축 설정

- 제한된 지역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유사자원과 기능을 보유·수행하고 있는 지역들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특화된 기능을 부여하여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축을 설정함.
- 제주시발전권역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조천읍, 애월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은 제주도의 중추기능중심지역으로서 발전. 행정·교육·문화·업무의 중심지, 첨단과학기술단지와 물류중심기지 조성, 국제금융과 비즈니스센터, 도시위락센터 설치, 해안위락시설 입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조성함.
- 서귀포발전권역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남원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광·휴양지, 감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기지로 설정, 컨벤션센터, 호텔·숙박시설 등을 유치하고 관광이벤트산업과 1차산업을 연계하며, 영상관광루트 등을 개발하며, 전략적인 감귤산업기지로 육성함.
- 성산포발전권역은 성산읍과 표선면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해양·민속관광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조기 개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어업 및 양식업 육성, 성읍·표선민속촌을 활용한 관광코스를 개발함.
- 한림발전권역은 한림읍과 한경면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물류중심 및 서부지역의 중추관리기능지역으로 육성, 한림항의 항만기능 강화, 금능농공단지 활성화, 청정 축산물 단지화, 협재·금능·한림을 연계하는 임해관광벨트를 구축함.
- 대정발전권역은 안덕면을 포함한 서남부지역의 중심지로서 전원도시 및 역사유적관광지로 개발, 화순항의 유통·물류기능 강화, 송악산·용머리·전적지·마라도 등을 연계 개발하여 관광상품의 특성화를 도모함.
- 구좌발전권역은 농업과 친환경적 체험관광중심지로 독자권역을 형성하여 발전되도록 구좌농공단지 활성화, 풍력시범단지 활성화, 송당·비자림·하도리를 연계한 친환경적 체험관광지 조성, 세화항의 물류기능을 강화함.

<표 III-1-1> 발전권역별 개발전략

발 전 권 역	주 요 기 능	개 발 전 략
제주시발전권역	도 시 중 심	업무중심 도시 물류중심기지 조성 첨단과학연구단지 조성 국제금융 및 비즈니스센터 건설 도시 위락센터 설치 해안위락시설 설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귀포발전권역	관 광	관광이벤트 중심 도시 컨벤션 중심 기능 수행 호텔·숙박 시설 유치 주제형 쇼핑 시설 설치 전략적 감귤산업기지 조성
성산발전권역	해 양 관 광 및 수 산 업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기 개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수산물 가공단지 조성 첨단 어업 및 양식업 육성 성읍, 표선 민속촌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한림발전권역	중 추 관 리 및 물 류 중 심	서북부지역의 중추관리기능 및 물류중심지 육성 소규모 택지개발, 금능농공단지 활성화 청정 축산물 단지화 협재·금능·한림의 임해관광단지 조성
구좌발전권역	농 업 및 관 광	구좌농공단지 발전적 육성 풍력발전 시범단지 활성화 송당·비자림·하도리 연계 친환경적 체험 관광지 조성 세화항의 물류기능 확충
대정발전권역	역 사 유 적 도 시 및 관 광	전원도시 육성 화순항의 유통·저장기능 강화 송악산·용머리·군사시설·마라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제2절 교통망 확충 및 정비

1. 현황

가. 도로교통

-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0년대 들어 연 10%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IMF의 영향으로 1998년 2.6%, 1999년 7.9%로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다시 8%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음.
- 도로망은 남·북간 6개 노선, 순환선 2개 노선, 동서간 4개 지방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통량은 남·북간을 연결하는 95호선(서부산업도로), 97호선(동부간선도로)이 가장 많아 남북간 교통류가 주를 이룸.
- 도로교통은 최근 교통 안전과 교통약자 배려 위주로 전환되고 있어 제주도의 교통이념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외국인의 내방 기회가 많아질 것이므로 도로 정보, 돌발사고에 대한 알림, 대체도로 등의 내용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함.
- 경전철 등 다양하고 신속한 교통수단을 도입하여 공항과 도심 및 도시와 도시간의 연계성을 높이며, 특색 있는 도시 내 교통기반시설 및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교통부문에 관광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견 조사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만족’ 35%이었으며 ‘불만족’은 28.6%임. 지역별로는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다소 떨어지고 있음.
- 자가용 이용자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10부제 혹은 5부제 실시’ 38.6%, ‘도로 확장·개설’ 34.1%, ‘신호체계 개선’ 15.6% 등의 순임.
- 도로교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에 근거한 주요 선도프로젝트 사업지와 연결하는 접근로의 확·포장 사업임.

나. 항공교통

- 제주국제공항과 대한항공 소유의 정석공항이 있으며 모든 여객기는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음. 제주국제공항은 활주로 2개, 계류장, 착륙대 및 4만6,648㎡의 여객터미널, 1만7,078㎡의 화물터미널, 1,525대가 동시에 주차 가능한 5만6,610㎡의 주차시설을 갖추.
- 여객터미널은 연간 764만 명의 이용이 가능하고, 화물터미널은 연간 34만 톤의 화물 처리가 가능함.
- 항공여객 수송실적은 과거 9년 동안 연간 4.1%씩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연간 912만6천명이고, 이 중 국내선 여객이 연평균 4.3% 증가한 879만3천명, 국제선 여객이 연평균 1.0% 증가한 33만3천명임.
- 항공화물 수송 실적은 2000년 현재 32만1천 톤으로 1991~2000년 사이 연평균 10.8% 증가하였고, 이 중 국내선 화물이 연평균 10.5% 증가한 31만3천 톤, 국제선 화물이 연평균 35% 증가하여 8천 톤임.
- 국내 항공 수요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시간가치의 향상으로 고속교통 수단을 선호하게 되고 지상교통 혼잡 등의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가의 개방형 통합 국토축의 하나인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연결하는 한남해축에 대한 항로를 증설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국제경제의 블록화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세계경제의 자유화와 동북아 성장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소득수준의 향상과 국제 교역량의 증대로 여객과 화물 등 세계의 항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국제항공운송협회는 아·태 지역의 항공운송이 증가하여 아·태 지역이 세계의 타 지역과 함께 주요 항공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중국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본인 관광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항만

-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과 연안항(한림항, 성산포항, 화순항, 애월항, 추자항)을 합한 항만의 시설 현황은 방파제가 1만1,339m, 안벽 연장이 5,141m로, 1천 톤 이상 선박 44척이 동시 접안이 가능하며 최대 접안능력은 제주항이 2만 톤급이며 서귀포항은 5천톤 급임.
- 보관시설로서는 제주항이 8,222톤의 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2동과 서귀포항이 1,760톤의 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 1동을 갖추고 있음. 배후 야적장 시설은 전체 19만6,255톤의 적재시설 중 제주항과 서귀포항이 각각 7만7,957톤과 7만824톤의 적재 시설을 보유하여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음.
-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는 항만과 어항을 통한 생존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각 항만 및 어항은 천혜의 해안 절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관광자원 및 친수성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 일본, 홍콩,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동북아시아의 무역 흐름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여객화물수요에 대비하고, 해양관광시대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중국, 일본 등의 해상유람선을 유치하기 위해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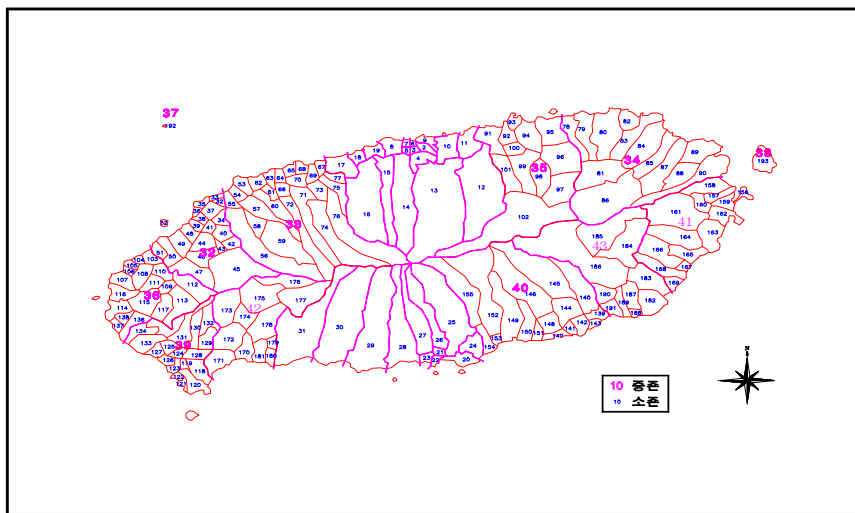
<표 III-1-2> 항만 SWOT 분석

구분 및 요소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항만현황	제주도 화물 물동량의 97% 수송	공항 확충으로 인해 여객 수송부담률 감소	단순한 여객수송이 아니라 관광여객선으로 변신	항만 주변의 해양환경의 악화 우려
관련계획	국제자유도시 계획 추진으로 조기 개발의 가시화	항만과의 연계교통 시스템 미비	동북아 거점 항만으로 개발	항구별 차별화계획이 없음 루트개발이나 잠재적 수요추정, 홍보 등에 대한 관심부족
국내·외 여건	동북아 물류중심지에 위치	자연적인 조건이 항만건설에 불리한 조건임	중앙정부의 집중투자	육지부 SOC사업으로 투자 소홀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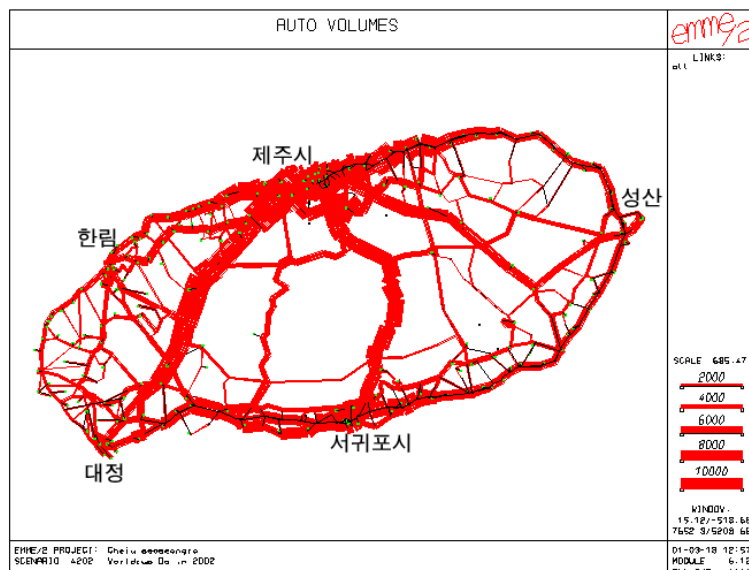
2. 교통수요 예측

가. 통행권역 설정 및 통행 배정

- 교통권역(Traffic Zone)은 제주도 전체를 43개의 중 존(Zone)과 193개의 소 존(Zone)으로 구분하여 주요 가로 및 사업대상지의 교통량을 예측하였음. 각 존 교통권역을 고려한 교통망과 통행배정 결과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또한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획수립이 완료된 계획도로들을 장래 목표년도별 교통망 개통예정년도에 따라 구분하여 관련계획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림 III-1-1> 교통권역 설정



<그림 III-1-2> 통행배정 결과

○ 존(Zone)별 통행수요 전망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음

<표 III-1-3> 존별 통행수요 전망

존번호	2002		2002 월드컵 축구경기시		2006		2011	
	발생	도착	발생	도착	발생	도착	발생	도착
1	3,101	3,089	3,186	3,177	3,585	3,578	3,757	3,739
2	16,650	16,947	16,974	17,282	19,054	19,401	19,903	20,274
3	6,895	6,884	7,057	7,047	7,950	7,936	8,283	8,281
4	18,481	18,497	18,841	18,866	21,147	21,135	22,105	22,082
5	9,352	9,103	9,545	9,296	10,701	10,421	11,165	10,880
6	6,104	6,090	6,245	6,232	7,046	7,017	7,341	7,311
7	6,052	6,039	6,192	6,175	6,978	6,966	7,275	7,257
8	13,498	13,950	13,765	14,228	15,487	16,027	16,178	16,760
9	7,583	7,634	7,748	7,797	8,717	8,770	9,100	9,167
10	8,358	8,456	8,535	8,634	9,639	9,733	10,063	10,177
11	4,483	4,322	4,592	4,607	5,210	5,061	5,404	5,440
12	1,996	2,021	2,062	2,088	2,330	2,353	2,409	2,441
13	11,381	11,378	11,616	11,611	13,083	13,069	13,661	13,643
14	3,228	3,218	3,321	3,315	3,766	3,757	3,923	3,919
15	20,157	20,178	20,545	20,569	23,108	23,122	24,182	24,198
16	8,874	8,875	9,060	9,062	10,203	10,196	10,664	10,666
17	2,978	2,938	3,061	3,022	3,466	3,415	3,594	3,553
18	1,937	1,947	1,998	2,009	2,261	2,267	2,339	2,351
19	1,165	1,300	1,209	1,349	1,346	1,502	1,384	1,555
20	6,248	6,185	6,392	6,314	7,175	7,083	7,475	7,373
21	2,328	2,542	2,397	2,795	2,685	2,952	2,769	3,237
22	2,919	2,966	3,000	3,047	3,347	3,397	3,466	3,522
23	6,072	5,942	6,213	6,084	7,031	6,892	7,353	7,209
24	3,593	3,639	3,688	3,725	4,157	4,203	4,324	4,365
25	3,621	3,696	3,719	3,801	4,213	4,298	4,363	4,470
26	7,012	6,867	7,170	7,015	8,078	7,894	8,430	8,225
27	4,456	4,514	4,565	4,644	5,160	5,238	5,366	5,465
28	5,766	5,878	5,898	6,009	6,657	6,790	6,918	7,056
29	3,658	3,650	3,754	3,760	4,263	4,259	4,441	4,449
30	7,481	7,452	7,640	7,599	8,739	8,663	9,135	9,071
31	4,652	4,714	4,755	4,965	5,432	5,530	5,697	5,939
32	21,679	21,020	22,391	21,761	26,163	25,411	26,945	26,198
33	20,814	21,935	21,498	21,575	25,589	25,719	26,430	26,517
34	19,017	22,644	19,518	19,845	22,404	22,798	23,229	23,624
35	21,001	22,845	21,532	21,310	24,915	24,677	25,987	25,751
36	9,206	23,021	9,601	9,802	11,232	11,300	11,439	11,679
37	1,417	23,367	1,649	1,420	1,747	1,665	2,034	1,748
38	1,857	22,434	1,896	1,949	2,169	2,235	2,251	2,322
39	17,801	17,804	18,415	18,927	21,771	22,030	22,446	23,067
41	16,847	16,836	17,331	17,168	19,733	19,563	20,367	20,189
42	11,463	17,785	12,170	11,730	13,987	13,816	14,794	14,278
43	11,254	18,736	12,112	11,409	13,415	13,140	14,382	13,536

나. 지역교통축 설정

(1) 주간선 도로

- 지역 주간선 도로는 지역 전체를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국비로 확장 및 개선하고 있으며 지역간 혹은 지역 내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임.
- 선형개선과 안전도 확립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을 유도함.

(2) 보조간선 대체우회도로

- 5·16도로와 동서부산업도로의 결빙시 대체우회도로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거나 동서부산업도로의 돌발사고시 우회도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남조로인 1118호선인 경우는 확장계획이 이미 있고 제 2산록도로는 탐라대학교에서 돈네코까지는 이미 확장됨. 추후 한림과 동광검문소를 연결하는 도로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안전도 개선이 필요하며 서부산업도로 결빙시 대체우회도로로서 활용을 유도함.

(3) 해안 및 중산간 경관도로

- 이 도로들은 주변 경관이 빼어나 교통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나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홍보 부족으로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전망시설과 주차를 위한 베이(bay)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도 전역의 경관이 좋은 도로를 경관도로로 지정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함.

다. 해상교통

- 항만 물동량은 현재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계획에 따라 예측함.

<표 III-1-4> 전체 품목별 물동량 예측 결과

(단위 : 천톤)

구 분	유 류	모 래	시멘트	일반 화물			합 계
				기타잡화	카페리	소 계	
2001	1,228	2,063	1,064	2,056	3,124	5,630	9,985
2006	1,474	2,498	1,341	3,395	3,649	7,044	12,358
2011	1799	3641	1951	4313	4223	8536	15747

주 : 일반 잡화물의 카페리화물은 입·출항을 구분한 뒤 최근 5년 동안의 일반 잡화물 대비 가중평균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향후 접안능력이 확충되어 입출항 선박이 대형화될수록 카페리 비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을 고려

- 연안여객 수송 수요는 국민 관광수요 증가와 지역의 쾌적한 자연환경 및 풍부한 관광자원으로 점진적 증가를 보임. 봄을 기준으로 2001년에는 29만5,998명, 2006년 30만 1,272명, 2011년 30만3,009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I-1-5> 연안여객수송 수요 예측

(단위 : 명)

연 도	봄	여 름	가 을	겨 울	합 계	제주항	서귀포항
2006	301,272	234,491	191,526	162,655	889,944	867,695	22,249
2011	303,009	235,769	192,513	163,448	894,738	872,370	22,368

주 : 서귀포항은 과거 5년간의 연안여객수송비중(0.25)을 바탕으로 산정하였음.

- 크루즈 관광여객 수요는 전국 크루즈 관광 여객 중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수평활법을 사용하여 예측한 후 이 예측치를 전국 크루즈 관광 예측치에 적용하여 추정함.

<표 III-1-6> 크루즈 관광여객 수송수요 예측

(단위 : 명)

연 도	제 주	전 국	제주/전국
2006	15,195	101,300	0.15
2011	36,240	181,200	0.20

다. 항공교통

- 항공여객, 항공화물, 항공운항회수 수요 추정 결과는 <표 III-1-7>과 같음.

<표 III-1-7> 항공 수요 예측

구 분	여객(천인)		화물(천톤)		운항회수(회)	
	국내	국제	국내	국제	국내	국제
2006	13,419	587	399	11	80,716	4,297
2011	18,233	924	542	20	110,487	7,248

자료 : 건설교통부, 「제2차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2000-2020)」 및 교통부 현황자료, 1994.
한국공항공단(www.airport.co.kr), 2001.

3. 교통부문의 사업계획

가. 도로 교통

(1) 수요관리를 통한 과밀해소

- 자동차 수가 2006년 18만2,100대(주차장 예상확보율 64.5%), 2011년에 20만7천대(주차장 예상확보율 56.5%) 이상이 되면 교통소통과 환경 등의 문제를 야기함.
- 적정 수요량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자동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심통행료 징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차 유료화를 통해 ‘내집 주차장 만들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존 건물부설 주차장 활용도를 우선적으로 높이고 지역단위의 주차장 현황을 조사·분석하며, 주차특별회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빌딩을 신축하도록 함.

(2) 신교통수단의 도입

-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는 트램(tram), 스카이라일(sky rail)과 같은 형태의 신교통수단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 우도 등의 도서에는 스카이라일을 설치함.
- 국도 99호선에 레일을 활용한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8m 도로가 이미 확보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의 환경 훼손 없이 신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으므로 경제성도 확보됨.
-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을 대중교통천국으로 설정하고 트램(tram) 위주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

(3) ITS사업 도전역 확대

- 현재 제주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 시범사업인 ITS 사업을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함.
- 도전역 ITS 사업을 통하여 차량의 이동성 증대, 도로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제고함.

(4) 도로 신설·확장

- 주간선 도로는 공급에 대한 수요보다는 확장과 안전,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의 이용 상태 및 관리 효율상 도로등급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표 III-1-8> 도로의 등급 조정

도 로 번 호	도 로 명	기 존	변 경
97호	동 부 산 업 도 로	국 가 지 원 지 방 도	국 도
1118	남 조 로	지 방 도	국 가 지 원 지 방 도

<표 III-1-9> 도로의 신설과 확장

구 분	구 간	연장(km)	사 유
국 도 확 장	5·16도로 2개구간	9.5	· 안전도 제고 및 수요증가
	일주도로 5개구간	43.7	
	중산간도로(광령~애월)	10.0	
	서부산업도로(동광~대정)	7.0	
	1,100도로	3.5	
국도대체도로 개 설	애월-노형-연동-아라-회천-신촌	22.0	· 안전도 제고 및 수요증가
	도시우회도로 3개구간	15.4	
지 방 도 장 확	동부산업도로	35.9	· 안전도 제고 및 수요증가
	남조로	30.2	
	대한로	7.2	
지 방 도 설 개	서성로	17.6	· 안전도 제고 및 수요증가
	제2산록도로	4.2	
시 도 정 비	오라관광지 연결도로	2.2	· 지방양여금 및 국비지원사업 · 관 광 활 성 화 도 모
	일도지구 연결도로	0.8	
	신제주-보건소 연결도로	1.8	
	법환-강정-약천사-대포-관광단지	8.9	
	서귀항 주변	4.2	
	예래동 유원지 진입로	2.1	
	하효-하예동간 신설(해안도로)	21.3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	88.9	
군 도 정 비	세화리-세화송당온천지구	7.5	· 지방양여금 및 국비지원사업 · 관 광 활 성 화 도 모
	군 도 확·포 장	243.2	
농 어 촌 도 로 정 비		77.0	· 지방양여금 및 국비지원사업 · 관 광 활 성 화 도 모
선도프로젝트 진 입 로	진입로 5개 구간	11.3	·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수행

자료 : 제주도 환경건설국 자료 및 시·군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연구진의 추정에 의해 구성

(5) 교통편의시설 체계화

- 관광교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정보제공시스템, 출발전교통정보제공시스템, 주행안내시스템, 시내·외버스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함.
- 기존 시외버스터미널을 정비하고 배차장을 시외곽으로 이전하여 공영차고지를 건설함.

(6) 도로시설 개선

- 용량이 크고 미관이 양호하면서도 안전도가 훨씬 높은 친환경적 라운드어바우트(round about)형 교차로를 설치함.
- 라운드어바우트(round about)는 대형교차로 뿐만 아니라 소형 예각교차로 등에도 실효성이 높으며 특히 도심내에서 효용성이 높음.
- 도심과 관광지구에는 ‘교통진정지구제도’를 적극 도입함.

(7) 도로표지판 개선

- 현재 도로관리청 중심의 도로안내체계를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함.
- 도로 개설 등과 같은 고비용/장시간 대책에서 저비용/단시간 도로안내체제로 정비함.
- 교통 수요 패턴과 정보 수요에 맞게 도로안내체계를 이용자 중심과 국제 수준에 맞게 개선함.
- 관광지 표지판 정비, 관광 안내지도(Guide map) 제작. 도로안내표지 정비 작업과 연계하여 기본 Guide map을 제작함.

(8) 대중교통 민·관합작회사 설립과 대중교통 정책

- 정부가 도로와 차고지, 터미널, 정류소, 버스의 기초투자를 하고 민간부문이 운영을 전담하는 형태의 대중교통 민·관합작회사를 설립함.
- 요금 결정이나 사업의 확장 및 축소, 새로운 기초 투자, 노선의 신설과 통합, 배차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민·관 전문가의 협의체인 ‘대중교통정책위원회(Transportation Policy Council)’에서 결정하도록 함.

(9) 녹색교통체계 구축

- 대안교통수단으로서 녹색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자전거, 보행, 마차 등의 교통수단을 관광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국도 12호선 자전거도로의 연결과 해안도로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서부산업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양끝지점에서 지방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에서의 자전거 접근처리와 램프(Ramp)에서의 자전거도로 연결 등의 문제를 개선함.
- 한라산 국립공원내에 모노레일 설치, 자전거 또는 보행자전용도로화 등으로 자동차 통행의 원천적인 제한을 둠.

(10) 자전거 도로 정비

- ‘1994년 자전거이용시설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까지 자전거도로 전체계획 1,105km 중 428km가 시설되어 있으며 자전거 보관대도 6,032대 분이 시설됨.
-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시 자전거 보관대 설치의 의무화함.
- 시·군에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등을 구성함.

나. 항공 교통

(1) 항공시설 확충

- 제주국제공항의 시설소요 분석결과, 활주로는 정밀계기용 운항절차를 위한 착륙대 폭이 기준보다 좁아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대폭 확장이 필요함.
- 제주국제공항은 국제적 중추기능과 권역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대규모 공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활주로 : 국제선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3,200m 이상급
 - 착륙대 : 등급과 지형여건 등 고려 적정 폭 확보
 - 항공 등화시설 : 양방향에 설치하여 항행 안전시설 확충
 - 여객터미널 : 여객 1인당 소요면적이 국내선은 9.3㎡, 국제선은 23.1㎡의 최소 서비스 수준으로 계획.
 - 위성 항행시스템 : 2010년까지 기본적인 위성 항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여 시험 운영

- 공항종합정보시스템 : 공항 이용자, 관리·운영자, 항공사 등을 위한 종합정보망을 설치하는 등 공항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단계 계획기간(2000~2010년)

- 활주로 착륙대를 현재의 225m에서 300m로 확장, 장애 구름 제거, 지상 감시레이더 신설, 저고도 돌풍 경보시설 설치, 접근 관제레이더 및 전방향 무선표지시설 개량 등 항공기 안전운항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확보 및 정비
- 국내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확장, 고속탈출 유도로 신설, 활주로 연장, 항공 등 화시설 개선 등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대폭적인 시설 확충과 위성 항행시스템 구축

○ 2단계 계획기간(2010~2020년)

-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선 여객터미널 신축, 계류장, 주차장의 지속적인 확장
- 공항입구 교차로 개선, 공항 접근 도로망 확충,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항 중심의 ITS 구축, 위성 항행시스템 구축 완료

<표 III-1-10> 제주국제공항 시설 확충계획

시 설 별	현 시설규모(2000년)		확충계획(2010년까지)	
	규모	처리 능력	규모	처리 능력
활 주 로	3,000m×45m	143천회/연간	3,200m×45m	177천회/연간
	1,499m×45m		1,499m×45m	
유 도 로	3,500m×30m		고속탈출 유도로 4본 신설	
계 류 장	14대(A300급)		2010년 26대	*2020년 36대
터 미 널		764만명/연간		1,864만명/연간

- 제주국제공항의 1단계 계획기간(2000~2010년) 중 시설 확충계획에는 2,50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제주국제공항내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등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 후 민자유치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 국내·외 항로 증설

- 국제 항로 증설 : 국제자유도시로서 제주지역의 무비자·무관세 혜택, 천진~서해안~제주를 연계하는 국제관광루트의 개발 등이 실현될 경우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므로 일본과 중국의 내도 관광객 증가를 고려하여 이들 국가의 관광객 수요량이 많은 도시간의 국제항로 개설을 적극 고려함.
- 국내선 항로 증설 대상 노선으로서는 개방형 통합 국토축의 하나인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연결하는 환남해축과 국제관광루트로서 천진~서해안~제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재 건설 중인 제주~무안 노선 및 설악권과 연계관광을 도모할 수 있는 제주~양양 노선이 우선 증설되어야 함.

<표 III-1-11> 항로 현황 (2000년)

구 분	노선	운항회수(연간)	운 항 구 간
국내선	12	53,225(2000년)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청주, 군산, 포항, 진주, 울산, 목포, 여수
국제선	7	2,450(2000년)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상해, 북경, 홍콩

자료 : 제주도 교통행정과 현황자료.

(3) 국제항공의 중간기착지로 육성

- 국내 타 지역간 항공교통과의 연계가 가능한 제주국제공항을 국내관광 및 국제회의 유치에 위한 중간 기착지로서 육성함.
-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아·태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편리한 환승 시스템 구축, 쇼핑시설, 운동, 휴양 및 오락시설 등을 확충함.

(4) 경비행장 개발 계획

- 제주국제공항은 중·대형 항공기 위주의 공항으로서 내도 관광객의 계절적 변화에 적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남부권역에 경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을 위한 경비행장을 건설하여 경비행기를 이용한 관광과 가까운 외국 및 국내 소도시 지역에서의 단기 여행을 용이하게 함.
- 향후 부정기 항공 운송사업 활성화시, 남부권지역에 경비행장을 건설함.

- 경비행장은 단계별 개발 계획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운항 안전성, 운송 채산성, 정부의 지원정책 및 투자재원 마련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며 입지, 노선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을 별도로 검토함.

(5) 지역 항공사 설립

- 국내선 노선 확충과 탄력적인 수요에 대한 공급의 한계, 항공요금의 빈번한 인상으로 인한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 가중,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 등과 같은 상황에서 제주를 거점으로 하는 저비용 지방항공사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을 확보해 나감.
- 수익을 전제로 하는 부정기 항공사든 고정스케줄에 따라 운행하는 정기항공사든 기존 항공사의 협조체제를 구축함.
- 추자, 우도 등에 주민의 긴급 교통과 관광객 수송을 위하여 헬기장 건설과 헬기 운항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위주로 한 개발 타당성을 검토함.

(6) 공항 개발에 따른 소음피해 방지대책

- 제주국제공항은 제 2종 구역으로 제주시 관내 용담동, 이호동, 도두동, 도평동, 내도동, 외도동 일대의 19호의 가옥과 제3종 구역의 ‘가’지구 582호, ‘나’지구 918호 등 총 1,519호가 소음피해지역에 포함되어 있음.
- 항공기 소음대책으로서 방음시설 설치, 유선방송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
- 소음피해와 관련된 적절한 소음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보완함.

다. 항만 확충계획

(1) 항만별 전담화 추진

- 항포구의 개발 여건상 여객선 및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의 동시 수용이 가능하도록 종합 항만으로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4개 시·군의 산업 특성에 맞도록 지역별 항만의 기능을 전담화하여 개발하며 태풍 등 기상 악화시 어선 등의 피난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함.
- 농·축·수산물 전용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임항창고를 건설함.

○ 제주의항

- 제주의항의 관문항으로서 항 개발은 2001년에 시작하여 2011년에 완료할 예정임.
- 제주의항은 최대형 유람선(8만 톤) 및 대형화물선(최대 3만톤급)이 접안 가능한 전용부두로 개발함.
- 항만 배후지 조성은 별도봉과 사라봉에서 이격한 인공섬의 형태로 개발함.

○ 서귀포항

- 서귀포항 주변의 5만²m²를 개발하여 호텔, 상업·낚시 빌리지(Fisherman's Wharf), 유람선 접안시설, 면세쇼핑시설, 어류 도·소매시장 등을 입지함.
- 중·소규모의 크루즈 유람선을 유치하기 위해 중문관광단지와 연계시켜 국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항만 배후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함.
- 항만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화물선(최대 5천톤급) 5선석을 개발하고, 관광수요 증가시 유람선 접안시설 확충을 검토함.

○ 화순신항

- 연안화물 유통기지 기능과 화물선(최대 5천톤급) 7선석을 개발함.

○ 애월항

- 제주 서부권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와 인근 제주항의 보조기능을 위해 화물선(최대 3천톤급) 2선석을 개발함.

○ 추자항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해상교통 수여증가에 대비한 항만시설 확보와 지역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개발로서 여객선(5천톤급) 1선석을 개발함.

○ 성산포항

- 연안화물 및 수산물 유통기지 기능과 제주도 동부권역 어선의 모항 역할
- 인근 관광지의 해상교통로의 기능 역할을 위해 물양장(100m)을 개발함.

○ 어항

- 어선의 안전 정박 및 어획물 양육어항으로 개발함.
- 기상 악화시 어선의 긴급 대피항으로 개발함.
- 해양레크리에이션과 조화를 이루는 어항으로 개발함.

(2) 선박의 대형화, 고속화 및 항로의 증·개설

- 해상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항소요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하며 내륙연계를 위해 완도 노선에 철도나 고속도로의 건설이 요청됨. 특히 항공항로에 비해 해상항로는 통행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통행비용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도외통행을 위해서도 해상항로의 확충이 바람직함.
- 해상항로 확충의 가장 핵심사항은 운행시간의 단축수용능력 확대, 내륙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확립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 기존의 항로만으로는 육지부와의 연결이 남해안과 수도권에 치우쳐 있어 동해안이나 중부권에서 접근이 불리함.
- 동해안의 관광지와 중부권을 연결하는 제주~속초, 제주~포항, 제주~군산 등의 항로 신설이 바람직함.
- 국제 해양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제주~나가사키·오사카, 제주~상하이, 제주~홍콩간의 항로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제주~거문도~여수항로를 통해 해양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상교통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라. 기타 교통 개선 사업

- 관광정보 제공 : 공항 내에 동영상 전광표지를 설치하여 교통정보/CCTV 동영상/관광 정보 안내/제주도 홍보 안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가구통행조사 및 통행(O/D) 자료 구축 : 제주도가 국제관광도시, 첨단교통 모델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 및 개발 우선순위 설정, 기존 관광지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교통계획, 첨단교통시스템의 도입 등이 필요하며 이를 계획·평가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통행자료(O/D)를 체계적으로 구축함.

제3절 유통산업의 현대화와 물류산업의 선진화

1. 현황

가. 유통업체 및 종사자 수

- 도내 유통업체 수는 전국의 1.2% 정도이며, 도내 사업체장 종사자 수는 1999년 기준 2.48명으로 전국평균 2.58명 보다 낮음.

<표 III-1-12> 도·소매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추이

구 분	사업체 수(개)			종사자 수(명)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1997	12,537	980,662	1.27	31,111	2,589,493	1.20
1998	11,960	936,125	1.28	30,017	2,307,549	1.30
1999	11,532	909,205	1.27	28,558	2,345,671	1.22

자료 : 통계청, 「도소매통계조사보고서」, 2000.

나. 도·소매업 판매액 추이

- 도내 유통업체 판매액은 전국증가율(5.9배)보다 크게 낮으며 전국 대비 판매액 비중도 0.91%에서 0.73%로 감소
- 도내 업체당 판매액은 1990년 6,030만원에서 1999년 2억3,530만원으로 업체당 3.9배 신장되었으나(전국은 4.8배 신장됨) 도내 비제조업체의 기업경영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경쟁 심화 및 자금조달의 문제를 지적했음.

<표 III-1-13> 도·소매업 판매액 추이

구 분	판매액(십억원)			업체당 판매액(백만원)		
	제주(A)	전국(B)	A/B(%)	제주(A)	전국(B)	A/B(%)
1997	2,924.0	259,518.1	1.13	233.2	264.6	88.13
1998	2,788.7	243,319.8	1.15	233.2	259.9	89.73
1999	2,714.0	369,433.0	0.73	235.3	406.3	57.91

자료 : 통계청, 「도소매통계조사보고서」,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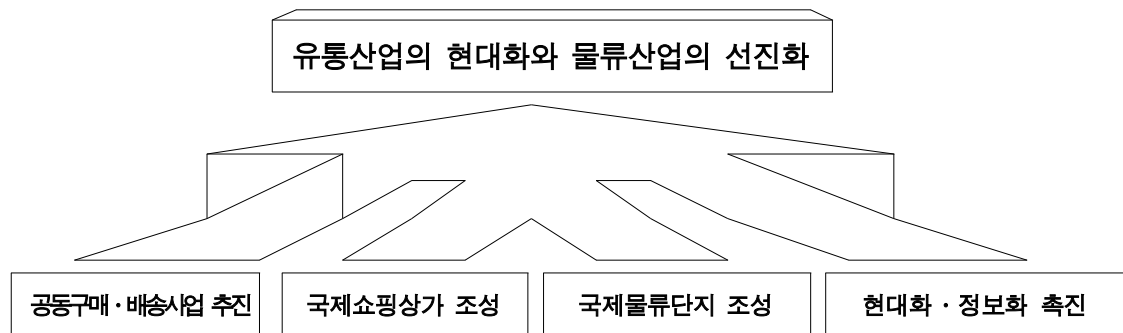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WTO체제 이후 유통시장 개방(1996. 1)으로 외국 대형유통업체들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 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유통시장 신규 진입과 기존 대형 유통업체의 지방 진출로 기존 백화점,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의 경쟁력이 위축됨.
- 공항 및 항만 주변의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을 지정하여 국제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고 있음.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통관제도를 개선하고, 대폭 간소화 함.
- 원재료의 조달에서 완제품의 소비에 이르는 전체 제품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급체인관리(Supply Chain Management)가 물류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

나. 기본방향

- 중소유통업체 시설 현대화 및 지역밀착형 전문화, 특성화로 경쟁력 제고, 체인사업자의 공동 구매 및 공동 배송사업 추진 유도로 물류비 절감, 전통 민속오일시장 육성 관광자원화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국제쇼핑상가 조성, 전자상거래 확산 및 지역상품 정보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
- 물류부문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첫째,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 단지를 조성하고 둘째, 물류산업의 정보화, 현대화를 추진함.



<그림 III-1-3> 유통·물류산업의 발전방향

3. 유통·물류부문의 사업계획

가. 유통의 현대화

(1) 시설 확충 및 지원확대

- 점포시설 현대화, 공동창고 시설사업, 재래시장 시설 개선, POS시스템 도입 등 유통 정보화를 도모함.
- 체인사업자 등의 공동 구매·배송사업 확대 추진 : 4개 지정체인 사업체 중심으로 공동 집·배송사업 지원, 공동 집·배송단지 시설 검토 및 시설방안을 강구함.
- 새로운 체인사업체가 추가 조직화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함.

(2) 전통 오일시장 육성 관광자원화

- 주민 활용에 편리한 장옥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자가 생산 농·축·수산물의 직판장화, 휴식시설 확장, 만남의 장소 제공 및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등
-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1개소씩 시장 특성화를 유도하고, 공동창고 건립, 재래시장 편익시설 확충, 상점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통오일장 활성화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특화의 방향은 시장상인의 자율에 맡기되 관련공무원, 상인대표, 학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공동으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함.

(3) 특화상품단지 및 특화거리 조성

- 지역별로 공·민예품단지, 농산물단지 등 특화된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특화상품단지 관련 업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함.
- 자연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지역을 특화상품유통단지(민·공예품단지등)로 지정·육성하고 특화거리화, 특화거리 홍보 및 상징조형물 설치, 특화거리별 다채로운 축제이벤트 행사, 사이버 마트 등을 통하여 지명도를 높여 나감.

나. 물류의 선진화

(1)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단지 조성

- 첨단 제조업체의 입주를 통해 국제물류단지가 생산, 물류, 교역의 복합단지로 성장하여 글로벌 SCM 중심지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함.
- 제 3자물류업체(물류 전문업체)의 적극 유치, 생산·물류·교역의 통합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SCM 지향, 신속하고 편리한 킷 서비스를 지향, 통합물류정보망의 구축을 실현함.
-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단지의 혜택 및 입주업체
 -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직접세, 간접세 지원
 - 입주업체 : 등록업체, 지원업체, 국가 또는 공공기관

(2) 권역별 물류시설 조성

- 북부권(기점항 : 제주항) : 물류단지 조성과 더불어 제주항을 대형선박을 위한 중추항만, 관광을 위한 크루즈항, 우리나라 중심항의 연안 피더항으로 발전시킴. 제주항 인근 지역에 복합화물터미널을 건립함.
- 남부권(기점항 : 서귀포항) : 단기적으로 유람선 관광항, 장기적으로 제주의항과 연계하여 대중국 무역의 피더항으로 개발함. 국제크루즈선 전용항으로도 개발함. 서귀포항 인근지역에 소규모 화물터미널을 건립함.
- 동부권(기점항 : 성산포항) : 어업 전진 기지항으로 육성. 성산포항 인접지역에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설립함.
- 서부권(기점항 : 화순항) : 지역 연안화물 수송 지원항으로 개발. 화순항 인근에 일반 화물터미널을 설립함.(제주항의 화물량과 연계)

(3) 물류산업의 현대화

- 보관창고의 개선, 포장산업과 하역시스템의 현대화, B2B(Business to Business)의 활성화 및 지원을 추진함.
- 글로벌 물류전략의 수립 : 국내 물류업체의 대형화 및 세계적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고 국제 수준의 물품 조달 및 제품 판매 시스템을 도입함.

- M-commerce의 확산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 모바일시스템(휴대전화, PDA, TV 등)은 정보 이용 및 결제수단으로 사용영역이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함.

(4) 물류산업의 정보화

- 물류산업의 디지털 기반을 강화함. 현재 물류산업은 전자상거래 자체의 활성화와 이를 위한 기반인프라의 조성이 더욱 절실함.
- 물류 관련업체의 기업 내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및 민·관합동의 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되 국내 물류시장의 현실에 맞게 접목함.
- 사이버 물류전략의 수립 : 사이버물류전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전략으로서 물류업체나 공급업체와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유지하도록 함.
- 국가종합물류정보망과 연계된 지역 물류정보망을 구축함.
- 물류정보통신망, 항만운영정보시스템 등 유관정보망과의 연계를 고려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무역정보통신망, 통관망, 금융망, 보험망 등과 연계한 종합물류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
- 화주, 운송업체, 알선업체, 개별차주를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화물알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관제센터 구축 및 지능형 교통시스템(ITS)과 연계한 공로화물정보체계를 구축함.

(5) 물류 표준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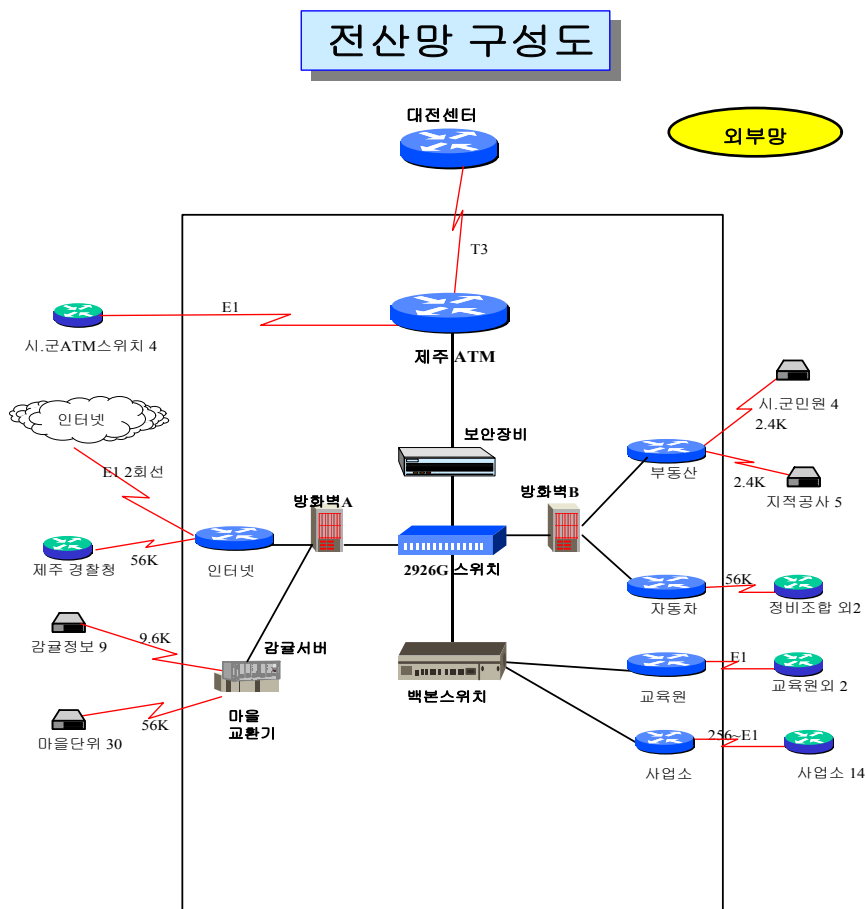
- 물류 표준규격 미비 분야를 대상으로 KS규격을 물류규격에 맞도록 정비하고, 화물차 적재함, 화물터미널, 창고시설, 팔레트, 화물적재기준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함.
- 포장의 모듈화를 추진하고, 수송용 팔레트의 수송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감. 국내 수송용 표준 팔레트(T-11형)를 비롯한 9종의 팔레트를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준에 맞도록 정비함.
- 현재 총 9종으로 되어 있는 KS규격 팔레트를 통일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지원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규격에 맞는 물류 표준화사업을 적극 추진함.

제4절 사이버제주 실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1. 현황

가. 인력과 시설

- 정보화 조직은 기획관리실장이 정보화책임관(CIO)을 겸직하고 있으며 기획관리실 산하에 정보화담당관실을 두어 정보정책, 정보통신, 전산개발, 통계팀을 담당함.
- 주전산기를 비롯한 자치단체별 정보화사업 메인 컴퓨터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시·군간 편차가 심함.



<그림 III-1-4> 종합정보망(JEJU-NET) 구성도

나. 통신시설 및 가입자 수

<표 III-1-14> 전국 대비 제주지역의 전화회선 수 및 가입자 수 비교 (1999년)

구 분	전화시설수(회선)	전화가입회선수(명)
전 국	24,464,163	20,518,092
제 주	273,985	222,291
전 국 대 비	1.1%	1.1%

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산업실태조사」, 2000.

다. CATV 가입 현황

<표 III-1-15> 전국 대비 제주지역의 CATV 가입 현황 (2000년)

(단위 : 가구)

구 분	2000	1999	1998	1997
전 국	2,338,159	1,573,241	1,002,866	825,075
제 주	31,471	32,852	20,899	21,214
전 국 대 비	1.3%	2.1%	2.1%	2.6%

자료 : 대한민국통계정보(www.state.go.kr)

라. 정보통신망 가입 현황

<표 III-1-16> 정보통신망 가입 현황 (2000년)

(단위 : 명)

구 분	ADSL	ISDN	PC통신	Kornet	Hinet-P/F	CO-Lan
제 주 도	7,554	2,654	2,376	2,252 (Dial-Up port 포함)	637	184

마. 마을정보센터 인프라 구축 현황

<표 III-1-17> 제주지역 마을정보센터 인프라 구축 현황 (2000년)

구 분	정보기기설치 현황(대)				통신장비설치 현황(대)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기타	라우터	허브	CSU
제 주 도	516 (3대/마을)	344 (2대/마을)	172 (1대/마을)	전화기:344 복사기:172	142	142	30

자료 : 제주도, 정보화담당관실 내부자료,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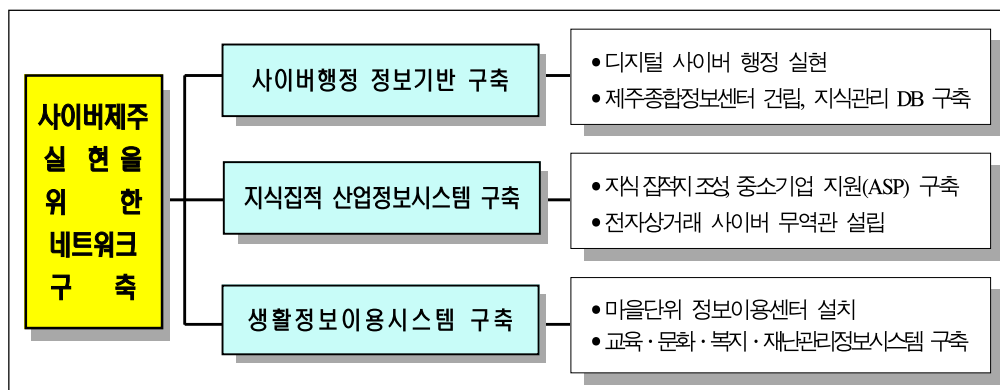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행정정보 수요 증대, 국내·외 정보네트워크 활성화, 교육·문화·의료·생활·도시정보시스템의 일반화, 산업기술시스템 보급·확산이 요구됨.
-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으로 도시안전과 관련된 정보수요가 증대되고, 행정정보와의 연계로 사이버 민원업무, 주민생활에 밀접한 교육·문화·의료·복지·해양자원관련 정보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디지털 정보화하고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며 문화관광, 전자상거래 확산 등에 관한 정보수요 증대가 예상됨.

나. 기본방향

- 지역정보화 기반의 확충과 주민 정보화 지원의 확대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시스템 개발, 환경관리 및 재난구조체계의 정보화로 'Clean e-Knowledge Land'를 구현함.
- 지역산업과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지역망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그림 Ⅲ-1-5> 정보·통신계획의 기본방향

3. 정보·통신부문의 사업계획

가. 행정정보

(1) 지식 관리 DB 구축

- 전자결재의 각종 산출물, 정책 보고서, 민원처리 결과 등 모든 정보와 지식을 통합 DB화한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인터넷을 통해 도민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저장·관리하며, 네트워크망을 통해 정보를 유통·공유함.

(2) Digital Cyber 행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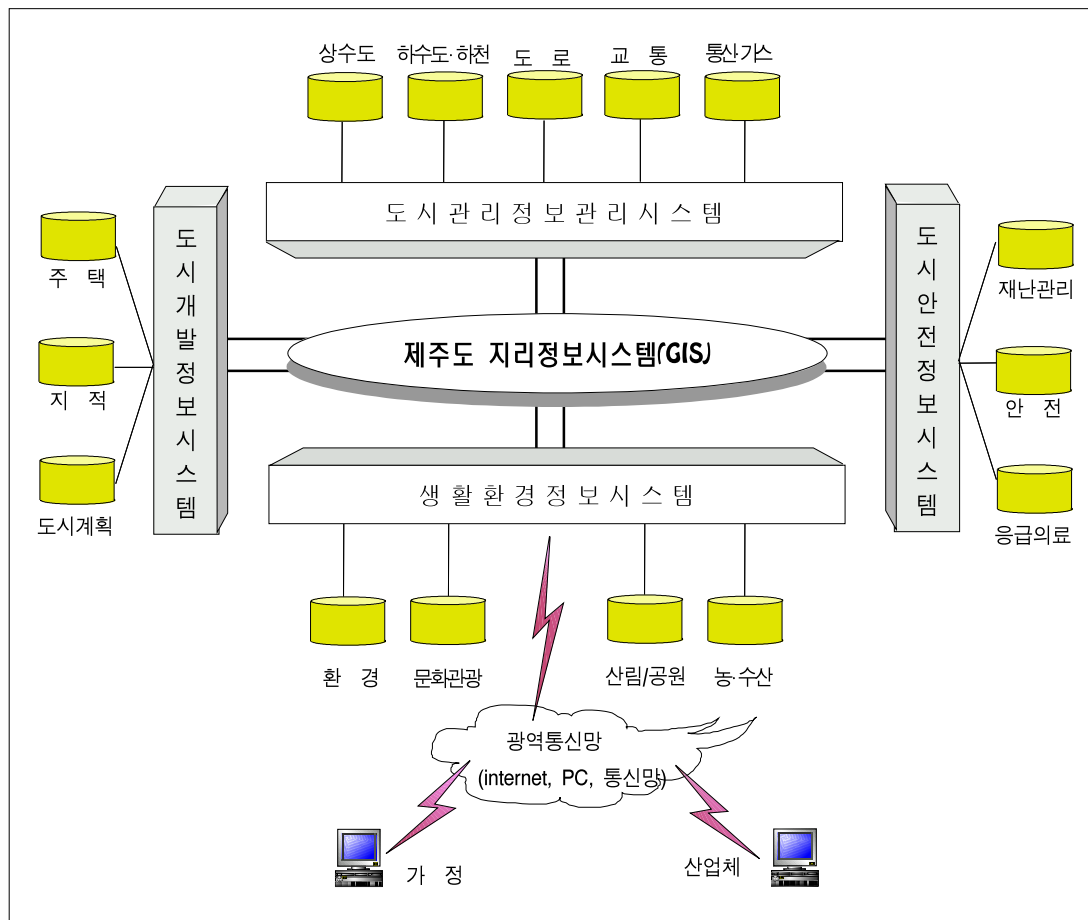
- 전자결재, 전자우편, 모든 개인의 일정 관리, 출퇴근 체크, 기안서 작성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룹웨어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도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행정자료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전자행정자료실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전자민원서비스체계를 확대 구축함.
- 외국인 투자 관련 법, 제도, 금융 관련 정보, 부동산 및 주택 관련 정보, 자녀 교육 및 생활환경 정보 등 투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해외투자유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MIS(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와 의사결정 시스템(DSS/EIS)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함.
- 행정서비스 수요자들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무선통신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

(3) 대민 서비스 m-Government 시스템 구축

- 인터넷, e-Mail, 모바일, TV 등 가능한 모든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여 각종 고시 및 고지가 당사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모든 인터페이스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전달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처리 안내 및 추적시스템을 모바일화하여 처리결과가 즉시 민원인에게 고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인터넷 전자입찰 시스템을 구축함.

(4) 지리정보시스템(GIS) 확장

- 지리정보시스템과 3차원 가상현실 및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도전역 관광지 및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홍보를 극대화하는 사이버 제주타운을 건설함.
- 중앙정부의 GIS사업추진계획과 연계하여 12개의 단위 사업별(상수도, 하수도·수자원, 도로, 교통, 통신·가스, 도시계획, 환경관리, 문화·관광, 재난관리 등) 시스템을 포함하는 제주 GIS 구상시 국가 GIS사업 및 타기관에 의해 공공차원에서 통합되어 관리되어야 할 대민서비스 업무 등과 연계하여 구축토록 함.
- 지역 전체가 통합되고 상호 연계·관리되어야 최대의 구축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위사업별 시스템과 타기관의 정보시스템(통신·가스, 경찰·소방, 응급의료, 농축산, 문화·관광)을 추가적으로 함께 표시하여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토록 함.



<그림 III-1-6>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구상도

(5) 인터넷 전자입찰 시스템 구축

- 각종 조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실적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 인증, 전자 결제 등을 포함한 전자조달 시스템을 구축함.

(6) 제주종합정보센터 설립

- 제주도 산하에 ‘제주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행정, 산업, 주민생활 등 각 분야별 DB를 구축하고 시·군의 지역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외부에 정보를 제공함.
- 주요 기능은 단위업종별 신용정보지원업무, 시장 및 기술정보 공급, 지역관광자원정보 제공, 전자행정자료 및 민원처리지원업무, 화상회의 및 국제교류지원업무, 원격의료, 사이버교육서비스 지원업무, 전자상거래 업무지원 등임.
- 「제주종합정보센터」의 핵심사업인 행정·산업·생활·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종별 신용정보 지원, 시장 및 기술정보 공급, 문화관광자원 정보 제공, 전자행정자료 및 민원처리 지원, 화상회의 및 국제교류 지원, 원격의료서비스, 사이버교육서비스, 전자상거래, 도시공간정보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민원업무와 여러 부처나 관계기관의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계함으로써 최적의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네트워크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공동이용체계를 확립토록 함.

「제주 사이버 시티(Cyber City)」 구현
제주종합정보센터

행정정보시스템	- 전자결재 및 유통시스템 - 사이버행정자료실 - 의사결정지원시스템 - 재택전자민원시스템 - 화상민원상담시스템 등	산업정보시스템	- 제주산업정보기술센터 - 중소기업가상직판장 - 농수축산정보시스템 - 제주 넷 - 전자상거래무역관 등
생활정보시스템	- 교육정보시스템 - 문화관광정보시스템 - 사회복지정보시스템 - 마을정보사랑방 - 사이버영상문화제 등	도시정보시스템	- 상하수도관리시스템 - 도로관리시스템 - 지적관리시스템 - 재난관리시스템 등 -

<그림 III-1-7> 「제주종합정보센터」 구성 체계도

나. 산업정보

(1) 농·수·축산업정보 시스템 구축

- 고품질의 농·수·축산물의 생산·공급 및 유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주요 농·수·축산물의 재배 의향에서부터 최종 수확에 이르기까지 생육단계별로 관리 지원할 수 있는 농·수·축산생산예측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농가의 각종 농·수·축산물 생산에서 소비자에 이르는 전 유통체제를 지원하는 농·수·축산업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종묘법」, 새로운 품종 개발, 특수 농작물 재배, 출하시기 조절 등에 관한 지식을 DB화 하고 이를 국내·외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함. 특히 농림부 농림수산정보망(AFFIS)과 연계하여 농업 관련 정보를 제공함.
- 농·수·축산 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제공하는 농·수·축산업기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산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 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홍보 및 생산 제품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함.

(2) 중소기업 지원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구축

- ASP 서비스 이용 기업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만 소유하면 되므로 정보화에 따르는 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 하드웨어(Hardware), 운영체제 등 정보 인프라, 경영관련 패키지 소프트웨어(Software) 및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ASP를 구축함.
- 지역정보 업체와의 공동협력으로 지역 ASP를 구축하여 예산 절감, 지역 정보산업 발전,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함.

(3) 기간통신망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

- 기간통신사업자(한국통신, 하나로통신, 케이블망 사업자 등)와 연계된 초고속 유·무선 회선의 확대구축 방안 등 기간통신망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함.

(4) 관광·휴양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Web-KIOSK를 통한 도전역 네트워크화, 관광지 안내 음성정보 제공, 원클릭(One-Click) 맞춤형관광, 대안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새로운 고객 확보 및 기존 고객의 재방문을 위한 고객 관계 서비스(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체제와 관광정보의 실시간 상담 및 예약 등을 위한 콜센터(Call Center)를 단계적으로 구축함.
- 관광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를 연결한 정보망과 다양한 관광정보 관련 기관을 통합한 정보시스템을 국가종합관광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함. 인터넷을 통한 관광예약과 쇼핑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 지불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함.
- 관광객이 교통, 숙박, 관광지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관광객의 취향, 일정, 소비금액 등 관광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제주 관광 원카드 시스템’을 구축함.
- 관광객이 관광 일정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 게임, 실내 스포츠, 사이버 경마, 영화, 문화, 역사적 관광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안관광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고객의 취향에 맞게 관광 일정 및 방문 장소, 여가 활용장소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원클릭(One-Click) 맞춤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지 정보를 유·무선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관광지 안내 음성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5) 전자상거래 무역관 설립

- 특산물, 민예품, 공예품을 중심으로 사이버 재래시장 쇼핑물을 운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특산품과 민예품 및 공예품의 판로를 확대함. 특히 조직간 정보시스템 연계로 가격 및 상품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 거래 지원 및 주문처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 전자상점(E-Market Place)을 구축함.
- 지역 특산품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 쇼핑몰 구축 및 무역관련 영업 지원, 기술 인력과 자금 지원으로 사이버 쇼핑물과 상품 DB화를 자치단체와 해당 조합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련기업간 정보 공유, 구매와 판매를 추진함.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기업의 수출 활성화와 마케팅 역량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을 양성함.

(6) 제주S/W지원센터 지원 강화

- S/W기업의 경영, 마케팅 지원, S/W개발장비 사용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지식 기반산업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주S/W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7)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설립

- 도내 대학 및 정보통신교육원 제주분원을 통한 IT인력 배출에 따른 멀티미디어 장비 수요가 급증되고 있으나 도내 관련시설이 전무한 실정임.
- IT관련 벤처·중소업체에 대한 고가의 멀티미디어 장비 지원 등 열악한 환경 극복과 성장을 위한 종합지원시설 설치가 시급함.
- 시설·장비 및 정보 지원 등 IT관련 벤처·중소업체에 대한 종합지원시설인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기함.

다. 생활정보

(1)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 개개인과 사회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정보사회 생활 및 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사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시스템 환경을 조성함.
- 대중교통, 지역도로정보, 종합관광 교통정보, 신호체계 등에 대한 도전역 ITS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함.

(2) 교육·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청소년간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정보매체 및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한 상담·교육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소년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 문화공간, 도서관 및 박물관의 각종 자료의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정보를 도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민 문화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 정보화, 취미생활, 전문정보, 여성정보, 육아정보, 재테크 등 사이버 강좌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3) 사회복지지원정보시스템 개발

- 여성의 정보화 능력 배양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정보 제공과 정보 교육을 지원하는 여성복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복지시설 안내정보, 건강정보, 여가, 취미, 레저 등 각종 복지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과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단체 등과 연계된 재활시설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함.
- 각종 구직과 실직자 취업 알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취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함.

(4) 환경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환경 오염원, 측정망 자료 등의 DB 검색 및 자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Software)를 개발하고, 환경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각종 오염유발 물질의 발생에서 처리까지의 관리를 위한 환경오염감시시스템, 폐기물 재활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함.

(5) 재난안전관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사고의 예방 및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AWS) 시스템 등 중앙정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과 유사시 효율적인 구조·구난을 위해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119위치정보시스템, 구조구급정보 DB 등 소방관리시스템과 재해관리시스템, 기상정보시스템 등을 GIS와 연계한 통합 지역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함.

(6) 마을 정보이용센터 활성화

- 1마을 1단위로 설치된 마을 정보센터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 소득 증대, 전통문화 보전 등에 기여하고, 사이버교육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격조 높고 생동감 있는 문화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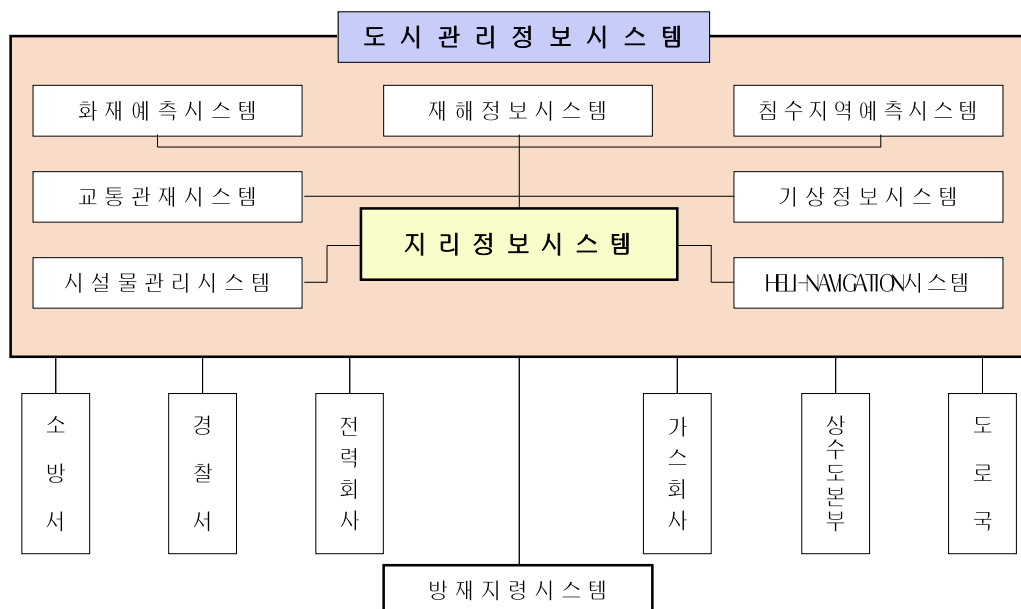
- 기 설치된 마을정보센터를 확대하며, 권역별, 인구 수 및 특성별, 지역간 정보화 격차 등의 요인분석을 통해 초고속망과 연결된 PC 및 정보통신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함.

(7) 정보화교육시스템 구축

- 정보화 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학교 전산교육실을 이용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도민정보센터를 이용하여 기초, 중급, 고급 과정의 단계별 정보화교육을 실시함.
- 농어촌 주민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DB와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선진화된 영농기술의 습득과 적용, 농수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수산물 유통 개선 등의 기회를 제공함.

(8) 도시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 내 다양한 정보시스템과 통신체계, 첨단기술과 학계, 민간전문업체가 보유한 첨단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민방위담당부서내에서도 조직구조와 인력을 확보함.
- 각종 위기상황을 예측하거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정보시스템, 화재예측시스템, 침수지역예측시스템, 기상정보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시설물관리시스템, 방재지령시스템 등 다양한 서브시스템을 개발·운영토록 함.



<그림 Ⅲ-1-8> 도시관리 시스템 구축

- 방재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과 각종 서브시스템 개발을 통해 방재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와 전산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 관리·운영토록 함.
- 재난관리종합계획 수립, 자연재해 업무종합계획 수립, 인적·물적 지원 가능자원 분석, 재난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책임기관별 위험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소방용수시설 관리, 민방위대 지원관리 등을 대상으로 도시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지리정보시스템(GIS) 및 구미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자연재해 업무D/B, 인적·물적 지원 가능자원 D/B,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D/B, 책임기관별 위험 시설물 D/B구축과 시스템을 운영함.

제5절 국제교류 · 협력 강화

1. 현황

가. 지자체 간 교류 협력

- 현재 미국 하와이(Hawaii)주, 인도네시아 발리(Bali)주, 러시아 사할린(Sakhalin)주, 중국의 하이난(海南)성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한·일해협연안지사회의’ 섬관광정책 포럼(ITOP forum) 등의 교류 · 협력사업을 추진함.
- 제주시는 일본의 와카야마(和歌山)현 와카야마(和歌山)시, 미국의 라스베이가스(Las Vegas)시, 중국의 광서장족(廣西壯族) 자치구 꾸이린(桂林)시와, 서귀포시는 일본 사가현 가라츠(唐津)시, 중국 하이난성 삼아(三亞)시, 중국 산둥(山東)성 용구시와 자매결연 내지 우호 협력관계를 맺고 있음.
- 남제주군은 일본 와카야마현 나가(那賀)군, 중국 요령(遼寧)성 흥성(興城)시, 뉴질랜드 파파쿠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북제주군은 중국 산둥성 라이저우(萊州)시, 일본 효고(兵庫)현 산다(三田)시, 미국 샌타로사(Santarosa)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 자매결연 대상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고 있으며, 결연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상호간의 관심 부족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일부 친선 위주의 교류를 제외하면 교류활동이 단순화된 일회성에 그침.

나. 대학 · 민간 · 시민단체의 국제교류

- 제주대학교는 일본의 도호쿠(Tohoku) 대학, 미국의 퍼듀(Purdue) 대학 등 7개국 18개 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수행하고 있으며 탐라대학교,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학, 제주관광대학에서도 다양한 학술교류를 행하고 있음.
- 라이온즈 클럽, 로타리 클럽, 청년회의소, 한국 보이 스카우트 제주연맹 등의 사회단체와 제주관광협회, 제주상공회의소 등의 경제관련 단체, 한림농협 등이 주로 일본 · 중국 · 대만의 민간 · 사회단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친선 교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44개 기관·학교·단체에서 11개국 93개 기관·학교·단체와 자매결연 관계를 맺고 있으나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와 호응이 매우 부진한 실정임.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기본목표와 방향	전략과제	주요사업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심 도시	세계 평화의 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평화의 섬 지정 ·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 유치 · 남북평화센터 설립 · 제주평화포럼 정례화 · 국제회의 신설·유치
아·태권 국제교류의 거점 도시	국제교류 협력강화를 위한 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직 정비 및 지자체간 통합성 제고 · 제주국제교류재단 및 관련 협의회 설립·운영 ·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 시민참여형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 외국자본 및 다국적기업 사무소 유치 · 국제화 추진 교부금 및 기금 설치 ·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글로벌화를 주도할 인재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세계시민 교육 강화 · 외국어 서비스 및 외국어 교육 강화 · 교육규제자유지역화 · 고등교육기관 특성화 유도 · 국제화 전문교육기관 육성 · 교육재정 지원 확대 · 국제화장학재단의 운영 활성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무시중 대상지역의 확대 및 시중 발급제도 개선 · 외국인 학교 및 문화시설 설립
	도외 제주인 및 외국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제주인대회 개최 및 정례화 · 도외 제주센터 설립 ·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과의 연계망 구축 · 인력의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심 무대	남북교류 및 평화 정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 북한보내기사업의 정례화 · 남북한 통합 이벤트 개최 · '남북평화센터·가칭 밀레니엄관' 건립

<그림 III-1-9> 국제화부문의 기본방향

나. 추진전략

-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이미지에 입각한 국제교류·협력의 거점화를 통해 제주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프로그램 마련함.
-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관광·물류·금융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토록 함.

3.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및 접근 모형

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의의

(1) 의의

-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은 ‘4·3 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제주도가 남북화해와 동북아 평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제주사회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평화의 섬 만들기는 1990년 초 한·소 정상회담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지만 그 후 제주도의 역사성, 지정학적 위상, 생태·자연적 조건 등의 측면에서 평화의 섬 위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음.

(2) 도민의 의견(2001년 2월)

- 제주도민의 76.3%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면 우선적으로 남북대화교류센터(24.9%)와 세계 평화연구센터 설립(21.4%)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임.

나. '제주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접근 유형

(1) 평화지대 모형(중립화 또는 비무장화)

- 본래적 의미의 '평화지대'는 최소한 '비무장화'를 전제로 함.
- 이론상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은 이러한 중립화 또는 비무장지대화가 주변국의 협력 내지 국제적 보장을 통하여 조성되고 이를 기초로 스스로의 평화를 구축하고 아울러 적극적 평화관에 입각한 평화 운동의 중심으로서 또한 지역평화를 위한 '완충지대'(buffer zone)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평화지대' 형태로 추진될 수도 있음.
- 제주도가 독자적인 입법권과 외교권을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립화 또는 비무장화의 평화지대 모형을 제주에 적용·실천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제한적 범위에서 지역적 분쟁해결이나 평화 관련 회의 및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회담의 개최를 통하여 제주도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함.

(2) 경제특구 모형(국제자유도시화)

-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은 정치적인 성격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인 관점에서 번영과 복지의 요소가 중시되는 '평화·번영·복지의 섬' 구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경제특구로서의 '세계 평화의 섬'은 자유무역항과 자유무역지대의 설치, 국제물류기지의 조성 그리고 전도의 면세지역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특구 혹은 국제자유도시화를 통한 제주의 평화·번영·복지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되어질 수 있음.
- 현재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 구상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를 통합할 수 있는 모형 정립이 필요함.

(3) 국제교류·협력 거점 모형(학술·문화·관광 중심지화)

- 학술·문화·관광 교류 차원의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도를 학술적 차원에서 '평화 사상'을 연구·전파하고 문화적 차원에서 평화 관련 학술활동 및 회의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거나 유치하고 '평화 운동'을 활성화하는 등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학술·문화·관광 교류 차원의 제주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은 정치적·군사적 차원이나 경제적 차원의 평화의 섬 구상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하여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에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임.

(4) 통합적 접근 모형

- 제주의 이미지와 비전을 통합하고 발전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의 섬’ 구상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및 추진에 있어서도 경제적 접근과 기타의 접근 모형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평화의 섬’ 구상은 단기적으로는 ‘경제특구화’(국제자유도시화) 모형과 ‘국제 교류·협력 거점화’ 모형을 통합하여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평화지대화’ 모형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단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 국제교류·협력부문의 사업계획

가. ‘세계 평화의 섬’ 실천 사업

(1)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 국제기구의 동북아 또는 아시아, 태평양 사무소 형태의 분소나 국제기구의 사무국 및 동북아지역 안보 및 해양 협력기구 등을 유치하여 제주 ‘평화의 섬’ 구축에 기여함.
- ‘섬관광정책포럼’(ITOP Forum) 사무소를 설치함은 물론, 이를 확대·발전시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섬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아·태 섬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사무국을 유치함.
- ‘BESETO협의회’, ‘환황해도시회의’ 등 국제기구 본부나 신규 산하기구를 유치하고,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지문기관의 지위를 가진 ‘유엔평화사절도시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 Messenger Cities; IAPMC)에 가입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세계 평화의 섬’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조항 등을 규정하고, 지역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을 통하여 추진함.

(2) '남북평화센터-가칭 밀레니엄관' 건립·운영

- '남북평화센터'는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대안을 연구·제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능을 담당함.
- 평화연구 및 학술회의(제주평화포럼 포함) 개최, 평화시설 관리, 평화·인권국제네트워크 구축, 제주평화 정신 계승 및 세계 전파, 남북교류 담당, 평화 인력 양성 등을 담당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남북평화센터) 설립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이므로 국고지원이 필요함.
- 평화센터에는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기록을 보관·전시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일해 온 업적과 성과를 기리는 동시에 살아 있는 평화교육 현장으로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관람하는 명소가 되도록 함.
- 가칭 '밀레니엄관'은 이들 세계 정상들의 제주방문과 인류 평화를 위해 노력한 자취를 기리는 한편 분쟁 조정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평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3)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

- 제주평화포럼은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윌리엄 페리 전 미국방장관 등 국제지도자급 인사 200명 내외를 초청하여 '제주평화선언'을 채택하였음.
- 제주평화포럼을 2년마다 정례화하고 중국과 북한측 인사를 초청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단체를 초청함.
- 서울평화상 수상식을 제주평화포럼 개최시 거행하도록 하는 등 '세계 평화의 섬' 이미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함.

(4) 국제회의 신설·유치 전략

- 평화 관련 국제협의체나 국제회의를 신설·개최하고 기존의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국제회의 유치단을 창설함.

-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도관광협회 등이 공동으로 상설적인 컨벤션뷰로(Convention Bureau)를 조직하여 회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토록 함.

(5) ‘세계 평화의 섬’ 추진을 위한 도민의 노력

- 제주도를 정부로부터 세계평화의 섬으로 공식적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계 평화의 섬’ 조성을 위한 역할 분담 : 남북평화센터-정상외 집 건립(제주도-남북 평화센터), 4·3평화공원 운영(제주도·4·3평화재단), 제주평화포럼 정례화(제주발전연구원), 평화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 센터 설립·운영(제주도내 대학교·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함.
- 제주가 관광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의 섬’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평화의 통합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이미지 홍보전략을 수립 함.

(6) 평화 교류·협력 활동의 강화

- 제주도를 평화에 관한 학술 연구 및 논의의 중심이 되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평화를 모색하는 각종 국제회의나 회담의 장소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특화시켜 나감.

나. 아·태권 국제교류의 거점화 사업

(1) 관련 행정조직 정비

- 독자적인 국제교류 영역을 개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인적 자원과 예산의 뒷받침을 위하여 도(道) 차원에서 ‘제주국제화추진본부’ 또는 ‘국제교류·협력과’를 신설함.
- 국제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특채하거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여 기존의 공무원들을 재교육함.
- 국제교류 관련 담당공무원을 장기적으로 자매결연 도시나 외국대학 또는 외국연수기관에 파견하여 해당 지역의 정치·경제·문화 등을 경험하도록 함.

(2) ‘제주국제교류재단’ 및 관련 협의회의 설립·운영

-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서 ‘제주국제교류협의회’와 ‘제주국제교류재단’을 설립·운영함.

- ‘제주국제교류재단’은 민간의 해외교류 증진과 조정, 외국의 단체와 국제기구와의 제휴 및 교류 등의 진흥, 국제회의 등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유치·운영·홍보·선전, 경제·통상교류의 촉진, 외국유학생 및 연수생의 상호 교류, 외국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생활상담, ‘국제교류기금’의 조성 등을 담당토록 함.
- ‘제주국제교류협의회’는 외국인들에게 직업과 숙소 등을 알선해 주고 언어소통과 경제적인 문제 등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외국인상담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을 상담한 후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외국인생활정보지’ 제작을 담당토록 함.

(3) 자매결연사업 및 국제교류 확대

- 지방외교 시대에 걸맞게 상생적 전략사업의 발굴을 통하여 기존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야 함. 특히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 등과의 교류를 통하여 교류·협력 지역의 다변화를 모색함.
- 구상무역, 기술교류, 항공노선 개설, 벤치마킹 등을 통한 교류 실익의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는 물론 도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학술교류 기업이나 경제단체를 중심의 경제교류 등을 강화토록 함.
- 제주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매결연 자치단체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태자매결연자치단체연석대회’를 개최하고 이의 사무국을 제주도에 유치함.

(4) 종합적인 행정정보 체계의 구축

- 국제교류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학술·문화교류는 물론 경제, 통상, 국제교역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제공함.

(5) 시민참여형 민·관 협력체제의 구축

- 지역주민·민간기업·시민단체·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제주국제교류협의회’와 같은 민·관 협력 기관을 설립하여 교류 사업을 추진함.

(6) 국제화추진 교부금 및 기금의 설치

- 지방정부의 국제화 시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화 추진 기금’을 조성함.
- ‘국제화 추진 기금’은 중앙이 일정 금액을 출연하여 지방의 국제화 추진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지방이 국제화 업무를 경쟁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함.

(7) 외국자본 및 다국적기업의 사무소 유치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외국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
- 제주도를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로 육성함으로써 외국계 은행 및 금융거래 사무소들을 유치하고 다국적기업 등 외국기업의 제주 투자를 적극 유인함.

(8)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開港)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운영함.
- 대한민국국민(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국국적의 선박의 경우 그 소유자의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외국국적의 선박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임차한 경우 등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주도내 개항에의 등록을 허용하고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함.
- 외국인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의 경우,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의한 국적부여는 신중을 기함.
- 해운대리점·해운중개업 등 해운부대사업 및 선박금융업의 활성화, 순수 외국선박 유치방안,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함.

다. 글로벌화를 주도할 인재 육성사업

(1) 국제화·세계시민 교육 강화

- 초·중등 및 대학교육 과정에 평화교육 및 국제화·세계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포함시키고, 대학교의 국제통상 및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평생교육원 등에 국제화·세계시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함.
- ‘국제화인재육성 기금’을 조성해 청소년을 외국의 학교에 유학시키거나 또는 방학을 이용해 외국의 가정에 홈스테이(Home Stay) 시키거나, 또는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제주교환프로그램(JEP : Jeju Exchange Program) 개발 등에 지원함.
-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 이해 및 국제 문화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칭)‘아시아태평양청소년회의’를 개최함.

(2) 외국어 서비스 및 외국어교육 강화

- 행정기관의 외국어서비스 강화 : 외국인 투자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범위 안에서 영어 공문서 접수 및 제공, 영문판 홈페이지 관리관 도입, 영어 안내 및 영어 홍보·자문관을 설립함.

(3) 교육규제자유지역화(교육국제자유도시화)

- 제주를 ‘교육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학교의 설립·운영, 교원의 채용,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함.
- 외국대학 법인 설립 가능토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 → 제주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인가, 대학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학점 인정, 입학자격, 학생선발, 교원자격·임용 등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함.
- 외국대학을 유치하여 국제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대학설립·운영에 관한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함.

(4) 교육기관 특성화 유도

- 특정 목적형 자립형 고등학교 설립·유치 : 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국어고교,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고교나 관광특수목적고, 예술고 등 국제화 시대의 요구에 맞는 고등학교를 설립·유치함.
- 도내 대학에 ‘국제대학’ 또는 ‘국제대학원’을 신설하여 국제이해교육, 외국어교육,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교육을 확대함.
- 국제전문 대학원 유치, Boarding School 설립, 기타 단기 전문 국제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제교육 복합지구를 조성하여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북아의 ‘지식 자본’ (Knowledge Capital)의 중심지로 성장함.

(5) 국제화 전문교육기관 육성

- 영어교육, 문화관광교육, 국제이해교육 등과 같은 (가칭) ‘제주 맨파워 21 교육 사업’ 등을 시행하고, 제주 출신 인력을 DB화 하여 국제화 교육에 봉사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인력을 관리함.
- 국제교육 특성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고, 관광과 해양 그리고 아열대식물, 국제이해교육, 외국어교육, 국제교류 및 통상진흥 교육 등에 대한 세부 인력양성교육을 마련토록 함.

(6) 교육재정 지원 확대

-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육과정 운영, 교원연수 및 임용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교육사업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특별 지원토록 함.
- 시민사회단체의 국제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나 후원금의 실적에 상응하여 비례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 주도록 함.

(7) 국제화장학재단의 운영 활성화

- 국제화장학재단은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인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장학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제주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데 설립 목적이 있음.
- 국제화장학재단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외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향후 재원 확보 추이를 고려 도민의 외국어 교육 전담기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제도화함.

라.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1)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외국 전문 인력이 장기체류 할 수 있는 외국인 주거단지를 타당성 분석을 통해 조성함.
- 외국인 주거단지의 조성시 외국인 체류자에 대한 편의제공 뿐만 아니라 제주경제의 활성화, 관광자원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2) 무사증 대상지역의 확대 및 사증 발급제도 개선

- 제주도에 무사증(No VISA)으로 입국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현행 160개국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입국한 외국인이 재난,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내 타 지역으로 이동·방문할 수 있는 ‘간이사증발급제도’를 도입함.
- 제주도방문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No VISA)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체류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 정도로 연장함. 무사증 입국 허가대상으로는 제주도 및 제주관광협회 등이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 제주도지사가 초청하는 국제회의·국제행사 참가자, 제주도에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의 가족 등으로 확대함.

- 외국 전문 인력에 대한 장기체류요건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시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 인력을 적극적 유치토록 함.

(3) 외국인학교 및 문화시설 설립

-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적합한 교육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함.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외국어고교의 설립시기를 앞당기고 외국어 학습관 프로그램을 조기 개발함.
- 제주도 거주학생이 본도 소재 외국대학에 입학할 경우 학비지원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미국의 경우 동일주 출신 주립대생은 타지역 유학생의 1/3수준의 학비만 부담).

마. 도외 제주인 및 외국인과의 네트워크 구축

(1) ‘세계 제주인대회’ 개최 및 정례화

- 해외 제주인들에게 제주출신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면서 환태평양 시대를 주도하는 제주도 태생임을 함께 확인하는 ‘제주 공동체’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지식과 제주 사랑을 제주 발전에 활용토록 함.
- 한라문화제 또는 세계 섬문화축제 기간에 ‘세계 제주인대회’를 개최함.

(2) 도외 제주센터의 설립

- 제주 출신 교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의 교류를 증대하기 위해 주요 해외 거점에 ‘제주센터’를 설립토록 함.
- ‘제주센터’는 우선 오사카에 설립토록 하고, 도쿄, 홍콩, 뉴욕으로 점차 확대해 나감.
- ‘제주센터’에서 일할 사무장급 재외도민은 수당을 받는 ‘해외주재관’으로 임용하여 해외 제주인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함

(3) 우수 인력 유치 및 외국인과의 연계망 구축

- 제주와 인연을 맺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명예도민’ 내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가칭) ‘제주평화사랑협의회’를 조직함.

(4) 글로벌 제주 사이버 센터(Global Jeju Cyber Center) 설치

- 제주도가 조사한 우수 인력의 수를 보면 도내 411명, 국내 565명, 국외 50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 인재집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이들 상호간, 혹은 도당국과 이들 간의 결속체계를 확립함.
- 우수 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정 자문의 역할을 의뢰하고 각종 도정 시책과 관련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토록 하며 제주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함.

(5) 인력의 국제교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 국내·외에서 제주도로 유학 혹은 연구차 방문하는 학생과 교환교수, 석학들의 체류장소인 ‘국제교류회관’을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건립함.
- ‘국제교류회관’은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의 교환과 정리 그리고 국제교류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를 담당함.

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중심지 구상

(1) 감귤 북한보내기사업의 정례화

- 1998년 이후 4년간 제주도가 추진한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 향후 제주감귤과 씨감자, 기타 제주산 농축산물을 정례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의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감.

(2) 제주를 매개로 남북한 통합을 지향하는 행사 개최

-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즉각적이고 단기적인 실리적 차원의 사업 못지않게 보다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상징적이고 보완적인 이벤트성 행사도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다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한반도 최북단과 최남단 학교간 교육교류사업, 한라산과 백두산의 합수·합토 행사는 남북이 하나임을 일깨워 주면서 이러한 상징성을 통해 구체적인 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유용한 대북교류의 방안임.

제2장 일류를 지향하는 문화관광도시

제1절 전통의 토대위에 피어나는 문화·예술

1. 현 황

가. 문화재

-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종류로 보물 4종, 사적 5종, 천연기념물 29종, 중요민속자료 7종, 중요무형문화재 5종임.
- 제주도 지역이 14종, 서귀포시 8종, 북제주군 13종, 남제주군 13종으로 비교적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

<표 III-2-1> 국가 지정 유·무형문화재 현황 (2000년)

(단위 : 종)

구 분	계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 요 민속자료	중 요 무형문화재
계	50	4	5	29	7	5
도 일 원	2	-	-	2	-	-
제 주 시	14	4	3	3	-	4
서귀포시	8	-	-	8	-	-
북제주군	13	-	2	10	1	-
남제주군	13	-	-	6	6	1

자료: 제주도 문화예술과, 내부자료, 2001.

- 도 지정 문화재는 전체 84종이며 유형별로는 유형문화재 16종, 무형문화재 11종, 사적 24종, 수목 19종, 경관·지질 및 기타 5종, 민속자료 8종, 문화재 자료 1종 등임.
- 지역별로는 제주도 지역 29종, 서귀포시 지역 9종, 북제주군 지역 27종, 남제주군 지역이 12종으로 제주도와 북제주군 지역에 약 67%가 지정되어 있음.

<표 III-2-2> 도 지정 유·무형문화재 현황 (2000년)

(단위 : 개)

구 분	계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 념 물			민속 자료	문화재 자료
				사적	수목	경관,기타		
계	84	16	11	24	19	5	8	1
도 일 원	7	-	-	3	-	-	4	
제 주 시	29	9	1	8	6	-	4	1
서 귀 포 시	9	1	-	4	2	2	-	-
북 제 주 군	27	3	6	6	9	3	-	-
남 제 주 군	12	3	4	3	2	1	-	-

자료 : 제주도 문화예술과, 내부자료, 2001.

나. 문화·예술 활동 및 시설

(1) 공연·전시 현황

- 2000년도 문예회관의 공연일수는 370일, 공연회수는 512회이고, 전체 관람인원은 14만2,832명임.
- 유형별 공연회수는 연극이 173회, 음악 212회, 무용 18회, 국악 11회, 기타 95회로 음악 공연이 전체의 약 41%를, 연극 공연이 전체의 약 34%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표 III-2-3> 공연 현황 (2000년)

(단위 : 일, 회, 명)

구 분	계	연극	음악	무용	국악	기타
공연일수	370	84	203	18	9	56
공연회수	512	173	212	18	11	95
관람인원	142,832	34,099	64,302	6,705	2,535	35,191

자료: 제주도 문화예술과, 내부자료, 2001.

주 : 문예회관 대극장, 소극장, 예술한마당 공연현황 자료임.

- 2000년도 문예회관의 전시일수는 360일, 전체 관람인원은 5만8,343명임. 전시 유형별 전시일수는 회화가 79일, 사진 52일, 서예 84일, 조각 14일, 디자인 7일, 기타 124일임.

<표 III-2-4> 전시 현황 (2000년)

(단위 : 일, 명)

구 분	계	회화	사진	서예	조각	디자인	기타
전시일수	360	79	52	84	14	7	124
관람인원	58,343	13,330	8,641	13,435	1,886	907	20,114

자료: 제주도문화진흥원, 내부자료, 2001.

주 : 문예회관 전시실 대여 실적임.

(2) 문화·예술 기반시설

- 지자체별 운영 공연단체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서울이 합창단 14팀을 포함 31팀으로 가장 많고, 경기 28팀, 대구 14팀, 전북 14팀, 경남 15팀 등의 순이며, 제주도는 6팀으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제주도가 운영하는 공연단체의 유형은 합창단이 3, 교향(관현)악단이 2, 무용단이 1팀으로 음악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무용, 뮤지컬, 연극 등의 단체는 없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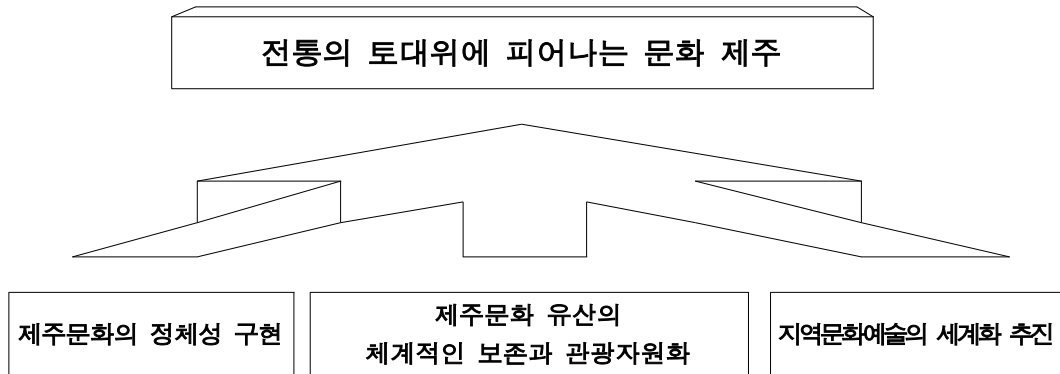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 전통문화·예술을 단순 복원하거나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킴.
- 문화·예술의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기여 : 전통문화·예술을 특성 있게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소득 증대의 요소로, 외래객에게는 문화·예술의 체험요소로서 활용되도록 함.
-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 :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우수한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함.
- 문화지표를 조사하고 문화예술정책을 수립·집행을 담당하는 총괄 기구를 설립함.

나. 기본방향

- 전통문화의 적극적인 보존·전승과 문화·예술에 담겨 있는 제주정신의 부단한 조명을 통하여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구현함. 다른지역 문화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제주문화의 독자적 성격을 확고히 함.



<그림 III-2-1> 문화·예술 부문의 발전방향

3. 문화·예술부문의 사업계획

가. 문화·예술의 계승·발전

(1) 탐라문화의 문화자원화 추진

- 제주와 관련된 설화·전설을 수합한 테마공원 조성, 삼성신의 출현에 대한 형상화 사업 추진 : 애니메이션 제작 등, 삼성신화 관련 유적지의 성역화 및 사적공원 조성(삼성혈, 혼인지, 삼사석 연계)
- 제주고산리선사유적, 삼양동선사유적, 동굴유적, 생활유적, 분묘유적 등의 문화유적지를 문화재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정비함.
- 제주 정신의 형상화 사업을 전개하고 유배인 관련 유적지(오현단, 추사적거지 등)를 정비하여 ‘유배인 문화 창출·보존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절부암, 충효비 관련 유적을 정비함.
- 제주지역의 축산생활·근간사업의 매개체인 제주마(馬)에 관한 상징화 사업을 추진함. 제주마(馬) 문화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 유적지를 문화재로 지정·정비함.

(2) 제주문화의 '뿌리 찾기 운동' 전개

-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연구·정리하고 이를 공동체 정신과 지역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함.
- 제주문화의 정체성 및 지역사회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미지화 사업(심벌, 배지, 스티커 제작 등)을 전개하고 향토사와 유·무형 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함.
- 신화나 역사의식을 제주 문화와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는 인본주의 운동으로 승화함. 시·군별 문화 상징물 선정과 형상화 작업 및 제주의 고유지명 찾기 운동을 실시함.
- 문화예술에 대한 기록 및 자료를 정리하고 제주도 문화예술사 정립 사업을 추진함.

(3) 미지정 문화유산 발굴·보존

- 마을공동체의 흔적인 본향당과 당굿의 전승이 끊이지 않도록 지원·보존하고, 미지정 문화유산의 안내표적을 세워 훼손을 방지하며, 마을의 신당은 마을공동체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민속문화유산임을 적극 홍보함.
- 4·3 유적지, 일본군 전적지 및 6·25군사시설들을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함. 효자·열녀비, 선정비·기념비 및 마애명, 무덤 유적(고인돌·고분)의 정비·보존과 함께 도요지(옹기굴·와굴)를 복원하고 옹기가마를 재현하며 각 지역에 옹기 도요지를 지정함.
- 제주지역에서 제작된 민화를 수집·발굴하고 각 지역 묘지의 동자석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분포도를 작성함.
- 큰굿, 무신도, 열두본풀이, 상여접과 상여소리, 제지 기술, 제주술 제조 및 기술, 제주 연 제작기술, 초가 건축 기술, 축성 기술 등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자원들을 조속히 발굴하여 제도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함.

(4) 문화재 지도 제작

- 문화재 지도를 제작하여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홍보하고 향토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심과 애향심을 고양함.
- 문화재 지도를 책자 및 PC 프로그램으로도 개발하여 지도 및 문화재별 설명과 문화재의 소재지, 접근방법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문화정보 자료로 활용함.

(5) 다양한 전통문화교육 실시

- 자연 교육(삼다·삼무의 풍토적 특색 조사), 향토사 교육(문화 유적지 답사, 인물·전설·향촌사 등 조사), 향촌사회 교육(소집단 두레 모임, 열녀의 정려비나 공덕비, 어촌계나 잠수계의 운영 및 관혼상제에 대한 지역의 풍습 등 조사)을 강화함.
- 전통문화 교육을 통하여 제주어 말하기, 제주어 연극 공연 등을 실시하고 속담 및 금기어, 설화, 전설, 민요, 마을의 민속놀이를 조사하여 학생들의 놀이로 재구성함.

(6) 종교문화 관련 유적 정비 및 성역화 추진

- 향교(제주향교, 정의향교, 대정향교 등), 포제단 등과 같은 유교 문화재 및 유적을 정비함. 불교 관련 문화재 및 유적지를 복원·정비(전통사찰 보존, 사찰 경내지의 문화관광지 조성, 제주 불교사 정립 등)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함.
- 천주교 및 개신교 관련 문화재 및 유적을 보존·정비(근대 포교 성지 복원, 종교 순례지 정비, 제주 천주교 및 개신교 역사 정립 등)함.
- 무교문화 유적을 보존·정비(무형문화재 전승당과 마을 본향당 정비 복원 등)함.

(7) 공공미술(public art)의 활성화

- 공공기관 및 공원의 공공미술을 모범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식 속에 예술이 숨쉬는 ‘문화공간’을 조성함.
- 도시환경에 대해 ‘거리 디자인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거리의 색채·형태·시각표시물·교통기관 표지·조경 등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도록 함.
- 어메니티(Amenity) 공간을 확충하되 이를 위하여 건축가·디자이너·예술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리 디자인 전문위원회’를 운용함.
- 미술품·환경 조형물 등을 설치하고 부수적으로 야간조명·스트리트 퍼니처(street furniture)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거리 전체의 시각적 효과를 고려함.
- 공사장 및 담벽벽화들 중 조악한 작품을 정비함.

나. 문화·예술의 자원화로 지역경제에 기여

(1) 문화·예술자원의 지적 재산화

-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각종 문화예술 자원과 자연자원을 지적 재산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로 활용함.
- 문화예술에 대한 지적 재산화 방식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과 객관적 심사를 거친 품질인증제도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향토 지적 재산의 상품화 방식은 전통 고유기술, 지역특산품 및 관광문화상품 등으로 가능함.
- 지적 재산화를 위해서 제주도는 사업비 지원, 행정 지원, 정보망 구축, 판로 개척, 상품생산기업 지원, 공동판매망 등을 구축하고 시·군에서는 유망상품 선정, 아이디어 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2) 다양한 전통축제의 상품화

- 마을제(당굿)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전승연희마을을 지정하여 전도적인 축제로 육성하며 들불축제나 산신제 등 다른 축제와의 연계를 모색함.
- 영등굿을 계절제로 활용하고 입춘굿놀이를 전통에 토대를 둔 민·관 합동 축제로 전형화하며 전국적인 탈춤문화권과 연계하여 개발함.
- 큰굿을 새로운 도시축제로 개발하고 ‘큰굿’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굿춤과 굿가락을 전통음악 교육에 활용하며 다양한 굿놀이를 초·중·고등학생용 민속놀이로 개발함.

(3) 축제의 복원과 도시축제화

- 입춘굿놀이 : 탐라국시대부터 입춘절에 풍농굿이라는 특성을 살려내어 지역을 대표하는 ‘겨울축제’, 지역문화축제로 복원 개발함.
- 한라문화제 : 각 마을 민속보존회를 통하여 전승되는 특장의 민속놀이(민요·굿놀이 등)를 보여주는 제주민속축제이며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이벤트성 축제의 정비와 새로운 축제의 개발 : 벚꽃잔치, 유채꽃잔치, 억새꽃축제 등 자연을 소재로 한 행사성 축제는 지양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동으로 체험하며 만들어 가는 참여형 환경축제로 개발함.

- 도, 시·군별로 규모있는 1~2개의 전통문화축제 집중 육성, 읍·면마다 1개씩 마을 축제를 개발함.

(4) 국제적 문화예술 이벤트 개발

- 세계섬문화축제를 제주의 해양문화, 남방문화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실 있는 문화 축제 개념으로 개선하고, 정체성을 구현하는 축제로서 제주의 곳, 민요, 걸궁 등 신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공연으로 다양화시킴.
- 국제사머니즘축제를 제주의 북방문화를 표현하는 축제로 개발하여 시베리아로부터 한반도를 거쳐 제주에서 집대성하는 한마당 큰굿 축제로 개발함.
- 제주국제자연미술전(트리엔날레)을 도립미술관 개관과 함께 격 3년제(트리엔날레) 국제미술이벤트로 창설하여 자연·여성·과학 등 21세기 화두가 되는 주제를 강조하는 미술전으로 육성하고, 전시 후 예술작품들을 제주도립미술관에 유치함.

(5)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

- 지역의 기술진에 의한 예술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역사·문화·자연 다큐멘터리의 제작·홍보를 통해 지역문화산업을 육성함.
- 설문대할망 신화 등 제주의 신화 및 설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및 게임을 제작하여 청소년층의 제주문화에 대한 자연스런 관심과 이해를 유도함.
- 역사와 신화를 소재로 한 뮤지컬, 오페라, 무용극, 마당극을 제작·공연하고 민속놀이인 입춘탈굿놀이, 종이탈굿놀이 등의 소재도 적극적으로 개발함.

(6) 기업 메세나(Messena) 활성화 지원

-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상품 홍보 등의 효과가 있는 기업 메세나(문화애호가) 운동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
-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메세나 정보 DB를 구축하여 문화예술과 기업의 연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제주지역과 연고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7) 세계 춤·소리 전용극장 건립

- 세계 전통민속예술의 박물관의 효과와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주는 전통민속예술의 세계문화상품을 도립예술단으로 하여금 개발하게 함.

- 제주도립예술단 공연을 토대로 한 정기적인 세계 춤과 소리의 공연으로 제주가 세계의 춤과 소리의 고장으로 인식시킴.
-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민속무용단 초청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연중공연을 기획, 세계 춤과 소리의 박물관 역할로 승화시킴.
- 춤과 소리를 위한 각각의 전용극장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각 시·군별로 특화된 여러개의 극장으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 함.

다.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를 위한 기반 정비

(1) 문화권의 정립

- 문화 환경의 조성과 문화 공간의 확대를 목표로 제주문화권 내에 지역별 소문화권을 구성하여 지역적 특색을 최대화함.
- 소문화권은 제주시 문화권(제주), 서귀포시 문화권(서귀), 산북 동부지역 문화권(성산), 산북 서부지역 문화권(한림), 산남 동부지역 문화권(표선), 산남 서부지역 문화권(대정) 등 6개 문화권으로 설정함.
- 문화권별로 산남·산북, 도시로부터 읍·면까지 조화로운 시설의 배치와 특장 사업 장려, 도시형·농촌형 문화센터의 모델링 작업을 실시함.

(2) 생활권 단위의 문화센터 개설

- 서귀포시 문화예술전당, 북제주군 문화예술회관, 남제주군 문화예술회관 등 시·군 단위의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이 현지에서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함.
- 여성·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복합적 문화공간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미술관, 순회공연, 순회 강좌 등을 개설하고 이를 시·군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이 되게 함.
- 우도 해녀생활사박물관, 추자도 어업박물관, 가파도 해양박물관 등 소규모의 민속생활사박물관을 건립, 지역단위로 운영함. 특히 기존 유희공공시설이나 폐교를 동·리 단위의 문화공간으로 확충함.

(3) 문화·예술 공무원의 전문화와 기획가 양성

- 문화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직 공무원을 확보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근무를 보장하는 등의 인사제도를 시행함.
-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문화인력에 대한 국가 자격인증제도 실시에 즈음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인력으로 충원함. 예술행정 및 문화기획 강좌를 개설하여 기획력 있는 문화 촉매 인력을 육성하고 공무원의 전문학위 취득을 장려함.

(4) 제주4·3평화공원 조성

- 제주4·3평화공원은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공원, 역사적 사실을 보존하고 그 교훈을 후세에 전달하는 역사공원, 도민화합과 인권신장, 민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복합문화공원을 4·3평화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조성함.
- 공원의 이념인 ‘상생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록의 공간, 상생의 성지, 위령·추념의 공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함(대상부지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 약 12만평).
- 공원의 관리 운영을 위해 공원 조성단계에서는 (가칭) ‘제주4·3사업단’, ‘연구소’ 설치, 공원 조성 이후에는 (가칭) ‘재단법인 4·3평화센터’를 설립하고 센터 내에 공원관리 운영본부와 연구소를 설치함.

(5) 도립 미술관 건립

-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인구 증가 및 타 시·도 사례를 참고로 부지 면적은 2만㎡ 내외로 하고 건축연면적은 1만㎡ 내외로 함.
- 부지는 주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선정하고 국립제주박물관과 연계성을 확보함.
- ‘도립미술관건립추진위’를 조직하여 콘텐츠 축적 연구, 운영시스템, 미술인 역할 연구를 사전에 추진함.

(6) 전통문화 전수회관 건립

- 전수회관은 전수자의 기능 전수 기관, 연구자의 무형문화재 연구센터, 도민과 학생을 위한 전통문화 체험학습의 장, 관광객에게는 제주문화 홍보와 소개의 공간으로 활용함.
- 전수회관의 규모는 부지면적 2,000평, 건축 연면적 500평 정도가 필요하고 사라봉공원 내의 국립제주박물관과 연계함.

- 무대공연, 야외공연, 시연회, 작업실 등을 갖춰 민속연구실, 문화재기능심사위원회, 문화 보존회 등의 연구·보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7) 민속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의 분리

- 국립제주박물관(역사유물)과 민속자연사박물관(민속·자연사)의 역할을 제고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현 체제를 유지하되,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주변의 부지 및 건물 등을 매입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전시물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전시장 및 주차장을 확대함으로써 신선공원과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을 민속박물관(민속)과 자연사박물관(자연)으로 분리 재편하는 것을 검토함.
- 분리시 민속박물관은 민속공연장과 연계, 유물과 행위가 결합하는 종합예술의 장으로 단지화(complex)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함. 자연사박물관을 신설하여 지질·생물·생태의 중심연구센터 및 테마관광 장소로 활용함.

(8) 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 문화예술의 공연, 전시, 전시 등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 공간을 조성함.
- 다목적 홀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연을 가능하게 하는 다목적 공간이므로 3천명 정도의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야외 공연장과 문화·예술인의 휴게실, 연구실, 행정 사무실 공간, 식당과 소극장, 영화관,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 등을 확보함.
- 다목적 홀의 운영은 과감히 민간에게 위탁하고 민간인 예술단체 사무실과 오페라, 뮤지컬, 연극, 야외 마당 등의 시설을 확보함. 규모와 면적은 건립부지의 선정 입지와 투자재정을 고려하여 결정함.

(9) 문화예술재단의 활성화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 300억원을 2010년까지 도, 시·군 및 기타 출연으로 조성함.
-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능을 조속히 활성화시켜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함.

(10)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문화행정조직, 문화시설, 문화예술단체(인),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기업 등을 종합 연계한 문화예술 협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보다 양질의 문화수혜를 향유하게 함.
- 문예시설과 단체, 각종 기관 및 사회단체간 등의 문화예술 협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함. 시·군은 추진위원회를, 도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며 각 시·군별 문화·예술 정보를 통합하는 D/B를 구축함.
-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등 문화 생산자가 연대하여 타지역·해외문화·예술인·기획자·전문가그룹간의 상호간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신문화·예술(게임, 예술적익스트림 스포츠 및 교류 확대)네트워크를 구축함.

(11) 문화·예술 재정기반 확충

- 지방세수입의 전반적인 증가를 모색하고 간접적 경로를 통하여 문화·예술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또한 지방교부세의 기준수요 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문화비 항목의 크기와 중요성을 확대시킴.
- 국고보조사업 중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적정 기준보조율을 설정하고 확대시켜 나감.
-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문화예술부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서 지방양여금이 지향하는 지역간 균형개발이 물리적 지방 SOC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방 SOC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함.
- 민자유치와 민간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재정을 확충시킴.

제2절 휴양형 국제관광자유도시 실현

1. 현황

가. 관광동향

- 2000년 제주도를 방문한 총 관광객 수는 약 411만여명이며, 이 중 내국인은 약 382만여명, 외국인 약 29만여명으로 내국인 중심의 관광목적지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중 아시아권 관광객이 90% 이상인 반면 미주 및 유럽권 관광객은 전체 5% 미만에 불과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함.
- 관광수입은 1996년 이후(1998년 제외) 매년 1조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나. 관광사업체 현황

- 업종별 분류기준에 의거 관광사업체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관광사업체 수는 2000년말 현재 총 388개로 전국의 4.3%를 차지함.
-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이 26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관광숙박업(50개), 관광편의시설업(28개), 관광객이용시설업(20개), 카지노업(8개), 유원시설업(9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제회의기획업 등록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함.

다. 관광종사원 현황

- 관광종사원은 임시직을 포함하여 대략 1만2천여명으로 추정됨(용역, 임시직 포함).
- 관광숙박업 부문은 3,683명, 여행업부문 2,191명, 관광이용시설업부문, 카지노업 부문, 관광편의시설업 부문, 유원지업 부문, 관광 쇼핑 부문, 기타부문 등의 임시직을 제외한 상용종사원은 대략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 4년제 대학 2개교, 전문대학 3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배출되는 관광 관련 졸업생 수는 연간 2,4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행정적·학술적 관심이 낮아 실제적인 수급대책이 마련되지 못함.

- 특급호텔을 제외한 중·저급호텔과 여행사, 기타 관광종사원들에 대한 재교육 훈련이 미흡하여 관광객들이 불만족함.

라. 관광자원 현황

- 제주도는 타지역에 비해 아직도 청정한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 오염되지 않은 산과 바다를 보유하고 있어 섬 전체가 천혜의 관광환경을 유지하고 있음. 섬의 독특한 민속 등 전통문화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표 III-2-5> 관광자원 현황

구 분	개 소	주요 내용
영 주 십 경	10	성산일출, 녹담만설, 굴림추쇄, 영구춘화, 산포조어, 고수목마, 정방하폭, 산방굴사, 사봉낙조, 영실기암
계 곡	11	탐라계곡, 구구곡, 안덕계곡, 어승생, 백록담, 성판악, 삼각봉, 왕관릉, 무수천, 돈내코, 수악계곡
폭포 및 소연	6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용연, 영도폭포, 연소연포
동 굴	10	만장굴, 빌레못굴, 김녕사굴, 미천굴, 외흘굴, 소천굴, 협재굴, 협재쌍용굴, 구린굴, 황금굴
기 암	10	용두암, 성산일출봉, 외돌개, 바람바위, 오백나한, 방선문, 절부암, 우두암, 용암암수형, 산방산, 주상절리
수 림	4	비자림, 동백군, 구상나무군, 철쭉
기 생 화 산	360	산굼부리, 송악산, 어승생악 등
식 물	1,635종	왕벚나무, 문주란, 한란, 풍란 등
동물 및 곤충	800 종	꿩, 황새, 팔색조, 노루, 오소리, 제주족제비 등
해 수 욕 장	10	이호, 괭지, 함덕, 협재, 김녕, 화순, 중문, 표선, 신양, 하모
낙 시 터	14	사라봉, 서부두, 도두, 다려도, 형제도, 비양도, 토끼섬, 두모, 용수, 하가, 차귀도, 마라도, 우도, 추자도
등 산	코스 5	관음사, 어승생, 영실, 성판악, 돈내코
수 렷	2	대유수렵장, 도전역(금렵구 제외)
보 물	2	관덕정, 불탑사 5층석탑
사 적 지	1	삼성혈
기 타	16	감굴원, 송당목장, 이시돌목장, 제동목장, 향몽유적지, 모충사, 삼매봉, 목석원, 성읍민속마을, 제주표선민속촌, 해양수족관, 여미지식물원, 조각공원, 신천지미술관, 베릿내어촌, 제주분재예술원

자료 : 제주도, 「관광행정현황」, 2001.

마. 관광이벤트 현황

- 2000년도 치러진 각종 축제는 총 30개로서 서귀포시가 33.3%인 10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제주시로 23.3%인 7개의 지역축제를 개최함.
- 제주도와 남제주군은 각각 20.0%인 6개, 북제주군은 3.3%인 1개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 목적별로 분류하면, 관광축제가 20개, 문화축제가 10개로 나타나 1/3 이상이 관광축제임을 알 수 있음.

<표 III-2-6> 개최 목적별 축제 현황

분 류	빈도	비율	도·시·군	축 제 명
관광 축제	20	66.7%	제 주 도	· 한라산눈꽃축제, 제주마라톤축제, 제주신혼축제, 제주억새꽃축제, 제주감귤축제
			제 주 시	· 왕벚꽃잔치, 한여름밤의 해변축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서귀포시	· 서귀포 겨울바다 펭귄수영대회, 서귀포칠십리국제걷기대회, 중문 해수욕장 축제, 제주아이언맨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 서귀포칠십리 국제바다축제, 보목자리돔큰잔치, 법환한치축제
			북제주군	·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남제주군	· 성산일출제, 고사리깍기대회, 유채꽃잔치, 표선백사축제
문화 축제	10	33.3%	제 주 도	· 한라문화제
			제 주 시	· 탐라국입춘굿놀이, 용연선상음악회,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가면축제
			서귀포시	· 서귀포칠선녀축제, 서귀포칠십리축제, 서불과지전설재현
			남제주군	· 덕수리전통민속축제, 정의골민속한마당축제
총계	30	100%		

자료 : 제주도, 관광문화국 자료, 2000.

바.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지정 및 개발 현황

- 23개 관광단지·지구의 개발 진척 상황은 전반적으로 부진하며 개발사업자가 지정된 경우도 자금난과 외자유치 부진 등으로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실정임.
- 미천굴 지구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중문, 표선, 봉개, 용머리, 남원, 토산 지구 등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오라, 수망, 신흥, 송악산, 세화·송당 지구 등은 개발사업 착공 준비 중이며 함덕, 만장굴 지구 등은 조성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성산포, 묘산봉, 교래, 괭지, 재릉, 차귀도 지구 등은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임.

<표 III-2-7> 23개 관광단지·지구 개발 현황

단지 및 지구명		면적(km ²)	사업시행자	조성상황
관광단지	중 문	3.562	한국관광공사	· 1996.8.12 개발사업 시행 승인 · 1996.12.20 개발사업 착공 (2단계 동부지역 기반시설 공사)
	성산포	4.125	미 정	-
	표 선	0.526	남 제 주 군	· 1987. 2.20 제주민속촌 개촌 · 2001. 5.10 개발사업 시행 승인 · 2001. 6.18 개발사업 착공
관광지구	봉 개	1.346	한 화국토개발	· 1996.12.28 개발사업 시행 승인 · 1996.12.30 개발사업 착공
	오 라	2.683	쌍 용 건 설 유 일 개 발 오 라공동목장	· 1997.2.14 관광지 조성 및 사업자 선정 · 개발사업 시행 승인
	돈내코	0.152	서 귀 포 시	·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
	우보악	2.707	-	· 1997.2.14 관광지 지정 및 사업자 지정 · 2001.12.31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함 덕	0.465	함 덕 리 신성리조트(주)	· 1996.11.21 개발사업 시행 승인 · 1996.11.23 개발사업 착공 · 1998.4. 자금난에 의한 조성공사 중단
	만장굴	2.528	-	· 1995.11.30 개발사업자 지정 · 2001.12.31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묘산봉	4.665	-	· 1996.9.30 개발사업예정자 지정 · 1999.3.8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효력 상실
	세화·송당	2.363	(주)제주온천 (가칭)제주온천(세화·송당) 지 구 개 발 토 지 구 획 정 리 조 합	· 2001.10.30 개발사업 시행승인
	원 동	0.640	-	· 1997.2.14 관광지 지정 및 사업자 지정 · 2001.12.31 개발사업자 지정 취소
	송악산	1.672	남제주리조트 개 발(주)	· 1999. 12.30 개발사업 시행 승인
	용머리	0.550	남 제 주 군	· 2000. 5.1 개발사업 시행승인 · 수족관 및 기반시설 공사 중

관광지구	남원	1차	0.101	한 주 흥 산	· 1998.2.26 관광지조성계획 승인 · 1998.12.28 조성사업 시행 허가 · 1999 영화박물관 시설 완료
		2차	0.100	금 호 개 발	· 1996.12.24 개발사업 시행 승인 · 1997.5.15 콘도사업 승인
	수망		2.391	남광건설산업	· 1997.2.14 관광지지정 및 사업자 선정 · 2000. 3.15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흥		0.125	남도관광개발	· 1997.2.14 관광지 지정 및 사업자 선정 · 2000. 3.15 개발사업 시행 승인
	토산		0.156	수 농	· 1997.8.29 개발사업 시행 승인 · 1997.8.30 개발사업착공 및 공사 추진
	미천굴		0.095	삼 영 관 광	· 1998.5.9 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공사추진 · 2002. 개발사업 완료
	교래		0.504	-	· 사업 시행(예정자)미지정
	재릉		3.025	-	· 사업 시행(예정자)미지정
	곽지		1.113	-	· 사업 시행(예정자)미지정
	차귀		1.642	-	· 사업 시행(예정자)미지정

사. 과제

- 세계관광과 국내관광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나 제주관광은 성장이 크게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청정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전통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
- 관광사업체는 수적으로 전국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하고 업종별 분포는 크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 제주관광의 기회인자를 적극 활용하고 위협인자를 제거하는 환경적응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못함.
- 중앙정부 관광진흥정책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주도의 차별성 높은 정책 개발과 추진체계의 정비가 미흡하고 기존 계획의 추진 실적도 부진함.

2. 제주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설정

가. 지표 설정

(1) 관광객 수

(가) 예측지표

- 관광객 수요 예측치는 전통적 추세분석법, WINTERS의 승법 및 가법계절지수평활법, 박스-젠킨스(Box-Jenkins)의 계절형 ARIMA모형에 의한 수요예측치를 합산하여 나온 결과이며, 보수적 기준으로 예측하였음.
- 2006년에는 475만6,650명에서 550만7,700명 범위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어, 예측 적정치는 500만7,000명으로 예측지표는 550만7,700명으로 설정함.
- 2011년에는 566만2,950명에서 655만7,100명 범위의 관광객이 내도할 것으로 보여지며, 예측 적정치는 596만1,000명으로 예측지표는 655만7,100명으로 설정함.

<표 III-2-8> 목표 연도별 최종 관광객 수요 예측지표

(단위: 명)

연 도	최소치	예측치	최대치
	관광객수	관광객수	관광객수
2006	4,756,650	5,007,000	5,507,700
2011	5,662,950	5,961,000	6,557,100
평균	4,777,636	5,029,090	5,430,145

주 1) 관광객 수요 최소치는 최저 성장하의 예측치이며, 이는 목표연도 예측치 × 5% 감소폭을 허용범위로 전제하였음.

주 2) 예측치는 1천명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 세분시장별 관광객 수요 예측지표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내국인 수요 예측지표는 평균 연간 507만7천명으로 설정되었는데, 이 중의 일반단체 관광객은 102만명, 수학여행객은 38만1천명, 신혼여행객은 61만9천명, 가족여행객은 223만4천명, 기타 개별여행객은 82만3천명으로 추정됨.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외국인 관광객 수요 예측지표는 평균 연간 35만3천명으로 설정되었으며, 일본인 관광객은 22만9천명, 영어권 관광객은 1만1천명, 중국인 관광객은 7만5천명, 기타 외국인 관광객은 3만8천명으로 각각 추정됨.

<표 III-2-9> 세분 시장별 목표연도 관광객 수요 예측지표

(단위: 천명)

연 도	내국인								외국인					합계
	단체여행			개인여행				계	일본권	영어권	중국권	기타	계	
	일반 단체	수학 여행	소계	신혼 여행	가족 여행	기타 개별	소계							
2006	1,035	386	1,421	628	2,266	834	3,728	5,149	232	11	76	39	358	5,507
2011	1,232	460	1,692	748	2,698	993	4,439	6,131	276	13	91	46	426	6,557
평균	1,020	381	1,401	619	2,234	823	3,676	5,077	229	11	75	38	353	5,430

(나) 목표지표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치를 수용하여 관광객 목표지표는 2010년 기준 내국인 관광객 840만명,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 총 940만명으로 설정함.

<표 III-2-10> 목표 연도별 최종 관광객 수요 목표지표

(단위: 천명)

연 도	관광객수 목표지표		
	내국인	외국인	합계
2006	6,569	715	7,284
2010	8,400	1,000	9,400

주 1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용하여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설정하였음.

주 2 : 목표지표는 1천명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2) 관광수입

(가) 예측지표

- 미래 관광수입 규모를 예측하고 계획지표로서의 예측지표를 설정하는 데는 지난 1976~2000년의 25년간의 관광수입 자료를 통한 시계열분석이 이용되었음.
- 1999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제주도 관광수입 추계를 위한 여행경비 기준 산출의 방식”을 적용하고자 새로운 여행경비 기준산출 방식에 따라 세분시장별 관광수입을 재추계하였음.

<표 III-2-11> 1인당 평균 도내 관광지출액(항공요금 제외) 기준

(단위: 원)

구 분		패키지	비패키지	가중치를 적용한 1인당 도내 관광지출액
내국인 세분 시장별	일반단체	307,223	182,162	261,175
	수학여행	138,257	105,200	137,544
	신혼여행	662,722	510,561	580,204
	가족여행	350,658	275,495	293,418
	개별여행	305,466	225,817	235,007
외국인 국적별	일본권	2,047,544	2,785,152	2,165,561
	영어권	-	753,063	473,007
	중국권	356,133	440,683	440,683
	기 타	-	-	456,845*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도 관광통계 작성에 관한 연구: 관광수입 추계를 위한 여행경비 기준 산출을 중심으로」, 2000.

주 : * 기타 외국인은 영어권과 중국권의 1인당 관광지출액을 합하여 나눈 수치임.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내국인 관광수입 예측지표는 평균 연간 1조5,271억 여원으로 예측되었는데 이 중 일반단체 관광객은 2,665억여원, 수학여행객은 524억여원, 신혼여행객은 3,594억여원, 가족여행객은 6,555억여원, 기타 개별여행객은 1,933억여원으로 추정됨.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외국인 관광수입의 예측지표는 평균 연간 5,509억 여원으로 예측되었으며 일본인 관광객은 4,951억여원, 영어권 관광객은 50억여원, 중국인 관광객은 333억여원, 기타 외국인 관광객은 174억여원으로 추정됨.
-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관광수입 예측지표는 연평균 2조 780억여원으로 설정하며 2006년 2조1,080억여원, 2011년 2조5,090억여원으로 설정함.

<표 III-2-12> 세분시장별 목표연도 관광수입 예측지표

(단위: 백만원)

연도	내국인								외국인					총계
	단체여행			개인여행				계	일본권	영어권	중국권	기타	계	
	일반 단체	수학 여행	소계	신혼 여행	가족 여행	기타 개별	소계							
2006	270,316	53,092	323,408	364,368	664,885	195,996	1,225,249	1,548,657	502,410	5,203	33,933	17,817	559,363	2,108,020
2011	321,768	63,270	385,038	433,993	791,642	233,362	1,458,997	1,844,035	597,695	6,149	40,102	21,015	664,961	2,508,996
평균	266,541	52,391	318,932	359,357	655,522	193,282	1,208,162	1,527,095	495,126	5,031	33,251	17,443	550,851	2,077,946

(나) 목표지표

- 관광수입 목표지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 제시된 관광객 수 목표지표를 수용하고 1999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내·외국인 1인당 평균도내 관광지출액의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여 설정되었음.

<표 III-2-13> 목표 연도별 관광수입 목표지표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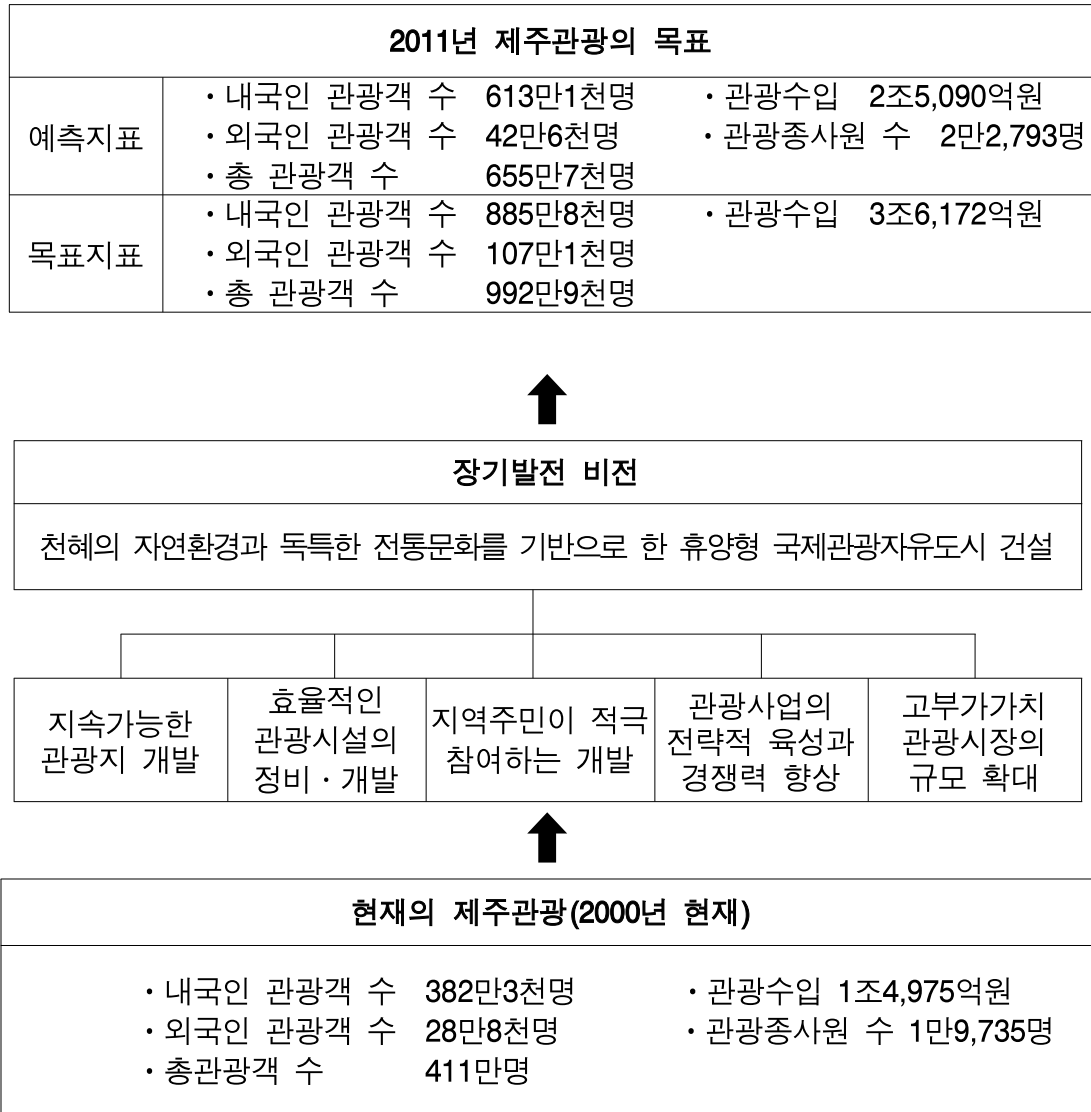
연 도	관광수입		
	내국인	외국인	합계
2006	1,980,345	632,077	2,621,431
2010	2,532,345	884,024	3,416,369

주 1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관광객수 유치목표치가 여행형태별로 제시되지 않아 관광수입 목표지표는 신뢰성과 타당성에 한계가 있음.

주 2 : 목표지표는 1천명 단위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주 3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수용하여 목표년도를 2010년으로 설정하였음.

나. 제주관광 진흥의 비전과 목표 설정

<그림 Ⅲ-2-2> 「제주관광 2011」 비전과 목표³⁾

3)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10년 940만명 목표치의 평균증가율을 산정하여 2011 연 관광객 수를 산정하고, 관광수입을 산정함.

3. 관광지 정비 및 개발

가. 관광지 정비 및 개발의 추진 기초

- 관광지 개발정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1985년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이후의 단지·지구 지정 중심의 공급 지향 관광지 개발방식의 기초를 일단 수용함(관광진흥지역이 실시될 경우 현행 23개 단지·지구 중 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지구는 개발유보지구로 남게됨).
- 관광지 개발을 둘러싼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하여 환경용량과 난개발 방지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심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도민의견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입법정신을 실질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참여 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관광진흥지역’이라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강구함.
- GIS를 활용, 선보전 후개발의 친환경적 관광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관광권역의 설정을 법제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지 개발의 환경적 지속성과 투자유치의 탄력성을 제고시킴.

나. 관광권역 설정

(1) 기본방향

- 관광권역은 ‘관광진흥지역’ 방식 도입에 따라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광지별 특성화와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함.
- 관광권역은 상위계획의 기존 권역 설정 방향을 수용하되 보다 세부 권역화하여 권역 테마의 집중 개발을 장려하고 각각의 단위 개발은 네트워크화를 이루어 전체적 시너지를 제고하는 방향에서 설정함.

(2) 관광권역 설정

- 관광권역은 제주시권역, 서귀포시권역, 남제주군권역, 북제주군권역, 한라산권역 등 5대 권역으로 설정하고, 소권은 9개 소권으로 설정함.

<표 III-2-14> 관광권역 설정

대 권	소 권	지 향	토지활용 제안 / 활용방안
제주시 권역	도심권	도시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벤션, 메가이벤트몰, 쇼핑몰 등 국제비즈니스 및 관광휴양 지원시설 개발 삼성혈-오현단-칠성로-목관아지-동문시장-산지천-제주외항-사라봉 등을 잇는 도심관광루트 조성 해안도로의 친수관광벨트화 야간 관광지구 조성
	외곽권	도시위락 및 역사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위락시설 특화개발 삼양 선사유적, 봉개 (가칭)4.3평화공원 등 역사관광지 조성 해양레저, 휴양공간 조성
서귀포시 권역	중문권	제주도 휴양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문단지 특화 휴양, 쇼핑시설 및 위락 시설 추가 개발 컨벤션 중심도시 개발 휴양형 주거단지 및 전원리조트 조성 기타 방문자 시설개발 예래동 지역을 제주형 생태·문화 관광지로 개발
	서귀권	전원도시형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귀포항 관광미항으로 개발, 해양관광 기반 조성 새섬·문섬·범섬·شط섬·외돌개 지역 등을 연계, 서귀포 앞 바다를 해양 생태관광지로 조성 중문-서귀 구간 도시관광벨트 조성
남제주군 권역	남동부권	해양 및 문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산권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 표선권을 제주민속관광 거점으로 개발 남원권을 영화마을·어촌체험마을(위미리) 등 마을별 특화관광지구로 조성
	남서부권	역사 및 생태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정·안덕권을 유배·민속 등 테마로 한 관광지 및 전적지 조성(김정희, 이재수, 전적지 등) 최남단 마라도의 생태관광지로서 최남단 공원 조성 보성목장과 서광녹차단지를 연계 실버휴양 목적의 생태관광지 조성 사계어촌, 덕수불미 등 마을별 특화관광지구 조성
북제주군 권역	북동부권	친환경적 체험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묘산봉 일대를 관광거점화하여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벨트화 도모 선흘 동백동산과 선흘곶 일대를 체험·교육관광지로 조성 구좌 토끼섬 주변, 교래리 농촌관광마을 등 마을별 특화관광지구 조성 제주돌문화공원을 관광지로 조성, 경주마육성목장 산굼부리 삼다수공장 등과 연계 구좌읍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북서부권	농업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 연계한 생활관광지역 특화 개발 추자도, 비양도, 차귀도 등 해양레저 관광지역 조성 항몽유적지, 고산선사유적지, 김대건신부귀착지 등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차귀도 어촌관광 등 소규모 마을별 특화관광지구 조성
한라산 권역	한라산 권	적극적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 자연유산 등록 등 한라산 국립공원 및 오름 등 자연자원의 적극 보존 자연탐방로 등 자연 친화형 용도에 국한하여 한정된 여가활동과 생태관광 허용

다. 관광진흥지역의 제도화 구상

(1) 기본방향

- 선(先) 보전 후(後) 개발, 난개발 방지, 정책 일관성 유지 등 정부의 공공적 임무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제주도 관광지 개발계획의 ‘단지·지구 중심’, ‘공급 중심’, ‘유연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변화하는 관광개발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함
- 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소프트 경쟁력을 제고하고 제주도민이 개발에 참여하는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기반 관광지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이에 대해 역외투자와 동등한 지원체계를 구축함.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GIS에 의한 환경관리」 메카니즘과 상응하도록 현재의 관광지 개발방식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관광진흥지역의 실시를 위해서는 「GIS에 의한 환경관리」 메카니즘이 완벽히 갖춰지고 지정요건에 대한 도민적 합의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

(2) 관광진흥지역의 개념 체계

- 도지사는 환경 보전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제주도 전지역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을 제외하고, 본 계획에서 제안된 관광권역의 범위 내에서 합당한 개발기준을 가진 지역을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관광진흥지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2001년) 상의 관광단지·지구 개발방식을 수용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개별허가방식의 실질적인 실천성을 보장하며 수요자 지향의 개발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한 절충적 관광지 개발방식임.
- 관광진흥지역의 특성은 친환경적 관광지 개발의 실효성 있는 보장(GIS를 활용한 선(先)보전 후(後)개발의 제도화), 수요자 중심 개발방식의 제한적 도입, 현행 법규상 관광지 개발방식을 종합적으로 수용·반영하여 관광지 개발의 체계적 통합성 확보, 주민주체 개발과 소규모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 관광지 개발의 유연성 및 탄력성 확보 등임.

- 관광진흥지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23개 관광단지·지구 중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단지·지구로 이루어지는 「일반관광지구」, 공공부문의 마스터 플랜과 기반 투자에 의해 제주관광의 집적 효과를 강화하고 특화에 의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집적관광지구」, 해양·생태·문화 등으로 제주관광의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활성화하는 「주민참여촉진지구」로 구분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관광진흥지역 중 집적관광지구로 분류되나, 일반관광지구에 속하는 관광단지·지구 중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희망할 경우는 해당 지정절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표 III-2-15> 관광진흥지역의 범주

구 분		대상지역	주요 내용	지정방식	비 고
관 광 진 흥 지 역	주민 참여 촉진 지구	· GIS 환경관리 시스템상 개발가능지역 중에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단체나 주민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관광지역	지역의 주민·단체 주체, 테마형 소규모 관광개발 및 마을별 특화관광개발 등	사후지정	·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관광권역의 기본방향 및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에부합
	집적 관광 지구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상의 관광단지·지구 중 집적 효과가 높은 단지나 지구, 시·군별 1~2개소 선정 관광거점화	· 제주관광의 집적 효과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관광거점(Honey Pot) 지역 ·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개발 필요성이 있는 특화관광개발 지역 · 기반시설 등에 공영 개발 방식 도입	사전지정 (마스터 플랜)	· 집적관광개발지구의 새로운 지정은 도의회 동의 필요
	일반 관광 지구	·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의한 3개 관광단지 및 20개 관광지구 중에서 지정 · 지정기준에 부합한 신규 관광개발사업	· 23개 관광 단지·지구 중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구는 사전지정 · 개발사업이 불투명한 지구는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지역으로 남게됨 (사후)	사전지정 사후지정	· 관광지 개발정책의 일관성 유지 · 23개관광단지, 지구의 자연스러운 정비

○ 지정방식

- 지역의 주민·단체 주체, 테마형 소규모 관광개발 및 마을별 특화관광개발 등을 위한 주민참여촉진지구는 사후지정 방식을 채택함.
-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중에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일반관광지구와 거점형 특화개발을 위해 기반시설 등에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는 집적관광지구는 사전지정 방식을 채택함.
-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 중에 개발사업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단지·지구는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지역으로 남게되며, 사후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진흥지역의 지정기준에 부합한 신규 관광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해당 개발사업을 신청, 허가를 득한 때부터 일반관광지구로 지정되는 사후지정 방식을 채택함.
-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함.

(3) GIS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관광진흥지역 지정 가능 대상부지의 명확화

- GIS가 확정된 후 수립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관광진흥지역 지정 가능지역을 명확히 함.
- 관광진흥지역 중 지구별로 개발지정을 받는 면적과 기존 관광단지 및 지구를 분할 개발하고자 할 때의 분할가능면적 기준 설정은 사업 수행시 구체적으로 검토함.

(4) 23개 관광단지·지구의 보완·정비

-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2001)에 의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지구의 경우 관광지 개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기존 계획지구의 상대적 박탈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지역상의 일반관광지구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3개 관광단지 20개 지구중 개발사업 승인을 획득하지 못한 단지·지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칭) ‘관광진흥지역심의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관광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하되, 추후 개발사업자가 나타나 관광지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시 관광진흥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잠재 후보군으로 존치함.

- 개발사업자가 지정되어 개발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기 승인된 관광단지·관광지구는 기득권을 인정, 관광진흥지역제도 도입시 일반관광지구로 편입됨.

(5) 관광진흥지역 지정 기준

- 관광진흥지역은 GIS 환경관리 시스템상 개발가능지역 중에서 법제화된 관광권역의 개발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에 더하여 세부적으로 관광지 지정에 필요한 일반기준과 개발사업 실행 가능성 및 지역발전 기여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지정되어야 함.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 마련토록 함.

(6) 제도화 구상

- 관광진흥지역 제도의 도입은 환경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행정행위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해서 GIS에 의한 환경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제도화하고 객관적인 관광진흥지역 지정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비한 후 추진함.
- 행·재정적 사항
 - 관광진흥지역에 대하여 현행 ‘민간사업자 시행 관광지 개발 국고 보조 금지·지양’ 규정을 배제해 도지사가 별도의 공공투자 지원기준(진입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전체에 대해 공공투자로 지원)을 수립·운영토록 함.
 - 관광진흥지역중 주민참여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참여개발기금’ 확대 조성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조성방안을 강구함.
- 절차 관련 사항
 - 관광진흥지역의 절차적 사항을 위해 개발의 인·허가 관련사항은 법령에 의해 위임되는 행정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으나 집적관광지구 지정, 23개 관광단지·지구의 지정효력 상실과 일반관광지구 편입, 일반관광지구의 집적관광지구 전환, 주민참여촉진지구의 지정 등 관광진흥지역 지정과 관련 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칭)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을 새롭게 구성하여 심의·의결토록 함.

- 다만,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함.

○ 재정적 지원 인센티브

- 조세 측면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일정기간 감면함.
- 관세 측면에서 관광진흥지역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도입되는 장비, 설비, 부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함.
- 부담금 측면에서 대체조립비, 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함.
-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수의매각과 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주며, 개발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의 임대를 희망할 경우 임대를 보장함.
- 기타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교육훈련, 고용, 연구개발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관광진흥지역에 제공되는 재정적 인센티브의 수준은 당해 개발사업이 관광진흥지역 지정기준 매트릭스에 의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결정의 주체는 앞에서 제안한 (가칭) ‘관광진흥지역심의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일정기간 제주도에 거주한 제주도민 참여사업에 대해서는 1,000만불 이하의 경우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함.

4.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진흥

가. 지역특성을 활용한 관광시설의 정비 및 개발

(1) 위락형 주제공원

-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관광행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위락형 주제공원을 중문관광단지의 동부지구에 조성함.
- 제주문화의 장, 세계섬 풍물의 장(상징의 장 또는 축제의 장), 과학교육의 장, 모험, 환상의 장 등의 주제로 구성된 주제공원임.

(2) 제주돌문화공원

- 제주도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연 운치석과 민속·민예품 등을 한 곳에 집성, 관리·보존함으로써 귀중한 자원의 소실을 방지하고 시대적으로 퇴색되어 가는 향토문화의 교육을 위하여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에 제주돌문화공원을 조성함.
- 설문대할망의 전설을 제주돌문화공원의 최종적인 이미지로 구상하며 돌 및 제주문화와 관련하여 상설 개인전, 단체전, 국내전, 국제규모의 비엔날레 등을 기획하고 전시할 수 있는 특별전시관을 설치하여 제주돌의 생성에서부터 생활에 뿌리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전시·관람토록하고 국내문화 교류 및 국제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
- 2단계사업 추진에는 생태공원, 설문대할망전시관을 비롯한 야외공연장, 지역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함.

(3) 해양관광레저타운

- 휴양·휴식·스포츠·전시·관람 등 새롭고 전문화된 목적 지향적 여가패턴을 제주지역의 청정 해양개발을 통하여 수용함.
- 환경 친화적인 해양휴양지로 개발하여 바다+경관+문화를 주제로 한 환경 친화적인 해양 기능을 도입하며 해양레크레이션 기능의 특성을 강화함.
- 해양+해안+내륙의 체계적인 공간체계를 구축하며 해양관광레저타운에 적합한 시설계획을 수립함. 또한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함.

(4) 제주해양수산종합과학관과 수족관

- 해양수산과학관단지는 해양수산과학관과 수족관을 중심으로 한 해양공원적 성격을 가지도록 개발함. 과학관, 수족관, 수상스포츠 및 관련 지원시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토록 계획함.

<표 III-2-16> 주요 도입 시설물

시 설 명	서 비 스 특 징
해 양 수 족 관	바다생물과 생태계 전시
해 양 수 산 과 학 관	해양의 역사와 미래 박물관
해 중 전 망 대	해양환경 관찰
해 양 스포츠 단지	장비 대여, 교육
관 광 어 촌 개 발	역사적 개념이 포함된 상가, 숙박, 편의시설 공급
실 내 물 놀 이 시 설	친수 놀이시설, 미끄럼, 수영장 등이 실내에서 열대환경 조성
조 류 관 찰 시 설	내수면 주변을 따라 산책로와 연계된 시설
가 족 놀 이 센 터	실내 오락시설단지와 휴양시설
주 간 크 루 즈	일출봉, 우도를 연결하는 선박여행과 돌고래 감상, 낚시, 다이빙 등
대 형 영 상 관	IMAX
승 마 장	승마장 및 부속시설
마 리 나	요트 등 고급관광객 유인
해 변 공 원	오픈스페이스 등 여유허공간 및 자연적인 공원 조성

나. 관광산업 지원책 마련

(1) 내국인 면세점 운영

- 제주도를 여행하는 국내관광객이 구입하는 특정물품에 대해 제세(諸稅)를 면제하는 내국인 면세점 운영을 통하여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함.
- 제주도 여행객이 내국인 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 보따리상 출현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세대상품목, 구입수량, 구입횟수 및 한도액 등을 제한함.
- 면세품목 및 1회 구입수량 : 주류, 담배, 시계, 화장품, 향수, 핸드백, 지갑, 벨트, 선그라스, 과자류, 인삼류, 넥타이, 스카프, 악세서리, 문구류, 라이타 등
- 구입횟수 및 한도액 : 연간 1인당 4회, 1회당 35만원(주류는 12만원 한도)이하로 초기에 시행하되, 장기적으로 400불 수준으로 상향 조정을 검토함.
- 면세세목 : 관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면세절차 : 공항·항만에 별도창구를 설치·면세(면세품 확인 등 현장관리를 위해 세관인력 증원)

○ 면세점 지정 및 운영 : 면세점 판매장은 제주도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면세품판매장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함.

○ 면세점 수입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으로 활용함.

(2) 기타 지원책 마련

○ 저렴한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휴양펜션업을 활성화함.

•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도 휴양펜션시설 설치 허용

• 휴양펜션시설의 회원 보호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이를 도시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 관광업계의 경영효율화 및 서비스 개선을 적극 유도·지원함.

• 관광업체에 대한 「등급제」 및 「도 품질보증제」 도입, 관광객 유치실적, 여행사 규모, 친절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수 여행업체에 대해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 관광호텔 및 관광이용시설에 대한 관광진흥부가금 폐지, 중국인 취향에 맞는 관광식당가 조성, 다양한 음식 개발, 외국인카지노 활성화 등 외국관광객 유치노력을 강화함.

○ 외국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관광요금 자율인하 유도, 관광객 유치 관광경쟁 억제 등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함.

○ 제주업체의 직접 모객 능력 확충 : 영세업체의 인수·합병 또는 컨소시엄 구성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함.

○ 관광업체의 무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지원(65개 업체 구축) : 무등록업체에 대한 단속강화 및 관광종사원의 교육이수를 의무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관광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재정융자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함.

○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의 확대

• 야간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단위 관광위락시설 개발을 조기에 추진함.

• 제주의 자연자원과 고유한 전통 민속문화를 소재로 하는 제주형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함.

- 외국 식당가 조성 등을 통해 외국 관광객 기호에 맞는 먹거리를 제공함.
- 제주 전통음식의 메뉴 다양화, 고급화 등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주 음식문화 개발, 관광상품화함.

다. 관광사업체와 관광종사원의 경쟁력 강화

(1) 여행업

- 도내 여행업체들은 영세하여 시장 개척능력이 미약하고 모객 활동도 육지부 대형여행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 신세대형 관광객들의 욕구수준에 맞춘 주문형 관광상품에 대한 기획·판매하는 능력을 갖춘 여행알선업체를 육성함.
- 대형여행사 육성을 위하여 우수한 인터넷 여행사 및 컨소시엄 여행사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확대 및 시장특화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을 강화함.
- 계절별·시장별 등 사전 요금공표제도 도입 및 국내·외 공동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2) 관광숙박업

- 관광숙박업 개축시 철거 또는 폐기처분 대상의 손금 산입,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자분에 대한 세제감면 배제 등 호텔숙박업의 신·증축에 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도록 건의함.
- 일반 가정보다 더 편안하고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준 높은 서비스와 함께 시설 내·외부의 디자인을 세련화함.
- 개별여행 및 가족여행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중·저가 호텔 등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개발, 관광숙박업에 대한 금융, 조세, 부담금 정책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활성화 및 실버휴양객 장기비자 발급제도를 개선함.

(3)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행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악, 미술, 공예, 무용, 문학 등에 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예술형 전문 휴양업이나 레저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형 전문 휴양업을 육성함.

- 지역 특성에 걸맞는 관광공연장업을 육성하여 제주고유의 전통 무대예술을 선보임.

(4) 카지노업

- 현재 도내 카지노 업체는 8개 업체로서 규모와 운영실적은 영세한 실정이며 특히 제주도지역의 카지노업체의 가동율은 1.8%에 머물고 있어 국내에서도 최하위 수준임.
- 전체 이용객 중 일본고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는 약 90%에 달하는 등 일본고객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경기와 환율에 크게 좌우되어 다양한 수요 창출이 필요함.
- 제주도의 카지노 수는 전국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나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은 전체의 10%, 외화획득액은 전체의 23%만을 차지하고 있어 공급과잉 요인을 해결해야 함.
- 기업 합병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설 확충, 인력 조정으로 이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국내 또는 외국 리조트개발업체가 기존 카지노업체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함.
-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 공연산업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광분야에 일정규모 이상을 투자하는 자에게 외국인 전용카지노업을 사전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함.

(5) 국제회의업과 관광종합센터

- 2002년 완공 예정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규모는 최대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장과 공연, 스포츠행사 등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이나 1,000명 이상의 대규모 컨벤션, 전시시설 확충이 시급함.
- 국제 항공노선의 연결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로서 관광제주의 위상 및 제주국제공항의 한계로 외국도시와의 교통연결이 시급한 문제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용이하게 얻고 관련네트워크를 강화시키려는 국내·외의 컨벤션 및 전시행사가 증가할 것이므로 국제회의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임.
- ‘민·관국제회의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외국의 국제회의 인력양성기관과 도내 관광 관련대학이 연대하여 선진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신규 인력 배출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통한 컨벤션 전문인력을 양성함.

- 관광종합센터 및 컨벤션유치기구(CVB :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설립, 국제회의도시 지정 건의 및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함.

(6) 관광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이 6개 업체, 관광식당업이 17개 업체, 관광사진업이 5개 업체임. 관광식당업은 주로 외국인 및 국내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여행사와 긴밀한 유대관계에 의하여 판매에 영향을 받고 있음.
- 관광지에서의 먹거리 행태는 음식의 맛과 질을 추구하는 관광객 심리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메뉴와 조리기법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전통음식이 각광을 받는가 하면 이와는 별개로 지역과 국적, 즉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퓨전음식이 대중의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됨.
- 관광행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단체관광객 위주에서 개별관광객 또는 가족관광객 유치를 위한 메뉴 개발을 강화하여 일반식당과 차별화된 고급메뉴 관광식당을 개발 추진함과 동시에 관광객 보호책으로서 무등록 사진업체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기준을 강화함.

(7) 유원시설업

- 경쟁력 있는 유원시설업 육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의 동적 관광활동 및 도민여가 활동의 장 마련 및 건전한 놀이문화공간을 확보함.
- 제주고유의 문화와 관광산업 접목, 지방자치단체의 유희부지 이용 혜택 부여, 각종 기금의 지원 확대 및 활용방안을 마련함.

(8) 관광교통업

- 업체간 합병이나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적정 수급대책을 수립하며 무허가 등록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관광버스업, 유람선업, 렌터카업 등의 관광교통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
- 중·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입도 수단인 항공교통과 해상교통정책에 대하여 적정한 항공노선의 확충과 크루즈 전용 항만 개발을 통한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도모함.

(9) 쇼핑업

- 재래시장, 일반 관광기념품 상가와 공항면세점, 쇼핑센터 등 기초쇼핑환경 기반이 부족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
- 우리 나라도 이미 30% 정도가 쇼핑관광수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쇼핑 환경의 변화는 향후 관광객이 관광지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쇼핑편의 및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임.
- 내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재래시장과 특산품매장을 정비 또는 신설하여 타 국내지역 특산품이나 기념품과 차별화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함.
- 대외적으로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 명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수 생산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사후 품질관리와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수공예품인증제도’ 등을 시행함.
- 재래시장, 기념품 판매점, 면세점, 대형상가, 쇼핑센터 등 쇼핑업계가 연중 쇼핑관련 이벤트를 개최함.

(10) 관광인력 육성

- 관광인력 수급 분석은 관광사업 종사원 총수요량(호텔업, 여행업, 기타 관광사업), 관광인력의 공급 요구량, 추가적 공급요구량, 공급여력으로서 신규 공급가능량, 총공급량을 각각 산출하였음.
-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관광인력 총공급량은 연간 평균 1만7,940명으로 산출되었음.
- 관광인력 수급 분석 결과, 현재 공급과잉 상태로 업계 수요를 100% 이상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호텔업이나 여행업과 같은 기존 2대 관광사업체외에 새로운 관광시설들이 건설·개업함에 따라 관광인력 수급 분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는 관광업계 종사자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시장상인, 관광지 기념품점, 택시기사 등 국내·외 관광객과 대면할 수 있는 업종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보다 철저히 수행되어야 함.

- 관광업계 관련 종사원의 교육은 특정기관에서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담 교육기관의 지정과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해야 함.

<표 III-2-17> 관광인력 수급 분석 결과

(단위 : 명, %)

구 분 연 도	호텔업 수요량	여행업 수요량	기 타 수요량1)	총수요량2)	공 급 요구량3)	추가공급 필요량4)	신규 공급량5)	총공급량6)
2001	5,257	3,402	2,164	10,823	9,597	1,226	2,402	13,225
2002	5,582	3,663	2,311	11,556	10,281	1,275	2,542	14,098
2003	5,924	3,986	2,477	12,387	10,978	1,409	2,818	15,205
2004	6,284	4,255	2,634	13,173	11,767	1,406	2,898	16,071
2005	6,659	4,578	2,809	14,046	12,514	1,532	2,898	16,944
2006	7,052	4,862	2,978	14,892	13,343	1,549	2,978	17,870
2007	7,463	5,184	3,161	15,808	14,147	1,661	2,978	18,786
2008	7,893	5,530	3,355	16,778	15,017	1,761	3,058	19,836
2009	8,341	5,813	3,538	17,692	15,939	1,753	3,058	20,750
2010	8,809	6,159	3,742	18,710	16,807	1,903	3,058	21,768
2011	9,283	6,505	3,947	19,735	17,774	1,961	3,058	22,793
평균	7,140	4,903	3,010	15,054	13,469	1,585	2,886	17,940

주1 : 관광진흥법상의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관광호텔업과 여행업에 종사하는 종사원 수를 전체의 75%로 산정하였으며, 기타 업종의 종사원 수는 일반적용기준인 (호텔업+여행업)의 25%로 전제하였음.

주2 : 총수요량 = 호텔업 수요량 + 여행업 수요량 + 기타 업종 수요량

주3 : 공급 요구량은 = 전년도 총수요 × (1 - 상실률), 상실률은 한국의 1990~1999년 서비스업종 퇴직률과 전업률을 감안, 5%로 전제하였음.

주4 : 추가공급필요량 = 총수요량 - 기존공급량으로 신규고용창출량으로 해석할 수 있음.

주5 : 신규공급량은 추가적으로 공급가능한 인력으로 도내 대학 관광관련학과 졸업예정자수임.

주6 : 총공급량 = 총수요량(공급요구량 + 추가공급필요량) + 신규공급량

자료 : 제주도, 「제주도관광진흥기본계획」, 2000 수정 작성.

5. 관광조직 개편 및 관광시장의 확대전략 수립

가. 관광진흥조직체계의 개편방안

(1) 현황

- 관광행정은 제주도 관광문화국, 제주시 문화관광국,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북제주군 관광교통과, 남제주군 관광공보과에서 담당하고, 제주도관광협회가 관광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함.
- 관광담당 인원은 제주도 40명, 제주시 16명, 서귀포시 11명, 북제주군 14명, 남제주군 30명임으로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으로 관광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기가 어려운 실정임.

(2) 제주형 지방관광기구(RTO) 설립

- 21세기 지역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관광정책 실행을 총괄할 관광조직 신설이 필요함.
- 관광정책 의사결정에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조직 운용, 저비용·고효율의 유연한 관광조직체계를 구축함.
- 제주도 직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주도관광공사, 비영리특수법인 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제주형 지방관광기구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함.
- 기존 제주도, 제주도관광협회 등에 관광진흥업무를 위하여 배정된 예산을 통합·활용함.
- ‘제주형 지방관광기구’ 육성기금(관광복권 판매수익금 등에서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방안을 모색함)을 향후 조성함. 또한 자체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개함.

나. 관광시장의 확대전략 수립

(1) 기본방향

- 관광자원에 의한 국내·외의 표적시장과 그 특성을 파악하여 관광마케팅전략을 수립함.

- 휴양형 국제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마케팅전략 체계의 강화방안을 수립하며 효과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체계를 구축함.
- 관광시장별 포지셔닝을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함.

(2) 국내 표적시장 선정

(가) 1차 표적시장 : 개인여행객 시장

- 개별 여행객은 목표년도인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체여행객보다 2배 이상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국내 표적시장 중 가장 중요한 표적시장이 됨.
- 개별여행객 증가는 인터넷 보급과 여행생활화 등으로 여행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틀에 박힌 여행일정을 꺼리는 관광객 성향 변화에 따른 것임.
- 개별여행객 중 가족단위 여행객 증가는 1990년대 이후, 소득 증대와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가족단위 여행객의 경우 레저나 스포츠 활동 등에 주로 참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관광상품 개발이 요구됨.

(나) 2차 표적시장 : 일반단체 여행객 시장

- 수요예측 결과, 일반단체시장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중요한 표적시장으로 개척하여야 함.
- 한정된 관광시장에서 여행수요의 변화 즉, 개별여행 수요의 증대로 인해 2차 표적시장이 협소화되고 있음.
- 수학여행, 친목단체 등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함.

(다) 3차 표적시장 : 국제회의 등의 참가 여행객 시장

- 국제회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학술회의, FAM 투어, 기타 행사 등의 시장도 중요한 표적시장으로 인식됨.
- 국제간의 정상회담, 국제학술대회, 국내·외의 스포츠 행사의 개최 등은 제주도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판단되며 비교적 고가의 여행경비가 소요되므로 관광수입에 기여도가 높음.

- 이 시장은 주로 마케팅 선도자(marketing opinion)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제주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함.

(3) 국외 표적시장 선정

(가) 1차 표적시장 : 일본시장

- WTO의 국가별 여행형태 전망에 따르면 일본 관광시장은 원거리 개인, 가족단위에 의한 여행의 증가, 마케팅 리더들의 단기간 코스 중심의 쇼핑, 미용체험여행 선호 등으로 여행성향이 변화하고 있음.
- 일본은 가장 인접국가이며 환율상의 유리한 점, 교포가 많고 제주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등에서 표적시장 관리가 용이하며 일본인의 내도 관광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현재 제주도와 일본을 잇는 노선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4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음. 특히 현재 JAL이 운휴노선으로 묶어놓고 있는 등 일본에서 제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경쟁력을 약하게 만들고 있음. 또한 항공요금에 있어서 일본과 서울노선보다 거리가 짧은 제주노선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선 항공료 현실화가 필요함

(나) 2차 표적시장 : 중국시장

- 내도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1994년 1,117명, 점유율 0.7% 수준에서 2000년 5만 7,236명, 점유율 19.9%로 내도 방문객 중 일본에 이어 크게 성장하고 있어 2차 표적시장으로 설정함.
- 세분시장별 목표년도 관광객 수요예측치에서 보면 중국이 21.4%로 일본의 64.8%에 비해 점유율은 낮으나 제2의 국제시장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4) 시장별 포지셔닝 전략

- 제주 관광상품의 포지셔닝은 비교 우위의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함.

(가) 오염되지 않은 자연 관광자원을 지닌 관광지

<표 III-2-18> 오염되지 않은 자연관광자원을 지닌 관광지

포 지 서 닝 전 략	내 용
제 주 자 연 관 광 자 원 의 관 광 이 미 지	· 식물의 보고인 한라산과 오름, 폭포, 동굴 등과 해수욕장, 섬 등의 바다자원을 한눈에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임.
제 주 자 연 관 광 자 원 의 관 광 비 용 과 품 질	· 저비용으로 다양한 관광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과 의 비 교	· 한지역에서 산, 폭포, 바다 등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의 도 전	· 관광객을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모시기를 좋아하고 실천하는 관광지임.

(나) 특이한 문화자원을 지닌 관광지

<표 III-2-19> 특이한 문화자원을 지닌 관광지

포 지 서 닝 전 략	내 용
제 주 문 화 관 광 자 원 의 관 광 이 미 지	· 제주자연사박물관, 섬문화축제, 초가집 및 돌문화, 조상송배사상, 전통축제(당굿, 영등굿, 큰굿 등), 전통음식, 기타 100여개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제주 고유문화를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임.
제 주 문 화 관 광 자 원 의 관 광 비 용 과 품 질	· 저비용으로 특이한 섬문화자원을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과 의 비 교	·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남방문화를 비롯 다양하고 특이한 섬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의 도 전	· 관광객을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모시길 좋아하고 실천하는 관광지임.

(다) 레저 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

<표 III-2-20> 레저 및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

포 지 서 닝 전 략	내 용
레 저 및 스포 츠 관 광 지 이 미 지	· 골프, 사냥, 등산, 카지노, 경마 및 승마, 바다자원이용(수영, 조개잡이, 윈드서핑, 스낵스쿠버다이빙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임.
레저 및 스포츠 관광지의 관 광 비 용 과 품 질	· 저비용으로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레저 및 스포츠 시설을 갖춘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과 의 비 교	·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시설과 바다를 4계절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의 도 전	· 관광객을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모시길 좋아하고 실천하는 관광지임.

(라)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는 관광지

<표 III-2-21>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는 관광지

포 지 서 닝 전 략	내 용
계절별 다양한 이벤트 체험형 관 광 지 이 미 지	· 한라산눈꽃축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서귀포칠십리걷기대회, 왕벚꽃잔치, 유채꽃잔치, 고사리꺾기대회, 용연선상음악회, 2001세계섬문화축제, 제주국제시민마라톤대회, 서귀포바다축제,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 한여름밤의해변 축제, 제주국제관악제, 서귀포칠십리축제, 한라문화제, 제주억새꽃축제, 제주 감귤 축제, 성산일출제 등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이용한 제주만의 지역성과 역사성이 살아있는 관광지임.
제주이벤트의 비용과 품질	· 저비용으로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형 이벤트가 열리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과 의 비 교	· 제주만의 고유성을 갖춘 문화관광이벤트가 개최되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의 도 전	· 제주 고유의 섬문화가 살아있는 관광이벤트가 있는 관광지임.

(마) 국제회의시설을 갖춘 관광지

<표 III-2-22>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관광지

포 지 서 닝 전 략	내 용
휴 양 을 겸 한 국제회의시설을 갖춘 관광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국제회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리조트호텔을 갖춘 관광지임.
제 주 개 최 국 제 회 의 의 비 용 과 품 질	· 저비용으로 국제회의와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과 의 비 교	· 국토 최남인 지리적 이점으로 연중 비교적 온화한 날씨에서 국제회의와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관광지임.
경 쟁 지 역 의 도 전	· 다양한 국제회의 시설을 갖춘 관광지임.

(5) 관광시장 확대 전략

(가) 국내 관광시장

○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 휴양목적, 문화탐방, 레저 및 스포츠목적 관광상품, 기타 체험형 관광상품은 경쟁력이 높은 상품(관광자원과 시설이 갖추어 있음)이므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 이러한 시장개척을 위해 레저 및 스포츠, 각종 이벤트의 활성화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 새로운 표적시장의 개척과 그에 따른 관광상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유도함.

-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지속적 활용과 각 시장별 포지셔닝 전략을 실천함.
- 잠재여행객들이 쉽게 여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시스템화함.

○ 기타 관광상품

- 단체관광, 수학여행, 신혼여행 등의 관광상품은 통계상 수요감소가 예측되고 있으나 아직도 잠재시장은 크다고 판단됨.
- 특이한 문화관광자원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관광자원의 보고임을 포지셔닝화함.
- 관광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시장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해야 함.
- ‘공표요금제도’를 도입하여 출혈경쟁을 근절시킴.
- 각 시장별(학교, 기업체, 사설단체 등) 관광상품을 개발함.
- 행사 6개월 전 예약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며 매년 실시하는 시장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

(나) 국외 관광시장

○ 일본 관광시장

- 통계상 매년 관광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인접국가라는 점, 자국내 국내여행보다 관광비용이 유리한 점, 교포가 많다는 점 등 시장기회가 높은 국가이므로 토털마케팅(total marketing)을 실시함.
- 관광 외부교통(accessibility)이 특정지역에 한해 개설되고 있으며, 또한 부산경유로 인한 불편과 시간 소비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지금까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대중매체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예 : 해당국가의 TV 프로그램 중 이른바 자연 다큐멘터리, 문화탐방, 관광지 소개 등의 프로그램에 제주도가 스폰서가 됨).
- 매년 일본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그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 시장개척을 위해 시장별 포지셔닝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야 함.
- 일본 관광시장에 특화된 기업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함.

○ 중국 관광시장

- 앞으로 세계 제 1위의 관광시장이라는 점, 인접국가라는 점, 고속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 제주도를 해외여행 자유지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 시장기회가 가장 큰 시장이므로 토탈마케팅을 실시하여야 함.
- 중국과의 직항노선은 상해, 북경 등 특정지역에 한해 개설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항노선을 확대함.
- 대중매체를 통해 제주의 관광자원 소개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며 마케팅 리더, 팸투어, 스포츠 행사 참관 등에 집중적으로 마케팅 노력을 투입함.
- 오락, 쇼핑, 카지노, 눈관광 등의 포지셔닝 전략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 관광상품을 개발함. 우수업체 선정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

○ 기타 관광시장 확대

- 제주와 동남아 국가와의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위한 정부, 지자체, 항공사간 적극적인 협력과 제주의 비교 우위 관광자원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함.
- 국제회의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활동을 강화함.
- 국내·외 관광시장의 관광동향 및 관광욕구의 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함.
- 제주지역 관광조직(지자체, 제주도관광협회, 연구기관 등)간의 역할 분담을 체계화함.

제3절 세계인과 함께하는 체육·스포츠 진흥

1. 현황

가. 체육시설

- 2000년 현재 공공체육시설은 전체 26개(제주시 10개, 서귀포시 6개, 북제주군 5개, 남제주군 5개)임. 이 중 12개소에서 배드민턴교실, 4개의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탁구, 수영, 농구, 궁도 교실을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이며, 2개소는 노인 체육대학으로 이용하고 있음.
- 수영장의 경우 제주시는 1개소, 서귀포시 1개소에 불과하며, 일반 신고체육시설의 경우 제주시 1개소, 서귀포시, 북군, 남군에 각 1개소에 불과함.
- 엘리트 스포츠시설은 전국체전 개최 등에 손색이 없으나, 국제규모의 실내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기에는 시설이 빈약함.

나. 동호인 및 기타

- 동호인 수의 규모는 축구, 볼링, 게이트볼 순으로 지역적으로 고령자의 생활스포츠가 활발하나 아직까지도 전통적 체육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생활체육과 개인 및 사회복지와의 연계시스템이 빈약하고 다양한 사회 계층과 집단을 고려한 생활스포츠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함. 생활스포츠를 스포츠산업의 한 분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큼.
-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한 노인 여가 활동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기존 체육시설(지역과 학교 내)의 이용을 극대화함.

다. 스포츠대회 개최

- 종합 스포츠대회는 제21회 국립대학교체육대회, 제79회 전국체육대회,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3개 대회가 개최되었고, 참가규모는 3만6,000여명이며 소득효과는 540억원 규모로 추산됨.

- 전국 종별스포츠대회는 70개 대회가 열렸고, 참가인원은 4만2,000여명으로 소득효과는 630억원으로 추산됨. 종목별로 유치 현황을 보면 축구가 10회 이상, 육상이 5회 이상 이었고, 다음으로 유도, 배구, 수영 등으로 유치되어 왔음.
- 1회성 대회가 대부분이었으며 백록기 축구대회(9회), 제주도지사배 전국주니어골프대회(2회), 제1회 탐라기 전국중학교축구대회, 제1회 동계훈련 청소년축구대회 등 4종목이 매년 개최되고 있음.
- 국제 스포츠대회는 종별 경기대회 14개 대회가 열렸고, 배구, 탁구 등 8개 종목대회에 참가인원은 6,900여명이었으며 소득효과는 120억원으로 추산됨.
-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함.

<표 III-2-23>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 개최현황(1995~2000년)

연도	대회구분	대 회 건 수	참가규모	추계소득	비 고
1995년	국내대회	8	2,266	35억원	
	국제대회	1	80		
1996년	국내대회	5	1,090	16억원	
	국제대회	-	-		
1997년	국내대회	7	3,233	49억원	
	국제대회	-	-		
1998년	종합대회	1	21,482	400억원	제79회 전국체전
	국내대회	11	5,162		
	국제대회	-	-		
1999년	종합대회	1	13,751	257억원	제28회 소년체전
	국내대회	8	3,396		
	국제대회	1	10		
2000년	국내대회	17	22,250	420억원	
	국제대회	6	5,760		
계	종합대회	3	36,233	1,282억원	
	국내대회	70	42,236		
	국제대회	14	6,932		

주 : 소득산출은 2000년도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 체육회 자료에 의한 재구성.

라. 전지훈련 유치 현황(1997~2000년)

- 점차 제주도가 전지훈련의 적지로 인식되고 있고 훈련종목도 일부 종목에서 다수 종목으로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음.

- 참가인원 수도 1997년도에 51개팀 720명에서 2000년도에는 165팀 4,600명이 참가하여 1997년도에 비해 538.8%의 폭발적 증가를 나타냄.
- 소득규모도 1997년도 4억원에서 2000년도에는 50억원 이상의 소득효과를 나타내어 소득 증가율은 1,000%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
- 유치홍보 강화, 스포츠타운 조성 등 전지훈련 유인책을 강화함.

마. 골프산업

- 1996~1997년도에는 4개 골프장, 1998년도에는 6개 골프장, 1999~2000년도에는 7개 골프장으로 1996년도보다 75% 증가함. 이용인원은 도외인(외국인 포함)기준으로 1996년도에 21만2천명에서 2000년도에는 33만9천명으로 59.9%로 증가함.
- 소득추계로는 2000년도에는 1,70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폭발적인 골프 인구의 증가는 제주도의 골프산업 발전에 획기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제주지역의 골프산업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됨.

바. 스포츠관련 단체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은 스포츠산업 육성추진기구로서 1999년 6월 27일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하여 활발히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결과, 2000년도에 420억원, 2001년도에는 800억원 이상의 소득효과를 창출함.
- 1951년 6월 15일에 발족한 제주도체육회는 주로 엘리트 선수의 육성과 전국체전, 소년체전 등의 종합체육대회 및 종목별 국내·국제대회에 선수들을 파견하여 도위 선양에 힘써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1991년 5월 13일에 발족하여 27개의 연합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고 최근에는 종목별 체육대회 및 제 1회 전국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등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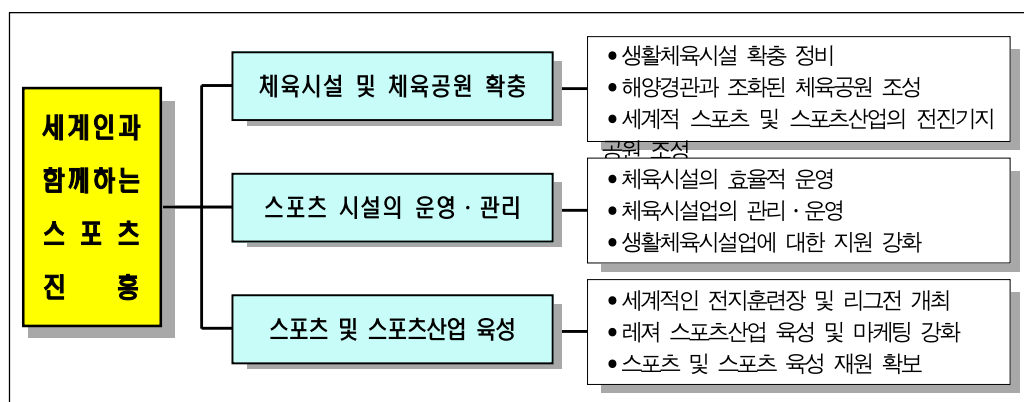
- 2000년 기준 지역주민 1인당 스포츠시설 수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영장의 경우 제주도 전체인구 비례시 약 2,700명당 1개소인 실정에서 2011년에는 약 1,600명당 1개소로 수요가 증가될 것이 예상됨.
- 2000년 현재 제주도 유동 인구는 연간 약 400만 명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600만 명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게 제공될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구비함.
- 청소년층을 위한 사이클링, MTB, X-sports, 승마, Off-Road, 수영장, 해양스포츠, 항공스포츠, 스쿠버 등 일반 관광객들을 위해 수영장, 체험 스포츠, 골프, 상설 건강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함.

<표 III-2-24> 체육·여가시설을 위한 발전 지표

구 분	2000년	2006년			2011년			연평균 증가율		비율
총인구		최소치	최대치	목표치	최소치	최대치	목표치	'00-'06	'07-'11	비율
종합운동장/육상경기장	6	1	2	3/8	1	2	3/11	50%	50%	100%
실내체육관	15	1	2	3/18	1	2	6/21	50%	50%	100%
수영장	20 실내 : 4 학교 : 12	5	6: 야외2	26/6: 야외2	5	10/10: 야외 2	36/16	40%	60%	100%
동네체육공원	63	8	10	10/73	10	15	25/98	40%	60%	100%
건강관리센터		4	6	6	6	11	17	35%	65%	100%
조깅 및 걷기코스		6	15	15	10	15	30	50%	50%	100%
MTB 코스	0	3	5	5	3	5	10	50%	50%	100%
항공스포츠 전용비행장/활공장	0	1/10	1/12	1/12	1/2	1/3	2/15	80%	20%	100%
Futsal장	0	20	21	21	20	49	70	30%	70%	100%
Streetball	0	20	21	21	20	49	70	30%	70%	100%
인공암장	2	10	17	19	10	12	31	61%	39%	100%
인공하천	0	1	2	2	1	2	4	50%	50%	100%
X-Sports시설	0	10	14	14	10	15	29	48%	52%	100%
스포츠 전용마리나 시설	0	2	3	3	2	3	6	50%	50%	100%
스포츠관련 놀이공원, x-sports등	0	제주시 3/ 서귀포 1	제주시 5/ 서귀포 2	7	북군 2 남군 2	북군 2 남군 2	11	63%	37%	100%

나. 기본방향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공동체 (community)을 형성하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부합하고 장차 예상되는 국가간·지역간 지자체 및 리그 중심의 클럽대항전과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등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양경관과 연계하여 대규모 종합체육공원을 조성함.
-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상충부의 프로 부문은 중·하위 부문 성장의 동기부여와 촉진역할을 담당하고 중·하위 부문은 수요자 확대와 상충부의 인력 풀(Pool)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함.
- 생활체육은 국가가 담당하고 나머지 부문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여 자체적인 생존 모델을 수립함.
- 인위적인 스포츠 수요자와 인력 풀(Pool)의 확대는 불가능함으로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스포츠가 전체 스포츠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강력한 동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 프로스포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전환되어야 함.
- 프로스포츠가 아마추어와 생활체육 부문을 견인해야 함.



<그림 III-2-2> 체육·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3. 체육 및 스포츠부문의 사업계획

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육성기반 강화

(1) 생활체육시설 확충(전반기 : 2002~2006년)

- 도민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인구밀도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현재 확보된 시설 중심으로 이용 방안을 마련하되 가급적 자연친화적 시설로 확충해 나감.
- 도시형은 시설스포츠 시설, 소도시형은 시설스포츠 및 야외스포츠 시설, 농어촌형은 건강관리 센터 및 야외스포츠 시설을 중심으로 확충함.
- 급격한 신장세의 조깅 및 걷기운동 등의 선호종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종전 개발제한 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벨트를 조성하고 다양한 코스를 난이도에 따라 초보자(그린코스), 중급자(블루코스), 숙련자 코스(황색코스) 등으로 구분·운영함.
- 스포츠활동 시간대에 따라 생활스포츠 지도자를 배치하고, 기 조성된 체육공원에 보다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부여하여 종합 스포츠 공원(Sportspark)으로 전환함.
- 항공스포츠 동호인들을 위해 별도봉과 아라동 쪽에 활공장과 활공연습시설을 설치하며 학교 운동장, 체육관을 중심으로 생활스포츠 동호인회 조직을 유도하고 해당 종목 전문가를 자원봉사자로 배치함.
- 현재의 종합운동장 지역을 스포츠공원화(Sportspark)하고 X-Sportspark의 난이도를 적용·운영함.
- 소도시 지역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10군데(7곳은 학교체육관)를 지역주민들과 학교 체육시설로 공동 사용하도록 유도함.
- 서귀포시의 천지연과 걸매공원에 스포츠공원을 조성함.
- 고근산과 군산봉에 활공장을 조성하여 패러글라이딩과 같은 항공스포츠 장소로 활용함.
- 농어촌지역은 마을 외곽지역에 스포츠공원 조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공동사용 유도, 마을 순환 걷기 및 조깅코스과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함.

(2) 생활체육시설 확충(후반기: 2007~2011년)

- 제 1단계로 기존 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시설 중 낡거나 미사용 중인 것들을 대폭 정비하고, 샤워시설 및 동호인회 장비 보관 시설을 보완하며 폐교를 이용한 생활스포츠 센터를 운영함.
- 제 2단계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지역은 전반기에 제시한 시설들이 건설되어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고 서귀포의 경우 해양스포츠를 위한 마리나 시설 확충, 항공스포츠를 위한 경비행장 및 활공스포츠를 위한 시설 완비, 관련산업의 지역내 유치를 촉진하고 농어촌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 유치, 해양스포츠를 위한 데크시설 및 관련업체 유치, 초원스포츠를 위한 안전한 코스를 개발(오리엔티어링, 동굴 및 계곡탐사, Off-Road 코스 등)함.
- 건강, 복지와 연계된 생활스포츠로서 지역별로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
- 제 3단계로 인구 1,00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적당한 크기의 실내수영장 및 실내 체력단련장 시설을 설치(여러 가지 형태로 지출되는 건강과 복지 관련 지원금을 이를 위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함)함.

(3) 체육 관련 부서의 업무 체계화

- 행정부서와 교육기관, 건강관리 및 생활체육관련 조직체, 특성 스포츠 육성 지원 부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포츠 동호인회를 총괄할 수 있는 상부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
- 생활스포츠 상담소 및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스포츠클럽과 주민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함. 인터넷 설비 지원 및 규칙적으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고, 이 경우 건강 관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함.
- 마을회관 또는 노인정이 스포츠 및 건강상담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 혈압 및 맥박 측정계, 뇨검사테이프, 체중계, 러닝머신을 비롯한 간단한 체력강화훈련 기구 비치)함.
- 생활스포츠를 포함한 엘리트 스포츠를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제주도의 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는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을 점차적으로 공익재단 형태로 발전시킴.

(4)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

-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 및 생활스포츠 관련 대규모 행사 참여시 참가비 등에서 확보함.
- 스포츠관련 행사에 참가키 위해 방문한 선수, 임원단, 학부형 등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수익금중 일부를 생활체육 및 건강복지기금으로 조성함. 기금조성의 방법 및 활용방안은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함.
- 다양한 종류의 생활스포츠시설 이용패스나 이용권을 개발·판매함.
- 동호인회의 활동 재원은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 수입(30%), 중앙 지원금(30%), 특별교실 자체 운영(15%), 생활스포츠관련 위탁 프로그램개발 운영(15%), 체육진흥기금(10%) 등으로 충당함.

나.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육성

(1) 골프산업의 육성

- 골프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0년도 실적 기준으로 전체 이용객 51만6,420명 중에서 도내 이용객 34%를 제외한 66%가 관광객(내국인 50%, 외국인 16%)으로 타남.
- 도외인 골프내장객은 기준년도 34만 명에서 목표연도(2011년)에는 100만 명 유치로 목표로 하고, 골프산업의 경제규모는 기준년도 1,700억원에서 목표연도(2011년)에는 5,0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함.
- 총 임야면적의 5%까지 조성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관광수입과 환경측면을 고려하여 총 골프장 적정 조성규모를 측정하고 신규허가시 신속한 결정과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업자 투자환경을 개선함.
- 각계 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퍼블릭 코스를 확대하고 정규 골프장을 다양화함.
- 4계절 영향 및 기후의 불규칙성으로 연중 지속적인 레포츠 육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골프만큼은 연중 라운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존 단순한 레포츠 기능형에서 숙박기능과 오락기능을 겸비한 다목적 리조트(친목, 가족체류형)로 개발함.

-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환경재해영향을 평가할 시 절차 이행기간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자이익을 고취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시설을 완비토록 함.
- 골프장 건설사업자는 개발이익의 지역화와 인근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현안 사업비(공익사업) 일부를 지원해 나감.
-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겸한 골프장 시설의 개발을 추진하고 국외 전지훈련으로 외화 유출이 심한 주니어 골프선수들이 제주에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대 중양교섭 등을 강화함.

(2) 스포츠 이벤트 산업의 육성

- 국제 종합경기대회는 1회 이상, 종별 국제·국내 대회는 목표연도(2011년)에 50건 이상 유치하고 대회참가 인원 유치는 기준년도 11만5천명에서 목표연도(2011년)에는 28만명 이상, 소득 목표는 기준년도 420억원에서 목표연도(2011년)에는 1,000억원 이상이 되게 함.
- 규모가 큰 국제·국내 대회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세계적인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와 업무를 제휴하고 도내 스포츠 경기단체들이 대회 유치·개최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대회 종료 후 성과분석을 과학적으로 실시함.
- 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치유, 치료, 휴식, 재미, 스포츠, 게임 등의 복합적 성격을 갖는 치유 레포츠(Healing Leports)산업인 메디칼 쉼 스포츠(Medical Fun Sprts) 관련 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3) 레저·스포츠산업의 육성

- 일반관광객, 수학여행단 등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를 개발함. 기본시설을 확충함.
- 제주에 적합한 레저·스포츠는 관광과 연계가 가능하고 대규모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것으로는 기개발된 레저·스포츠외에 오름 트래킹, 바다 래프팅, 산악자전거, 승마 등이 있음. 특히 승마공원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레저스포츠 공간을 제공함.
- 레저·스포츠 종목별 국내대회, 국제대회를 점진적으로 개최, 노하우를 쌓고 2011년 경에 세계 레저·스포츠대회를 개최함.

- 각종 레저·스포츠 최적지의 개발은 자연환경 여건과 접근성, 안정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특정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입지를 선정하고 투자비용이 적고 수익성이 높은 것부터 개발함.
- 레저·스포츠 개발시에는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용 등으로 다단계로 개발하고 국제 대회 개최 가능한 레저·스포츠에 대해서는 기본시설과 훈련시설, 대회시설 등을 완벽하게 구비함.

(4) 전지훈련 산업의 육성

- 월드컵축구경기장을 중심으로 월드컵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숙박, 위락, 문화, 여가시설을 확충하고 월드컵 축구박물관, 스포츠용품 백화점, 종합체력관리·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전지훈련 유치 및 관광지로 개발함.
- 야구전지훈련에 필요한 훈련장을 신설하고 중·장거리, 마라톤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위한 고지훈련장 코스를 개발함.
- 전지훈련 팀간 경기대회 개최 및 선수단에 대한 서비스 향상, 항공료 할인, 숙박비 등 체제비 할인, 공공 체육시설과 학교 체육시설 사용 편의 제공, 종목별 학교간 자매결연 추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

(5)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 육성 : 세계적인 스포츠 마케팅 전문회사와 업무제휴로 정기적 교육프로그램을 연대 개발하고 도내 인력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에 연수 참여시켜 노하우를 축적함.
- 레저·스포츠 전문인력 육성 : 도내 대학 관련학과에 레저·스포츠 교육과정을 강화시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기존의 레저·스포츠인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교육 강화와 필요시에는 선발된 전문 인력을 국외연수 시킴.
- 도내 대학 관련학과에 스포츠마케팅 전문과정을 설치함.

(6) 제주도 상징 스포츠 개발 및 선수 육성

- 제주 국제평화마라톤대회 신설 : 자연환경과 도로 등의 제반 여건은 국제마라톤 코스의 최적지로 제주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제주국제평화마라톤’ 대회를 상설 개최하여 보스톤 마라톤대회와 같은 세계적인 대회로 정착시킴.

- 국제 프로골프선수권 대회 신설 : 제주가 골프와 관광과 휴양지를 겸한 환상적인 섬임을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가칭) ‘제주 아일랜드 골프클라식’ 또는 ‘제주 아일랜드 골프스킨스게임’과 같은 세계적인 프로 골프대회를 매년 상설 개최함.
- 상징 스포츠 스타 선수 육성 : 본도 출신으로서 세계적인 마라톤 및 골프 선수를 체육회의 엘리트 선수육성 사업과는 별도로 집중 육성 관리함.

(7) 스포츠 관련 단체 업무의 명확화

- 규모 있는 국내·외 스포츠대회를 유치 개최함에 있어 도와 체육회간 스포츠 업무의 체계화와 역할 분담을 정립하여 스포츠산업 업무 추진에 효율화를 도모함.
- 스포츠산업육성기획단은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개최와 전국 및 전도대회의 후원, 예산 확보와 지원 업무를 함. 엘리트분야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국제 스포츠대회의 경기운영 분야의 참여지도 및 엘리트 체육 전도대회를 주관 개최함.
-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분야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유치와 개최, 생활체육분야 국제 스포츠대회 경기운영 분야의 참여지도 및 생활체육 전도대회를 주관함.

(8) 스포츠 마케팅 전략

- 각종 스포츠 이벤트와 연계 제주도의 특산물, 제주를 상징하는 독특한 디자인 의류품 등의 판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함.
- 스포츠이벤트 비중에 따른 적정 입장권 요금 책정 및 판매시기 적정화로 국내·외 최대의 관중 동원을 통한 입장권 수입을 극대화함.
- 굴지의 국내·외 회사들의 입간판, 유니폼, 경기장 바닥, 자막광고 등의 유치를 통한 광고 수입을 확대함.
- 「스포츠 관람+관광+휴양」의 스포츠이벤트형 패키지와 「레저스포츠+관광+휴양」의 레포츠휴양형 패키지 상품을 개발함.
- 기존 복권과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 복권사업을 현행 복권제도 범위 내에서 추진함.
- 비중 있는 각종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국내·외 방영권을 판매하여 수입을 극대화함.
- 스포츠이벤트 유치효과 규모에 따른 해당 경기단체에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함.

- 각종 스포츠이벤트, 상징 스포츠스타, 인터넷 등을 통한 스포츠메카로서의 제주를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여 총합적 지역경제 이익을 창출함.

(9)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보

- 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으로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예방의학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 중임)함. 특히 스포츠 관련 대규모 행사 참여시 약간의 참가비를 받음.
- 지역주민 건강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스포츠관련 행사에 참가키 위해 방문한 선수, 임원단, 학부형 등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수익금중 일부를 생활체육 및 건강복지기금으로 조성함. 기금조성 방법 및 활용방안은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함.
- 다양한 종류의 생활스포츠시설 이용패스나 이용권을 개발·판매하고 동호회 활동 재원은 회원제 운영에 따른 회비수입, 중앙 지원금, 특별교실 자체운영, 생활스포츠관련 위탁 프로그램개발 운영, 체육진흥기금 등으로 충당함.

제3장 미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도시

제1절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교육 및 인재육성

1. 현황

가. 학생수 변화 추이

- 2000년 현재 유치원 원아 수는 5,903명으로 전국 유치원 원아 수의 1.08%를 차지하고 있음. 1980년의 1.75%에 비해 제주지역 유치원 원아 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
- 초등학생 수의 증감은 전국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수 역시 전국의 증가와 비슷한 추세로 증가해 왔으나 1990년 이후 증가 추세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음.
- 2000년 현재 대학생의 증가는 전국 대비 0.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수준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표 III-3-1>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생수 변화 추이

연도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980	학생수	64,433	1,126	5,658,002	76,179	2,471,997	33,128	1,696,792	24,264	601,494	5,512
	증가 자수	289	308	98	119	187	183	287	310	299	721
	전국대 비율	1.75		1.35		1.34		1.43		0.92	
1990	학생수	414,532	5,620	4,868,520	56,033	2,275,751	28,473	2,283,806	31,146	1,490,809	13,535
	증가 자수	1861	1,536	85	87	173	158	387	398	740	1,772
	전국대 비율	1.36		1.15		1.25		1.36		0.91	
2000	학생수	545,263	5,903	4,019,991	46,778	1,860,539	20,537	2,071,468	23,865	3,363,549	30,732
	증가 자수	2,448	1,613	70	73	141	114	351	305	1,670	4,023
	전국대 비율	1.08		1.16		1.10		1.16		0.91	

자 료 : 제주도교육청,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2000.

나. 교육여건

(1) 학급당 학생 수

-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1970년 이래로 계속 감소돼 왔고 2000년 현재 초등학교는 32.2명(전국 35.8명), 중학교 33.8명(전국 38명), 고등학교 39.2명(전국일반 44.1명, 전국실업 40.3명)임.
- 이는 전국 평균치보다 적은 것으로 제주지역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음.

<표 Ⅲ-3-2>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일반	전국실업	제주
1970	62.1	58.3	62.1	58.9	60.1	56.1	47.4
1980	51.5	53.0	65.5	65.2	56.6	59.6	60.1
1990	41.4	31.8	50.2	48.8	53.6	51.5	51.3
2000	35.8	32.2	38.0	33.8	44.1	40.3	39.2

자 료 : 제주도교육청,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2000.

(2) 교원 1인당 학생 수

- 1970년 이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였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00년 현재 초등학교는 25.9명(전국 28.7명), 중학교 17.4명(전국 20.1명), 고등학교 17.6명(전국 19.9명)임.
- 전국 평균치보다 적어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음.

<표 Ⅲ-3-3> 전국 대비 제주지역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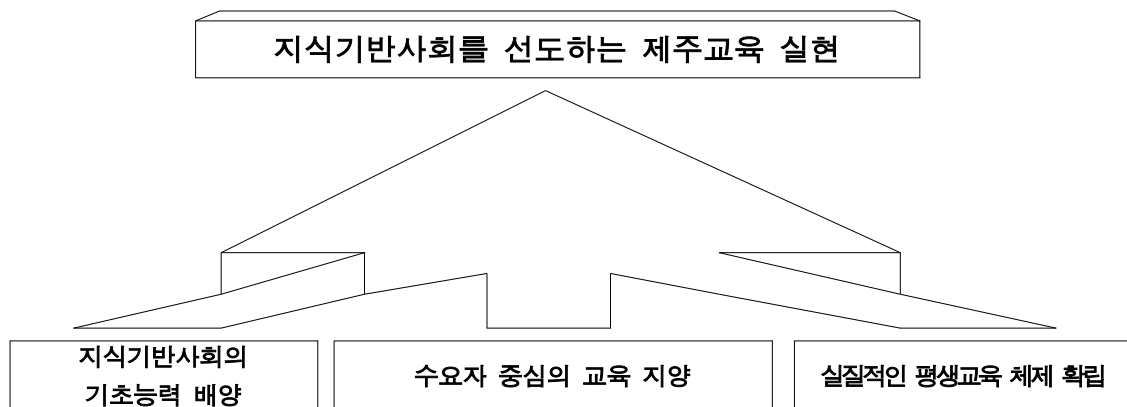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국	제주	전국	제주	전국	제주
1970	56.9	51.5	42.4	37.0	29.7	23.3
1980	47.5	48.6	45.1	43.1	33.3	32.7
1990	35.6	31.4	25.4	23.0	24.6	22.1
2000	28.7	25.9	20.1	17.4	19.9	17.6

자 료 : 제주도교육청,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 2000.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초·중·고·대학 및 평생학습 교육과정에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창의력, 정보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공급자 중심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
- 학교 중심 교육체제에서 평생학습체제로 전환하여 취학 전 교육에서 학교교육을 거쳐 성인교육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함.



<그림 III-3-1> 교육부문의 발전방향

3. 교육 및 인재육성부문의 사업계획

가.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1) 지역간 균형을 고려한 학교 재배치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학교 신설 (2001~2011) : 초등학교 - 3개교, 중학교 - 3개교, 고등학교 - 2개교.
- 학급당 최대 학생 수를 초·중학교는 2003년도부터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35명, 고등학교는 2002년도부터 35명으로 감축함.

(2) 학습공간 조성의 선진화

- 교육활동을 위한 기본시설 확충과 교수활동의 다양화에 대응한 다목적용 학습공간을 조성함.

- 학교 주변환경의 정화와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조성함.

(3)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시설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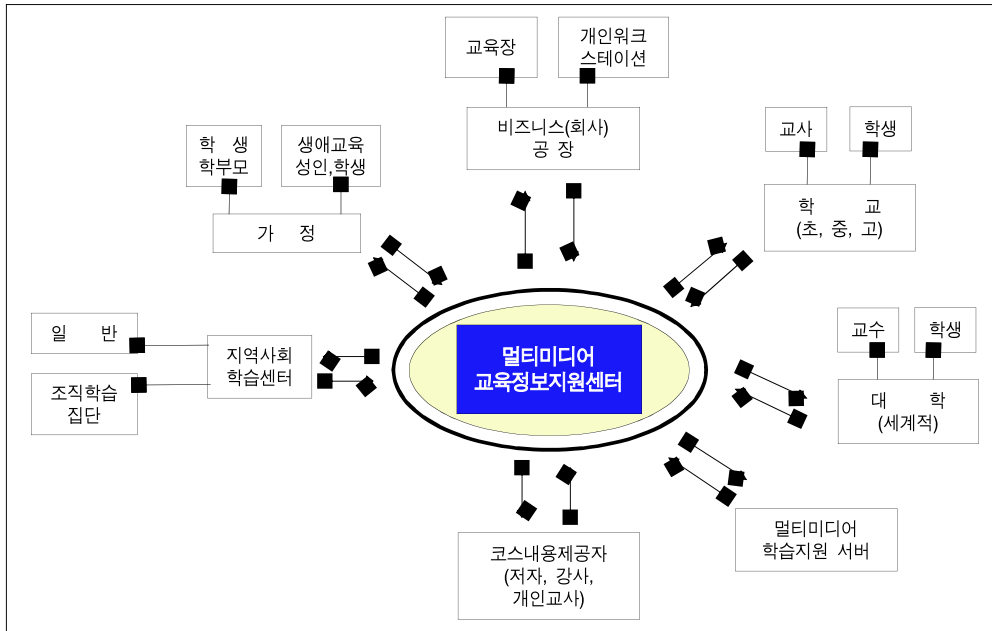
-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전시 및 학습공간, 지역의 독특한 재료, 디자인, 생활양식 등을 반영한 학교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함.
- 지역사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주민 개방형 센터 기능을 수행함.
- 제주교육 여건 및 교육환경을 고려한 대안학교·학급을 설치함.

(4)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 인텔리젠트 빌딩형 학교 건축을 통해 학교 건축 자체가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관리·운영되도록 디지털화함.
- 컴퓨터와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첨단 수업 환경을 조성함.
- 학생들이 각 가정에서 학교 학습을 보충할 수 있는 재택학습 체제를 마련함.

(5) 종합멀티미디어 교육정보지원 인프라 구축

- 2010년 이후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는 지금까지 통제해 왔던 학교 교육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에 따라 학교로부터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전송을 받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쌍방향 수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서의 학교교육, 산업체나 가정에서의 평생교육 및 다양한 사회교육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함은 물론 통합 운영·지원하는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지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함.
- 분석력과 종합력이 요구되는 고차원적 사고력(higher-order thinking) 함양, 특정교과 내용의 제반학습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도구(content free tool)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체제를 마련토록 함.
-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멀티미디어 교육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함. ‘교육정보지원 시스템운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이버 대학 등 유사기능과 연계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함.



<그림 III-3-2> 종합멀티미디어 교육정보지원 인프라

나. 외국어 교육 및 연수 강화

(1) 외국어 담당 교원의 연수 강화

- 지도방법 및 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연수와 자체연수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 영어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을 다양화 함.
-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다변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 해외 연수자들을 활용한 현장 외국어 교육방법을 개선함.
- 외국어 교사가 인터넷의 장·단점을 고려, 외국어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연수와 인터넷 교육(Web Based Instruction) 등의 실제적인 연수를 강화함.

(2) 외국인 교원 임용 확대

- 계약에 의해 신분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교육인적자원부의 배정에 의한 외국어교사 확보 외에 제주도교육청이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교육관계기관과 자매결연을 맺거나 자체적으로 교원을 수급함.

(3) 외국어 교육방법의 개선

- 학습자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운영으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 등 제 7차 외국어 교육과정 목표를 달성함.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을 중심으로 Task Force 팀을 구성하여 지역 현실에 맞는 외국어교재 개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교육자료를 개발함.
- 교사연수 담당 전문인력 및 원어민 교관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제주외국어학습관’을 설치·운영함.

(4) 외국어 학교 설립 및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제 완화

- 제주국제 중·고등학교 설립, 외국어 영재학교로서 제주외국어고등학교를 조기에 설립함.
-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자율학교의 자율권 범위를 경제구역수준으로 확대 추진함.
- 외국인 학교 설립 및 입학자격, 교과과정, 교원자격, 학력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특례를 도입함.

다. 교육시설의 지역적 균형 배치와 교육환경 개선

(1) 적정 규모의 학교 유지

- 기존 과대 학교를 분리하여 적정 규모의 학급을 유지하고, 도시 택지개발 계획과 연계한 학교 신설 추진
- 도심지 인구 밀집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전환하고 중학교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함. 초등학교 저학년을 수용하는 소규모 분교장 설치로 과대규모 학교를 해소함.
- 도심지 공동화 과소규모 초등학교에 소규모 중·고등학교 병설, 도심지 공동화 지역의 학교와 인근 과대학교 간의 통학구역 조정, 과대규모 학교 통학구역의 거주 학생을 공동화 학교로의 전·입학 적극 허용

(2) 교육환경의 개선

- 유해환경 업소 정비 및 초·중·고등학교 유해환경 감시단의 구성·운영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함.
- 학교 소음 원인 제공자 비용 부담을 통한 소음방지 대책을 강구함.

라. 고급 전문인력 양성 및 의식교육 강화

(1) 고급 전문인력 개발 관리체제 구축

- 도 단위의 고급 전문인력 개발 관리체제를 마련하고 관련 지식과 정보 DB 개발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함.
- 도 단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사회인력 수요와 교육훈련 요구, 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교육훈련의 실체에 반영함.

(2) 고급 전문 인력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산·학·연 협동기구 구성

- 산업체, 연구소, 대학의 모든 전문 인력 상호 검임제도를 적극 도입함.
- 산·학·연 협동을 위한 ‘제주도인력개발기금’을 조성함. 기금조성방법 및 활용계획은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함.

(3) 우수인력 유출 방지 및 우수인력 유치

- 도내 우수 학생의 해외유학 지원, 저소득층 학생 장학 혜택 증대, 세제상의 혜택을 통한 산업체 수준의 각종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을 확대함.
- 도내 출신 고급전문인력 ‘브레인풀제’ 운영을 위해 도내 출신 국내·외 우수 인력의 DB를 구축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프로젝트의 참여기회를 확대함.
-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기숙사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도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함.
- 도외 및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사택 지원 등 유치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정적 기금을 조성함.

(4) 국제화에 대응한 의식교육 강화

- 기본적인 생활규범의 체질화·습관화를 위한 도덕 규범의 선택과 집중 지도를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함.
- 지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 환경 교육과 평화 교육 등의 강화를 통해 지구촌시대에 걸 맞는 세계 시민을 양성함.

마. 평생직업 교육체계 구축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1) 평생직업교육 훈련체제 구축

- 지역실정에 맞게 학교별 전문화·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함.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산·학 협동과 연계한 취업 위주의 교육을 강화함.
- 교육청 내에 평생직업 기술교육 전담기구로서, 범부처적으로 직업기술교육을 기획·연구·조정·평가할 수 있는 기구인 ‘제주도직업능력개발원’을 설립함.
- 학교 내·외간 통합적 평생직업교육 훈련체제 구축을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훈련기관 들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 통로를 마련함.
- 평생직업교육 훈련체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생교육훈련의 구심체 선도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 국가적 평생교육훈련 기관과의 연계망과 평생교육 훈련 정보망, 평생교육 훈련 인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함.

(2) 새로운 인력수요에 따른 실업계 교육 정비

- 지역실정에 맞게 학교별 전문화·특성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수 전문분야에 소질·적성이 있는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함.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산·학 협동과 연계한 취업 위주의 실업계 교육을 강화함.
-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실업계 학교 설립 유도과 벤처창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과 국제관광도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학과를 개편함.

(3) 장애인 평생교육, 복지 체제 구축

- 장애인평생교육원 설립·운영, 원격 특수교육 방송망 확대 설치, 장애인 평생교육·복지 지원망 구축,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DB를 구축하고 제공함.

바. 지식기반화를 주도하는 지역대학 육성

(1) 지역 밀착형 대학 정립

- 대학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특성화하고 연구기능도 지역사회의 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화함.
- 다양한 공개강좌의 개설, 도서관 등 학교시설의 개방,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독특한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전수 등 지역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정착시킴.
- 지역산업체,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함.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적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기능을 종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함.

(2) 협동적 경쟁체제 구축 및 국제 수준의 대학 육성

-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학생 선발이나 학습형태를 다양화하고 지역대학간 역할 분담과 협동적 경쟁체제를 유도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함.
- 산업 분야나 직종에 따라 전문화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 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전문기술인 양성과 지속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방형 대학 특성을 유지함.
- 세계를 상대로 어울리고 경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능력의 확보를 통한 국제화 교육을 강화함.

(3) 학·연·산·관 협동체제 확대

- 학·연·산·관 공동 연구단지(Techno-Park) 조성 및 대학의 연구인력을 확보함.
- 산업체, 연구소, 정부기관 고급인력의 겸임교수 채용과 파견 지도교수제를 도입함.
- 연구분야 및 단위기관별 산·학 협동체제 확대와 협동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단위기관 및 연구소별로 산·학 협동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함.
- 지역인재 협력분야, 해양산업분야, 감귤분야 등의 지역산업체와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상호간 협동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운영계획 수립, 정보제공시스템 등에 대해 공동연구 및 개발을 도모함.

(4) '지역인력양성기금' 조성

- 지역대학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한 인력을 유인함과 아울러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지역인력양성기금'을 조성함.
- 기금은 대학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학원과 지역소재 기업들, 그리고 전문 인력과 해외 우수기관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5) 대학의 기술인력 양성

- 대학들은 산업현장 및 연구기관간의 유기적인 산·학·연 연계교육체제 형성, 대학간 또는 대학과 연구기관간 학·연 협동체제 확립, 장기적인 과학기술 인재육성사업의 전개,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함.
- 대학들이 과학기술단지 내의 첨단시설과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도록 함.
- 국·공립연구소 및 민간연구소 등과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며, 전문대학들의 자문과 응용연구 및 기술이전 등을 받아 대학연구의 진흥과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함.

(6)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및 경영관리에 재교육사업을 수행하여 분야별 교과과정을 특성화하며 입주기업에 대한 전문화·집단화를 유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
- 첨단시설을 갖춘 기술연수원의 운영과 단기교육 과정의 개설을 통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보수 위탁교육의 활성화, 첨단 기술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 산업인력을 양성함.
- 생물산업분야는 TIC(바이오산업지역기술혁신센터)나 생물산업자원화지원센터, 농업기술원(친환경종자센터), IT분야는 정보통신교육원, 대학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갖추어 나감.

사. 평생학습 사회시스템 구축

(1)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 동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간의 상호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역 평생학습의 구심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교육·연구 전문인력 등에 대한 온라인 전산정보 체제를 구축하여 양질의 강사가 Pool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대학 평생교육기관의 활동을 지원함.
-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교육장소 및 시기, 학습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표준화한 DB를 구축함.
- 성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 교육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

(2) 평생교육 기회 확충 및 제도 확립

- 도내 대학에 ‘시간제 등록제’의 대폭 확대 및 ‘졸업기간 상한제’ 철폐, ‘학점은행제’ 실시, ‘교육구좌제’ 도입 등을 권장함.
- 평생교육의 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 시설 활용여건을 확대함. 지역사회 학교는 지역의 주부, 유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학습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확충함.

(3) 공교육 강화 방안

- GNP 대비 5%수준의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공교육 투자를 확대함.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의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여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책임과 기여를 강화하여 교육자치가 정착되도록 함.
- 특히 유치원의 접근 가능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립보다는 유치원 교육비 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설립하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들을 유치원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유치원 안에 종일반 프로그램도 더욱 많이 개설토록 함.

(4) 「제주전통문화교육센터」 설치

-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주의 문학, 예술, 역사, 사상, 민속, 생활문화, 과학기술 등에 관한 전통문화를 교육하며 제주지역의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 역량을 높이는 재교육 기능을 담당함.
- 제주문화 전수과정 : 제주문화의 중요 전통을 전수하는 과정으로 음악, 용기, 연, 굿, 음식, 복식 등 제주의 전통 문화를 현실 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교육 과정을 신설함.
- 제주문화 교양과정 : 제주문화의 연구 성과를 보급하고 대중화하는 교육 과정으로 사상·인물·민속 등을 현대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토록 함.
- 제주문화 전문과정 : 전공자 및 전문 연구자를 위한 과정으로 제주역사 전반에 대한 사회, 예술사적 주제들을 심도 있게 연구하며 현재 제주자연사박물관에서 시행 중인 문화유산해설사 양성교육을 병행함.
- 제주문화 특별과정 : 제주문화의 멀티미디어화 방향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실무와 기능을 교육하는 과정을 신설함.

(5) 제주박물관학교 유치

-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고 슬기를 배워 장차 새 문화창조의 밑거름이 되며 향토문화를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도모함.
-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매 강좌마다 그 대상과 강사진, 교육내용 등을 다르게 함으로써 문화강좌의 다양성을 추구함.
-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재 그리기, 글쓰기를 통하여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 찰흙빚기 솜씨와 제주연 만들기, 제주민화 그리기를 통하여 예술에 대한 꿈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대학단계에서 제주역사와 전통문화 관련 과목들의 설치를 권장하고 교육과정에 지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전통,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교과목을 신설하도록 지원함.

제2절 첨단 과학기술 육성

1. 현황

가. R&D 지원

- 과학기술연구기관은 대학부설연구소 20개, 국공립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 :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한라산연구소, 친환경종자센터) 등이 있는데, 이들 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임.

<표 III-3-4> 과학기술관련 대학부설연구소 현황

대 학	연 구 소
제 주 대 학 교	기초과학연구소, 해양과 환경연구소, 아열대농업동물과학연구소, 방사능이용연구소, 인공심장이식연구소, 첨단기술연구소, 교육과학연구소, 아열대원예산업연구센터,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TIC 11개
제 주 교 육 대 학 교	과학교육연구소 1개
탐 라 대 학 교	산업기술연구소, 환경레포트연구소 2개
제 주 산 업 대 학	산업연구소 1개
제 주 한 라 대 학	정보기술연구소, 생명과학연구소 2개
제 주 관 광 대 학	정보산업연구소, 창업지원연구소, 산업기술연구소 3개

- 대학부설연구소는 연구활동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였으나 전담 연구인력 규모는 절대 규모가 부족하여 교수요원이 연구인력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학의 연구소는 대학별·전공별로 설립된 연구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민간이나 정부의 수요에 의해 설립된 경우가 드물어 영세성,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모든 분야에 걸쳐 민간연구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므로, 민간연구소의 유치는 관련 기업의 유치, 연구수요의 크기, 관련 연구인력 및 공급원의 존재, 연구환경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활동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함.

나. 과학기술 수준

- 지역산업의 기술수준은 산업구조, 인력 등과 더불어 정책수립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활용할만한 연구자료가 없음.
-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장비이용, 연구개발, 교육훈련, 신기술 창업 및 정보유통 지원을 주기능으로 하는 제주대학교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설립(산업자원부, 제주도 지원)을 통해 2001년 7월부터 본격적인 바이오산업을 연구개발하게 됨.

다. 첨단 과학기술산업단지

- 제주에는 3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하고는 첨단산업단지, 테크노파크, 소프트웨어진흥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제주도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감귤, 선인장, 신서란 등의 식물과, 송이(화산암), 산호사(우도 흰모래), 지하수 등의 자원 개발을 통한 건강식품, 의약품, 섬유, 종이, 건축자재 및 농업자재로 활용할 잠재력이 매우 큼.
-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우리나라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ATM교환망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전송망을 구축할 예정임.

라. 과학기술마인드 확산

- 소득 증가에 따른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수요 증가, 체험 위주의 교육이 확대됨에도 타 지역에 비해 교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특히, 타 시·도는 과학관이나 해양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도내에는 없는 실정임.
- 도민 대상 과학기술에 관한 사업으로 제주도, 과학문화재단, 교육청, 대학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2000년과 2001년에 ‘제주과학축전’을 개최하여 첨단과학기술의 경연·전시와 보고, 듣고, 느끼고, 실험하는 과학기술 한마당을 마련함.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방향의 수립을 위해서는 주어진 기술환경에 의존하는 적응적 대응(Adaptive response)에서 과학기술 변화를 통한 기술환경의 조성에 참여하는 창조적 대응(Creative response) 전략이 필요함.
- 전략적 선택으로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의 차별화를 두고, 비교우위를 지닌 첨단산업을 특화·육성함. 생물산업 등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독자적인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추진함.
- 민간이 주도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관련 정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위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조성함.

나. 기본방향

- 과학기술정책방향은 크게 지정학적 특성, 과학기술 기반의 존재, 국가차원의 정책방향,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의지 등에 의해서 결정됨.

<표 III-3-5> 과학기술진흥의 기본방향

정책 방향	정책 내용	관련 제도 및 달성 방법
고부가가치형	기술 집약형 기업 육성	· 전략적 기술혁신체제 구축 : 국가차원의 모든 체계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일부를 전략적으로 선택 · 과학기술 기반조성의 촉진 · 산·학·연 연계성 강화
시장중심형	R&D 재원 조달	· 대응투자(Matching Fund)전략의 활용 · 한시투자전략 · 공공수익사업의 발굴
특화전략	특화산업육성	· 제주의 대표산업 육성 및 지원제도 : 비교우위를 지닌 업종에 대한 전략적 지원(조세지원) 등 · 세계적 기업의 유치
재원확보	수익사업의 전개	· 공공성 있는 유관사업의 확충(전시회 등 각종 과학기술 관련 사업) · 민간참여가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공원, 박물관 등)

3. 과학기술부문의 사업계획

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제주대학교 부근 약 446,833m²(135,000평)의 부지에 지역 생물자원과 청정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명공학과 IT산업 등 첨단과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국가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함.
- 기술부문, 특히 농업에 관한 연구, 해양생물, 자생식물 및 환경 등 제주와 가장 관계 있는 분야내의 첨단산업을 위한 창업보육시설 및 연구시설을 갖춘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국제자유도시 계획의 선도프로젝트로 추진함.
- 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바이오리서치빌딩, 바이오 TIC, 바이오벤처창업보육센터 등을 중심으로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의 생물자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달을 선도함.
- 소프트웨어 개발/지원센터, 멀티미디어센터 등 IT분야의 시설, 상거래센터, 환경연구센터 및 대체에너지연구센터, 문화산업창업지원센터, 기술실용화를 위한 시험생산설비, 공동기기센터 등을 중심으로 ‘벤처밸리’,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나 ‘IT밸리’ 또는 ‘IT 테크노파크’ 성격의 파크 조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화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달을 선도함.
- 과학기술단지의 개발수요와 관련해서 현재 취약한 제주지역의 여건만을 고려해서는 안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이라는 큰 틀 속에서 타 산업과의 연계, 파급효과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함.
- 세계적인 생물·정보통신 산업단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단지는 국·공립연구소와 국제자유도시의 비전과 일치하는 부문의 업체에 조세감면을 통한 국내외 민간기업 부설연구소 유치와 아울러 기술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배치함.
- 제1단계(2002~2006년) : 기반조성 및 단지구축 단계, 제2단계(2006~2011년) : 성장·발전 및 기술혁신 거점기능 확보단계, 제3단계(2011년 이후) : 성숙·정착 및 국제화·자립화 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함.

(2) 바이오사이언스파크(Bioscience Park) 조성

-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바이오사이언스파크(이하 사이언스파크라 함)를 조기에 조성하여 기업, 연구소의 집적지로 육성하고, R&D, 창업보육, post BI단계에 이르는 일관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제주자생식물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 대학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연구장비 구축, 창업보육 및 교육훈련기능을 지원함. 다만, 연구장비 구축시 제주대학교 TIC가 보유하게 될 장비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 협력이 필요함.
- ‘바이오리서치빌딩’ 건립을 통해 연구개발형 기업을 위한 임대공간으로 제공하고, 역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post-BI 단계를 지원함.
- 생물산업분야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일류기술을 가진 창의적인 중소기업을 유치·육성시킬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생물 특화 테크노파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과학기술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생물관련 외국기업의 유치전략도 병행하여 추진함.
-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재단법인 제주과학기술산업진흥원’을 설립함. 과학단지 토지 매입 및 기반 조성 전까지 재단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함.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직제규정, 회계규칙, 기술보육센터 입주계약서, 산·학공동연구센터 운영규칙 등 사업운영을 위한 규정을 제정·운영함.
- 산·학·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조성에 필요한 참여기관별 업무내용과 역할 분담을 통합 조정하고, 참여대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 기획 및 집행, 전문연구인력 지원, 필요 현물출자 등을 담당토록 하고, 도에서는 사이언스파크 조성, 행정지원, 재정지원, 조례제정, 정책개발 등을 담당토록 함.

(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 유치

- 생물자원의 국책연구기관의 설립 및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특히, 1단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도내 관련 연구인력과 자생생물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연구역량을 높이고 자생식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2단계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을 유치함.
- 생물산업 관련 지역기술혁신센터(TIC) 및 생물자원산업자원화센터 등 생물산업 육성체제의 완료와 지역대학과의 협력연구체제를 구축함.

(4) 국내·외 유명연구기관 유치

- 첨단지식산업 및 친환경적 미래산업은 지역 내의 자생적 발전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지식 및 정보의 창출을 수행할 일자리가 극히 한정되어 지역두뇌의 유출현상은 심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적극 유치해야 함.
- IT, BT 및 에너지, 의약 등과 관련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기업부설 연구소 및 외국 연구기관 유치는 수요자의 입장과 공급자의 입장에서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유치함.
- 벤처기업을 세계지향적 우량 IT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선진 기술력을 가진 우수 벤처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모색함. 제주의 벤처기업 육성, 사업 역량 확보 및 제주 IT 인력의 취업 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 일류기업과 공동 출자하여 가칭 '(주) 제주 IT연구개발센터'라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를 설립함.
- 우선 수요자인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의 연구개발능력 증대,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 기술공급선의 확보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소비시장 확보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유치하는 연구기관의 입지, 인력, 투자에 대한 각종 금융·세제지원의 정도, 연구인력 공급 가능성, 기술 및 상품에 대한 배후시장의 존재 등이 주요한 결정 요인임.
- 과학기술단지 내에 외국의 우수 연구소 및 기업이 입주할 경우 부지에 대한 장기 무상임대의 유인책을 제공하고, 외국의 연구소 및 기업이 입주할 경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함.

나. 지식기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1)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

- 생물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과 연구장비를 구축하고, 창업보육 및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함.
- 생물산업 관련 각종 협회, 연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과 업무를 연계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지역의 생물산업 관련 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함.

(2) '제주벤처펀드'의 조성 및 운영

- 제주도와 제주 소재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형태의 '벤처캐피탈회사'를 설립함.
- 제주벤처펀드(주)는 초기에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설립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독립함.
-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들은 기술가치 평가, 제주 특성화기술 창출, 국내 및 해외 마케팅 등에서 제주벤처펀드(주)와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함.

(3) 기술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의 활성화

- 산업자원부의 기술혁신센터(TIC: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사업은 지역대학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하여 특화된 산·학·연 협력 거점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산업의 기술개발,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임.
- 산업자원부는 2000년까지 21개 기술혁신센터를 전국에 설치하였고 2001년도에 제주 대학교 기능성첨가제·농업해양 TIC을 비롯한 8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함.
- 생물산업 분야 관련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기술혁신센터 사업, 과학기술부의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중소기업청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교원인적자원부의 BK21 사업을 제주에 유치하여 적극 활용함.

(4) 창업경진대회 및 산업기술전시회 개최

- 제주지역 혁신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정신과 건강한 사업 풍토가 조성되어야 함.
- 건강한 기업이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대학생을 상대로 창업경진대회와 산업기술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함.
- 대학생창업경연대회는 제주특성화산업 육성전략과 연계하여 개최함.

(5) 첨단과학기술의 사업화

- 기술창업보육센터(TBI)와 제주대 바이오산업 지역기술혁신센터(TIC)의 활성화와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하여 생물산업 전략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조기 산업화를 지원함.
- 창업보육센터는 연구인력이나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기술자 등으로부터 개발된 응용기술을 사업화시키기 위하여 기술창업인에게 초기운전자금을 모험자본(벤처캐피탈) 또는 엔젤캐피탈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유도함.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로부터 파생된 기술창업자에게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시장조사, 시제품 생산 및 판매, 자금 지원, 입지공급에 이르기까지 창업을 지원함.
- 예비창업제도와 연계시키고 경영과 기술의 노하우 및 중소기업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허, 세무, 기술에 관한 자문, 지도, 연수 및 세미나 개최를 지원함.

다. 과학기술 연구 및 교류기반 조성

(1) 대학, 국·공립연구원의 기초과학기술 연구 증진

- 과학기술체제 하에서 지역기업과 공동으로 산·학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개발, 대학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론 기초과학연구를 강화함.
-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외에 산·학·연 전담 연구교수에 대한 인건비 보조, 공동연구 관련 연구장비 지원 등과 같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장비의 구입에 이용되도록 하며, 대학이 연구하는데 학문의 자유 및 자주성을 보장하도록 함.

(2) '제주 생물산업포럼', '제주IT 포럼' 개최

- '생물산업포럼'은 향후 설립예정인 '제주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제주대학교 기술혁신센터가 주관하여 월 1회 정도 개최하되 필요한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함.
- 적합한 주제 선정, 발표, 토론을 통하여 제주의 생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장기적으로 전국 수준 더 나아가 국제 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감.

(3) 산·학·연 협력사업의 강화

-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제주대),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제주대), BK 사업, 산·학·연 권소사업,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 등을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추진토록 함.
-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각 대학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전국의 기업들이 제주로 몰려올 수 있는 정도의 기술지식을 축적하도록 하고, 기업화가 실현되고 유명한 집산지로 발전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토록 함.
- 지역 특화기술개발사업은 지역이 보유하는 고학력 기술인력(연구개발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지역 과학기술을 활성화하고, 특화기술의 발굴 및 지원은 지역 산업정책의 연장선 위에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과 연계되도록 함.

(4) 체험·탐구형 '제주과학관' 설립

- 첨단기술은 물론 전통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널리 보급시킬 '제주과학관'을 설립하되, 중앙정부는 설립재원을, 지방정부는 과학관내에 전시될 내용을 확보함.
- 전시와 연구 기능을 가지며, 도민은 물론 특히 전국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거나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과학캠프와 자연생태 및 환경체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함.
- '제주과학관'은 자연생태계 전시관, 첨단과학기술관, 과학체험·탐구관 등으로 구성함. 자연생태계 전시관은 동·식물과 해양생물, 지층, 수자원 등의 전시 및 특성비교, 첨단과학기술관은 첨단과학기술 소개, 미래 기술, 과학체험·탐구관은 과학체험·탐구 프로그램과 과학체험·탐구시설 등을 갖춘.

(5) 국제바이오엑스포, 국제게임페스티벌, 제주과학축전 등 국제행사 개최

-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와 투자유치의 질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Bio엑스포', '국제게임페스티벌', '제주과학축전' 등의 국제행사를 개최함.

- 국제행사는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관련 지식을 일반국민이 습득하는 계기가 됨. 궁극적으로는 이 분야에 우수한 젊은 인력을 유인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함.

(6) 국제 기술인력 교류사업 추진

- 제주지역의 공공연구기관과 해외연구기관간, 제주도와 외국의 지방정부간에 생물산업이나 정보통신분야, 환경 및 대체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국제 기술인력의 교류를 추진함.
- 국내 과학산업단지, 외국의 성공한 과학산업단지와 자매결연을 추진함.
- 국제 기술인력의 교류는 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한국국제협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교류재단 등 중앙정부 산하 국제 기술인력 교류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방안도 강구해야 함.
- 국제 인력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 기관에 배포하고 매년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인력현황을 파악함.

라. 과학기술 진흥 행정체계 정비

(1) 제주 지방과학기술진흥 조례 제정

- 제주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과 ‘제주과학기술진흥기금’ 설치를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제주지역과학기술혁신을위한조례」를 제정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함.
- 이 조례에는 매 5년마다 5개년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 방안, 과학기술 기반의 확충 및 재원확보 방안, 과학기술장기발전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신설 및 확충 방안, 전문인력 확충 방안, 특화산업기술지원 방안, 기초연구지원, 산·학·연 공동연구지원,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등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2) ‘제주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설립

- 과학기술 진흥과 첨단산업(생물산업, IT산업, 환경, 대체에너지산업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제주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함)을 설립함.

- 진흥원은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되는 정책업무를 집행하는 기구로서 설립 초기에는 특성화 기술개발사업 관리업무 수행, 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설립 운영 등과 같은 기술혁신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개발 기획, 관리, 평가업무를 담당토록 함.

(3) 과학기술진흥과 신설

-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업무를 전담할 (가칭) ‘과학기술진흥과’를 자치경제국내에 신설함.
- 지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단기연수프로그램’을 중앙정부에 요청함.

(4) 과학기술심의회 및 협의회 운영

-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최고기구로 도지사 직속의 ‘과학기술심의회’를 구성·운영함. ‘과학기술심의회’는 행정조직간 종합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 ‘과학기술심의회’는 기초과학을 위한 대학, 국·공립연구소와 과학기술단지, 창업보육센터(TBI),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민간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예산과 연구방향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짐.
- 과학기술정책의 시민참여 확대, 기술혁신의 호혜적인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기업인, 원로교수, 연구원 및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과학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함.

(5) ‘제주과학기술진흥기금’의 설치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수립·집행, 지역의 연구인력 양성 등을 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가칭 ‘제주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함.
-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재원 마련 및 출연을 강요하기보다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강구함.
-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예산항목인 지역개발비와 별도로 ‘과학기술진흥비’ 항목의 신설 외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신설하거나 복권 발행 등을 검토함.
- 기금출연자에 대한 박물관, 기념관 무료 입장권 제공, 일정규모 이상 출연자의 성명을 과학기술 관련 건물(박물관 등)에 영구 보존 등 기금출연금액에 따른 각종 혜택(지방세 감면 등)을 제공함.

제3절 지역여건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 육성

1. 현황

가. 지식기반형 산업체 현황

- 도내에 지식기반 제조업체는 빈약하며, 바이오벤처기업은 전국 500여개의 1.6%인 8개 업체에 불과함.
-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총 214개(농공단지 제외)로 전체의 71.7%가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되었고 도내에는 3개의 소규모 농공단지와 1개의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그리고 화북 준공업지대가 있음.
- 도내 IT관련 업체 수는 총 99개로 71개의 소프트웨어(Software)개발업체와 28개의 하드웨어(hardware)판매 및 개발업체임.

나. 과학기술 연구개발 여건

- 전국 연구개발비 11조3,366억원 중 제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17%인 197억원이고, 전국의 연구개발 인력 19만9,191명 중 제주에는 0.004%인 860명에 불과함.
- 인구 구성비에 비해서 제주에 투자되는 연구개발비는 전국 평균의 약 13%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연구인력 또한 전국 평균의 0.003%(1/310) 수준임.
- 제주대학교는 BT(Bio Technology) 관련 학과와 대학원에서 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새로운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수용 능력의 한계로 충분한 고급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함.
- 도내 각 대학에서 IT(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인력을 연간 약 1,550명 정도를 배출하고 있으나, IT산업과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문화환경기반 취약 등으로 대부분 역외지역으로 진출하고 있어서 전문인력의 수급에 한계점을 보임.
- Bio-Korea를 건설하기 위하여 범부처(과기부, 산자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적으로 2001년을 ‘생명공학의 해’로 선포하고 현재 세계 13위 수준에서 2010년경 G7(선진 7개국)수준 목표로, 3,23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다.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잠재력

- 지역자원의 활용, 자연환경의 친화성, 개발이익의 지역화, 연구인력의 공급, 경제성 등 10개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영상산업 등 7개 분야의 산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생물산업과 정보산업의 육성 및 필요성이 제기됨.

<표 III-3-6> 지식기반산업의 선정기준

평가지표 \ 선정사업	생물산업	정보화산업	청정에너지	해양스포츠	영상산업	신소재산업	항공우주산업
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	△	○	○	○	△	×	△
지역자원활용	○	○	○	○	○	△	△
자연환경친화성	○	○	○	○	○	○	○
첨단기술이용	○	○	○	△	△	○	○
개발이익의 지역화	○	○	○	○	○	○	○
기존기술, 연구의 통합	○	○	○	△	×	×	×
국가계획과의 연계	○	○	○	×	×	△	○
물류비용	○	○	○	○	△	△	×
연구인력의 공급가능성	△	△	△	○	×	×	×
경제성여부	○	○	△	○	△	○	○

주 : ○ : 적합 △ : 고려 × : 부적합
 자료 : 과학기술부, 「국제자유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지역 전략특화 산업기술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2000.

- 도내에는 1,800여종 식물과 3,300여종의 곤충이 서식하는 등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명체의 보고임.
- 4억4백만원(2000. 9~2001. 10)을 투입하여 자연환경 생태정보시스템을 구축 중임.
- 한라수목원을 식물분야의 서식지의 보전기관으로 지정하고, 한라산과 서귀포 연안 부속도서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신청함.
- 도내에 분포하는 멸종 위기 및 보존 야생 동·식물, 제주 특산종(endemic species)을 보존·활용함.
- 2001년 8월 정부는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을 확정하고, 제주도는 BT산업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자생식물 및 해양생물’을 특화분야로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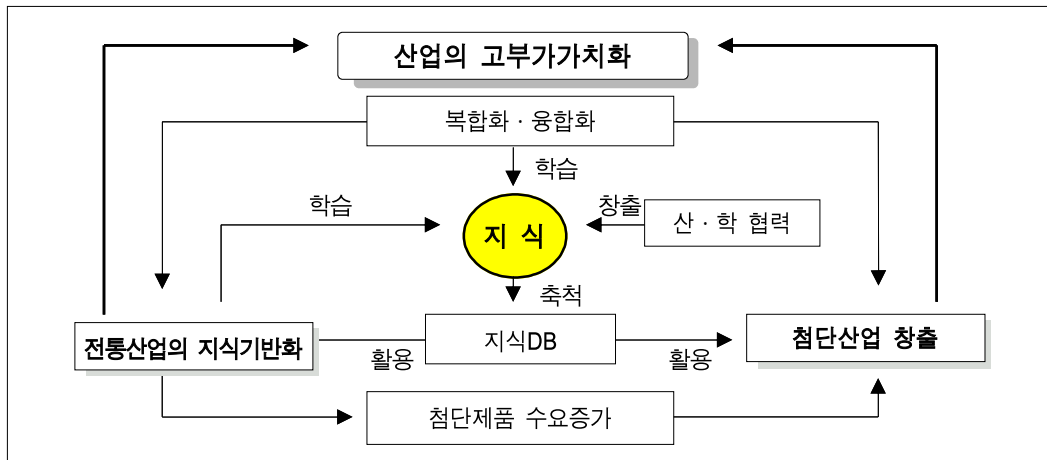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21세기형 과학기술체계가 요소과학기술에서 종합과학기술로, 거대화 기술에서 분산화 기술로 변하고 있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장유망산업인 생물산업과 기존 특화산업인 농·수산업과 관광산업과의 복합화·융합화를 도모함.
- 국내 생물산업은 생물의약품분야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바이오농업, 바이오환경, 바이오에너지 부문 등 관련 응용분야의 급성장이 예상됨. 특히 농업·해양과 연계한 식품의약품, 농업용 자재 등 산업화가 가능한 생물소재에 대한 개발수요의 증대가 예상됨.

나. 기본방향

- 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여 수요견인(Demand-Pull Strategy) 전략보다는 기존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바이오해양자원연구센터, 바이오벤처타운 등과 연계한 기술투입(Technology-Push) 전략에 입각한 육성책을 모색함.
- 지식활동이 연결되면 지식의 유량(flow)과 저장(stock)이 순환적으로 확대되고 연결과정에서 고품질의 지식을 확대 재생산해 나감. 따라서 주체별 능력부족과 협조미비로 단절된 지식흐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역량을 강화함.
- 관광·문화·생물산업의 융합화·복합화를 위한 연구개발체계가 모방개발→상업화연구→응용기술연구→원천기술연구→기초기술연구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 테크노파크 중심의 기술역량을 강화함.



<그림 III-3-3> 지식기반형 제조업의 육성방향

다. 단계별 추진계획

<표 III-3-7> 지식기반산업 육성 단계별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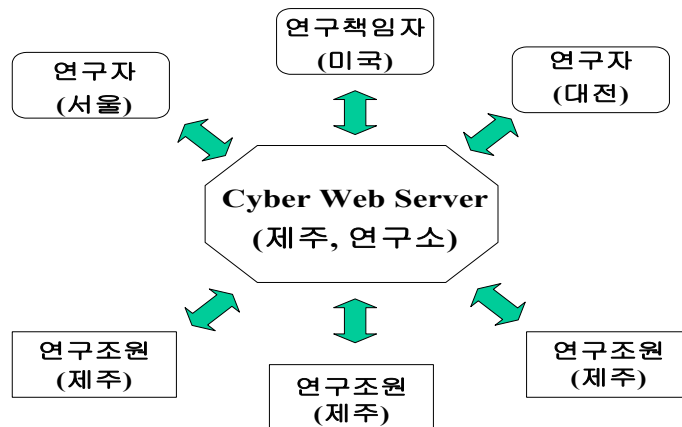
단 계	주요사업
1단계 (2002~2004) 기반 조성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사이언스 파크 등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정책 집행 · 지식산업장학제도의 도입 · 창업지원체계 현실화와 창업단계의 산업화 · 국내·외 전략적 홍보 · 기존 기업체의 R/D 지원으로 기술력 향상
2단계 (2005~2007) 연구 개발, 시험 생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yber 연구센터 설립 · 휴양형 복합연구시설 설치 · 청정 바이오기술 연구센터 건립 · 신기술의 개발 결과를 활용한 시험 생산 · 외국 저명대학과 외국 기업 유치 · R/D 기업체의 입주 공간과 시설 제공 · 기존 산업체의 기술혁신으로 대량생산 체계 구축 ·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자금 유치로 산업화 촉진 · 기존 농공단지 또는 산업단지의 활용과 기반시설 확장
3단계 (2008~2011) 산업화, 대량 생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생명공학연구원의 설립 · R/D 결과의 사업화 및 확장 · 지식산업 진흥으로 산업구조 개편 및 기존산업의 고도화 · 국제자유도시하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 장기 산업발전 개발 전략 수립

3. 지식기반산업부문의 사업계획

가. 지식기반집적지 조성

(1) Cyber 연구센터 설립

- 제주에 BT, IT 관련 고급 연구인력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상공간에서 효율적인 협동연구와 연구인력 및 장비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단지 내에 사이버 연구센터를 설립함.
- Cyber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연구를 특화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체제를 구축함.
- 모든 연구(실험)는 가칭 ‘Cyber 연구센터’에서 연구원이 수행, 연구(실험)의 지시나 연구(실험)의 결과에 대한 해석



및 평가는 Web상에서 행하여지고 연구조원과 실험장비 및 Cyber Web 서버는 과학기술단지 내의 Cyber 연구센터에 위치하도록 함.

<그림 III-3-4> Cyber 연구센터의 운영 체계도

(2) 휴양형 복합연구시설의 설치

- 미래의 연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해 휴식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복합연구시설을 과학기술단지 내에 설치함.
- 콘도형 연구시설이므로 관련기업이나 연구소는 일정기간을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임.

(3) 바이오리서치 빌딩 설립

- 생물자원의 응용연구와 연구 개발성과의 상업화를 통한 제주 생물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동 분야의 R/D형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생물자원 관련 국내·외 R/D형 기업을 유치함.
- 생물자원 관련 R/D형 기업을 위한 임대 공간으로서 바이오 리서치 빌딩(post-TBI)을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건립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상업화를 촉진함.
- 생물기술(BT) 관련 연구개발형 기업과 생물정보 관련 정보기술(IT)업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한 빌딩임.
- 역내에서 창업한 기술벤처기업에 시험생산공간을 제공함. 대량생산이 필요한 기업은 첨단과학기술단지내에 분양되는 부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함.

(4) 바이오기술혁신센터(TIC)의 활성화

- 다양한 자생식물과 제주 근해의 해양생물은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자원임. 식품 의약의 개발, 화장품, 기능성 첨가제, 신기능성 농약과 비료 등의 연구 중심으로 현재 운용중인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TIC)의 활성화가 필요함.
- 연구 개발, 연구 네트워크 구축, 기술 이전, 장비 제공, 정보컨설팅, 인력 양성 및 훈련 등을 담당함.

나. 바이오산업 육성

(1) '바이오산업발전협의회'의 적극적 활용

-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가간 협의체계, 민·관 협력체계,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운용 중에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교환 통로 역할도 수행함.

(2) 친환경 종자육성센터의 활용

- 애월읍 봉성리 16만8,000평 부지에 원종장을 건설하였음.

-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생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기반 구축이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종자 주권시대에 대비한 우량 농산물 종자의 생산·공급 기지 역할과 고부가가치형 유전자변형식물(GMO)을 개발하는 기능을 강화함.

(3) 해양생물자원보전 및 활용 연구의 강화

- 근해의 해양환경 및 생태계 보전은 생물자원의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해양식물체(거대조류)의 산업화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아직도 다양한 산업분야에 활용되는 원료임.
- 최근에는 해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체로부터 유용한 화학물질들이 다수 발굴되어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음.

(4) 청정 바이오기술연구센터의 설립

- 청정한 자연환경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기본 조건임.
- 지역적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정 바이오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 생물학적 폐기물 및 폐수처리 등에 관한 기술 개발을 담당함.

다. 문화산업 육성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 개발 지원

- 제작기획, 감독, 작가, 캐릭터 디자이너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분야의 발전을 선도함.
- 영세한 소규모 스튜디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리스과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중·소제작사의 컨소시엄 형성과 자금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함.

(2) 캐릭터산업 육성

- 성읍민속마을, 안덕면 덕수리 등 전통민속마을 중에서 ‘캐릭터산업육성지구’를 지정하여 관광지의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캐릭터 상품 제조, 판매를 담당토록 함.

- 캐릭터 관련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창작·기술활동을 전담할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함.

(3) '게임산업육성단지' 조성

- 게임산업을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하여 육성함으로써 관련산업인 콘텐츠, 산업디자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창의력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육성함.
- 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게임산업 수요에 대처하고 창의적이며 유능한 대학생들의 창업열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육성단지'를 조성함.

(4) 문화산업단지(Arts Valley) 조성

- 도내에 산재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집중 분포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상품 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중심으로 제주형 문화산업을 개발함.
- 아트기업사무실, 전시실 등을 갖춘 산업문화관을 건립하고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연계하여 첨단지식산업단지로 진출하기 전단계인 인큐베이터기능을 수행함.

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

(1)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유치

- 고급 전문인력 확보는 첨단 지식산업단지 조성의 초석이므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인도, 북한, 연변 동포 등의 저임금 고급 인력 유치 및 양성 대책이 필요함.
- 정보통신 고급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 강구와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출입국 비자 면제, 외국인학교 설립을 통한 자녀 교육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함.
- 지식기반산업 관련 국·내외 고급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재교육 등 업무를 수행할 교육훈련기관의 유치 또는 설립이 필요함.
- 제주대학교는 과학기술단지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며,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창업보육, 연구개발 등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단지와의 일체화를 위해 단지와 직접 연결되는 연결도로를 개설해야 함.

- 도 산하 연구기관 근무자의 국내대학 수학 및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 적극 추진

(2) '제주생명공학연구원'의 설립

- 국제경쟁력이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저명한 대학원으로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담당.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제주센터를 활용함.
-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연구장비 및 시설 활용

(3) 지식산업 장학제도의 도입

- 첨단지식산업분야인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BIT융합), BNT 융합분야, BET 융합분야 등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저명대학원 수학지원 후, 제주도내 연구교육기관에서 의무 근무토록 함.

(4) 외국의 저명대학과 외국기업의 유치

- 고용 및 기술 파급 효과의 극대화, 제주경제의 활성화, 산업구조 조정의 촉매 역할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가 필요함.
- 다국적 또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투자이행요건, 토지 소유권 제한, 지역인력 고용의무 조건 등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주거, 교육, 문화시설 등을 지원함.

(5) 기존 단지의 지식산업단지화

- 기존 산업단지의 활용 :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6만5,760평, 제주시 화북준공업지역, 20만6,660평(단, 기반시설 완비부지, 8만7,320평)
- 지식산업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의 첨단 역할 담당, 기반시설 비용, 세제 인·허가 등의 혜택을 부여함.
- 기존 농공단지(행원, 일과, 금릉)를 활용하거나 확장하여 종합과학기술과 분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하여 성장유망산업인 생물산업과 관광산업과의 복합화·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토록 함.

제4절 내실있고 차별화된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육성

1. 현황

가. 중·소제조업 일반현황

- 광공업이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1999년 기간동안에 3.5~4.7%임. 이 점유비는 전국 동기간 동안의 30.7~34.2%의 1/10에 불과함.

<표 III-3-8> 제주도의 생산구조 (경상가격 기준)

(단위 : 억원, %)

연 도	지역내 총생산	제 주 도					전 국				
		농림 어업	광공업	SOC,서비 스및기타	(건설)	(금융 보험)	농림 어업	광공업	SOC,서비 스및기타	(건설)	(금융 보험)
1995	37,419	31.0	3.8	65.2	10.1	6.9	6.4	30.6	63.0	12.1	6.8
1996	40,145	24.8	3.9	71.3	10.3	7.1	5.9	30.7	63.4	12.4	7.1
1997	44,663	24.1	3.7	72.2	10.9	5.5	5.3	31.2	63.5	12.6	7.1
1998	41,738	25.3	3.5	71.2	10.6	5.9	5.2	32.8	62.0	11.0	6.9
1999	44,677	26.6	3.7	69.7	11.2	6.8	5.3	34.2	60.4	9.4	7.9

자료 : 통계청, 「지역내총생산」, 각년도.

- 5인 이상 도내 제조업체 수는 전국대비 사업체 수 1.22%, 종사자 수 1.22%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1999년 현재).

<표 III-3-9> 도내 제조업 현황 (5인 이상)

(단위 : 개, 명)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광 업	15	237	14	215	14	195	13	186	12	201
제 조 업	298	4,502	291	4,350	248	3,784	255	4,004	283	4,283
합 계	313	4,739	305	4,565	262	3,985	268	4,190	295	4,484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1.

-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1,920만원으로 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48.6% 수준이나 농·림·어업은 1,670만원으로 전국을 크게 상회함(159.0%).

<표 III-3-10> 산업별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1999년 경상 GRDP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전국(A)	도내(B)	B-A	B/A
농 립 어 업	10.5	16.7	6.2	159.0
제 조 업	39.5	19.2	-20.3	48.6
건 설 업	29.5	27.5	-2.0	93.2
금 융 보 험 업	41.0	33.0	-8.0	80.5
기타 서비스업	19.1	17.2	-1.9	90.1
합 계	22.9	18.0	-4.9	78.6

자료 :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2000.

나. 농공단지

-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총 44개 중 37개 업체가 가동(가동률 84%)하고 있어 전국 최상위권 가동 상태임.
- 3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종사자 : 총 453명중 현지인은 434명(96%)으로 농·어촌 지역의 유희노동력을 상당부분 활용하고 있음.

<표 III-3-11> 농공단지 현황

구 분	단지 수	총면적(㎡)	입주업체 수	종업원 수
1996	3	312,864	46	547
1997	3	312,864	44	382
1998	3	312,864	44	383
1999	3	312,864	44	453
2000	3	312,864	44	460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1.

다. 유형별 벤처기업

- 2001년 현재 전국은 전년대비 1.7배 증가하였으나 제주지역은 1.8배 증가함. 제주지역의 비중은 0.2%로 미미한 수준임.

<표 III-3-12> 벤처기업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2000.2	2,184	353	338	151	395	1,231	370	50	149	90	224	11	5,546
구성비	39.4	6.4	6.1	2.7	7.1	22.2	6.7	0.9	2.7	1.6	4.0	0.2	100
2001.2	4,456	465	506	244	688	1,975	513	87	234	117	341	20	9,646
구성비	46.2	4.8	5.2	2.5	7.1	20.5	5.3	0.9	2.4	1.2	3.5	0.2	100

자료 :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현황」, 2000. 1, 2001년 2월말 자료는 중소기업청 제주지방사무소 자료.

- 벤처기업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기술평가가 전체의 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기술 25%, 연구개발과 벤처캐피탈이 각각 5%로 나타났다.

<표 III-3-13> 벤처기업 유형별 현황

구 분	벤처캐피탈	연구개발	신기술	기술평가	계
전국(업체수)	1,500	931	1,808	5,407	9,646
비 율(%)	16.6	9.6	19.7	56.1	100
제주(업체수)	1	1	5	13	20
비 율(%)	5	5	25	65	100

자료 : 중소기업청 자료, 2001.

라. 업종별 벤처기업 현황

- 제조업 비중이 60%로서 높음, 1, 3차산업과 연계 미흡, 외국에 비해 지식기반 산업 비중이 낮음.

<표 III-3-14> 벤처기업 업종별 현황

구 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건설 운수	도소매	농·어· 임·광업	기 타	계
전국(업체)	5,850	3,196	299	173	75	44	9	9,646
구성비(%)	60.6	33.1	3.1	1.8	0.8	0.5	0.1	100
제주(업체)	12	6	1	1	-	-	-	20
구성비(%)	60	30	5	5	-	-	-	100

자료 : 중소기업청 자료, 2001.

마. 벤처 집적 시설

- 벤처 집적 시설은 제주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내 2개 지역 25개, 도심지 3개 지역 25개 업체가 입주함.

<표 III-3-15> 벤처 집적 시설 현황

유 형	소 재 지	입주업체수	지원기관
창 업 보 육 센 터	제주대학교	15	중 소 기 업 청
	제주산업정보대학	10	
중 소 기 업 지 원 센 터	제주시 이도 2동	5	제 주 도
제 주 소 프 트 웨 어 지 원 센 터	제주시 이도 2동	10	제 주 시
여 성 창 업 보 육 센 터	제주시 이도 2동	10	중 소 기 업 청

자료 : 제주도, 자치경제국, 내부자료., 2001.

- 집적시설 계획 : 제주시벤처기업지원센터(건축면적 784평,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 육성), 창업보육센터(제주관광대학 입주 수용업체 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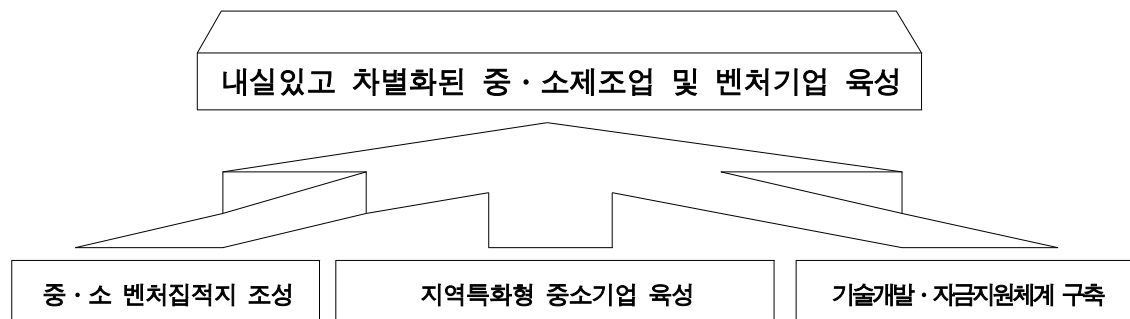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모든 산업부문에 정보화·소프트화·시스템화가 추진되고 Hi-tech와 Hi-touch가 복합된 첨단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기술·자본·감성이 중시되는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기술혁신 및 산업구조 고도화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 및 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지방정부 주도의 벤처 집적공간을 제공하며, 셋째, 벤처 기업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넷째, 자금조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함.

나. 기본방향

- 기존 전통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신지식 산업기반을 확충하여 산업구조 고도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로서의 산업기반 구축과 세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육성시책을 추진함.
- 중·소제조업과 벤처기업을 타 지역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첫째, 지역여건에 맞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둘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셋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강화, 넷째, 중·소기업의 육성자금의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함.



<그림 III-3-5>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의 발전방향

3.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부문의 사업계획

가. 지역특화형 중·소 제조업 육성

(1) 지역여건에 맞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 벤처기업에 저리자금 지원 및 시설 운영자금 대출금리를 타 업체보다 저리 용자, 대학생 창업동아리 및 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함.
- 기존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의 구조 전환시 용자 지원 우대, 창업강좌 개설(도내 대학)운영 등에 지원을 강화함.

(2)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지원 강화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개정(2000. 12)에 따라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발기인수 1인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됨.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 지속 지원,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한 창업 기회 제공, 소호창업설명회 등을 통해 소호형태의 창업을 확대함.

(3) 여성기업 지원사업 확대

- 여성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및 여성 창업 활성화 : 여성기업 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창업강좌 및 경진대회를 개최함.
-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및 여성기업 차별 시정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확대, 여성기업 우수상품 박람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을 지원함.

(4)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지원 확대

- 기업부문에서는 기업내 기획과 생산, 판매, 재무 등 여러 부서가 공동 참여하는 지식공유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업외부에서도 부품업체, 설비업체, 벤처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혁신활동을 촉진·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함.
- 기초연구에서부터 응용연구, 마케팅 및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의 상품화와 마케팅 전략을 결합한 지역혁신 환경을 조성함.

(5) 지역특화형 중·소제조업 육성

-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확대 지원 : 입상작 상품화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 한·일 전통공예 교류사업으로 공예품 정보 및 기술 습득 : 한·일 공예인 교류 지원, 공동팜프렛 제작 및 공동전시회 개최 사업 확대 지원
- 「돌」공예단지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 : 야외 돌공예 제작장과 공예품종합전시·판매장을 연계하여 제작·유통·판매를 위한 단지 조성, 간이매점과 야외 돌조각공원 조성으로 관광명소화함.

(6) 보석가공산업 및 관련 첨단제조업체 육성

- 귀금속 보석타운을 설립하고 주·야간 귀금속 보석관광 코스를 개발함.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단순가공 이외의 첨단제조업체의 입주 유도,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의 쇼핑아울렛 조성과의 연계하여 추진함.

- 업체는 내수지향적 산업형태로 육성한 후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전환 유도, 도내 관련학과 창업동아리 지원 및 창업보육센터 우선 입주를 지원함.

(7) 특허 갖기 사업 추진

- 지적재산권 특허 등록 및 관리 : 중·소기업의 지적재산 마인드 향상 지속 추진, 산업재산권 등록절차 안내 등 행정서비스 강화, 특허기술의 사업화 추진, 지역전통기술 업체 지원체제 구축
- 특허 무료상담실 운영 : 고문변리사 초빙, 교육 및 상담 실시, 산업재산권 충원절차 요령 교육, 상담

(8)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 농·수·축산물 가공 등 제조업체 디자인 개발 지원 : 시각디자인(로고, 심볼마크, 카탈로그 등) 및 포장디자인, 디자인 개발 인력, 장비 확충
- 산업디자인 종합 행사 개최 : 우수작품전시회 개최(산업디자인전 입상품, 우수산업디자인 상품 등), 산업디자인 세미나 개최, 산업디자인 무료상담실 운영

(9) 품질경영 경쟁력 향상 지원

- 제조업 중 수출 및 완제품 제조 업종 위주로 ISO 9000, ISO 14000, ㉔마크, Q마크, '품'자마크 등 인증 획득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과 심사 지원
- 제주도 품질경영 경연대회 개최

(10)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 육성자금 확대 조성,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 확대, 경영안정자금 융자기간 연장

(11)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 추진

- 중소기업 중 담보력은 부족하나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로 융자 지원을 확대함.
- 타당성 검토, 발기인 구성, 운영근거 마련, 재원은 별도 법인체를 구성하여 180억원 규모(정부 60억원, 도 110억원, 기업·은행권 등 10억원)를 조성함.

(12)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

- 입주기업 정부자금 지원 강화 : 신규 및 대체 입주, 기숙사 및 탁아소 설치, 산·학·연 협업공장 및 연구소 설치 지원, 물류창고 설치, 임대 입주기업 기계설비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 감면 : 면제(취득세·등록세), 경감(재산세·종합토지세), 매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우선 지원
- 판로 지원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활용, 각종 지원 시책의 우선 적용 : 자금, 기술, 판로, 인력 등, 각종 행사시 농공단지 제품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코너 설치,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확대로 인력난 완화

(13)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 도내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개최, 전시 홍보와 직판행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 홈쇼핑을 이용한 도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 중소기업지원기관 등 이벤트 행사시 도내업체 참여 유도, 텔레마케팅 시스템 도입으로 지속적 판매 확대

(14) 중소기업의 남북경협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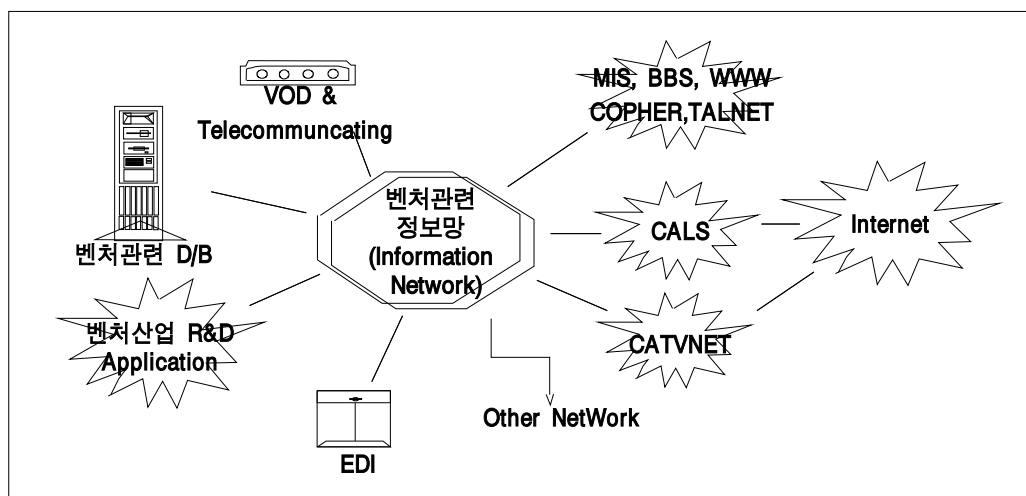
- 북한 진출 중소기업에 현지 설비 투자·경영자금 지원 및 기술 지도 추진, 남북경협인·허가절차시 투자 유망업종 등에 각종 정보·자료 제공, 일괄행정(One-Stop Total)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
- 수출보험 및 해외시장 개척기금 지원, 통상전문인력 양성 및 바이어닥터제 운영,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유도, 중소기업 수출품 해외광고 지원

나. 개방형 벤처집적지 조성 및 육성체계 구축

(1) 「제주 벤처 넷」 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벤처집적지 하부구조는 관련 활동단위들간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는 의사소통적 하부구조(communicative infrastructures)이어야 하며, 초기부터 각종 통신망과 연계한 「제주 벤처 넷」 구축이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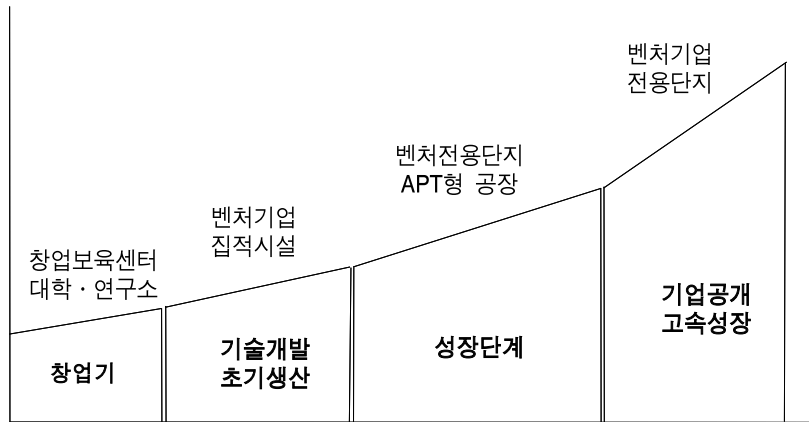
- 현재 벤처산업과 관련된 정보는 중소기업청 산업정보망(www.smba.go.kr), 벤처기업협회(www.kova.or.kr), 한국생산연구원(www.kitech.re.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mipc.or.kr) 등에서 수집·가공·제공함.
- 벤처산업과 관련하여 수집·가공하여 제공되는 정보망은 벤처입지와 관련된 정보는 다루지 않으며,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만을 고려한 일방적인 정보제공체계임. 정부, 공공기관, 조합·협회, 민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에서 개별적인 기준과 형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
- 향후 벤처정보망은 입지와 관련된 개방적 정보환경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수집의 효율성, 정보내용의 정확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운영자들의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강화는 물론 국제적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국제표준화작업(EDI, CALS)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함.



<그림 III-3-6> 제주 벤처 넷 구성 체계도

(2) 성장단계에 적합한 벤처입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에서부터 일정한 단계를 거쳐 성장하게 됨. 따라서 창업에서부터 기술개발 및 초기생산단계, 성장단계를 거쳐 기업공개 등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일련의 단계에 적합한 입지지원책이 필요함.



<그림 III-3-7> 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입지지원

- 창업초기단계에서는 제한된 사업비 가운데서 연구공간 임대, 장비 구입 및 임대비용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
- 창업 후 연구·기술개발과 초기 시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주로 소규모 생산설비와 마케팅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 성장단계에서는 업종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입지측면에서 새로운 생산용지와 라인, 외주(Out Sourcing)에 의한 생산을 지원함.
- 마지막으로 안정단계에서는 기술집약적인 신제품의 개발과 시장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주식시장에서의 기업공개와 고속성장을 계속하게 되고, 기존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신제품의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3) 산·학·관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벤처기업을 일정한 지역에 집적시킴으로서 집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
- 중소·벤처기업은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대학,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육성함. 외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대학은 우수한 인력을 공급하고 산·학협동에 의해 첨단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연구단지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육·문화·환경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도 노력함.

(4) '산업기술정보지원센터' 건립

- 지역 중소기업의 취약한 산업기술정보 습득, 연구개발, 마케팅전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유도함.
- 국내·외 혁신기술 및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산업지원정보, 창업에 필요한 절차나 업계동향을 제공하는 창업정보, 품질인증, 특허출원과 같이 각종 기술등록 관련 정보, 유희시설이나 원자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함.
- 글로벌 경영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정보, 상품유통정보, 전문인력정보를 DB화함과 동시에 화상정보 DB 구축을 통한 정보공유와 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5) '제주엔젤투자회사' 설립

- 직접자금 조달의 원천은 창업투자회사 및 엔젤투자자들이나 제주지역 벤처의 낮은 수익모델, 홍보 부족, 벤처기업 및 투자회사의 서울지역 밀집화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가 어려움.
- 제주지역 경제단체, 상공인, 지연가들을 대상으로 자체적 자금을 확보케 한 후 성장성 있는 우수 벤처기업을 발굴 지원함.

(6) '제주벤처투자조합' 설립

- 제3섹타 방식으로 설립하여 채무보증 및 투자업무를 수행하되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심사단을 구성하여 안건 선정, 심사, 모니터링의 권한을 갖게 함.
- 국제화 지원 : KOTRA내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해외무역관,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의 유관기관, 종합무역상사와 협력체계 구축, 컨벤션센터 내 벤처기업 상품전시 및 판매 지원
- 전략적 제휴 추진 : 벤처기업간 M&A 및 전략적 제휴 추진 및 지원,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과 연계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 추진 및 지원

(7) 벤처집적시설 조성

- 벤처집적 시설은 벤처기업의 특성에 따라 설립 목적, 상품화 단계, 기업성장 단계, 제품 소비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대학(대학인접지역포함)내 벤처집적 시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거나 연구개발 단계의 벤처기업, 창업 초기의 기업, 생물산업 중심으로 시설함.
- 도심지 벤처집적 시설 : 소비시장과 밀접한 비즈니스 공간을 고려하고, 기존 벤처집적 시설 및 계획 시설과 연계함. 제품 소비시장이 도심권과 밀접한 기업, 상품화 단계의 기업(S/W 기업, On-line 기업 등)을 중심으로 시설함.
- 관광문화상품 벤처집적 시설 : 제주 고유의 향토적 관광문화상품을 개발·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만 입주하게 함. 중문관광단지 내 혹은 컨벤션센터 내 위치함.
- 공장형 벤처기업 집적 시설 : 제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입주, 기존의 공업단지나 농공단지를 활용,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역내에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도록 함.

(8) 벤처인력 육성

- 우수 두뇌인력과 기능인력의 균형 육성, 4년제대학의 기술·지식집약형 학과의 교육환경 지원, 벤처창업 전문대학원(학제적 접근) 개설, 전문대학의 디자인, 정보, 기술집약형 학과의 교육환경을 개선함.
- 대학의 창업 지원 및 교육기능 강화 : 창업교육기능 강화, 창업 동아리의 지속적 지원, 창업 유도 및 창업자금 지원, 창업강좌의 지속적 개최
- 창업보육센터의 확충 및 재편 : 창업보육센터를 지역대학에 유치, 대학 특성별로 창업보육센터내 입주업체를 재편함.

제5절 금융서비스업의 기능 강화

1. 현황

가. 금융산업의 위치

- 도내 총생산 중 금융보험업의 비중은 6% 내외의 수준이며, 종사자 비중은 6~8% 수준으로 전국의 6.57%와 유사함.
- 1999년 금융보험업의 전국 평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4,100만원인데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3,300만원으로 전국 수준의 80.5%에 머물고 있음.

나. 예수금시장의 점유율

- 전체 예수금시장에서 제주지역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은 1%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내총생산 대비 도내총생산의 비율 1%에 근접하고 있음.

<표 III-3-16> 금융기관의 점유율 추이

(단위 : 조원,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금 융 기 관 총 예 수 금(A)	236.9	289.7	342.8	429.6	511.9	599.5	684.9	773.9	831.3	894.0
제 주 지 역 금 융 기 관 총 예 수 금(B1)	2.7	3.2	3.7	4.5	5.3	6.3	7.3	8.5	8.7	8.7
(B / A) × 100	1.1	1.1	1.1	1.1	1.0	1.1	1.1	1.1	1.0	1.0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년월.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지역 경제동향」, 각년월.

주 : 제주지역 예금은행의 예금+제주지역 제2금융권의 예수금.

다. 지방은행의 시장점유율

- 예수금시장에서 제주은행의 시장점유율은 1991년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이후에는 급상승하고 있음.
- 1997년까지 시장점유율의 점진적인 하락은 전국적인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1998년 이후의 점진적인 상승 추세도 제 2금융권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음.

<표 III-3-17> 예수금시장에서 제주은행의 점유율 추이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금융기관의 총예수금(A)	4,548	5,270	6,325	7,326	8,519	8,729	8,671
제주은행의 예 금(B)	335	377	415	439	700	828	835
(B/A)×100	7.4	7.2	6.6	6.0	8.2	9.5	9.6

자료: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지역 경제동향」, 각년월.

라. 제2금융권의 시장점유율 분석

- 금융기관의 총예수금 중에서 제 2금융권(신용금고+새마을금고+신협)의 시장점유율은 1996년까지 꾸준히 신장하였으나 1997년 이후 점진적인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1996년까지의 추세는 세계적인 추세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IMF체제 이후 몇몇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정지 혹은 파산에 기인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불신이 지역 제 2금융권의 시장점유율을 낮게 하였음
- 1997년과 1999년을 제외하면 제주지역 제 2금융권의 예수금 중에서 지역 제 2금융권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이런 신장 추세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지역 제 2금융권이 서민 및 중소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함.

<표 III-3-18> 제2금융권의 점유율 추이 (연말잔액 기준)

(단위 : 10억원,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금융기관의 총예수금(A)	2,668	3,166	3,721	4,548	5,270	6,325	7,326	8,519	8,729	8,671
제2금융권의 총예수금(B)	1,871	2,348	2,881	3,584	4,181	5,077	5,894	6,617	6,469	5,691
제2금융권 ¹⁾ 의 총예수금(C)	444	609	753	1,003	1,183	1,457	1,622	1,690	1,675	1,552
(C/A)×100	16.7	19.2	20.2	22.1	22.4	23.0	22.1	19.8	19.2	17.9
(C/B)×100	23.7	25.9	26.1	28.0	28.3	28.7	27.5	25.5	25.9	27.3

자료 : 한국은행 제주지점, 「제주지역 경제동향」, 각년월.

주1) : 본점을 제주에 두고 제주를 영업활동의 주무대로 하는 제 2금융권(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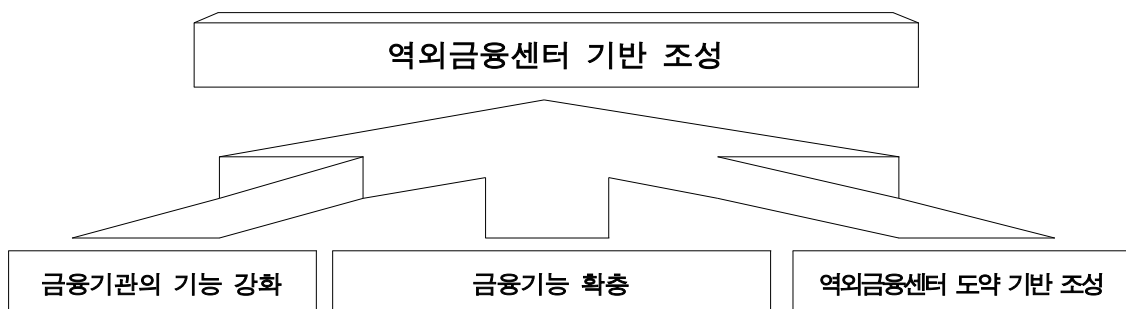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실물부문의 성장은 금융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며 이는 다시 금융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한편 금융부문의 성장은 효율적인 자금 배분을 통하여 실물부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등 상호 의존관계를 보이고 있음.
- 금융시장의 미발달은 궁극적으로 실물부문의 성장을 저해함으로써 지역민의 복지를 신장시키는 데 방해요인이 됨.
- 최종적인 자금 대여자와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가 만나서 자금을 거래하는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산업자금의 수요는 금융기관을 통해 충족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자금의 대여자와 수요자를 연결시킴으로써 지역자본을 축적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지역의 산업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를 증대시킬 수 있음.

나. 기본방향

- 금융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지역금융기관의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둘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기능의 확충과 역외금융센터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두었음.



<그림 III-3-8> 금융산업의 발전방향

3. 금융서비스업부문의 사업계획

가. 지역 금융기관의 발전전략

(1)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강화

- 금융 자율화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위험관리임.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만기가 다름에 따라 나타나는 자금조달금리와 자금운용금리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변동위험,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과 관련되는 신용 위험, 직원의 실수, 고의 및 태만에 의해 발생하는 영업위험, 자금결제에 필요한 유동성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동성위험 등이 있음.
- 최근 개방화 및 국제화, 금융 자율화와 더불어 대두된 위험들로는 금융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나타나는 시장위험, 국제거래상의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환위험, 거래국가의 정치·경제적 환경 악화로 발생하는 국가위험 등이 있음.
-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명심해야 할 대표적인 위험은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인데 신용위험은 금융자산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에 상환되지 않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위험임.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곤경에 처한 것은 바로 신용위험에서 비롯되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님.
- 신용위험을 피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대출이나 투자를 다양화하는 것이며 또 다른 방법은 차입자 혹은 증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임. 이를테면 개별 기업의 대출실적, 레버리지, 기업의 장래성, 담보상태 등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경기예측을 통해서 차입자 전반의 신용상태도 분석하여야 함.
- 금융시장 선진화와 더불어 시장위험이 높아질 것이며, 금융자율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영역구분이 허물어지면서 각 금융기관들은 보유자산의 상당부분을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보유하려는 추세임.
- 이런 시장위험은 증권과 같은 금융자산을 단지 보유함으로써 발생하기도 하지만, 장기 투자나 투기를 목적으로 증권을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것이 금융기관 자체의 파산을 유도할 수 있음.

(2) BIS비율과 자율적인 위험관리

- 국제결제은행(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위험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비율)은 세계적인 금융규제의 완화 및 국제화 진전에 따른 은행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하여 고위험,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려는 금융기관들의 경영관행에 제약을 가하려 시도함.
- 공격적인 경영을 실행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의 위험을 완화하는 장치가 바로 자본금이므로 각 금융기관들은 이런 BIS비율(8~10%)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를 구비해야함.

(3) 금융기관 대형화 및 전문가 양성

- 금융기관간의 경쟁 격화에 대비하여 영업 기반 확충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인수,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추구해야 함.
- 금융기관들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금융기관 내외에서 교육훈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금융전문가를 많이 양성해야 함.
- 또한 장기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점진적으로 더 많은 자산을 증권으로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증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금융인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됨.

(4) 지역 밀착형 금융기법의 활용

- 금융은 국제화, 개방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지역 금융기관들은 지방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개발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특화를 도모해야 함.
-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조언과 더불어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한 문화와 교육 진흥과 같은 비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지역 금융기관들은 미래의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함.

(5) 디지털 금융기법의 보편화와 대응

-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업무 자동화 및 표준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비대면(非對面, on-line) 금융 거래를 실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를 대폭적으로 개선함.

- 디지털 금융은 금융기관과 고객간의 비대면(온라인) 금융거래를 의미하며 전자이체제도, 전자화폐 및 인터넷 금융중개가 대표적인 유형임.
- 전자이체제도는 현금자동인출기(CD/ATM) 등과 같은 폐쇄형 네트워크를 통한 자금이체가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거래가 확대되고 있음.
- 금융기관은 소매금융과 도매금융의 비중, 영업지역, 온라인 고객과 오프라인(점포) 고객의 성향과 비율 등을 감안하여 디지털 금융과 점포영업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금융기관은 디지털 금융망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기술적 위험에 대비하는 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직원에 의한 고객 정보의 도용이나 외부의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보호장치를 확보하여야 함.

(6) 지식경영기법의 도입

- 지식자본의 활용에 대해선 금융기관들이 다소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임.
- 지식경영은 직원 개개인이 보유한 지식을 직원 전부가 공유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런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선 지적자본의 DB화가 무엇보다 시급함.
- 정보화가 불가능한 지식들이 있을 수 있으나 되도록 많은 지식을 DB화하여 창출(생산), 축적, 학습 및 공유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효율성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음.

나. 역외금융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전략

(1) 역외금융센터의 설립

- 역외금융센터의 설립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
- 제주지역에는 국제금융업무와 국제회계, 세무, 법률 등과 관련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음.
-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으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역외금융센터의 건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남북화해 분위기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 역내 금융시스템을 활용한 은행간 거래를 통해 역내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차입하거나 역내의 잉여자금을 외부에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되는 역외금융센터를 장기적인 목표로 추진함이 바람직함.
- 역외금융센터의 경제적 효과 및 비용 분석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분야(전분야 혹은 특화), 역내거래 허용 여부(내외 일치 혹은 내외 분리), 역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규제 강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역외금융센터의 운영을 위해선 제주지역을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의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함께 제반 여건을 확충하는 데 전력해야 함.

(2) '제주국제금융시장지역' 지정 육성

- 녹지가 잘 갖추어진 일정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여 '제주국제금융시장지역'으로 지정하고 입주하는 금융기관 및 직원들의 비즈니스활동 뿐만 아니라 주거 및 자녀교육, 쇼핑, 스포츠 및 위락활동 등 일체의 생활을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제금융감독청 설립 : 제주국제금융시장이 불법자금 거래용으로 기능하지 않고 선진금융거래의 장소가 됨으로써 낙후된 한국금융산업의 수준을 높이는 시장지원자 및 감독자로서 기능하도록 금융감독청을 설립하고, 금융기관 인가, 증권 및 펀드 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함.

제4장 경제를 선도하는 청정산업도시

제1절 일반농업의 경쟁력 향상

1. 현황

가. 농가 및 경지면적

- 농가인구는 1985년 18만5,339명이었던 것이 1999년 현재 13만6,208명임. 전체인구 대비 농가인구비율은 1999년 현재 25.2%으로서 전국의 9.0%의 약 2.8배 수준을 보임.
- 농가호수는 동기간 동안 4만2,278호에서 4만329호로 0.34%씩(전국 2.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호당인구는 1985년 전국의 4.4명과 같았던 것이 1999년 현재 3.4명으로 전국의 3.0명에 비해 0.4명이 많음.

<표 III-4-1> 농가인구 및 농가호수 변화

연 도	농 가 인 구(명)		농 가 인 구 비 율(%)		농 가 호 수(호)		호 당 인 구(명)	
	제 주 도	전 국	제 주 도	전 국	제 주 도	전 국	제 주 도	전 국
1985	185,339	8,521,073	37.9	20.9	42,278	1,925,869	4.4	4.4
1990	163,986	6,661,322	31.9	15.5	40,147	1,767,033	4.1	3.8
1995	145,579	4,851,080	28.0	10.8	39,781	1,500,745	3.7	3.2
1999	136,208	4,209,799	25.2	9.0	40,329	1,381,637	3.4	3.0
증감율 (’85-’99)	-2.18	-4.91	-2.87	-5.85	-0.34	-2.34	-1.85	-2.63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총경지면적은 전국의 농경지면적이 그 동안 꾸준히 감소한 것과는 달리 1985년 5만 1,028ha에서 1999년 현재 5만8,707ha로 전국의 3.1%를 점함.

<표 Ⅲ-4-2> 경지규모별 농가 및 총경지면적

(단위 : 호, ha, %)

구 분	총농가수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및 비율										총경지 면적(B)	호당 면적 (B/A)
		0.5ha 미만	비율	0.5-1ha	비율	1-2ha	비율	2-3ha	비율	3ha 이상	비율		
1995	39,781	12,606	31.7	11,412	28.7	10,061	25.3	3,337	8.4	2,365	5.9	56,829	1.43
1996	39,485	11,317	28.7	11,273	28.6	10,836	27.4	3,839	9.7	2,219	5.6	56,315	1.43
1997	40,223	13,545	33.7	11,268	28.0	10,742	26.7	2,981	7.4	1,688	4.2	56,517	1.41
1998	39,821	14,214	35.7	10,609	26.6	9,756	24.5	3,317	8.3	1,925	4.8	56,812	1.43
1999	40,329	14,116	35.0	11,985	29.7	9,364	23.2	3,009	7.5	1,855	4.6	58,707	1.46
전국 (1999)	1,381,637	507,867	36.8	388,315	28.1	332,481	24.1	90,343	6.5	62,633	4.5	1,898,925	1.37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각년도.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나. 생산 및 조수입 구조

- 1990년 이후의 연간 총 작물 재배면적은 1990년의 6만7,065ha에서 1999년에 6만1ha로 감소하고 있음. 이것은 1990년도의 경지이용률이 122.4%에서 1999년에는 102.2%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음.
- 농업부문 조수입은 1990년 5,635억원이었던 것이 1999년 IMF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의 영향 등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7,450억원으로 늘어났음.

<표 III-4-3> 작목별 재배면적 변화

(단위 : ha, %)

구 분	1970		1980		1990		1995		1999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식량작물	58,034	75.5	39,144	54.6	28,772	42.9	22,739	39.7	20,226	33.7
미 곡	2,001	2.6	2,037	2.8	797	1.2	220	0.4	151	0.3
맥 류	25,032	32.3	15,526	21.7	9,322	13.9	5,974	10.4	4,029	6.7
잡 곡	8,447	10.9	1,493	2.1	1,752	2.6	1,101	1.9	556	0.9
두 류	10,550	13.6	8,403	11.7	10,332	15.4	8,392	14.7	8,334	13.9
(콩)	9,610	12.4	7,748	10.8	8,722	13.0	7,970	13.9	7,917	13.2
서 류	12,274	15.8	11,685	16.3	6,569	9.8	7,052	12.3	7,156	11.9
(고 구 마)	12,178	15.7	10,580	14.8	3,790	5.7	1,295	2.3	848	1.4
(감 자)	146	0.2	1,105	1.5	2,779	4.1	5,757	10.1	6,308	10.5
채 소 류	2,004	2.6	3,497	4.9	7,110	10.6	7,733	13.5	9,426	15.7
(양 배 추)	52	0.1	197	0.3	783	1.2	723	1.3	925	1.5
(당 근)	4	0.0	494	0.7	1,052	1.6	1,993	3.5	2,608	4.3
(마 늘)	203	0.3	560	0.8	1,921	2.9	1,891	3.3	2,710	4.5
(양 파)	184	0.2	251	0.4	432	0.6	545	1.0	797	1.3
(쪽 파)					244	0.4	244	0.4	363	0.6
과 수	5,002	6.4	14,164	19.8	20,255	30.2	21,957	38.3	26,306	43.8
(감 굴)	5,002	6.4	14,095	19.7	19,414	28.9	21,605	37.7	25,823	43.0
특용작물	12,275	15.8	14,854	20.7	10,683	15.9	4,505	7.9	3,561	5.9
(유 채)	10,440	13.5	8,150	11.4	5,200	7.8	1,772	3.1	1,195	2.0
(참 깨)	1,314	1.7	6,321	8.8	5,107	7.6	2,114	3.7	1,263	2.1
화 훼	11	0.0	31	0.0	245	0.4	344	0.6	482	0.8
총재배면적	77,326	100.0	71,690	100.0	67,065	100.0	57,278	100.0	60,001	100.0

자료 : 제주도 농수축산국, 내부자료, 2001.

다. 주요 농산물의 수출 현황

(1) 화훼류

- 화훼류 수출은 유리온실 등 최첨단 농업시설물에서 생산된 고품질 화훼류의 수출에 힘입어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로 2000년도에는 296만8천불을 수출함.
- 수출품목은 백합과 양란을 중심으로 장미, 아이리스, 튜울립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 채소류

- 채소류의 수출은 1999년 234만4천불로 대폭 증가되었다가 2000년에는 72만불로 급격하게 떨어졌음. 이는 육지부 시설채소류의 생산 증가, 중국의 저가 신선 채소류의 해외시장 공략 등에 기인한 것임.

<표 III-4-4>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 천\$)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8,656	3,787	9,037	10,339	12,986	15,918
감 굴	1,564	1,128	2,724	5,915	7,924	11,828
백 합	-	-	36	1,109	613	1,620
당 근	3,413	298	915	299	157	-
양 배 추	818	239	747	975	393	153
아이리스	-	-	-	138	26	119
튬 울 립	-	-	-	20	24	64
장 미	-	-	-	42	28	91.5
양 란	39	46	87	188	720	1,072
토 마 토	419	146	11	170	761	149
기 타	2,403	1,930	4,517	1,483	2,340	666

주1 : 기타 : 파프리카, 흑대두, 참다래, 금굴시럽, 국화, 단무지, 건당근, 미리오, 기타 등

주2 : '97년의 기타중 대부분은 당근농축액(3,192.5)임.

자료 : 제주도, 「2001년 수출종합계획」, 2001.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대체작목 개발, 공동네트워크화 및 자조금 조성을 통해서 생산 및 출하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경종, 축산, 임업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으로 농업환경의 건전한 유지 보전과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증진시켜야 함.

<표 III-4-5> 일반농업 발전지표

구 분	단 위	2000*	2006	2011
농 가 인 구	명	129,187	113,374	101,373
농 가 구	호	39,105	36,064	33,712
경 지 면 적	ha	59,207	57,176	55,537
조 수 입	전 체 (억원)	8,334 (4,123)	9,881 (4,263)	10,734 (4,384)
	농 가 당 (만원)	2,204 (1,054)	2,804 (1,154)	3,247 (1,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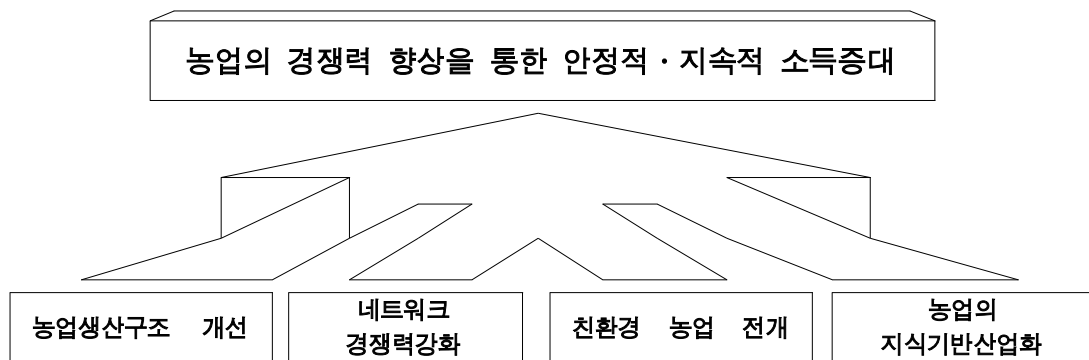
주1 : ()안은 감귤조수입을 제외한 일반농업의 조수입을 나타냄.

주2 : 조수입은 일반농업 부문의 예측치와 감귤부문의 예측치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조수입을 전체 농가수로 나눈 결과와 다소 상이함.

주3 : *예측기준은 조수입은 1997~2000년평균(2000년 불변가격), 농가인구, 농가구, 경지면적은 2000년 기준임.

나. 기본방향

- 안정적·지속적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기반 정비와 농업 생산 구조 개선, 유통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전개, 농업의 고부가가치가 요구됨
- 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범위를 기존의 농·축·임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과 전후방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까지 포함한 애그리비즈니스(agribusiness)로 확장해야 함.
- 애그리비즈니스 분야의 틈새농업·벤처농업을 활성화하고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을 첨단산업이자 바이오산업으로 재편하며 자연경관·향토문화유산·주민들의 인심을 결합한 ‘6차산업’이자 복합산업으로 육성함.



<그림 III-4-1> 일반농업의 발전방향

3. 일반농업부문의 사업계획

가. 농업 생산구조 개선

(1)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구축

- 받기반 정비사업 : 개발여건이 양호한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의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으로 소득 증대에 기여함.
- 배수개선사업 : 매년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 영농을 도모함.

- 중규모 농촌 용수 개발사업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수혜구역 50ha ~ 3,000ha)

- 소규모 지표수 개발,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2) 농작업의 일관 기계화

- 주요 작목 농작업의 일관 기계화 달성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도모함. 정밀농업의 추이에 맞추어 자동 시비 및 농약 살포도 기계화함.

- 밭작물 스프링클러 시설 지원 : 5,000ha

(3) 영농규모의 적정화

- 영농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시장의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매도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공급적인 측면과 토지 구매 또는 장기 임차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요적인 측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토지시장의 공급적인 측면 : 장기적으로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과수원을 포함한 일반 밭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함.

- 적정 규모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환, 분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 추진 : 교환, 분합에 따른 양도세와 등기세의 면제 등

(4) 화훼산업의 진흥

- 21세기 제주도의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품질 꽃 생산기반을 구축함.

- 수출 전략 품목을 현재의 2개(백합, 장미) 품목에서 호접란, 양란, 아이리스를 포함한 다양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함.

- 수출단지 육성 : 기설치 되어 있는 2개의 수출단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호접란 수출단지 2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단지별 지원을 강화함.

- 종묘업체를 확대 육성 : 30개소까지 업체별 개발 품종 등록 및 특허 추진, 도내 대학의 화훼육종 연구센터 등과 같은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화훼 우량 종구 생산단지 조성 : 10ha(권역에 맞는 품종 생산 및 보급 시작)

(5) 고급채소류(양채류)의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보급

- 외국인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채소를 도입하여 사계절 연중 공급체계를 갖추.
- 서양채소 39종, 중국채소 11종, 일본채소 5종에 대한 특성 검정 및 사계절 생산 연구 및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함.
- 양채류 다품목 소량 재배체제 확립 : (1998년) 7종 → (2005년) 100종

(6) 대체작목의 개발 및 보급

- 특산작목의 경쟁력 강화와 다양하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로 감귤일변도 농업구조에서 탈피함.
- 녹차단지 조성 : 대량생산이 아닌 최고급 제품 생산을 목표로 한 농가형 차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며 저투입(비료 및 농약) 농법을 개발·보급함.
- 중산간지역의 감귤원 부적지 폐원 희망농가 우선 지원, 다원을 중심으로 관광농업 모델 도입 및 가족농 중심의 신규 다원을 조성함.
- 낙엽과수인 배, 복숭아, 양앵두 등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함.
- 개발된 대체작물에 대한 면밀한 시장분석후에 농가도입을 추진함.

나. 농업의 네트워크화

(1) 농산물 산지 유통체계 개선

- ‘농협단위 공동유통체제(공동계산제)’ 도입으로 산지유통의 활성화, 작목반 단위의 농산물 공동규격 출하 촉진으로 물류유통비를 절감함.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효율화 및 규모화 지원
- 물류체계의 개선 : 물류표준화·하역 기계화 등 일관수송체계 구축
-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 및 대외 경쟁력 제고
- 수매 비축 농산물의 지역 내 저장 시설 확보

(2) 농산물 수출 촉진

- 도내 수출전담기구 설치, 수출촉진전담기구의 기능 강화 : ‘품목별 수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교역의 수출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수출전문 창구로 육성
- 수출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건설 및 지원제도 마련

(3) 채소류(감자 포함)의 생산 조정과 출하 조절 체제 구축

- 생산 조정과 출하 조절을 도모하기 위한 품목별 ‘수급조절협의회’를 구성함.
- 각 품목별 ‘수급조절협의회’(법인체)에서, 연간생산액의 1%의 범위 내에서 출하물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징수하고, 중앙정부가 적립금액의 50%~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유통명령제 필요 자금, 시장개척, 연구사업 등 각종 사업에 이용하며 자조금 및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둠.
- ‘유통명령제’ 도입으로 효율적인 생산 및 출하 조절의 법적 근거 마련, 주산단지 재배 농가(작목반, 산지법인 등)를 대상으로 계약재배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채소 수급 안정사업(계약재배 중심) 확대 추진하며 계약재배와 연계 추진되는 ‘최저가격보장제도’의 보상 수준을 확대 추진함.

(4) ‘지역농어촌기금’ 설치 및 운용

- WTO, FTA 등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여 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함.
- 2011년까지 목표액 2,000억원을 조성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제주도개발 특별회계 전입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 수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으로 조성함.

다. 친환경 농업 전개

(1) '친환경 농업 시범도' 추진

- 중앙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을 제주지역의 감귤을 포함한 전작 농업지역까지 확대하여 제주지역을 '친환경 농업 시범도'로 지정·육성함.
-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을 감소함.

- 화학비료 사용량 50% 감소 : 2000년 9만1,167톤 → 2006년 6만3,800톤 → 2011년 5,000톤
- 농약 사용량 30% 감소 : 2000년 6,404톤 → 2006년 4,480톤 → 2011년 4,340톤

(2) 병해충 종합관리(INM/IPM) 기반 구축

- 종합적인 토양 개량 : '토양개량제' 도입, 유기질 비료 지원, 사료·녹비작물 재배 품목 확대, 여름철 퇴비 생산 확대, 축산분뇨 이용 고품질 유기질 비료와 액비 생산체제 구축
- 병해충 정밀 예찰 네트워크 구축, 천적 이용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보급, 농약대체 기술 개발, 환경친화형 품종 개발·보급, 폐자재의 효율적 수거대책 마련

(3)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제 구축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 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의 오염원 저감, 유기농업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 :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중·소규모의 가족으로 구성된 영농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4) 친환경 농산물 유통체제 구축

- 친환경 농산물의 핵심적 유통주체로 작목반 육성 지원(농협)
- 품질관리 강화 및 차별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 '리콜제' 도입
- 친환경 농산물 신유통체계 확립 : 생산자단체 중심의 시장홍보 체계 확립, 파마머스 마켓, 직거래장터, 대형유통업체, 전문판매장 등 다양한 판매경로를 연계한 신유통체계 확립, 전자 상거래 활성화

(5) '친환경농축산업개발단지' 조성

- 1차산업에 대한 생산, 가공, 포장, 수출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친환경농축산업개발단지'를 조성함.
- 국제자유도시의 선도프로젝트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함.
- 감귤산업 등 과수부문의 친환경농업을 연구·개발하여 생산과 가공, 수출 등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국내·외 소비 촉진 효과를 가져옴.

라. 농업의 지식기반산업화

(1) 우량 종자·종서·종구의 생산기지화

-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격리성이라는 장점을 활용, 종자·종묘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고품질 상품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도모함.
- 제주도 '친환경종자육성센터'를 설치함.

(2) 제주특산 농업 기술개발 시험연구의 확대

-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운영방향도 시대적인 수요에 맞추어 지도업무보다 연구업무 중심으로 전환함.
- 지역 연구기반 조성 : 연중 감귤실증시험포 조성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 소비자 만족형 고품질 감귤 생산기술 개발, 생명공학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 새로운 낙엽과수 재배 기술 개발
- 양채류 등 고급 채소류의 특산채소 안정적 공급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보급, 화훼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 다면적 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 개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개발, 농산물 복합 이용 기술 개발, 감귤보완작물 개발 연구 : 농가형 녹차, 참두릅, 탐라오갈피 등 제주특산 자원식물 개발 연구 등

(3) 벤처 농업인 ·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

- 벤처 농업인 육성 :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벤처농업을 적극 육성하여 재배기술 및 규모가 보편화된 기존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을 소프트웨어적 기술산업으로 육성함
- 농업전문 인력 양성 : 농업전문 후계인력 양성시 여성후계자 10%이상 포함 등 적극적인 여성전문농업인 육성책을 강구함.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기금(선도농업인 육성기금 조성 : 50억원) 조성
- 농과계 특성화 대학 지원, 최고농어업경영자 과정 지원 등

(4) 첨단과학 농업기술 보급 및 농촌 지도

- 첨단과학 농업기술 보급 : 농촌 지도 기반 조성, 농가 경영 컨설팅 확대,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 농기계 교육 훈련
-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등 농촌 생활 개선 지원사업 확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5) 녹색관광의 활성화

- 녹색여가·체험마을 조성 :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인 녹색여가·체험마을을 조성함.
- 도시민에게는 휴식·휴양과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농촌에는 농산물 판매(1차), 가공사업(2차), 숙박·음식물 서비스(3차) 등 소득원을 제공함.
- 추진전략 : 마을 또는 마을연합을 기본단위로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확대 발전시킴. 일반 관광상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농림업 여가·체험 프로그램, 심층적인 지역탐방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어 농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틈새시장을 개척함.
-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시 녹색여가·체험마을, 민박마을, 전통마을, 생태마을 등을 우대 지원함. ‘친환경농업지구’(가족농단지)와도 연계하여 추진함. 녹색·여가 체험마을 조성 : 3개소(북제주군 교래리 등)
- 펜션업과 농촌 민박마을 육성, 유채농업의 지속 육성, 1·3차산업 연계화 차원의 제주 유채 농업 지원, WTO의 최소 허용 보조 내에서의 지속적인 지원

- 유채가 지역의 중요 관광자원임을 감안, 관광부문으로부터의 보조방안 강구

(6) 바이오농업 육성

- 감귤 및 다양한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각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성분을 산업화할 수 있는 생물산업을 육성함.
- 식물 유전자원의 수집, 평가, 보존, 정보화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종자은행(Gene Bank)’을 설립함.

(7)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제주 농·축·수산물 전자상점(E-market place)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 : 생산자단체가 개발 주체
- 농가 PC 보급 및 정보화 교육 확대 지원

제2절 감귤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감귤산업 육성

1. 현황

가. 입지조건

- 제주도는 국내 유일의 감귤생산지이지만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일부 온난한 지역을 제외하면 노지재배가 가능한 감귤류는 내한성이 강한 온주밀감에 국한됨.
- 토양의 대부분은 화산회토이거나 배수가 나쁜 점질토이며 연간 강우량은 1,400~1,700mm로 많고 일조시간은 2,000시간 내외로 적은 편이어서 생산되는 감귤의 당함량은 낮고 산함량은 높은 편임.

나. 재배 및 생산 현황

- 감귤 재배면적은 2000년 2만5,800ha로 총경지면적 5만9,200ha의 43%인데 1998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임.
- 생산량은 해저리현상에 의한 연도간 변화가 심한 편이며 1997~2000 4개년 평균 생산량은 61만 톤으로 동기간 전세계 감귤 연평균 생산량 1억톤(FAO 집계)의 0.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과수 총생산량의 1/4 이상을 차지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제1의 과수임.
- 감귤재배농가수는 제주도 전체농가수의 90%를 상회하는 3만6천호 수준임.

<표 III-4-6> 감귤재배 및 생산 추이

구 분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재배면적(ha)	14,094	19,414	21,605	25,802	25,781	25,860	25,823	25,796
생 산 량(톤)	187,470	492,700	614,770	479,980	693,200	543,980	638,740	563,341
조수입(백만원)	54,500	315,100	433,447	607,932	400,862	515,798	325,709	370,811
재배농가수(호)	19,996	25,616	26,589	36,055	36,055	36,212	36,073	36,590

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감귤유통처리실태분석」, 각년도.

- 감귤산업의 조수입은 1996년 6,079억원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1997~1999 3개년 평균 4,141억원으로 동기간 제주지역 총생산액(GRDP)의 9.3%, 1차산업 총 조수입의 32.4%, 농업조수입의 51.5%임.
- 현재의 재배면적 2만5,800ha에 1988~1999년까지의 10a당 감귤 평균생산량 2,689kg을 적용하면 평년작 기준으로 생산량은 70만톤 수준으로 적정 감귤생산량 60만톤을 훨씬 상회하는 과잉생산구조임.
- 연도간 생산량 변동(해거리 현상)이 심하며, 1988년부터 1999년까지 11년 동안 감귤 생산량이 10% 늘어날 때 농가수취가격과 호당 조수입은 각각 14.1% 및 7.3% 씩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며, 최근 들어 탄력성 수치가 점차 확대되는 등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율이 증대되고 있음.
- 재배면적 및 생산량의 97%가 온주밀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84%를 점하고 있는 노지 조생온주(극조생 포함)의 맛은 8~10월 강우량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연차간 변이가 크고 다른 감귤에 비해 대체로 당함량이 낮고 산함량이 높은 편이어서 단맛을 선호하는 신세대의 기호에 맞지 않음.

다. 처리 현황

- 감귤 출하량 90% 이상이 국내 생과용으로 소비됨. 1997년 7월 오렌지 농축액 수입이 완전 자유화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 가공용 감귤 수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

<표 Ⅲ-4-7> 감귤 용도별 처리 현황

(단위 : 톤)

구 분	합 계	생 과			가 공	기타
		도외상품	수출	군납		
1996	479,980	436,856	744	757	11,733	29,890
1997	693,200	613,357	3,413	977	13,785	61,668
1998	543,980	505,047	6,277	1,262	5,012	26,382
1999	638,740	558,868	6,524	1,649	33,142	38,557
2000	563,341	422,097	6,663	1,857	27,468	105,256

자료 : 제주도청 감귤과, 내부자료

- 수출은 1990년 캐나다·싱가폴 등에 179톤을 수출한 이래, 1996년까지는 1,000톤 수준이었으나 1997년 이후 환율 상승 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촉진 지원시책, 수출단지 조성 등에 힘입어 연간 수출량이 6,000톤 이상으로 급증하여 제주도 농산물 제1의 수출품목으로 정착하였음.

라. 경영규모 및 생산비

- 감귤농가의 호당 평균 재배면적은 0.71ha에 불과함. 경영규모별 농가 현황을 보면, 0.5ha미만의 비율은 51.2%, 0.6~1ha미만의 비율은 26.9%로서 전체농가의 78.1%가 1ha 미만임. 2ha이상의 농가비율은 4.7%에 불과한 실정임.

<표 III-4-8> 감귤농가의 경영규모별 농가 현황 (2000년)

구 분	계	0.5ha미만	0.5~1.0	1.0~1.5	1.5~2.0	2.0이상	호당평균면적
농 가 수	36,590	18,746	9,821	4,320	1,970	1,733	0.71ha
구성비(%)	100	51.2	26.9	11.8	5.4	4.7	

자료 : 제주도청 감귤과.

- 온주밀감이 포함되는 만다린류의 수출가격(1999년 F.O.B. 가격기준)이 톤당 1,130달러로 일본, 미국과 더불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며 스페인 689달러의 1.6배, 중국 261달러의 4.3배나 됨.

마. 출하조절 능력

- 작목반당 평균 재배면적은 25.6ha, 출하량은 770톤으로 영세하며 한 마을에 농협과 감협 소속의 작목반이 중복 설치되어 주민간의 갈등도 유발됨.
- 선과장수는 867개이며 선과장별 선과실적은 600톤 내외의 소규모 물량으로 영세한 선과장이 난립되어 있어서 출하 조절이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농산물유통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가 원하는 물량의 규모화, 품질 균일화, 안정적인 공급체계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가격 협상에도 불리함.

<표 Ⅲ-4-9> 감귤 선과장 설치 현황 (2000년)

(단위 : 개)

구 분	감 협			농 협			상 인	법 인	합 계
	일반	직영	소계	일반	직영	소계			
제 주 도	189	14	203	287	25	312	329	23	867
제 주 시	21	2	23	34	1	35	102	1	161
서귀포시	25	2	27	53	3	56	153	10	246
북제주군	64	2	66	66	9	75	36	6	183
남제주군	79	8	87	134	12	146	38	6	277

자료: 제주도청 감귤과, 현황자료, 2000. 4.

- 감귤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심한 편으로 2000년산 노지감귤의 농가수취가는 15kg 상자당 최고 3만6,630원에서 최저 360원으로 100배의 차이가 있고 광센서선과기로 선별·브랜드화된 감귤이 일반감귤보다 9천원 이상, 품질인증품보다 5천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4-10> 선과장별 선과실적 현황

(단위 : 톤)

구 분	감 협						농 협					
	일 반		직 영		평 균		일 반		직 영		평 균	
	1999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1998	1999	1998
제 주 도	575	474	1,217	807	617	494	577	487	1,228	1,037	633	532
제 주 시	895	989	1,192	874	921	978	726	692	1,554	293	751	679
서귀포시	788	596	1,800	1,200	830	622	954	825	979	1,273	956	851
북제주군	619	493	463	795	614	497	560	442	1,418	1,030	667	506
남제주군	392	295	1,338	743	479	336	421	344	1,072	997	475	398

자료: 제주도청 감귤과, 현황자료, 2000. 4.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제주감귤의 품질이 향상될 경우 외국인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어 오히려 수요(수출) 증가도 기대됨.
- 우리나라 유일의 감귤 생산지, 지리적으로 고립된 단일 행정구역내 생산지 집중으로 정책 수행 용이, 연중 생산 및 출하 가능,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음.
- 감귤재배면적 감축, 품종 및 작형의 재배치, 생산기반정비를 통해서 생산구조를 개선시켜 나감.

<표 III-4-11> 감귤산업 발전지표

구 분	기 준	2006	2011
조 수 입(억원)	4,211	5,542	6,350
생 산 량(M/T)	609,600	577,800	541,400
재 배 면 적(ha)	25,796	23,500	22,000
호당 조수입(만원)	1,150	1,660	2,003
감귤재배농가(호)	36,590	33,300	31,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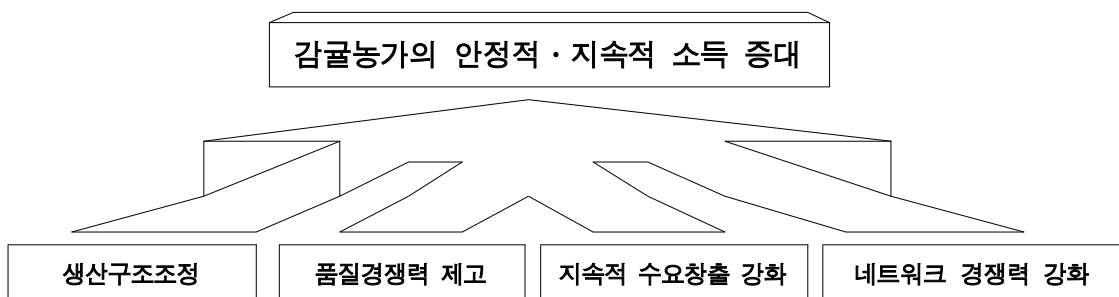
주1) 조수입 : 오렌지 수입자유화 해인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의 평균 조수입(2000년 불변가격적용)

2) 생산량 : 1997~2000년 4개년 노지감귤 평균 수량 23.6톤/ha 적용

3) 재배면적, 재배농가 : 2000년 기준.

나. 기본방향

- 생산구조의 조정, 품질경쟁력 강화, 수요 확대, 감귤농가(작목반)와 생산자단체의 조직화를 통해 생산 및 출하 조절 능력 강화, 감귤 유통체계의 개선으로 유통비용을 줄이고 시장 교섭력을 증대시키고 네트워크화함.



<그림 III-4-2> 감귤산업의 발전방향

3. 감귤산업부문의 세부계획

가. 적정 안정 생산기반 구축

(1) 감귤원 폐원

- 부적지 폐원 사업을 일반 재배지 폐원으로 확대하고 해발 200m고지 이상 및 동해 상습지 과원을 우선 폐원함.
- 재해 상습지, 밀식원, 노령 과원 등 저품질 생산 과원을 폐원하고 일반 재배지 중 폐원 희망 농가 과원을 폐원함. 나아가 국·공유지는 임대 만료시 타 작목으로 전환함.
- 재배면적 : 2000년 2만5,796ha → 2006년 2만3,500ha → 2011년 2만2,000ha(△ 3,796ha)
※ 2001년 폐원 면적 483ha 포함. 정부 지원 사업으로 추진 부적지, 일반재배지

(2) 품종 및 작형의 재배치

- 노지 일반재배 온주밀감 재배면적 축소로 가격을 안정시킴. 연중 생산 및 출하를 위한 만감류 및 온주밀감 무가온 하우스 재배를 확대함. 감귤의 고품질화와 연중 적정 생산을 위한 품종 및 작형을 재배치함.
- 품종 갱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품종 및 작형 재배치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확대함. 노지 온주밀감의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소요 자재를 중점 지원함.

<표 III-4-12> 품종 및 작형별 재배면적 및 생산량 목표

구 분	기준년도			2006			2011		
	면 적 (ha)	비 율 (%)	생산량 (천톤)	면 적 (ha)	비 율 (%)	생산량 (천톤)	면 적 (ha)	비 율 (%)	생산량 (천톤)
계	25796	100	609.6	23,500	100	577.8	22,000	100	541.4
노 지 온 주 밀 감	24,383	94.5	568.2	18,650	79.4	440.1	12,400	56.4	293.0
일 반 재 배									
노 지 온 주 밀 감	-	-	-	1,750	7.4	36.4	5,000	22.7	104.0
고 품 질 재 배									
가 온 재 배	506	2.0	25.8	600	2.5	30.1	600	2.7	30.1
온 주 밀 감									
무 가 온 재 배	242	0.9	6.3	1,000	4.3	26.2	1,500	6.8	39.3
온 주 밀 감									
만 감 류 (시 설 재 배 위 주)	665	2.6	9.3	1,500	6.4	45.0	2,500	11.4	75.0

주 1) 기준년도 면적은 2000년 기준임.

2) 기준년도 생산량은 1997~2000년 4개년 노지감귤 평균 수량 23.6톤/ha 적용

(3) 포장별 격년결실 유도에 의한 해거리 방지와 품질 향상

- 감귤 생산량의 해거리 방지와 품질 향상 및 경영비를 저감함. 풍작년에 포장단위 전적과로 자연주기와 반대의 격년결실을 유도함.
- 전적과 포장 낙과제(휘가론) 살포비용 및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함. 인위적 ‘격년결실 재배법’을 집중 지도하고 연차별 전적과 사업은 자치단체 지원으로 추진함.

(4) 생산비 절감을 위한 원지 기반 조성

- 감귤원 기반 정비 : 소규모 감귤농가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기계화 및 생력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감귤원 지반 정비를 통한 품질 향상 및 생산비 절감, 감귤재배 농가별 감귤원 교환, 분합을 통한 집단화 및 경영규모 확대사업을 추진함.
- 생력 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 : 대형 방제기(SS), 과원내 운반기 등의 보급

나. 감귤의 품질경쟁력 강화

(1) 재배방법 개선에 의한 온주밀감의 품질 향상

- 생산성 및 겉모양 위주 생산기술에서 맛 위주 생산기술로 전환하고 생산 출하 시기 연장을 위하여 무가온 하우스 재배를 확대함과 동시에 당도 증가를 위한 배수로 설치 및 다공질 필름 피복 재배를 지원함.

(2) 품종 갱신에 의한 품질 향상

- 불량품질 온주밀감을 고품질 만감류 또는 우량품질 온주밀감으로 갱신하고 우량 온주밀감으로 갱신시 고품질 생산기술을 적용함.

(3) 우량 묘목 생산 계획

- 종묘(육묘)산업 중점 육성계획과 연계하여 ‘감귤 모수원(육묘센터)’을 설치하고, 고당계 우량품종 선정 및 육성으로 고품질 감귤 생산 인프라를 구축함.
- 국제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의한 국가간 종자(종묘) 주권시대에 대비함.

<표 III-4-13> 묘목생산 사업의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2002	2003	2004	2005년 이후
추진계획	· 장려품종 선정 · 기본종 확보 · 육묘계획 수립 · 유전자원 수집	· 원원종 공급 · 육묘장 개설	· 원종 생산	· 묘목 및 접수 공급
추진기관	도, 농업기술원, 감귤시험장		도 종자센터 감협육묘센터	도 종자센터 감협육묘센터

(4) 친환경 감귤재배 확대

- 청정, 무공해 이미지를 활용하여 ‘도지사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 안전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Green Round,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 적극 대처하고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친환경 재배 감귤원에 대한 ‘직접지불제’ 도입
- 친환경 농업(IPNM)마을 확대 : (2001년) 1개소 ⇒ (2011년) 20개소 -> 병해충종합관리 체제(IPM) : Integrated Pest Management, 작물양분종합관리체제(INM) : Integrated Nutrient Management 등

(5) 품질 향상 기술 연구 개발 및 교육 확산

- 소비자 만족형 고품질 제주형 감귤 생산 기술을 개발과 신품종의 도입·육성 방안을 강구함. 나아가 바이오농업 기술 및 정보기술을 감귤산업에 접목시켜 육성함.
- 연중생산 체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새로운 농업자재 등에 대한 현장 실증시험을 추진함.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장기 전문 교육을 실시함. 새로운 후계 경영인 양성을 위한 신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함.
- 도내 감귤 관련 연구기관인 대학, 감귤시험장, 농업기술원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강화함. 감귤 재배농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 감귤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연차별 투자를 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함.

다. 수요기반 확대

(1) 감귤의 소비 촉진(홍보)

- 감귤의 특성 및 안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수요를 확대하고 감귤의 기능성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함.
- 소비자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함. 소비자에게 감귤의 장점 및 좋은 감귤 고르는 정보를 제공하고, 농약사용 여부, 성분 등에 관한 품질을 표시함.
- 성인병 및 암 예방 효과가 있는 기능성 고급 제품을 개발함. 펙틴·헤스페리딘·나린진 등 기능성 성분 함유 식품 개발 기능성 정보 제공, 항암성분, 미용 및 건강 관련 성분 소개

(2) 감귤 수출 촉진

- 미국 5개주 반입 금지 해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대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감귤 수출단지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여 해외 수출을 차질없이 추진함.
- 일본에 대한 고품질 감귤 수출 주력, 러시아(사할린), 동남아 등 수출시장 개척, 대북 관계 개선 대비 북한감귤보내기 정례화
- 수출용 제주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체계 구축, 수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감귤수출진흥기획단」 설치·운영, 대미 수출단지 지원 강화 : 6개소·244ha·286농가 (연간 5,000톤)

(3) 감귤 군납 촉진

- 감귤 군납 지정 대형 선과장을 육성함. 감귤 군납업무 농·감협에 전담하여 추진함.
- 감귤 군납을 수행할 대형선과장을 지정하여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감귤의 기능성, 영양가, 급식 편리성을 활용한 군납을 확대 추진함.
- 감귤 군납 계획을 추진함. 군납 물량 : 1999년 1,600톤 → 2006년 3,000톤 → 2011년 4,000톤, 후식용 감귤 군납 확대 : 각 군수지원사령부(급양대) 절충

(4) 급식시장 공략

- 감귤의 미래 수요를 확보·유기시키기 위해 급식시장을 적극 공략함.
- 중·고교, 대학 구내식당 등 적극 홍보 : 2000년 0톤 → 2011년 500톤

(5) 가공산업 육성

- 북군 서부권(한림읍 금능농공단지 주변) 처리 규모 연간 3만톤(300톤/일 - 풀 가동시 연간 100일 기준)의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으로 산지 가공산업 육성체계를 마련하고 감귤복합가공단지(남원읍 한남리)를 활성화함.
-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처리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함. 해거리 현상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한 탄력적 대응체제를 구축함.
- 직영 대형 선과장과 연계시켜 효율적인 출하 조절 수단으로 활용하고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의 민자유치를 통한 감귤종합단지화를 추진하고 감귤종합단지(Mandarine Complex Town)를 조성함.

(6) 감귤랜드 조성

- 서귀포시 신탄동 산1번지 월라봉 공원에 98,426m² 규모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촌 휴양단지, 직거래장터, 감귤박물관, 세계 감귤전시포장 등을 갖춘 감귤랜드를 조성함.

라. 유통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1) 품질 선과와 유통의 규모경제 실현을 위한 선과시설 대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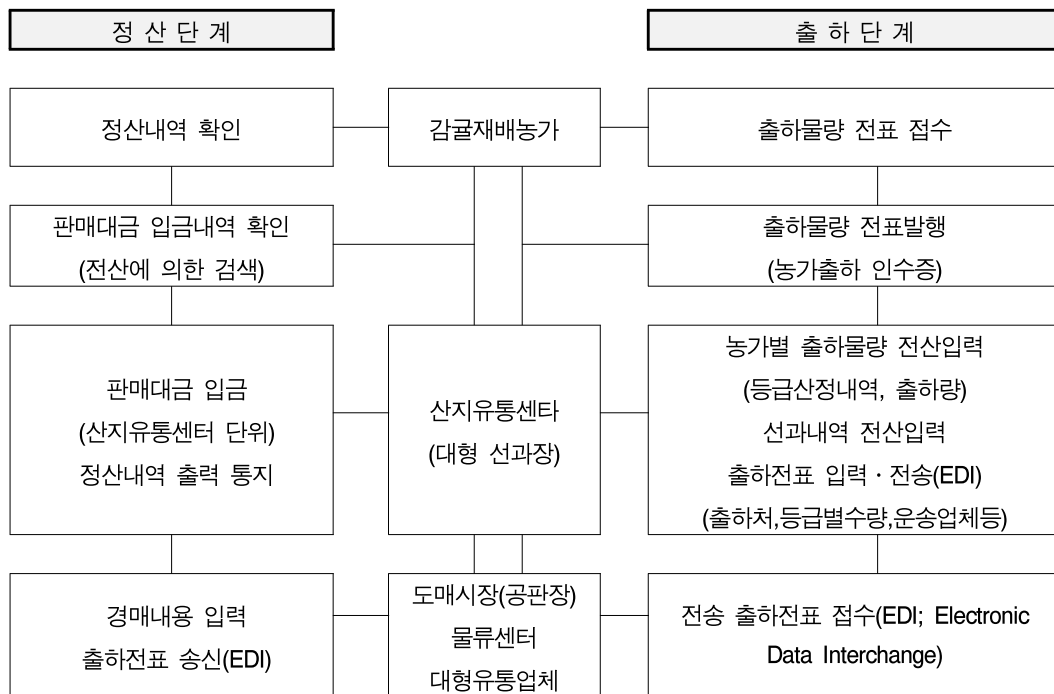
- ‘선과장 등록제’를 실시함. 일정 규모 시설 이하의 선과장 통·폐합 및 신규 선과장 건립을 지양함. 10년 이상 노후 선과기 및 소형 선과기를 우선 정비함. 농협 직영 선과장을 대형화하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APC)로 전환함.
- 기존의 작목반 선과장은 농협 직영 산지유통센터로 통합함. 통·폐합 선과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함. 시설 이용형에서 탈피하여 수익형·종합형으로 발전시킴.

<표 Ⅲ-4-14> 연차별 선과장 정비계획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2011
선과장정비(개소)	562	49	73	118	153	169	250
총선과장수(개소)	892	843	770	652	499	330	80

(2) '공동출하·공동계산제' 추진

- '공동출하 및 공동계산제'를 감귤 유통개혁의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대형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함.
- 출하조절을 통한 시장 대응력 제고 및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 대량주문 체계에 부응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대형 선과장(산지유통센터) 체제와 연계하여 추진함.



<그림 Ⅲ-4-3> 공동계산제 체계도

(3) 작목반 조직 정비

- 작목반의 규약 및 운영체계를 정비함. 작목반 단위 품질관리 협약서를 제정하여 운영함. 품질 등급제 시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율평가제'를 운영함.
- 작목반에 대한 평가 실시 및 우수 작목반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통합 작목반에 대해서는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사업을 우선 지원함.
- 작목반 자율적 통합 유도 : 2000년 594개소 → 2011년 130개소, 소규모 작목반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마을 1작목반 체제로 자율적으로 정비함.
- 작목반 단위로의 생산 관련 지원은 하되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은 전면 중단하여 대형선과장 체제로 유통의 방향을 조정함.

(4)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 감귤의 운송,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설비를 규격화, 기계화하여 물류비를 절감함. 단위 화물적재시스템(ULS : Unit Load System)을 구축하고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Pool System)를 마련함.
-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하여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고 물류 표준화를 위해 파렛트,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유통시설(선과시설 포함) 개·보수 자금을 지원함.
- 지원 대상 : 생산자조직 [농협(대형선과장), 영농법인, 작목반] 기관, 단체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함. 농산물 물류 표준화(자동선과기 개량 등)사업 관련 지원 대상을 홍보함.

(5) 감귤 규격출하 지원

- 규격 포장상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함. ULS에 의한 물류 표준화 및 일괄 수송체계를 구축함.
- 유통비용 절감 : 1999년 31.7% → 2006년 25% → 2011년 20%
- 지원 대상 : 규격 출하 상자를 이용하여 출하하는 생산자 조직인 농협, 작목반, 작목회, 영농조합법인, 광센서 대형선과장 우선 지원

(6) 감귤 포장 및 출하 규격의 다양화

- 감귤 포장 및 출하규격을 소비자, 소비지 위주의 유통체제로 전환함.
- 노지감귤 출하상자 규격을 개선함. 현행 15, 10, 5kg 기준 → 15, 10, 5, 3kg(망포장) 기준
- 감귤 출하규격 개선 : 9단계 → 5단계로 축소(1번과~9번과 → 특대, 대, 중, 소, 특소)
- 각 지역 단위(지역농협 또는 직영대형선과장)별 고유 Brand 개발을 지원함.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도비 20%, 시군비 30%, 자부담 50%)
- 다양한 규격의 포장상자 생산 추진. 현행 생산 포장상자 규격(15kg)을 15, 10, 5, 3kg 등 다양하게 칼라 포장상자 생산을 위한 공장시설 추진

(7) '감귤유통명령제'의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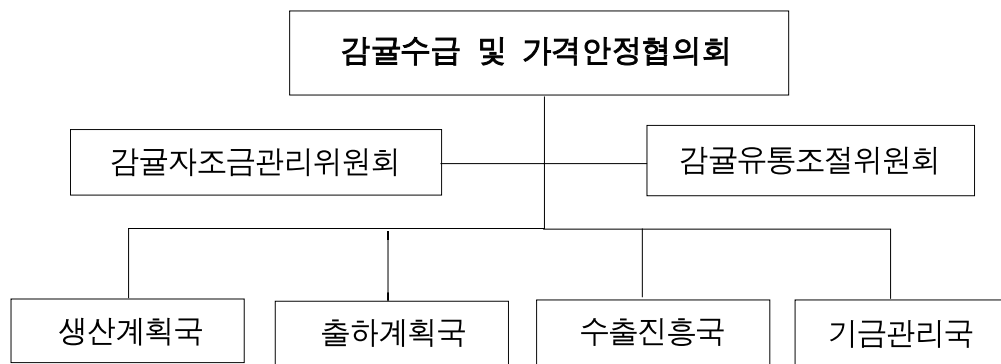
- 감귤의 문제를 전국적 차원에서 수급조절하기 위해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체계 내에서 해결하고자 함.
- '감귤 유통명령제(Marketing Order)'는 감귤의 시장유통 물량규제 또는 품질 규제, 시장 지원활동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과 유통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자조직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농림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생산자와 중간유통업자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제도임.
- 유통명령제의 도입 절차 : 1단계(유통명령제의 도입여부 결정), 2단계(유통명령요청서 작성 및 확정), 3단계(농림부의 검토·확정·공표) → 농림부는 유통명령요청서를 검토·조정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희 등 의견수렴을 마친 후, 유통명령안을 확정·공표하고 실행에 들어감.
- 유통명령의 시행주체 : 유통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유통조절추진위원회 또는 생산자 단체(법인)로 정하고 있음. 감귤출하연합회(1안), 제주감귤협의회(2안), 감귤수급 및 가격안정협의회(3안)

(8) '감귤자조금제' 도입

- WTO체제하의 감귤류 수입 개방에 따른 감귤수급 및 가격 불안정, 소득 불확실과 같은 기본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 스스로 연합하여 외적·내적인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대책으로 '감귤자조금제'를 도입함.
- 자조금은 정부의 보조금을 포함하여 소비촉진, 시장개척, 유통협약·유통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 자조금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에 주력하고 감귤산업발전기금·감귤진흥기금·감귤류수입판매기금은 가격불안에 의한 손실보전에 주력함.
-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조금을 적립하며 조성 방법과 용도는 '감귤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자조금 조성 목표 : 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결정

(9) 감귤 관련 기구의 조정

- 감귤자조금의 구성과 감귤관련기구 및 관련자금의 통·폐합을 통해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운영이 필요함.
- 감귤관련기구인 제주감귤협의회, 감귤출하연합회, 감귤류수입관리운영위원회, 감귤적정생산협의회, 감귤진흥기금위원회 등을 통·폐합하여 (가칭) ‘감귤수급및가격안정협의회’(사단법인)를 두고 그 산하에 생산계획국, 출하계획국, 수출진흥국, 기금관리국과 같은 하부기구를 두어 운영함.
- 주요역할 : ‘감귤유통명령제’와 자조금 조성의 주체



<그림 Ⅲ-4-4> 감귤수급 및 가격안정협의회 조직도

(10) 감귤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감귤출하 및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넷 프로그램과 재배 현황에 대한 농가별 관리 프로그램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축함.
- 과학적인 감귤 생산(예상)량 관측을 위한 전산관리 시스템과 출하조절,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도입을 위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함.
- 감귤 재배 현황 종합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제주도), 감귤 생산(예상)량 관측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농업기술원), 출하 및 가격정보 인터넷 제공 시스템 개발(출하연합회), 전자상거래 시스템 개발(농협), 대형선과장 전산화 시스템 구축(농협)

제3절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1. 현황

가. 일반축산

- 축산농가 및 인구 : 가구수 5,012호, 인구 2만48명 (남 : 9,903명, 여 : 1만145명)
- 가축사육기반 : 목장 : 116개소 (관영 5개소, 전·기업목장 30개소, 마을공동목장 81개소),
목야지 : 면적 6만5,695 ha(개량초지 1만9,671ha)

<표 III-4-15> 가축 사육 현황 (2000년)

(단위 : 호, 두, 군)

구 분	소				말	돼지	닭	양봉
	계	한우	육우	젖소				
호 수	1,145	461	594	90	298	394	232	244
두 수	27,289	10,548	11,184	5,557	7,348	335,645	1,300,049	29,616
농가당 사육규모	24	23	19	62	25	852	5,604	121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조사 결과 (2000. 12. 1 기준).

- 축산물작업장 및 사료공장 : 축산물작업장 4개소 / 축산물공판장 1개소, 도계장 1개소, 우유가공장 2개소, 배합사료공장 2개소 / 가축사료, 완전배합(TMR)사료공장 1개소, 육가공장 37개소
- 2000년도 축산조수입 : 2,622억원 (1999년 대비 12% 증가), 한육우 471억원, 낙농 138억원, 양돈 1,184억원, 양계 216억원, 말 235억원, 양봉 35억원, 기타 343억원, 농가당 조수입 : 5,231만4천원 (1999년 대비 14% 증가)
- 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로 생산·경영·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와 유통의 대형화가 촉진되고, 다양한 유통주체 및 유통경로가 출현되고 있음.
- 천혜의 자연조건과 무공해 청정성을 지닌 고품질 축산물 생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격리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유사시 축산물 통제가 용이하고 전염병 차단이 가능함.
- 농림부는 2001년부터 2조4천억 원을 투입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2001.4.17)함.

나. 낙농

- 중앙정부의 시책과 차별화 되는 지역에 적합한 낙농제도와 시책 수립, 낙농가의 실질적인 기술, 경영, 정보와 관련된 지도교육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인력 구축이 미비된 상태임.

<표 III-4-16> 젖소 증식계획

구 분	2000	2001	2002	2006	2011
농 가 수	90	87	90	100	110
젖 소 두 수	5,557	5,677	6,000	7,000	8,000
호 당 두 수	62	65	67	70	73

- 도내산 원유 공급에 의한 시유 소비의 완전 자급화 추진과 제주산 우유의 기능성 유가공품을 개발함. 가족 노동력 위주의 전업낙농을 정착함. 청정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우유와 유제품의 제주 고유 브랜드화를 추진함.

다. 양돈

- 1993년도 대일 돈육수출 개시 이래 수출 주요 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 2000년 축산조수입 2,622억 중 양돈이 1,184억으로 45.2% 차지, 농가당 돼지 사육 규모 852두
- 1996~2000년까지 청정 종돈 생산 공급기대화 - 제주도축산진흥원, 종돈 600두(상시 돼지 사육 종돈 5,500두), 2001년 5월 30일 국제 수역 사무국(OIE) 제 69차 총회에서 제주도를 구제역청정지역으로 인증
- 사육규모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는 되었으나 경영능력과 생산기술의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및 경영부실이 초래됨.
- 규모의 확장에 따른 가족 노동력 위주에서 고용 노동력 위주로 전환됨에 따른 경영주의 직접관리 회피 경향이 발생함.

<표 III-4-17> 돼지사육 현황

구 분	1960	1970	1980	1990	2000	2001
호 수	44,042	41,432	39,554	1,572	394	407
두 수	48,261	60,296	64,704	109,192	335,645	358,108
호 당	1.1	1.5	1.6	69.5	851.9	880

라. 제주마

- 제주마의 가격은 성마(350kg기준) : (1994) 71만3천원 (1996) 100만원 (2000) 227만5천원, 자마(100kg기준) : (1994) 36만원 (1996) 45만원 (2000) 110만원
- 제주경마장 경주 활용(1990.10.28 개장), 관광승마장 이용 : 22개소 - 1,234필, 말고기 전문음식점 : 7개소(제주시 4, 서귀포시 1, 북제주군 1, 남제주군 1), 말고기 대일 수출 (1990~1997년) : 10.7 M/T - 1억9,800만원

<표 III-4-18> 마필사육 현황

구 분	1960	1970	1980	1986	1990	1998	1999	2000	2001
호 수	4,736	4,064	1,541	413	295	168	167	216	265
두 수	12,077	7,606	2,401	1,347	1,835	4,108	3,478	5,484	6,306

마. 경주마

- 경주마 생산여건 : 연평균 기온 15℃, 강수량 1,558mm로서 마필 사육에 알맞은 아열대 해양 기후로 연중 방목 가능,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 풍부한 초자원 확보
- 육성기반 시설 확보 - 제주 육성 목장 조성(1991~1995년), 면적 : 65만100평, 규모 : 500두, 투자액 : 320억원(마사회 진흥기금)
- 경주마 생산농가 집약화로 생산 효율 향상, 자마 매입가격 현실화로 생산농가 소득 보장, 생산농가의 마주 참여 확대로 불용마 발생 최소화, 중부지원 업무 개선으로 신 규농가 참여 개방, 생산자협회 발전기금 적립으로 자율성 제고 등이 과제임.

<표 III-4-19> 경주마 공급계획

(단위 : 필)

구 분	2000	2001	2005
경주마소요두수	1,350	1,350	2,350
연간교체소요두수	640	670	1,050
공 급 두 수	388	430	790
자 급 율(%)	61	64	75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국제화 개방에 따른 고급 브랜드 제품 개발로 상품의 차별성 제고와 동시에 고급 축산물 수출 전진 기지화를 도모함.
- 축산업의 발전방향은 초식가축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인 「한우개량생산기지」로 조성하되 한우송아지 생산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주 재래가축 유전특성의 규명과 품종 보존 및 이용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 홍보 관련 사업 기관 설립·운영 등을 추진함.

나. 기본방향

- 축산물 완전 개방과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한우산업 및 낙농산업의 생산, 품질, 유통, 안전성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 현재 내수 중심의 축산업을 수출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축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유통비용 절감, 소비자 신뢰 기반 구축,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및 부가가치를 제고함.
- 환경농업과 연계한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새로운 축산 소득원 개발 육성 - 경주마, 재래가축 등
- 재래가축의 유전자 보존이나 육종사업 연구 등 꾸준한 연구 지속, 관광자원화 및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 정착, 제주재래 가축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추진

- 제주마와 경주마의 사육농가의 생산, 조련 등 사육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경마, 승마와 연계한 제도 개선 및 활용도 제고, 전통 마예 문화 및 호스테마파크(Horse Theme Park) 조성

3. 축산업부문의 사업계획

가. 축종별 육성계획

(1) 한우

- 한우증식 : 상시 사육두수 10만두(공동목장 30, 전업목장 65, 농가부업 5) 유지, 송아지 생산비 10% 절감 : (2000년) 82만8천원 → (2011년) 70만원 내외, 한우개량 단지에서 생산된 혈통등록우 입식 - 단계별 한우개량단지화, 계획교배로 혈통등록 관리체계확립, Bio-Tech 활용 우량송아지 생산 공급

<표 III-4-20> 한우 증식계획

(단위 : 두)

구 분	2001	2003	2006	2011
증 식 두 수	9,970	24,700	51,000	100,000
입 식 두 수	1,600	7,600	21,600	40,000

- 제주흑한우 육성 : 흑한우의 조기 증식으로 지역특산품화 - 반출 제한, 흑한우의 혈통 정립을 위한 등록사업 추진, 제주농업시험장과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체계 유지
- 도태계획 : 교잡우 성빈우를 이용한 수정란 이식 수란우로 적극 활용, 교잡우 가임 암소 우선 도태로 근원적 증식 억제, 교잡우 처리와 한우입식 연계 추진으로 농가 사육 기반 유지
- 제주산 한우 차별화 : 안전 축산물 생산관리체계 → 제주형 HACCP-FCG 정착, 개량, 생산, 도축, 가공, 유통의 세계화, 질병 청정화 기반 구축, 도지사 FCG 품질보증제도 확대, 한우고기 브랜드화 및 전문점 확대, 한우고기 대일 수출 시도

- 축산산업 추진체 육성 : 축협, 협회 등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추진협의체 구성, 생산자 단체와 번식·비육농가 계약 사육, 일관 사육된 최종산물은 추진체의 브랜드로 대형 판매장 등을 통하여 시장 진출
- 축산진흥원의 한우개량센타화 : 한우종축장 역할 수행, 한우 사육체계 개선, 비육시험 단지 육성 - 보리급여 등 차별된 브랜드육 생산, 유기축산 시험 육성 - 낙농, 한우가 밀집된 지역에 유기축산 지대로 지정, 송아지경매장 개설 - 가축시장의 활성화

(2) 낙농

- 낙농협업 목장 조성 : 전업 및 신규 낙농가 3~5호 단위로 협업화 공동구매 이용 및 생산성 향상으로 고소득 낙농경영을 추진함.
- 육성우 목장 조성 : 제주낙농축산업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육성우 구입 또는 위탁사육 실시, 젖소 번식육성목장으로 활용, 등록 검정 등 개량센터 역할 수행
- 낙농시설 현대화 : 현 우유처리시설의 현대화와 낙농시설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낙농시설 보완으로 경영 안정 도모, 완전배합 사료(TMR : Total Mixed Rations)시설 확대
- 낙농단지 조성을 통한 협업화와 단지를 중심으로 한 현대식 착유시설과 전문 살균 처리 시설 등을 갖추어 경영 활성화를 모색함.

<표 Ⅲ-4-21> 우유 및 유제품 생산계획

(단위 : 톤)

구 분	2000	2002	2006	2011
원 유	18,116	19,800	24,500	37,000
시 유	14,886	16,300	17,500	27,000
유 제 품 (원유환산)	3,230	3,500	7,000	10,000

- 개량 및 생산성 향상 : 제주낙농연구기술센터 설립
 - 주체 : 생산자단체 또는 낙농전문가
 - 종합컨설팅, 벤치마킹제 도입 · 구성 : 대학, 축산진흥원, 시험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
 - 낙농경영모델 정립 제시 : 생산기술, 위생, 사양관리 방안 제시, HACCP-FCG 도입에 따른 농가 지도

- 개량사업의 극대화 : 고능력 젖소 정액 공급 및 젖소 산유능력 검정, 원유 생산비 절감, 가족중심 전업형 낙농경영으로 경영비 절감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사료부존자원을 최대 활용하며 초 자원을 활용한 방목형 낙농사육 실시
- 품질 개선 및 유통체계 개선 : 유제품의 고급화, 고품질 청정우유 생산체계 확립과 기능성 우유 생산, 저온저장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및 유가공시설 보완 : HACCP 지정 대비 주요시설 보완
- 소비기반 확대 : 우유급식 확대, 제주산 우유홍보 강화, 생산자단체 자구 노력 전개, 자조금 조성 운영

(3) 마필

(가) 제주마

- 혈통 보존 및 관리 : 축산진흥원에서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를 보존하기 위해서 100두 내외를 목표로 생산자마는 등록 및 농가 분양
- 육성마 목장 설립 : 제주도가 국·공유지 면적 30만평 내외 규모를 확보하여 300두 규모의 사육목장을 조성, 운영(마사회)하고 농가에서 생산되는 육성마(6개월령)를 수매, 24개월령까지 육성, 조련 후 마주에게 매각
- 전통 마예 문화 육성 : 한라문화제 행사 및 국내외 이벤트 행사시 마상, 마술, 제마 등을 경연하고 관광상품화
- 제주마 경마 제도 개선 : 제주마 단일경마 시행 - 2003년 이후 등록마 경주 점진적 시행, 혈통등록마경주상금 우대와 생산자 상금제 시행
- 제주마 비육 대일 시범 수출 :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여 마필이용도 제고를 위한 비육사업 전개
- 호스테마파크(Horse Theme Park) 조성 및 관광 자원화 : 제주경주마 육성목장, 제주경마장 주변의 마문화 지역화와 말 관련 이벤트 행사 유치, 제주마 생산자 단체 육성-(가칭) ‘제주마 생산자 협회’

(나) 경주마

- 경주마 생산 전업농가 육성, 공동육성 조련시설, 방역비 지원으로 유산 방지, 마사회 자마 매입 가격 생산비 보장, 생산마 육성 분담을 조정, 생산자의 마주 참여 기회 확대를 불용마 발생 최소화

- 경주마 생산농가 집약화로 생산 효율 향상, 경주마 상금 기준가 현실화, 생산자협회 발전기금 적립 : 100억원 (마사회에서 출연)

<표 III-4-22> 종빈마 도입계획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도 입 두 수	64	44	45	45	80	80
사업비(백만원)	768	528	540	540	960	960

(4) 양돈

- 개량 : 미주형(강건형)→유럽형(산육성)→제주형(HACCP+FCG 종돈 개발)
- 생산 : 지역 실정, 도외 및 국외수출을 고려하여 종돈 생산 및 청정종돈생산기지화 추진
- 위생·방역 : 유해 잔류물질 방지 + 국제 수준 방역→청정화 선언
- 도축가공 : 국제 규격화 + 세균수 10^3 이하(HACCP 적용)→냉장 수출
- 유통 : 자율유통체계 확립(국내 50%, 수출 50%)

<표 III-4-23> 양돈 증식계획

연 도	2001	2002	2003	2011
사육두수	358,108	399,200	431,600	630,000
출하두수	489,015	670,000	749,000	1,028,000

주) 관련부처와 협의 2011년 사육두수 630천두로 절충.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제주도 양돈산업 발전대책('97~2010)에 제시된 사육두수로서 향후 탄력적으로 추진
 자료 : 제주도, 「축산업 진흥계획」, 1998.

- 돼지고기 재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 지원, 냉장육 수출 확대, 사육기 반시설 보완(36개소) 및 양돈단지 신규 조성(6개소)
- 제주형 HACCP-FCG 종돈 공급 확대 시행 : 제주도축산진흥원 내 청정종돈장 역할 강화, 모계통(렌드레이스, 대요크셔)과 부계통(듀록)을 이용한 개량목표 설정 추진, 제주도 전역을 단일개량권으로 피라미드형의 종돈공급체계 활성화

(5) 양계

- 현 사육두수 유지를 원칙으로 목표년도 적정 사육두수 판단, 대도시 판매망(계란집하장 및 양계산물 직판장 시설) 확충, 계란 등급제 대비와 닭고기 등급 판정제에 따른 시설 확충
- 양계산물 수급 조절 및 소비 촉진 :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사육 및 가격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농가의 자율적 참여로 인한 사육두수 조절,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을 활용한 닭고기, 계란 소비 촉진 홍보
- 계란 및 닭고기를 돼지고기 수출과 연계한 대일 수출방안 검토, 기존 양계단지의 운영 활성화 및 도계장 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 닭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 계사시설이 노후한 농가 및 자동화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현 사육 규모 내에서 계사 개축 및 자동화시설 설치 유도, 가족노동력 위주의 양계 전업농 육성

(6) 양봉

- 도내 밀원식물의 지역별, 고지별, 계절별 분포에 따라 인공적인 밀원식물지대를 조성하여 관광산업과 연계 추진
- 도내 양봉농가 중 일정지역을 한봉(토종벌) 사육지역으로 지정 육성
- 축사(벌통)시설 자금 지원을 통한 노후 벌통교체로 비용절감 및 질병예방, 벌통 균일화(규격화)추진
- 꿀벌 월동 저온저장고 설치
- 종봉개량 사업 추진 : 도내 꿀벌품종 개량으로 벌꿀 수집량 확대, 벌꿀의 만성적 질병 퇴치
- 벌꿀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및 브랜드 사업 지원 : 청정지역이미지로 유통시장 차별화 추진(HACCP-FCG)도입
- 양봉산물 유통체계 개선 및 대책 : 큰 병 포장용기를 작은 병 포장용기로 전환, 벌꿀 종류별(유채꿀, 밀감꿀, 잡화꿀) 품질인증제 도입, 축산물 FCG 벌꿀 규격화 관리로 불량 벌꿀 일소 추진

나. 청정축산지역 지정 및 위생관리

(1)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방역으로 농가피해 최소화,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주요 가축 전염병(9종)의 근절, 보건 위생 수준 향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 및 안전성 확보로 국민위생수준 제고

(2) 구제역 청정지역 인정

- OIE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 제주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최종 인증(국제수역사무국 제 69차 총회 2001. 5. 30)
- 구제역 발생국가로부터 우제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 수입 금지, 구제역 발생국 여행을 삼가하고, 특히 가축사육농장과 관련 시설의 방문 금지, 해외가축전염병 연구 강화, 강력한 방역정책 지속 시행, 구제역 대책 연구정보 지속적 수집

(3) 타도산 반입가축 방역

- 관련 규정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0조 / 소(구제역, 부르셀라병, 결핵병), 돼지(구제역, 돈 콜레라 및 오제스키병), 면양, 사슴(구제역)
- 반입축 관리 및 검사, 검사결과 조치(양성축 : 살처분 조치, 양성 동거우 : 도태 또는 원산지 반송)

(4) 축산환경(냄새, 해충) 개선

- 최근 냄새, 해충 발생으로 인하여 사회문제화 대두, 축산환경(냄새, 해충)의 획기적 개선, 축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발전
- 환경개선 미생물 제재(효소 및 균제)를 사료에 혼합하여 돼지, 닭, 비육우, 착유우 등 대상 가축에 급여, 90% 냄새 감소, 72% 파리 발생 감소 효과 발생

(5) 가축질병 방역대책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최소화 함으로써 양축농가 보호, 제주도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 돼지, 말질병 발생 억제로 농가 경제 손실 방지, 돼지 설사병, 생식기, 호흡기 방역 소질병 방역

(6) 소전염병(부루셀라병, 결핵병) 청정화

- 1단계 (2000년~2001년) : 근절 완료단계, 2단계 (2002년) : 근절 확인단계, 3단계 (2003년) : 청정화 선언

(7) 축산물 위생관리 대책

-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 검사기관 : 축산진흥원, 검사대상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 가공품 등
- 축산물 위생감시 강화 : HACCP제도의 조기 정착

다. 축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생산·기술 기반 구축

(1) 유통체계 개선

- 유통체제 개선 : (현행) 냉동육, 지육 → (개선) 냉장육, 부분육
- 축산물 가공처리 시설의 단계별 보완 확충 → 전 축산물 저온저장체계(Cold chain system)화, 무공해 청정 이미지로 시장 차별화

(2) 유통대책

- 부위별, 종류별, 등급별 구분 판매, 부분육 유통체계 확립, 소비자 가격 연동제 실시, 생산자 단체 조직화, 생축 유통 개선, 대도시 축산물 판매기반 확충, 제주산 축산물의 마케팅 전략 수립

(3)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

- 가축분뇨 자원화 : 축분퇴비와 액비의 자원화 시설 확충을 위하여 축산 분뇨 처리시설과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자금 지원, 축분퇴비의 수요 확대를 위하여 농·감협과 축협의 축분 퇴비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 축산환경(냄새, 해충) 개선 : 축산환경(냄새, 해충)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축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육성 발전

(4)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한우송아지 생산기지화와 연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조성, 소사육 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 공급 확대, 개발 가능한 유희 국·공유지 초지 개발 촉진

- 초지 조성 : 초지 조성 규모 적정화(20~50ha이상 규모로 조성), 국·공유지 적극 개발 및 임대절차 간소화, 집약권 초지 조성 관리 체계 확립 - 초지 적지조사 강화

<표 III-4-24> 초지 조성 및 보완계획

(단위 : ha)

구 분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2011
초 지 조 성	35	60	60	60	60	500
초 지 보 완	354	1,000	1,000	1,000	1,000	10,000
사 료 작 물	3,960	4,500	5,000	5,500	6,000	50,000

- 초지 관리 : 초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우량 초지화, 축산분뇨이용, 잡석·잡관목 제거, 초지 전용 및 제한 행위 억제로 초자원 보호, 사료작물 재배, 관리 확대 개선
- 부존자원 사료화 개발 이용 :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 부산물과 기존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는 사양체계 개발 보급, 감귤박, 당근 등을 이용한 완전배합사료(TMR) 사업의 적극 추진

(5) 축산기술 개발 및 컨설팅체계 구축

- 개량정보 시스템 구축 : 제주도축산진흥원이 추진주체가 되어 지역축협(축산물공판장 포함), 종축개량협회, 시·군과 협력하여 개량정보 시스템 구축
- 축산물브랜드 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 본도 여건에 적합한 생산기술 개발, 능력 개량 및 번식 효율 향상 기술, 생산비 절감 및 육성기술 개발, 수출용 규격품 생산을 위한 혈통체계 구축 및 사양기술 개발 농가 실용화
- 농가컨설팅 기능 강화 : 제주도축산진흥원 주관으로 제주농업시험장, 대학, 농협,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컨설팅팀 구성하여 고급육 생산기술 농가 보급 및 지도, 번식기술 보급, 질병 발생 저감 및 청정화 유지를 위한 대책 수립
- 사료공장 건립 : 축협컨소시엄이 추진주체가 되어 2008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융자 70억원, 보조 20억원, 자담 10억원)을 투자하여 사료공장을 건립함.

제4절 신해양시대 개척을 위한 해양·수산업 육성

1. 현황

가. 어업가구 및 인구

- 2000년 말 기준 어업가구와 어업인구는 각각 6,715호, 2만1,281명으로 전국의 8.2%, 8.5%를 차지하고 있음. 종사자는 7,976명으로써 전국 13만9,837명의 5.7%를 점유함.

<표 III-4-25> 어업가구 및 인구 (2000년)

(단위 : 호, 명)

구 분	어 업 가 구	어 업 인 구	어 업 종 사 자
제 주	6,715	21,281	7,976
전 국	81,571	251,349	139,837
점 유 율(%)	8.2	8.5	5.7

자료 : 제주도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2001.

나. 수산물 생산

- 2000년 수산물 생산량은 4만4,127톤임. 조수입은 고가 어종인 갈치, 양식 넙치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1999년 2,894억원보다 15.8%가 증가한 3,352억원임.
- 주요 어종별 생산고는 양식 넙치 1만10톤 · 1,338억원, 갈치 1만4,298톤 · 1,135억원, 조기류 2,698톤 · 300억원, 옥돔 1,521톤 · 172억원 순임.

<표 III-4-26> 수산물 생산량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합 계	어 류	연 체 동 물	해 조 류	기 타
1997	수 량	48,943	31,281	4,756	11,167	1,739
	금 액	273,500	236,468	24,038	7,087	5,907
1998	수 량	56,063	43,301	4,383	7,531	848
	금 액	240,672	211,982	22,673	4,359	1,658
1999	수 량	53,192	40,828	4,171	7,544	649
	금 액	289,408	263,161	17,632	7,456	1,159
2000	수 량	44,127	33,211	3,871	6,418	627
	금 액	335,172	309,332	20,054	3,835	1,951

자료 : 제주도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2001.

다. 어선세력

- 2000년 말 어선 수는 총 3,303척으로 이중 3,006척이 10톤 미만으로 영세성을 보임. 이는 우리나라 전체 어선수 9만5,890척의 3.4%에 지나지 않으며 척당 평균 톤수는 6.08톤으로 전국 9.6톤에 비해 작은 편임.

<표 III-4-27> 어선세력 추이

구	분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합 계	척 수	1,338	1,777	2,055	2,325	2,731	3,094	3,303
	톤 수	7,281	9,856	14,000	16,572	18,760	19,851	20,107
	척 당 평 균 톤 수(전국)	5.4 (10.0)	5.5 (9.4)	6.8 (9.8)	7.1 (12.5)	6.87 (10.75)	6.41 (10.45)	6.08 (9.6)
동 력 어 선 수		1,134	1,546	1,894	2,299	2,715	3,079	3,289
무 동 력 어 선 수		204	231	161	26	16	15	14

자료 : 제주도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2001.

라. 어항

- 어항은 모두 99개소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국가 어항 6개항,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 18개항,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어촌 정주어항 75개소가 있음.

<표 III-4-28> 어항 현황 (2000년)

구	분	합	계	국 가 어 항	지 방 어 항	어촌정주어항
제	주	99		6	18	75
전	국	2,239		105	317	1,817
대	비(%)	4.4		5.7	5.7	4.1

주 : 2002.1.31부터 1,3종어항은 국가어항, 2종어항은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은 어촌정주 어항으로 변경됨.

자료 : 제주도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2001.

마. 항만

- 총 7개의 항만이 있으며 2개의 무역항(제주, 서귀포), 5개의 연안항(성산포, 화순, 한림, 애월, 추자)이 있음.
- 연안항의 총 수용량은 대형선박(1,000톤 이상) 39척과 소형선박(100~1000톤) 34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음. 제주항은 도내에서 가장 큰 항구로 최대용량 2만 톤급 선박이 정박할 수 있음. 서귀포항은 제 2의 무역항으로 해운물류의 이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바. 수산물 수출

- 2000년 말 현재 수산물 수출은 3,826만2천불로 1999년도 3,312만3천불에 비해 15.5%가 증가함.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넙치 1,784만3천불, 소라 1,347만8천불, 찐돔 252만2천불임.

<표 III-4-29> 수산물 수출 추이

(단위 : 천 \$)

구 분	1990	1997	1998	1999	2000
합 계	24,446	21,732	26,922	33,123	38,262
활 선 어	11,511	6,014	10,448	14,378	19,312
패 류	6,759	10,089	9,832	11,234	13,686
해조제품	6,121	4,991	5,445	6,142	5,196
기 타	55	638	1,197	1,369	68

자료 : 제주도 해양수산과, 내부자료, 2001.

사. 양식어업 개발

- 양식어업 건수는 총 241건으로 이중 육상 수조식 넙치 양식장이 210건으로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능력도 연 1만2,600톤으로 전체 생산능력 대비 97.8%를 점유함.
- 최근에는 전복 양식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18개소가 운영중임.

<표 III-4-30> 해면양식 현황

(단위 : ha, 톤)

구 분		개 수	면 적	양식수면적	생산능력
합 계		241	151.8	75.7	12,888
어 류 양 식		218	131	66	12,730
어 류 양 식	가 두 리 식 (방 어, 돔 류)	7	12.2	1.2	120
	육 상 수 조 식 (넙 치)	210	115.8	63.3	12,600
	축 제 식 (어 류)	1	3	1.5	10
패 류 기 타		23	20.08	9.7	158
패 류 기 타	수 조 식(전복)	18	3.7	1.4	148
	수 하 식(진주,전복)	5	17.1	8.3	10

자료 : 제주도 해양수산과, 「현황자료」,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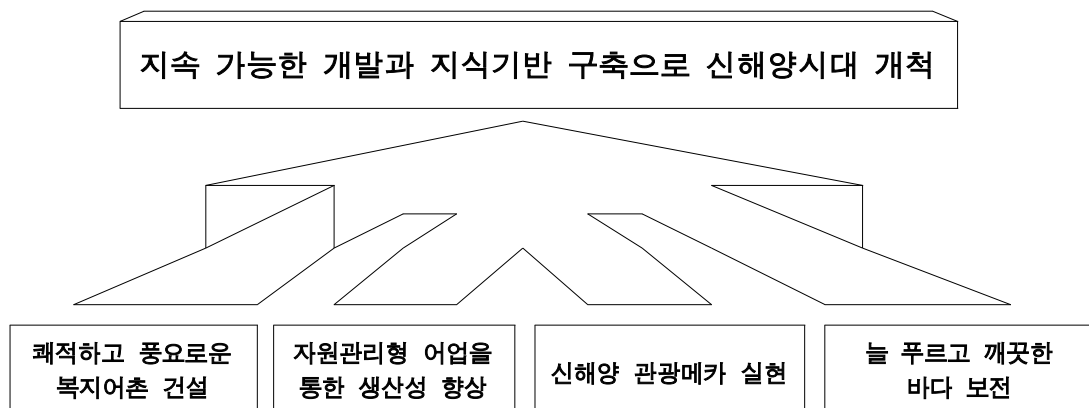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제주지역 어촌은 동일 생활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군 지역의 일부 어촌은 영세한 소득기반, 취약한 기반시설로 시 지역보다 생활환경이 낙후함. 소규모의 항·포구는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정비는 안됨.
- 연안어업 위주의 영세한 어업구조 및 어항시설, 유통시설, 선원 부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의 약 80%가 소규모 어항에 불과하여 어선 입·출항 및 어선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마을어업은 어획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원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나. 기본방향

- 쾌적하고 풍요로운 복지어촌 건설 : 생산기반 확충 + 정주환경 개선
- 어선어업의 경영 안정 도모 : 어선자동화 + 어업구조 조정
- 자원 관리형 어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 수산동물의 행동·환경 제어기술 도입 + 자원 + 어장 조성
- 고품질 ·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 : BT 산업 활성화 + 신품종 양식
- 신해양 관광 메카 실현 : 깨끗한 바다 + 체험·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
- 늘 푸르고 깨끗한 바다 보전 : 연안통합관리 + 해양오염원 체계적 관리



<그림 III-4-5> 해양·수산업의 발전방향

3. 해양·수산업부문의 사업계획

<표 III-4-31> 해양·수산업부문의 사업계획

분 야 별		추진전략
해양분야	해양관광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 및 해중 관광 레크레이션 사업 개발 · 레크레이션 전용 마리나항의 개발 · 관광부대시설 확충 · 해양박물관 건립
수산업분야	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및 어촌정주 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정주권 확보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집중 투자 · 어선자동화 지원 및 어업구조 조정
	수산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형 어업 정착화 · EEZ 설정에 따른 주변국과 공동 자원관리체제 구축 · 제주도 주변의 어업질서 확립
	마을어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어장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확대 · 생태 체험관광과 마을어업과의 연계 개발 · 마을어장 평가제 도입 및 인센티브제 도입 · 해양정보시스템을 통한 수산물 통계관리
	기르는 어업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어종 중점 양식 · 제주형 바다목장 조성 · 수산동물 대량생산 방류
	수산물 유통 및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시장 중심의 유통시설 확대 · 수출전략 품목의 집중육성 및 신품목 개발 · 특화 가공수출로 부가가치 향상 · 수출국의 다양화 (일본 → 중국, 동남아)
	지방연구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물을 이용한 해양 BT산업의 기초연구 강화 · 산·학·연 공동연구 및 벤처산업 지원

가. 해양관광 활성화

(1) 해양관광권역 설정

- 해양관광을 위한 권역은 기존의 관광중심지, 관광개발계획, 관광형태, 생활권, 지형,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4대 권역으로 설정함.

<표 III-4-32> 해양 관광개발의 권역 설정

권역구분	소 권	제안 및 활용 방안
제주시권역	도심권, 외곽권	해안도로의 친수 관광벨트화
서귀포시권역	중문권, 서귀권	바닷가 마을의 체험 생태관광, 서귀포시립해양공원 및 섬 주변의 해양생태관광
남제주군권역	남군동부권 남군서부권	성산권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 사계리 어촌관광 등
북제주군권역	북군동부권 북군서부권	추자도, 비양도, 차귀도 등 해양레저 관광, 구좌 토끼섬 주변의 마을별 특화 관광

(2) 해상관광 레크레이션 개발

- 기반 시설(계류시설, 레저스포츠 교육 및 관리실), 기본 장비(바다낚시 도구, 페리세일링, 윈드서핑,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부대 시설(관광민박, 해양레저센터, 해변레스토랑 등)
- 사업비 조성 : 기반 시설(제주도 및 시·군), 부대 시설 및 장비(사업 경영주체, 어촌계 및 민자유치), 사업 지구(기존의 해양 민박시설 및 해상 관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

(3) 해중 관광활동 개발

- 잠수함 및 투명바닥선박(glass bottom boat)을 이용한 해중관광은 현재 서귀포 연안에 국한되고 있음.
- 다양한 해중관광 활동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해양조사를 토대로 투자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가 필요함.
- 타 지역과 차별화 된 해중 관광상품을 개발함(민박형 스쿠버다이빙 관광상품 개발 및 스쿠버교육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
- 사업지구 선정 : 기존의 서귀포연안 이외에 송악산 지구, 성산일출봉 일대, 북제주군 고산 및 추자도 등으로 사업지구를 확장함.
- 주요 사업 : 어촌계사업(민박채류형 스쿠버다이빙 및 다이빙 펜션업 추진), 민자유치 사업(해중전망대 및 부대시설, 투명바닥선박을 이용한 관광유람선 사업 등)
- 제 1 단계 : 스쿠버다이빙 지구 개발, 투명바닥 유람선 건조, 제 2 단계 : 해중전망대 및 부대시설 건립

(4) 해양 체험관광 개발

- 효율적인 해양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안 경승지 관광에 생태체험관광을 접목시킴.
- 생태체험관광은 자연생태계의 보전 및 교육장소로 활용함.
- 어촌계 및 지역주민에 대한 해양생태관광의 장점, 중요성 홍보 및 사업 참여 유도
- 후보지역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토대로 생태관광 자원도 작성 및 사업지를 선정함.
- 기존의 해상공원 (서귀포, 우도, 추자도 등) 자원을 활용하여 생태체험관광을 개발함.

(5) 해양레크레이션 전용 마리나항 개발

- 기존 소형 포구 중 주변의 해안이 요트 세일링이나 레저용 소형 동력선 운항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어항과 마리나항이 공존하는 복합형 어항으로 전환함.
- 마리나항 시설과 관광부대시설을 연계한 해양레크레이션 기지를 조성함.

(6) 해양낚시공원 개발

- 해수욕장 또는 기존 관광단지 주변에 낚시잔교(Fishing Pier)를 설치하여 해양관광 상품으로 개발함.
- 낚시잔교(Fishing Pier)를 친환경적 시설로 개발, 어업과 유어기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낚시면허제’를 도입함.
- 바다낚시를 갯바위나 낚시어선 등을 이용한 전문 낚시관광 상품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 형태로 전환함.

(7) 해양문화 체험·체류형 숙박시설 확충

- 현재 고산, 광지, 오조, 온평 및 위미 1리 등지에서 어촌민박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관광상품으로 호평을 받고 있음.
- 기존 어촌민박 등을 정비하고 단지 개념의 신규 민박단지를 조성함. 각 어촌별 특색에 맞는 주제(theme)를 개발하여 주제와 일치하는 문화형 민박을 추진함.
- 민박단지 조성 시 지역의 향토성이 가미된 건축기술 개발을 지원함.

나. 어촌 정주환경 개선 및 수산업 발전전략

(1) 어촌종합 개발

- 어촌의 친수공간은 자연적·인위적인 여러 가지 친수활동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양문화를 이용한 새로운 관광공간으로 활용가능성이 크므로, 향토성이 가미된 건축기술 개발을 통한 경관 조성이 요구됨.
- 수산업에 의한 어촌소득은 한계에 달해 있으므로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서 해양관광 개발과의 연계가 절실히 요구되며 어촌계 및 지역주민이 개발 주체로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바다, 어항, 어촌을 연계 이용한 특성 있는 어촌종합 개발, 쾌적한 어촌 생활환경 정비를 통한 정주권 확보,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풍요로운 어촌을 실현함.

(2) 어촌의 이벤트 소재 개발 및 주민 교육

- 어촌의 생활환경은 다른 지역보다도 낙후되어 있고, 어장 축소, 해양오염 등으로 생산력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관광산업은 무엇보다도 고도의 서비스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어촌지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은 실정임.
- 어촌지역 해양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의식과 해양관광 관련사업에 대한 기본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해야 함.
- 관광부문의 전문 교육자에 의한 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해양관광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 어촌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 자연생태를 소재로 한 소형 이벤트 개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관광요소가 풍부한 어촌의 집중 투자, 어촌 주민의 참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지역의 상징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해양축제 개발, 전도적 차원에서 국제해양박람회 등 국제 규모의 이벤트를 유치함.

(3) 다기능 종합어항의 개발

- 지정어항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목표로 집중 투자하고 있으나 어촌정주어항(소규모 어항)은 분산 투자로 목표달성에 보다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방파제 및 물양장 등 어업기본시설에 대한 우선 투자, 적극적인 민자유치로 어항기능 시설 확충, 어선정박·관광·유통 기능을 갖춘 종합어항으로 개발함.
- 어항을 지역 균형개발 및 정주권과 매력적이고 쾌적한 휴식·교류의 공간으로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어촌·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함.

(4) 어선의 현대화 시설

- 일반적으로 어선에는 디젤엔진이 이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엔진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이며 또한 오염발생량이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 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함.
- 노후어선의 선령기준을 낮추고 저효율성 기관 대체, 어로 장비 현대화 및 적정 규모의 어선 대체 지원 및 선원 복지 향상, 어선장비, 설비의 현대화, 자동화로 기술집약형 어업으로 전환함.

(5) 제주형 다목적 어선 개발

- 해양수산부 「수산진흥종합대책」(1999. 8)의 인력 절감형 다목적 어선 개발에 의한 사업지원 근거를 마련함.
- 어업종사자의 감소 추세에 따라 부부중심형 어업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제주형 다목적 어선 개발을 위한 선진 기술을 도입함.

(6) 연근해 어업의 구조조정

- 연근해 어선 중 10톤 미만 소형어선이 9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감척 등 구조 조정이 필요함.
- 연근해 어업에 대한 실태 조사,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새로운 어업체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어선의 우선 감척, 연근해 어선의 경제성 톤수 및 규모화 설정 등 자원남획형 업종부터 단계적 감축을 추진함.

(7) 어업인 특별지원체제 확립

-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병행한 어업지원특별대책의 지속 추진

- 어업특별지원에 따른 기금 등 재원을 확보함.

(8) 조업시스템의 기계화·자동화

- 주업종인 연승, 채낚기어업에 대하여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주관으로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타 어업에 대해서도 조업시스템의 기계화·자동화를 연차적으로 개발 추진함.
- 개발된 기계화·자동화 조업시스템 구입자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함.

다. 어업 인력 육성 및 정보화 사업

(1) 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차세대 해양수산인 육성을 위한 어린이 해양교육 기회 확대와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등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통하여 수산 인력을 육성함.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어촌 인력 부족으로 선원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어업종사자의 여성화, 고령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
- 어업인 후계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으로 경영 안정 및 전문어업인을 육성함.

(2) 어업질서 확립

-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제주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5척)은 대부분 소형으로 기상 악화시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 한·일, 한·중 어업협정 관련 외국어선 특별단속대책을 추진하고 불법어업 신고체제를 확립함.
- 도·시·군 합동 단속 및 주요 어업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제주해역에 맞는 대형 어업지도선 확보 및 어업지도선의 통합적 관리체제를 구축함.

(3) 어해황 예보 및 어업정보시스템 구축

- 어구어법의 정보 전산화를 추진하고, 제주도 연구기관 내의 해양 관측 및 기상 관측 장비를 확보함.
- 제주 연안에 적합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해양정보 통신망을 구축함.

- 해양 예보시스템을 가동·운용하고, 해양수산정보 시스템 및 종합정보망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4) BT산업 활성화를 통한 양식 개발

- 청정한 제주해역은 양식어업의 최적지이며 또한 생산어종의 질적 우위를 갖고 있어 새로운 육종 기술 개발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됨.
- BT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양식 품종을 차별화하고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 효율성을 증대함.
- BT산업기술 도입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제주대학교 ‘바이오산업지역 기술혁신센터’와의 공동 연구지원체제를 구축함.

(5) 양식질병 센터 설치 운영

- 연안환경 오염 및 어장노화로 양식 환경이 악화되고 고밀도, 가온 사육 및 품종 열성화로 양식생물의 항병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수질환경 악화에 따라 병원생물 및 병원성이 증대되어 대량 폐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함.
- 어병 발생 예방 및 신속한 방역체제를 구축하고,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함.
- 질병에 관한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의 상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DNA 백신을 비롯한 직접적인 방법과 어류의 생리 활성 증대를 위한 생리활성물질의 개발과 공급법을 개발함.

(6) 양식 정보화센터 운영

- 유통 및 시장가격 등에 대한 실시간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등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계획 생산체제를 달성함.
- 질병에 대한 예방과 방역에 대한 신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함.

(7) 연안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어획물에 대한 각종 자료 보고를 의무화하여 전체적인 자원량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어업별 자원관리가 필요함.

- 어업인 자원에 의한 어업 및 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어장 조성사업 확대를 통한 연안자원을 증강함.
- 유자망, 정치망 및 멸치분기초망의 망목 규제, 상품성 제고 및 예비자원을 보호하고 멸치분기초망, 방어채낚기 어업의 조업질서 및 어가 유지를 위한 ‘윤번제조업제’를 도입함.
- 제주연안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해조장을 조성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휴어해역’의 운영을 검토함.

라. 바다목장화 사업 및 유통구조 개선

(1) 제주형 바다목장화 시범 개발

- 환경 친화적인 바다목장화의 기반을 조성(해양환경, 자원량, 생물의 생리생태, 어장조성 시설물 조사)하여 생산성을 증대함.
- 바다목장화 적용 기술(환경관리 및 환경모니터링시스템 적용, 음향급이기, 해조장 및 어초어장 조성, 우량종묘 대량 생산)을 개발함.
- 바다목장화의 실용화 사업(환경모니터링 시스템 정착, 해수흐름 및 에어커텐 등에 의한 어장환경 제어기술, 서식생태에 적합한 어초어장 조성기술, 바다목장에 적합한 어구어법 개발)을 추진함.

(2) ‘환태평양수산자원조성센터’ 설립

- 제주도는 환태평양 진출기지로 동북아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수산자원 연구의 중심으로 최적임.
- 21세기 수산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양식 기술의 개발과 우리나라 해양수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원센터의 육성이 필요함.
- ‘환태평양수산자원조성센터’를 설립하여 인근 국가와의 자원 우선권을 확보함.
-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참여 확대를 통하여 국제적인 자원 관리체제를 운영함.
- 한·일 양국 연접수역 자원 조성으로 어업자원의 효율적인 증강 관리를 모색함.

(3) 백화현상 발생에 따른 대책

- 서귀포시를 비롯한 남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화현상 발생수심은 북제주군 지역 4m 내외, 서귀포지역 8m 까지 확산되고 있음.
- 백화현상 발생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및 투자를 실시하고 지방차원의 어장 복원을 위한 해중림 시험 사업을 실시함.
- 해조류, 전복, 성게 등 해초의 착생 기반 조성을 위한 품종별 인공해조초를 제작·투하함.

(4) 마을어장 자원 조성 및 관리

- 마을어업 종사자는 어업종사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령화 추세이며 어장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생산성이 감소되고 있음.
- 자원관리 인식전환교육 확대로 어업인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주요 소득자원량 증대를 위한 ‘휴식년제’를 도입함.
- 해조번식장 조성 및 유용생물 서식장소 제공을 위한 투석을 확대하고 전복 채취 휴식년제 시범 시행 후 전 어촌계로 확대하는 등 체계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생산실태 기록 및 분석체제를 확립함.

(5) 잠수 복지 향상

- 고된 조업환경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잠수(총 잠수인력 : 5,789명)들에 대하여 사회보장 차원에서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이 필요함.
-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16억1,4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여 제주·서귀포의료원 등 종합병원에서 연 8만3,561명을 무료 진료한 바 있으며 2002년 1월부터는 읍·면지역 병의원까지 확대·운영하고 있음.
- 잠수 특수 질병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잠수들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함.
- 잠수질병 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함.

(6) 수산물 수출·입 관리체제 개선

- 수산업은 일본시장에 의존적·종속적 수출관계에 있어 원료 및 저차 가공 위주의 수출로 수출 구조가 취약하며 중국 등의 수산물의 대량 반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

- 수산물 수출·입 관리 개선 및 수출진흥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 무역 중개실 운영, 불합리한 수출제도 개선과 함께 중국, 동남아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다변화함.

(7) 수산물 유통구조 정비

-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민간유통기구, 도매시장, 물류센터, 소비지 직판장 등 유통경로를 다원화하여 유통경로간 경쟁체제를 확립함.
- 소비지 직거래 확대 등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정 무공해 수산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등 제주 수산물의 차별화·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함.

(8) 국내 토속 종의 확보·유지

- 외국 종의 수입은 국내 토속 종과의 잡종을 형성하게 되어 국내의 우수한 토속 종의 유전학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토속 종이 소멸된 후에는 결코 새롭게 만들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토속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대학, 국·공립연구소에서의 유전자 정보연구가 시급하고, 대상 종의 확보를 통한 실제적인 사육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

(9) 해외 양식장 개발

- 해외양식은 신고사항으로 대상국의 실태와 제도 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해외양식은 값싼 노동력과 좋은 환경적 요건으로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며 국내로의 안정적인 공급과 제 3국으로의 수출 촉진이 기대됨.
- 해외 양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1년까지 41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 있는 만큼 제주 양식인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

(10) 수입 수산물의 검역 강화

- 수입 수산물의 완벽한 검역을 통한 새로운 병원균의 유입을 철저히 방지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의 청정화 선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질적 차별화를 추진함.
- 역내로 유입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를 위해서 검역소의 전문 인력 확보와 첨단과학기기 구입이 요구됨.

- 활어인 경우에는 검역을 위한 전용 사육시설 내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 비용은 수출국이 부담케 함으로써 제주도의 부담을 최소화함.

(11) 국제자원 관리 협력기구 설립

- 동북아 어족자원 관리를 위해 한·중·일 3국의 중심지인 제주도에 국제자원관리 협력기구를 설립함.

(12) 지방 연구기능 강화

- 「신해양법」에 따른 어장 축소,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 및 수산물 전 품목 수입 개방 등으로 어업환경이 매우 악화됨.
- 어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양수산업을 21세기 신해양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 우량수산 종묘기지 구축과 해양수산 종합 연구기능을 육성함.
- 청정 우량 어패류종묘 양산, 기술 개발 및 방류 확대, 새로운 어구어법 개량·조업자동화 시스템 개발 보급,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중점 연구함.
- 21세기 제주수산을 이끌어 나갈 제주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진흥원, 제주대학교 등과의 연구협력 체제를 구축함.

제5절 산림·임업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

1. 현황

- 산림면적은 9만2,559ha로서, 국유림이 3만191ha, 공유림 7,811ha, 사유림이 5만4,557ha임.
- 산림면적은 1971년 11만8,892ha에서 1991년 9만5,297ha, 1995년 9만4,027ha, 2000년 9만2,559ha로서 매년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전국산림 : 642만2,128ha의 1.4% (본도 면적의 50%)

<표 III-4-33> 산림면적 현황 (2000년)

임지별 소유별	계		임 목 지	무임목지	비 고
계	92,559ha	100%	66,145ha	26,414ha	침엽수 : 24,629(37%) 활엽수 : 37,157(56%) 혼효림 : 4,359(7%)
국 유 림	30,191	33%	28,238	1,953	
공 유 림	7,811	8%	5,779	2,032	
사 유 림	54,557	59%	32,128	22,429	

- 국제적으로는 지구환경에 대한 범세계적인 관심 증대로 규제가 심화되고 무역과 환경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가 진행됨.
- 국내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맑은 물, 깨끗한 공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산림휴양 수요가 증대됨.
- 간벌·천연림보육 등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육림사업의 저조한 실적으로 70년대 이후부터 추진한 치산녹화사업으로 녹화는 되었으나 대부분 30년생 미만의 유령림(幼齡林)이며, 숲을 제대로 가꾸지 못해 생산력 증진에 어려움.
- 관광 및 농업축산업과 연계한 녹화산업화를 추진하고 산림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린파트너제’ 도입과, 레크리에이션 산림 조성을 통한 생태계의 복원과 레포츠기능 제공을 위한 임업의 복합산업화가 과제임.
- 자연환경적 특성과 산림의 생태순환기능을 고려 도시시설과 연계된 생태적 산림녹지 체계로서의 도시림 조성 및 시범가로수길 조성, 도시림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이 과제임.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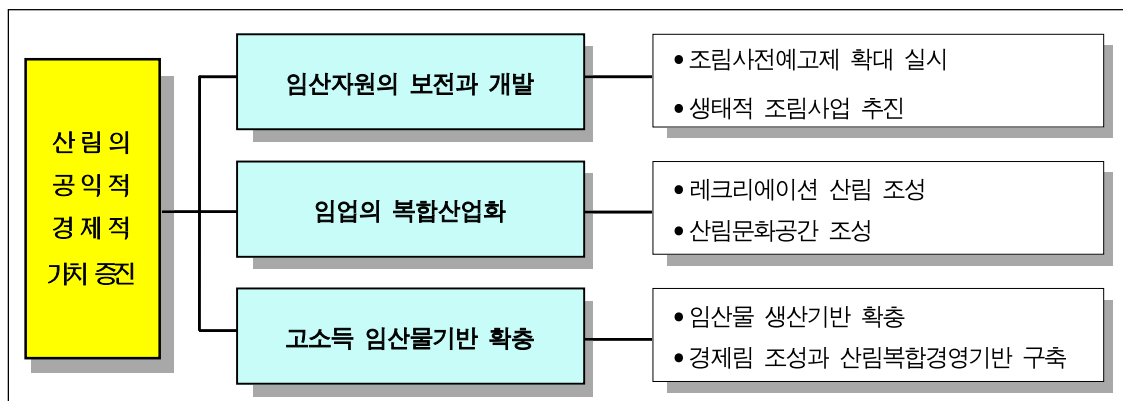
-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산림 경영기반구축,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 및 산지소득사업의 확대 지원, 산림자원 보전 및 증식·복원, 산림서비스 기능 확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관리 강화 및 이용기능 증진, 도시환경림 관리 및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 개선, 합리적인 산지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경영의 활성화

<표 III-4-34> 개발수요 및 발전지표

구 분	단 위	2002년	2006년	2011년
산 림 면 적	ha	91,820	90,360	88,568
임 목 축 적	천 m³	7,451	8,639	10,407
ha당 축적	m³	81.15	95.60	117.50
임업 총생산	백만원	345,727	391,169	458,795
공 익 기 능	백만원	1,125,713	1,394,560	1,736,735
산 주 수	천명	59	58	57

나. 기본방향

- 도 전체면적의 50%인 산림자원을 제주청정 환경의 중심축으로 조성, 산림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임업소득 창출 및 산림 휴양기능 확충,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한 산림자원조성·관리
- 다양한 산림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산림문화의 배양과 산림 경영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임업소득 창출



<그림 III-4-6> 산림·임업 육성의 기본방향

3. 산림·임업부문의 사업계획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

(1) 자원 이용의 다양화 유도

- 산지의 이용목적(생산, 공익, 산업임지)과 자원이용 기능에 부합한 조림정책 지향
- 과거 침엽수 위주의 조림사업을 활엽수 위주로 전환, 다용도로 이용 가능한 수종 선발 식재

(2) 산림자원의 경제화 촉진

- 인공조림지 및 우량 활엽수림에 대한 숲 가꾸기 지속 추진, 우량용재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가꾸기사업의 적기 실행, 소경제 이용·가공과 연계한 간벌재 이용 활성화
- 산림용 종묘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 종묘 생산으로 수요 다변화 체제 구축, 용재, 경관, 식용, 약용 및 표고재배 수종 등 생산체제 다양화, OECD 규정에 맞도록 산림용 ‘종자 및 묘목 인증제도’ 도입

(3) 임산자원 보전과 개발

- ‘조림사전예고제’ 확대 실시 : 산주 희망수종 양묘 생산·보급, 지역 특성에 맞는 묘목생산을 위한 양묘사업 확대, 조림용 묘목 보조지원제도 개선, 특용 활엽수종 우량 종자 공급원 확대 지정사업 실시
- ‘경관림 조성사업’ 확대 : 환경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 추진, 고급 우량대경제 생산단지 조성을 통한 목재자급률 제고사업 추진, 국민의 야생조수 보호 인식제고 및 야생조수 애호단체의 지원 육성사업 실시, 임업진흥지구 지정·육성
- ‘숲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 실시 : 생산임지를 중심으로 임목의 생육단계별 적기사업 실시, 지속적인 간벌 및 덩굴제거 및 가지치기사업, 우량천연림 보육 확대 등 체계적 육림사업 실시
- ‘도시림 조성사업’ 전개 : 생태적 산림녹지체계로서의 도시림 조성과 관리체계 확립, 도로노선·지역별 시범가로수길 조성사업, 관광지 및 도시주변 등에 우선 조림사업 실시, 도시림 관리를 위한 유형별 도시림 조성·관리체계 구축

나.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과 지식임업기반 구축

(1) 환경 친화적 임도시설 확충

- 질 우선의 환경 친화적인 녹색임도 시공기술 정착, ‘임도평가제’ 도입으로 건설한 임도시공을 유도함.
- 산림내 공공도로와 연계한 시설을 이용하여 시설·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임도 시공을 유도함.
- 임도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본 임도망 재정비 및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임도시설·관리·이용체계를 정립하고, 산림훼손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물량 위주의 임도건설을 지양하고 기본설계제도 도입으로 예정노선 확정 후 시공토록 함.
- 환경친화적인 임도시설 지속 확충을 위하여 조림·육림, 간벌, 천연림보육 등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곳에 우선 시설하고 기설 임도의 개량 및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산촌개발은 지역특색을 살린 유형별 개발모델을 정립함.

(2) 산림조합 육성 및 임업기능인 육성

- 산주 중심의 산림조합 및 임업인의 자생능력 확보를 위한 행정 지원, 기능인 영립단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산림사업 지속 확대함.

(3) 지식임업기반 구축

-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임업기술 개발 보급 및 연구 활성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조사·통계·정보인프라 조기 구축함.

(4) 생태마을 조성 및 정주기반 조성

- 산림사업과 생태마을조성사업의 연계 추진 : 휴양림연계형 산촌마을에 자연휴양림 조성 지원, 산림소득형 생태마을에 영립단·협업체 조직, 유통가공시설 및 단기소득원 사업 지원 등
- 생활환경개선사업(마을기반조성, 마을회관, 소하천정비 등), 생산기반조성(임산물판매장, 공동저장고), 소득원 개발(산림 및 휴양자원을 이용한 개별소득사업), 주택개량 등

다. 산림산업 육성 및 산지 소득사업 확대

(1) 목재산업 육성 강화

- 목재 산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적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급체제 구축, 국산재 이용시대를 대비한 목재산업의 수요와 이용목적에 맞는 자원 조성 및 기존 자원의 이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보급
- 생산시설의 규모화 및 현대화로 수요자 기호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 생산과 공급체제 구축, 국산 소경제 이용가공산업과 목조주택산업을 육성하고 목공예산업의 활성화 유도

(2) 임산물 유통체계 구축

- 임산물 직매장을 통한 주산지·소비지 직거래체계 구축 등 활성화 방안 모색, 환경 친화적인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산지 소득사업 장려 및 지원 확대

- 산림의 장기 투자에서 오는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집약적 산지 활용에 의한 단기 고소득 품목 발굴 육성
- 임산물의 생산단지화·규모화·현대화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지역특산품의 육성과 고유 브랜드화 촉진 등을 통한 임산물의 경쟁력 향상, 산지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의 복합적인 이용·개발 추진

(4) 산림복합경영기반 구축

- 경제림 조성과 유실수 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희구릉지의 산지활용을 도모하고, 임업 경영 활성화 및 경영규모 확대를 위한 소규모 사유림 경영협업체 육성, 장기산림경영과 협업체별 단기소득사업의 병행추진으로 협업사업 활성화, 임산물의 산림조합직매장 유통판매 지원
- 산림복합경영사업을 통한 산주(山主)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과 보전,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임업수익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산지소득증대 모색

라.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강화

(1) 과학적인 산불 관리 및 건강한 숲 조성

- 산불예보·감시시스템의 확대로 산불 조기 경보체제 유지, 진화장비의 현대화 및 진화시스템 구축으로 산림 피해 최소화
- 회귀·멸종위기식물의 훼손 방지 및 산림 내에서의 불법행위 감시 강화, 훼손된 오름의 조기 복구로 자연경관 조성 등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

(2) 환경 친화적인 산림관리

- 돌발 해충의 조기 발견과 확산 저지를 위한 예찰조사 강화, 과학적·생태적으로 자연 환경에 적절한 방제시스템 구축
- 생물다양성의 풍부한 지역에 대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으로 지정, 새로운 보호수의 지정 확대 및 기 지정 보호수의 보호 관리 강화
- 한라수목원의 서식지외 보전기능 증진을 위하여 전시식물의 확충과 자생 식물자원의 증식·보존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진 중인 한라생태숲 조성 사업을 계획성 있게 마무리하여 회귀·멸종위기 식물의 증식·복원으로 유전자원 보전기능을 강화함.

(3) 야생동물의 보호·제도 정비 강화 및 서식지 보전

- 현행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야생동식물 관련규정을 통·폐합하여 보다 강화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야생동물의 서식지 자연생태 보전 및 철새도래지 서식환경 파괴 행위 방지, 도로 등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의 이동통로 시설 의무화

(4) 한라산 노루의 생태관찰시설 조성으로 생태관광 명소화

- 저지대 서식노루의 포획·이동 유치로 서식밀도 조절 및 농작물 피해 방지 유도, 한라산 노루의 종 보전 및 자연생태 관찰을 위한 자원화와 생태학습장 기능 강화
- 자연생태계의 균형적인 유지를 위하여 적정한 범위의 수렵장 설정 운영, 수렵자원 밀도조사에 근거 인공증식 방사 등 수렵장 기능의 활성화, 수렵장의 홍보 강화와 적극적인 수렵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마. 산림 휴양·문화공간 등 다양한 산림서비스 기능 확대

(1) 자연휴양림 정비 및 휴양서비스 제공

- 관광객 및 도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망 구축 등 휴양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2) 산림환경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 자연학습 및 도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휴양문화 선도를 위한 산림환경 교육 강화

(3) 산림문화 시설 확충·축제 및 행사 개최

- 학술연구, 학습자료 및 산림사료 보존 전시를 위한 산림박물관 건립 추진, 식목일과 숲 가꾸기 주간을 산림축제가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 추진

(4) 향토성이 깃든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변 경관 조성

- 청정 환경과 정감이 넘치는 향토미를 특색있게 살린 전도 공원화 사업 추진, 도시의 색깔 및 환경과 색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쾌적한 가로수 조성·관리
- 무궁화 심기사업 추진으로 나라꽃 사랑하는 마음 함양과 국민 애국심 고취, 도시지역 녹지 및 생활권 지역 환경림 조성 확대로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녹지벨트 구축

(5)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 이용질서 확립

-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임지 전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보전임지 총량기준 설정 및 적정 면적 보전 관리 추진, 산지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사업 유도

(6) 국유림 경영의 활성화

- 환경 보전·목재 비축 등 공공성 우선의 관리를 유도하되, 영림계획에 의한 계획적인 사업 유도
- 특수 대경제 생산·공급 기반 조성을 통한 경제적 지속성 유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유지 증진에 기여

제5장 사람을 존중하는 복지중심도시

제1절 보건의료의 선진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현황

가.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대상 인구

- 도내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5만8,556명이며(87.6%), 나머지는 군인 또는 타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원격지 건강보험)로 예측됨.
- 1999년 현재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1만7,771명, 인구대비 3.4%로 전국 평균치 3.5%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1종 64%, 2종 36%).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이용 실태에서 연인원/대상자에서 외래의 경우 전국 평균(76.2%)에 비해 제주도(85.1%)가 높았으나, 입원의 경우 전국 평균(9.9%)보다 7.2%로 낮았음.

나. 의료시설 현황

- 의료기관 수는 총 399개소이며 종합병원 6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11개소 등으로 나타남. 종합병원 6개소 중 5개소가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지역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음. 특히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경우 의료기관의 분포상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함.

<표 Ⅲ-5-1> 의료기관 현황(2000년)

구 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조산소	부설 의원
계	399	6	1	211	-	110	64	2	5
제 주 시	264	5	-	136	-	75	41	2	5
서귀포시	65	1	1	35	-	17	11	-	-
북제주군	38	-	-	23	-	9	6	-	-
남제주군	32	-	-	17	-	9	6	-	-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1.

- 병상수는 총 2,219병상이며 종합병원급 이상 병상수는 1,504병상으로 나타남. 의원의 병상수가 585병상으로 전체 병상수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의원의 병상은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미흡한 실정임.

<표 III-5-2> 의료기관 병상수 현황 (2000년)

(단위 : 개소수/병상수)

구 분	계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특수 병원	한방 병·의원	부설 의원
계	2,219	1,504	69	585	-	54	7
제 주 시	1,826	1,324	-	441	-	54	7
서귀포시	322	180	69	73	-	-	-
북제주군	32	-	-	32	-	-	-
남제주군	39	-	-	39	-	-	-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1.

- 2000년도 10만명당 병상수는 408병상이며, 병상당 인구수는 245명임. 전국 대비 인구수가 1.13%인데 반해, 병상수는 0.84%로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부족병상은 769병상임.

다. 의료인력 현황

- 2000년 12월 현재,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은 총 1,505명임. 이중 의사는 421명으로 총 의료인 수의 28%임. 의료인수의 79%, 의사의 73%가 제주시에 편중됨.

<표 III-5-3> 의료인 현황 (2000년)

(단위 : 명)

구 분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계	1,505	421	129	72	8	875
제 주 시	1,185	309	93	47	7	729
서귀포시	215	69	18	13	1	114
북제주군	58	24	9	6	-	19
남제주군	47	19	9	6	-	13

주 : 의사 - 의료종사자만 포함
 자료 : 제주도 보건위생과, 내부자료, 2001.

- 1990~1999년도의 의료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의사 8.0%, 치과의사 9.7%, 간호사 13%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2000년말 현재 의사(한의사 포함) 1인당 인구수는 1,102명으로 전국 평균 892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표 III-5-4> 의료인력 비교 (2000년)

구 분	의료인력 수			의료인 1인당 인구수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전 국	58,713	13,593	59,791	892	3852	876
제 주	493	129	875	1,102	4,211	875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통계연보」, 2001.

- ‘제주시정신건강센터’는 정신과 전문의 1명, 정신보건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 자원봉사자 다수로 구성되어 있음. 2000년 12월 말 현재 총 파악환자 264명 중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는 14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반 정도는 정신분열병 환자임.
- 4개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국립보건원의 노인건강관리반 과정 또는 한국치매협회의 치매환자 및 가족상담교육 과정을 이수한 상담원 1~2명이 등록관리, 예방홍보, 가족교육 등을 담당함.

라. 입원의료 이용 지역친화도

- 입원의료 이용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6만3,834건, 의료보호에서 6,464건의 의료이용이 있었는데, 의료보험의 경우, 총 의료이용건수의 12.6%가 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반면, 의료보호의 경우, 33.4%가 역외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음.
- 제주시의 경우, 총 3만3,465건의 의료이용 중 제주도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건수는 2만7,686건으로 이에 근거한 제주도 입원환자의 지역친화도(RI)는 82.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귀포시가 57.1%, 북제주군 3.2%, 남제주군 0.1%의 순이었음. 반면 의료보호 입원의료이용의 경우, 서귀포시가 65%로 가장 높은 지역친화도를 보이고 있었음. 이는 제주도 의료보호 이용건수의 40.3%가 제주도의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반면, 서귀포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17.7%만이 제주도의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였기 때문임.

<표 III-5-5> 의료보장종별 입원의료 이용률 및 지역별 친화도

(단위 : 건, %)

구 분			의료기관소재지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제주도외	
의 료 보 험	거 주 지	제 주 시	27686	868	471	1	4439	33465
			(82.7)	(2.6)	(1.4)	(.0)	(13.3)	(100.0)
		서귀포시	3447	6615	134	2	1394	11592
			(29.7)	(57.1)	(1.2)	(.0)	(12.0)	(100.0)
		북제주군	8552	167	329	4	1270	10322
			(82.9)	(1.6)	(3.2)	(.0)	(12.3)	(100.0)
		남제주군	5211	2163	142	9	930	8455
			(61.6)	(25.6)	(1.7)	(.1)	(11.0)	(100.0)
소 계	44896	9813	1076	16	8033	63834		
	(70.3)	(15.4)	(1.7)	(.0)	(12.6)	(100.0)		
의 료 보 호	거 주 지	제 주 시	1724	14	13		1181	2932
			(58.8)	(.5)	(.4)		(40.3)	(100.0)
		서귀포시	216	864	14		236	1330
			(16.2)	(65.0)	(1.1)		(17.7)	(100.0)
		북제주군	765	13	4		405	1187
			(64.4)	(1.1)	(.3)		(34.1)	(100.0)
		남제주군	464	187	26		338	1015
			(45.7)	(18.4)	(2.6)		(33.3)	(100.0)
소 계	3169	1078	57		2160	6464		
	(49.0)	(16.7)	(.9)		(33.4)	(100.0)		

자료 : 제주도 지역, 공교, 직장 건강보험(3,793,225건) 및 의료보호(155,877건) 전산자료를 분석하였음(1999년 1월 - 2001년 3월 지급분 중 1999년 9월 - 2000년 8월 진료분 개인급여자료, 약국이용제외).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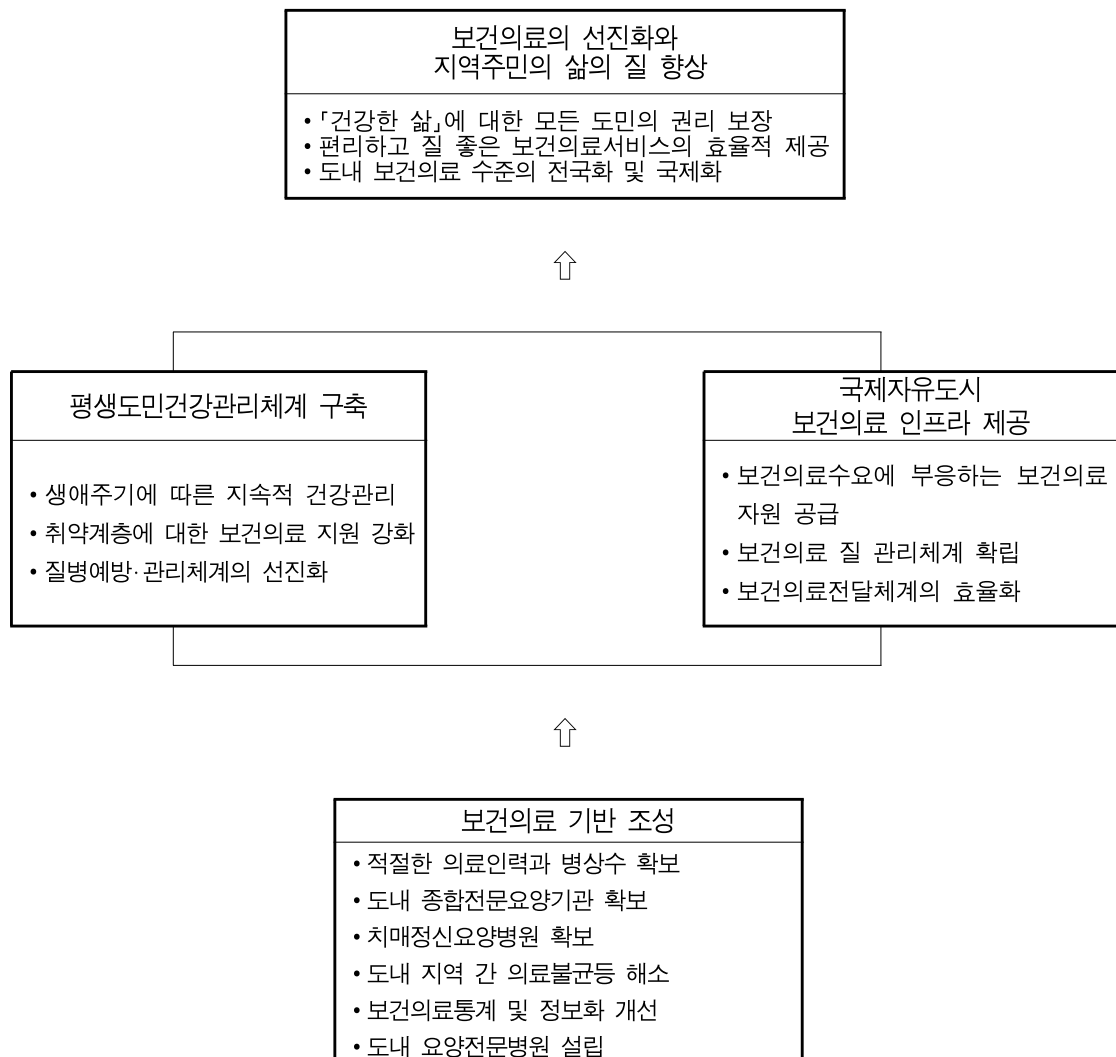
가. 개발수요

- 소득수준의 증가는 의료수요의 증가와 함께 고급 의료에 대한 욕구의 증대로 이어질 것임.
- 상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임. 국제자유도시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수준을 요구하게 될 것임. 또한 관광객과 외국인의 증가로 외래유입 질병이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임.
- 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실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이 요구될 것임.

- 질병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다양화되어 만성퇴행성 질환이 증가할 것임. 노인인구의 증가(10% 이상)로 의료수요가 급속히 증가될 것이며, 특히 장기요양을 요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노인을 포함한 만성기 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요양병원, 재가치료 등)의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나. 기본방향

- 보건의료의 비전은 보건의료기반 조성, 평생도민건강관리체계 구축, 국제자유도시보건의료 인프라 제공 등을 바탕으로 제주지역의 보건의료를 선진화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음.



<그림 Ⅲ-5-1> 보건·의료 서비스체계 및 비전

3. 보건의료부문의 사업계획

가. 보건의료 자원 공급

(1) 의료인력 수급 계획

- 2011년 의료인 수급 전망과 적정수 추계는 크게 도내 의료인력 증가(연평균 증가율)와 국제자유도시 정착에 따른 인구 유입정도에 의해 좌우됨. 2002년부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배출되나 제주에서 근무하게 될 의사 수는 당분간 입학 정원(의사 40명, 간호사 20명)의 50%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 (한)의사 인력이 연 평균 8%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활동의사 1인당 인구수는 2006년 753명, 2011년에는 546명에 이르게 되나 전국 평균치(연평균 6% 증가시 2006년 587명, 2011년 428명)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됨.

<표 III-5-6> 2011년도 제주도 의료(한의사 포함)인력 추계

(단위: 명)

제주도 인구 (2011년) 연평균 증가율	자연증가율	인구추계	중 간 시나리오*	최 대 시나리오**
	579,100	620,000	602,429	648,585
5%	715	766	744	801
6%	638	684	664	715
7%	570	611	593	639
8%	510	546	530	571

자료 *,** : 건설교통부, 「제주도 국제자유 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의 인구 수임.

주 : 수치는 의사 1인당 인구 수

(2) 병상 공급 계획

- 보건복지부의 「새천년 복지비전 2010」에 의하면 급성기 병상은 점차 감소되어 2010년에 인구 천명당 병상수는 3.67개가 될 것으로 예측됨.(95년 4.50, 2000년 4.09, 2010년 3.67). 이 기준을 따를 경우 2011년도에 제주가 필요로 하는 순수 급성기 병상수는 2,187개로 2000년 대비 560병상이 부족함(2011년 제주도 인구 596,000명 추정).
- 병상공급은 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으로 분류 공급되어야 하며, 향후 급성기 병상의 확대는 최소화하며, 장기요양병상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임.

<표 III-5-7> 보건의료자원 수급정책의 기본방향

분 야	정책의 기본방향
급 성 기 진 료 서 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수준의 병상공급 - 보건의료 자원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분담 및 기능개선 - 도내 의료전달체계 확립 - 응급진료체계 확립
장 기 요 양 서 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요양서비스의 공급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 조성 - 적정 수준의 병상공급
정 신 보 건 서 비 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단위의 포괄적 서비스 공급체계 확립 - 환자 전달체계의 확립

- 2001년 현재 병상수급 전망으로는 제주대학교 병원이 500병상 규모로 2008년까지 증축할 계획임(제주대학교 부지, 서암농원).
- 치매·정신전문병원을 303병상 규모로 2002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제주 시도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 일부 민간병원에서도 병원 증축 계획이 있음.
- 서귀의료원의 경우 서귀포와 남제주군 지역의 의료를 담당해야 하므로 과거 제주의료원 수준(260병상)으로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병원과 모자병원관계를 체결,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임.

나. 종합전문요양기관(제주대학병원) 설립 및 발전방안

(1) 필요성

- 제주도는 현재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임. 이는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더 심각함. 전국 각 시·도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있으나 제주도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없음.
- 이로 인해 도내의 중환자나 응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속한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대부분이 서울지역으로 이송되고 있는 실정임.
-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가 관광, 금융, 물류의 중심으로 향후 동북아의 주요 도시로 성장할 것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양질의 의료인프라 제공은 필수적임.

(2) 대학병원으로의 조기 정착 (2001~2004년)

-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조속히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증축하여 종합전문요양병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이에 따른 충분한 의료인력(특히 교수인력)과 장비 등을 조기 확보토록 함.
- 최신 의료장비의 공동 활용 : 기자재 확충예산은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는데 적극 활용하며, 도내 의료계에서 고가 의료장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도 의사회와 보건당국의 의견을 참조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대학병원의 활성화로 도외 유출 환자를 최소화 : 기존 도외 환자 유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도외 유출 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과 장비 및 인력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3) 제주대학병원의 종합전문요양기관 추진 (2003~2008년)

- 교육인적자원부의 「제주대의과대학부속병원확보계획」(1999. 12)에 의하면, 인수후 2차 의료기관으로 유지 운영 후 단계적으로 2010년까지 3차 진료기관(500병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기존 의료원 부지의 협소성을 감안할 때 제주대학교 병원 단계별 건립방안대로 조속히 500병상 규모의 증축이 바람직 함.
- 향후 제주대학교 병원은 국제자유도시 계획 추진에 따른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임. 외국인 전용 진료센터, 관광과 연계한 종합검진 활성화, 실버산업과 연계한 노인진료 특성화,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강상담 및 진료예약, 처방전달시스템 구축, 환경친화적인 병원이 되어야 할 것임.

<표 III-5-8> 제주대학병원 단계별 건립방안

구 분	1단계(2001~2002)	2단계(2003~2007)	3단계(2008~2010)
추진과제	제주의료원 인수 대학병원 개원	병원 신축 (서암농원)	3차 진료기관화 정착 (종합전문요양기관)
내 용	· 의료원 인수 · 시설 개·보수 (26개 진료과목 개설) · 법인설립 및 대학병원개원 (2001. 9. 1) · 병원신축 준비	· 500병상 규모 병원 신축 · 의료장비 확충	· 3차 진료기관 정착화 · 노후장비 교체·확충 · 기존 제주의료원 노인요양병원 등으로 활용

자료 : 제주대학교 내부자료, 2000.

다. 계획적인 정신보건사업 추진

(1) 지역사회 정신질환의 역학조사

- 지역내 정신질환자의 상태별로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정신질환 관련 요인과의 상관성을 고려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향후 4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신질환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중간성과를 평가한 후, 도내 정신의료서비스 및 정신보건서비스 공급계획과 대책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2) 정신보건시설의 역할 정립

- 지역내 기존 민간 정신의료기관(정신과의원 및 정신과 개설 병원)이 관련 전문요원을 고용하여 낮 병원·사회복귀시설을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시설에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지양하여야 하며, 질병의 만성화로 일반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한 장기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토록 함. 이 경우도 가급적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목표로 환자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
- 공공자원으로 급성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정신전문병상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만성기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요양·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정신요양병상의 설립이 바람직할 것임.

(3) 시·군별 정신건강센터의 활성화

- 2001년 5월 현재 제주지역 내 2개 시지역에 정신건강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군지역에도 설치할 필요가 큼.
- 정신건강센터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총괄하도록 하고, 낮 병원의 운영 및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등록 관리, 급성기 퇴원환자의 사후 관리, 만성환자의 재활 지원, 직업 재활, 방문 정신보건, 학교 정신보건, 정신건강 상담·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담당함. 이를 위해 정신건강센터의 시설과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함.

(4)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 현재 한라병원이 일부 정신보건 간호사 자격 이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차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의 훈련과 교육을 제주도의 정신보건관련 종합 배후기관으로 기능할 치매·정신전문병원이 관련 전문기관과 연대하여 담당하도록 하여 제주 지역내의 정신보건인력 수요를 충당하도록 함.

(5) 치매·정신전문병원의 발전방향

- 현재 입원요양을 요하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만 1,7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 병상점유율을 30% 내외로 잡는다면 528병상이 필요함. 치매 환자를 노출시키기 꺼려하는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병상 수는 결코 과다한 수치가 아님.
- 보건소와 1·2차 의료기관, 제주대학병원, 치매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기 입원, 요양, 재활치료가 필요한 노인환자를 의뢰 받아 일정기간 치료 및 요양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택치료가 가능해진 환자는 의뢰한 병·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 전달체계를 구축함.
- 건립 중인 치매·정신전문병원은 지역내 치매 및 만성기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만성기 노인환자를 위한 종합적 요양병원을 지향토록 하고 통원 및 입원치료를 겸하도록 기능을 설계함.

(6) 요양병원 추진방안

(가) 필요 요양병상 수

- 일반병상 입원환자 총재원일수의 34%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였음을 보고한 전문연구기관의 분석을 고려할 때 도내 의료기관 전체 입원병상(총 1,573개)의 34%인 535병상은 사실상 장기요양환자가 급성기 일반병상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예측됨. 또,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환자들의 수요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 535병상 이상의 요양병상이 필요함.
- 현재 시점에서 지역내 병상이 전국평균 기준 보다 부족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필요 요양병상의 규모는 더 커질 것임.

- 전국평균을 목표치로 한 필요병상 추계에 의하면, 2011년도에 약 1,200병상의 만성기 질환 및 요양전문 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만성기 질환자의 비율을 30%로 최소 추정한 것임.

(나) 확보방안

- 증가하는 요양 수요를 충족시키고 급성기 병상공급의 과잉 및 환자수의 감소로 경영난에 봉착한 중소병원의 육성과 자원활용의 제고를 위하여 기존 중소병원 병상의 요양병상으로의 기능 전환을 유도함.
- 요양병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신축 또는 기존의 급성기 공공의료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요양병상으로 개편함.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일부 의료기관을 요양병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함. 이는 전국적으로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의 상당수가 급성단기질환에 대한 입원 의료서비스의 제공기관으로 부적절하여 질적 수준을 보장할 수 없고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어 이들 기관의 경영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일반병원이 병원 전체 또는 잉여병상의 일부를 요양병원으로 기능 전환할 경우, 시설개·보수비 등 전환비용이 소요됨. 요양병원(동)으로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용자특별회계(재특)자금 또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특)자금 등을 요양병원 육성자금으로 지원하던지, 또는 제주도 차원의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라. 취약계층의 평생건강관리 추진

(1) 주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기초건강권을 보장하는 한편, 질병으로 인한 도민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력 손실을 최소화함.
-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치료와 재활 등 건강 연속선상의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 특히 생애주기별 인구집단과 사회계층별 인구집단(취약계층)의 주요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사전 예방적·적극적으로 관리함.
- 평생건강·의료 취약계층 건강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보건조직의 강화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함.

(2) 생애주기별 의료 취약계층 보건사업 추진방안

- 모자보건 :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을 현재의 81% 수준에서 2006년 95%, 2011년 100%로 높이고 전산화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임. 전산화된 자료는 보건소간 온라인망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함.
- 학교보건 : 적기 예방 접종을 통해 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건소와 학교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체질검사의 강화 등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에 힘쓰며, 학생들이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행동변화를 일으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 사업수행체계를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함.
- 성인보건 :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라 주민건강검진의 확대로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성인병의 조기 발견, 치료를 위하여 정기 검진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되, 2011년에는 80% 이상의 검진율을 목표로 설정함.
-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암정복 사업 : 정확한 암환자 파악은 암정복 사업의 기본으로 제주도민의 암발생 실태파악이 시급함. 현재 시행 중인 제주 지역 암 등록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암등록사업본부, 제주도 보건당국, 도내 병의원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가 필요함. 가칭 ‘암정복추진위원회’를 구성함.

(3) 노인보건사업의 활성화

- 고령사회로 접어든 노인보건은 개인만의 책임이라는 시각에서 국가책임이라는 시각 전환이 필요함.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인건강 증진을 도모하여야 함.
- 노인보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노인의 일상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모형과 재가와상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모델의 개발 등 사회·문화적 여건에 적합한 사업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및 평가사업을 추진함.
- 보건소의 독거노인 방문간호팀과 도내 시·군 사회복지과의 통합적 사업체계로서 혼자 사는 노인에게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위급 상황시에는 보건소와 인근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응급 자동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문간호팀의 추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주간보호(Day-Care) 및 단기보호(Short-Stay)시설을 확충하여 부양하던 가족의 질병,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 동안 또는 수일간(2~3일간 또는 10~40일간) 입소시켜 급식, 목욕, 여가생활서비스 등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보함.

(4)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의 강화

- 적극적인 금연·절주를 위한 보건교육이 필요함. 건강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 보급으로 건강생활 실천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관리하여 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함.
- 영유아 보건관리를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큼. 보건소간에 온라인 전산망을 연결하고, 민간 병·의원에서 인터넷을 통해 예방접종 등의 영유아 건강관리 내역을 보건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함.
- 지역주민의 건강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 보건당국은 건강 증진 및 보건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 및 성인병 예방교육을 도내 보건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함.

(5) 지역사회 보건의료 정보망의 구축

-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업무에 표준화된 보건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업무의 사무생산성을 향상시킴.
- 제주도민을 위한 건강증진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시스템)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종합적인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함(가칭 ‘건강제주’, Health-Jeju). 영유아보건, 모자보건, 학교보건, 만성질환관리, 노인보건, 건강증진, 보건교육, 전염병 예방 등을 총 망라함.
- 새로운 보건사업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단위 보건사업의 실적 및 현황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보건의료 DB의 구축, 정보의 원활한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인터넷 이용 정보활용 체계의 구축, 전국 보건소를 연결하는 지역보건소망의 구축 등 지역보건의료분야 정보시스템의 확대 개발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6) 전염병 예방관리의 강화

- 1990년대 후반부터 과거에 유행하던 전염병의 재출현 또는 새로운 전염병의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염병의 예방 홍보 강화 및 주민 각자의 자율관리능력 극대화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위생을 도모함.
- 국제자유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내·외국인의 유동인구의 증가로 외래 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 짐. 특히 급격한 국제화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7) ‘잠수’들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 잠수는 현재 1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직종으로 역사적·사회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보호 대상임.
- 가칭 ‘잠수병 연구소’를 설립하여 잠수들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제주의료원에서 수행하던 잠수들에 대한 건강관리는 제주대학병원에서 계속 수행하며, 기존의 단순 건강관리 차원을 벗어나 잠수들에 대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 서귀의료원 발전방안 수립

(1) 필요성

-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의료 현황을 보면 의사 수는 제주지역 전체의 20%(인구 : 34%)이며, 병상수는 15%에 불과함. 특히 서귀의료원을 제외하면 도의 모든 종합병원이 제주시에 위치하고 있음.
- 서귀포 지역의 인구는 도 전체 인구의 16%로 많지는 않으나, 빈번한 국제회의 개최 등 관광 요충지로서의 지역적 특성과 제주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도내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형평배분 차원에서도 서귀포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추진방향

- 지역특성상 민간병원 유치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기존 서귀의료원을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함.
- 서귀의료원의 양적 확장만으로는 양질의 의료수준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음. 주민들의 주요 불만이 의료시설의 낙후와 의료인력의 부족에 있는 만큼 질적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서귀의료원의 현 병상수준(180병상)을 단계적으로 220병상(2006년), 250병상(2011년)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 수준에 맞는 의료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하여야 함.
- 지역특성상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는 힘들 것임. 따라서 제주대학교 병원과 모자병원 관계를 체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전공의를 파견 받아 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바. 휴양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관련법 특례 도입

- 제주도내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도입하는 의료시설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제2절 생산적 사회복지 시스템 구축

1. 현황

가. 노인복지

- 2000년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4만3,334명으로 전체 인구 54만2,368명의 7.98%를 차지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음.
- 전체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제주시 5.5%, 서귀포시 7.7%, 북제주군 12.6%, 남제주군 11.3%로 시지역보다는 군지역이 노령화 정도가 높으며 성별로는 여성노인이 69.7%로 남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노인 주거복지시설로는 무료 양로시설 5개소, 노인의료 복지시설로는 무료 요양시설 2개소, 무료 전문요양시설 1개소, 유료 요양시설 1개소로 총 4개소가 있음.
- 재가노인 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4개소, 주간보호시설 2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등 총 7개소가 있으며 시설 종류별 이용인원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비해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의 경우가 적은 편임.
-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경로당 시설(총 294개소, 회원수 3만937명)과 회의실, 물리치료실, 노인교실, 경로식당, 공동작업장,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회관이 5개소 있음.

<표 III-5-9>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현황 (2000년)

(단위 : 개소, 명)

종 류		시설수	시 설 명	입소 노인			
				정원	현원		
					계	남	여
합 계		9		473	309	84	225
무 료 양 로 시 설 (주 거 복 지 시 설)		5	제 주 양 로 원	60	30	15	15
			평 화 의 집	50	29	12	17
			성 요 셉 양 로 원	50	18	4	14
			성 이 시 돌 양 로 원	80	51	11	40
			남 제 주 양 로 원	50	37	11	26
의료 복지 시설	무료요양시설	2	제 주 요 양 원	30	29	7	22
			제 주 원 광 요 양 원	50	53	9	44
	무료전문요양시설	1	평 양 요 양 원	80	62	15	47
	유료요양시설	1	제 주 원 광 유 료 요 양 원	23	0	0	0

자료 : 제주도, 「2001 보건복지여성국 행정현황, 2001.

나. 장애인 복지

- 등록 장애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2.2%에 해당하는 1만1,764명이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60.2%, 정신지체 11.9%, 시각장애 11.6%, 기타 16.2%임.
- 장애인 복지시설은 2000년 말 현재 지역복지 재활시설로 생활훈련시설 6개소, 복지관 4개소, 직업재활시설 3개소, 의료재활시설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시설 3개소, 단기보호시설 1개소,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1개소, 장애아 조기교육시설 1개소 등 23개소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2001년 6월말 현재 88.1%로 정부가 설정한 2004년까지 편의시설 설치 목표율 70% 이상을 이미 넘어서고 있지만 전국 시·도와 비교할 때는 낮은 수준임(충남 및 대전·광주광역시 100%, 경남 99.7%, 서울 99.6%, 전남 99.3% 등임).
- 장애인 복지서비스로 저소득장애인의 생활 안정, 재활과 자립,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화를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 건강관리, 사회참여 및 직업능력 촉진사업,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표 III-5-10> 장애인 등록현황 (2000년)

(단위 : 명, %)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1,764	100.0	5,153	1,841	2,808	1,962
지 체	7,081	60.2	3,126	1,102	1,676	1,177
뇌 병 변	343	2.9	167	45	72	59
시 각	1,367	11.6	588	226	343	210
청각·언어	993	8.5	456	117	267	153
정 신 지 체	1,395	11.9	540	249	341	265
발달(자폐증)	13	0.1	7	3	1	2
정 신 장 애	212	1.8	75	44	46	47
신 장 장 애	285	2.4	156	46	45	38
심 장 장 애	75	0.6	38	9	17	11

자료 : 제주도, 「2001 보건복지여성국 행정현황」, 2001.

다. 아동 및 청소년복지

- 2000년 말 현재 소년소녀 가정은 총 280세대이며, 성별로는 남자 51.4%, 여자 48.6%, 지역별로는 제주시 28.2%, 서귀포시 20.0%, 북제주군 21.8%, 남제주군 30.0%임.
- 아동복지시설은 총 5개소가 있으며, 시설 수용인원은 291명으로 정원의 70.1%임.

<표 III-5-11> 아동복지시설 현황 (2000년)

(단위: 명)

시 설 명	소 재 지	수 용 정 원	현 원
계	5개 시설	415	291
홍익보육원	제주시	105	77
제주보육원	제주시	120	52
제남보육원	서귀포시	100	57
천사의 집	남제주군	60	60
홍익영아원	제주시	30	45

자료 : 제주도, 「2001 보건복지여성국 행정현황」, 2001.

- 아동·청소년분야 복지서비스로 아동복지시설 5개소와 입양·결연기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사업 지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영양급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등이 있음.
- 청소년 수련시설은 총 24개소로, 시설별로는 수련원 3개소, 수련관 3개소, 수련실 7개소, 문화의 집 5개소, 유스호스텔 2개소, 야영장 2개소가 있음. 시·군별로는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7개소, 북제주군 4개소, 남제주군 8개소임.

<표 III-5-12>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2000년)

구 분	계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야영장
계	24	3	3	9	5	2	2
제 주 시	3	-	-	-	2	1	-
서귀포시	7	-	1	3	2	-	1
북제주군	6	1	1	3	-	1	-
남제주군	8	2	1	3	1	-	1

자료 : 제주도, 「2001 보건복지여성국 행정현황」, 2001.

다. 여성복지

- 여성인구는 2000년 말 현재 전체인구의 50.4%에 해당하는 27만3,700명임. 이들 중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인구는 62.9%인 21만6,000명(전국 47.4%)이며, 취업여성인구는 13만2,000명으로서 98.5%의 매우 높은 취업률을 보임.
- 여성복지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2개소,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7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1개소, 북제주군 1개소)가 있음.
- 여성복지서비스에는 위기상담전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 여성발전기금 조성(2001년 7월 현재 10억원, 2002년 목표액 20억원), 남녀평등 촉진 사업 등이 있음.

<표 III-5-13>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 현황

구 분	연도별	계	모자복지법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가 보훈
			계	재가보호	시설보호	미보호		
모자가정	2000.12	920	492	396	40	56	422	6
	2001.1	1,038	529	430	40	59	507	2
증 감		118 (13%)	37	34	-	3	85	△4
부자가정	2000.12	394	222	158	-	64	172	-
	2001.1	431	246	202	-	44	-	2
증 감		37 (9%)	24	44	-	△20	11	2

자료 : 제주도, 「2001 보건복지여성국 행정현황」, 2001.

- 도·시·군 전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27.1%로 전국평균 24.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5-14>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000년)

구 분	위원회수			위원수(위촉직)		
	전체	여성참여	참여율(%)	전체	여성위원	참여율(%)
계	212	170	80.2	2,584	701	27.1
도	63	57	90.5	699	219	31.3
시·군	149	113	75.8	1,885	482	25.6

자료 : 제주도, 「2001 보건복지여성국 행정현황」에서 재구성.

라. 저소득층 복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2000. 10월 개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수는 일반수급권자 1만8,062명과 시설수급권자 1,172명 등 총 1만9,234명(전체인구의 3.5%)으로서 기존(생활보호제도)의 생활보호 인원보다 1,991명이 증가하였음.

<표 III-5-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0년)

구 분	계		일반		시설	
	인원	%	인원	가구	인원	시설수
계	19,234	100.0	18,062	9,392	1,172	19
제 주 시	9,013	46.9	8,284	4,000	729	9
서귀포시	3,727	19.4	3,528	1,721	199	5
북제주군	3,451	17.9	3,305	1,943	146	3
남제주군	3,043	15.8	2,945	1,728	98	2

자료 : 제주도, 「2001 보건복지여성국 행정현황」 자료 재구성.

- 자활능력 부족자인 조건부 수급권자의 경우는 제주시 56%, 서귀포시 29%, 북제주군 7%, 남제주군 8%의 분포를 보임.
- 조건부 수급권자의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가 89%로 나타나고 있음.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의 장년층이 52%를 점하며, 성별로는 여성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근로능력이 더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조건부 수급자 중 여성자활 대상자의 21%가 모자가정이며 남성자활 대상자의 17%는 부자가정의 편부모가정임. 이들은 육아 및 간병, 가사 부담 등으로 자활여건이 열악함.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로 생계 및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이밖에 교육, 장애, 의료, 해산급여 등 급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 운영,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운영, 공공근로사업 및 시설 봉사도우미 활동 등의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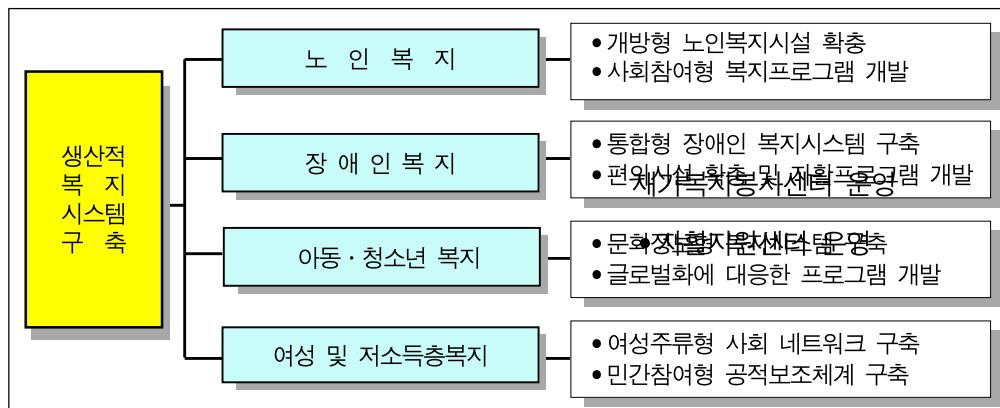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정보화·도시화의 급격한 진전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본적으로 전환해 나감. 지금까지의 보완적, 선택적, 생활보호적, 단순적 차원에서 예방적, 제도적, 생활환경적, 통합적 차원으로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함.
- 기존의 소득이전적 사회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생산적복지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토록 함.
- 지역사회, 자치단체, 종교단체 등이 연계하는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미시적 복지행정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복지를 포괄하여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토록 함.

나. 기본방향

- 공공복지서비스 조직과 민간복지자원간의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활지원, 생업용자 등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급여를 제공함.
- 일자리 찾기, 자활지원센터 설치, 각종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사회참여형 개방적 복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감.
- 사회복지시설 입지는 정적이며 소외된 공간에서 탈피하여 동적이며 개방형으로 배치토록 함. 통합형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문의료기관 및 미래형 산업인 실버 문화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함.



<그림 III-5-2> 사회복지부문의 계획방향

3. 사회복지부문의 사업계획

가. 노인복지

(1)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태도에 기초한 복지정책 추진

- 제주지역 노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뚜렷하게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음.
- 현재 수입이 되는 일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다는 점, 노부모 부양책임이나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에 의해 뒷받침됨. 따라서 노인들의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태도에 기초한 복지정책 추진이 요청됨.

(2) 강한 지연성에 기반을 둔 복지프로그램 개발

- 지연성이 강한 전통문화로 제주지역 노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족과의 관계 못지 않게 친구나 이웃과의 사회관계가 활발하므로 지역사회 지연성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를 기초로 한 사회안정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웃집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음. 이웃에 대한 정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 이웃에 사는 노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틈을 내서 도와 준다면 개인주의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사회연대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임.

(3) 지역간 차이를 고려한 복지정책 추진

- 제주시 지역의 노인들은 다른 시·군 지역과는 다르게 도시적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할 때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노인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하는 노인복지사업 추진

-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들의 시대적 욕구를 잘 파악하여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주기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노인 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함.
- 노인욕구조사에 기초하여 기존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새로운 욕구와 문제에 대응해 나감.

(5) 소득보장형 복지시책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 및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연금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연차적으로 확충함.
-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함.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욕구에 부응하는 단기적 일자리를 개발함.
- 노인공동작업장을 확대 설치하고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고용기회의 제공과 소득 증진에 기여하며 특히 관광 관련 노인취업직종을 개발·보급하여 일거리 제공 기회를 확대함.
-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하여 제주지역 노인의 근면성과 장수성을 고려한 ‘고령자협동조합’ 구성 기반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감.

(6)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건강지원서비스 강화

- 제주지역 노인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의 요양시설에 대한 서비스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편임.
- 현재 제주시와 북제주군 지역에 1개소씩 있는 무료 요양시설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하는 한편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시설 입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들을 가급적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고 노인들 스스로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제주시 지역에 치매전문요양시설 등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감.
- 현재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비 지원, 혼자 사는 노인 간병비 지원, 노인건강진단결과 유질환자 진료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물리치료사 인건비 지원 등 노인 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자 및 지원액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간호사 경로당 순회 사업 등 재가노인 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실시함.

(7) 사회참여 기회의 확충

- 노인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복지기관·단체 및 시설에서 실시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감.
- 유희인력 활용과 여가활동 장려 차원에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에서의 활동과 각종 프로그램을 노인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노인자원봉사 모임을 조직하여 지역실정 및 전직 경험에 알맞은 청소년교육, 선도활동 등으로 봉사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감.
-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각종 문화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운동이나 가벼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활동 서비스를 지도하는 역할을 할 노인활동지도자의 양성과 배치를 확대해 나감.

(8) 노인 긴급구호체제의 확립

- 갑자기 재난을 당하는 노인들을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긴급 구호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도화해 나감.
- 혼자 사는 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119를 호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
- 장기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전화를 통한 접촉으로 신변의 안전과 도움을 확인하는 전화 확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함.

(9)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확충

- 시설 수용 및 이용에 대한 노인들 및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노인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감.
- 노인들이 가족 및 친족, 이웃들과의 사회관계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권 내에 시설을 설치하고 확충해 나감.
-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하여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 지역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함.

나. 장애인복지

(1)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 입소시설에서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의 중간단계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과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
- 장애범위 확대 계획에 따라 직능별 시설과 특수교육시설(2001. 4월 현재 2개소→2011년 4개소), 발달장애 및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등을 확대 설치함.

(2)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턱낮추기, 화장실 개조 등의 주택 개보수사업을 시행함.
-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 시내·외버스 운행으로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및 생활안정도를 도모하고,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및 수화통역센터를 확충함(200년 1개소→2011년 4개소).
- 주요 건축물이나 교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옥외이동공간의 편의시설인 휠체어 이동로, 유도블록, 점자안내판, 낮은 공중전화, 점자코드버튼, 안내방송,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완만한 경사로 등의 설치를 확대함.

(3) 재활자립 서비스 강화

- 수화통역사, 점역사, 청능훈련사, 보행훈련사, 정신재활프로그램 지도자 등의 재활전문인력의 종합적인 양성·관리로 양질의 재활서비스를 제공함.
- 의료적 성격이 강한 보장구 품목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와 의료보험 비급여 품목 및 일상 생활용품에 대해 장애인에게 무료 지급함.
- 장애인 생산물품에 대한 발주 지정제도의 활성화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확대함(2000년 1개소→2011년 4개소).
-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과 함께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함(2000년 1개소→2011년 4개소).

(4)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서비스 강화

-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 간병수당을 지급함.
- 장애로 전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장애연금 지급을 실시토록 함.
-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활성화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케어(care) 서비스체계를 구축(케어센터 설치와 케어복지사 파견사업)함.

(5) 장애인 주택 건립 지원

-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형태의 장애인 주택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조하여 적극 개발·보급함.
-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는 임차토지 및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원하고, 전 세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함.
- 민간주택의 건설 및 개조에 대해 저리융자 등 재정 금융혜택을 부여하여 장애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자산보유정도, 주거수준 등을 고려한 선별적이고 탄력적인 지원책을 강구함.
- 장애인이 주택의 내부를 편리하게 개조할 수 있도록 건축비의 저리 융자 및 지원과 무료설계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6)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 장애인 복지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재가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과 재활서비스를 확충함.
- 종합복지관내 장애인 클리닉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물리치료로 장애극복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재가장애인 재활교육을 적극 추진함. 재가복지 봉사센터를 설치 요보호 대상자에게 지원, 간병,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아동·청소년복지

(1)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홈메이커 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소득보장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정서적으로도 그들의 부모 역할을 보충 내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함.

- 1주일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부모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충 내지 지원해 주는 홈메이커 파견사업을 강구해 나감.
- 친척 위탁, 위탁가정 보호, 소단위 규모의 그룹홈 사업을 실시하고, 여성 청소년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사회적·정서적으로도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므로 특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감.

(2) 생활이 어려운 아동·청소년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은 경제적 안정 여부에 좌우되고 아동·청소년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저한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토록 함.
- 빈곤 가정 아동·청소년들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 나감.

(3) 요보호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 요보호 아동들이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정위탁사업 또는 가족형태(그룹홈) 보호사업 등을 추진하여 가정보호 사업을 활성화해 나감.
- 학대 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운영(국번 없이 1391)을 내실화해 나감.
- 결연기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요보호 아동에 대한 후원, 경제적 및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입양기관 운영을 내실화하여 입양에 대한 상담, 입양 알선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나감.
- 가출아동, 불량아동, 가정폭력으로 학대 받는 아동 등 보호하고 치료할 아동·청소년 일시보호시설, 아동·청소년전문상담소를 설치 운영함.

(4)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 퇴소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확충해 나감.
- 시설아동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과 시설 운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5)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민사회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해환경과 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 활동을 강화함.

(6)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확충

- 청소년들이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 여가와 휴식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정보·문화·교육·여가·직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보함.
- 주요 시설로는 체육활동공간(체력단련장, 라켓볼, 볼링장, 포켓볼장 등), 교양·문화공간(청소년전문상담실, 휴게실, 정보자료실, 동아리방 등), 전문프로그램 운영 공간(정서함양실, 특별활동실,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등)을 설치토록 함.

(7) 청소년 문화의 집 확대 설치

- 근린생활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다기능의 편리한 시설을 갖춘 청소년 전용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인터넷실, 비디오감상실, 다목적실, 음악연습실, 동아리방, 독서실 등을 마련함.
- 운영 실적이 미흡한 마을 단위 청소년수련실, 마을회관, 폐교시설들 가운데 시설 규모와 접근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전환시켜 나감.

(8) 청소년야영장 조성

- 청소년들이 자연환경 속에서의 야영을 통한 수련활동을 함으로써 모험과 개척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함.
- 앞으로 주 5일 근무(수업)제 등으로 증가하게 될 여가활동 시범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연중 이용토록 함.

(9)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 청소년들에게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함.
- 전통민속놀이와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함. 지역사회 청소년의 축제 한마당으로 정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함. 시·군별로 체계적인 연간계획을 마련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함.

(10)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화

- 청소년수련시설별로 기존 수련시설의 입지여건과 시설, 장비 등을 감안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특성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용을 극대화함.
- 문화감상, 과학정보, 사회봉사, 모험과 개척정신, 전문직업능력, 국제감각 등 6개 영역으로 구분, 특성화하여 이용자 중심의 시설로 발전시켜 나감.

(11) 대학문화 거리 조성

- 제주지역에는 4년제 대학 3개교와 2년제 대학 3개교가 있으면서도 뚜렷하게 대학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없고 대학생의 활기가 상업적 문화에 매몰되는 경향이 있음.
- 대학생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제주시내에 대학문화를 장려하는 거리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 나감.

(12) 청소년 과학축전 개최 및 지원 확대

-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과학 활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청소년을 육성해 나감.
-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과학체험 캠프를 만들어 과학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흥미 있는 과학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캠프를 운영함.

(13) 청소년 어학 캠프

- 제주도내 대학(교)의 외국어교육관, 평생교육원, 외국어 관련 학과와 협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학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학캠프 개설 및 운영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함.

라.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

(1) 여성복지시설의 확충

- 가정과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이혼, 매매춘 등)의 예방 프로그램과 요보호 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미혼모시설, 선도보호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여성복지 증진의 효과를 증대시킴.

- 제주여성의 강인함과 활동력을 바탕으로 한 여성 테마파크를 5만평 규모로 조성하여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정립·제고시키고, 향후 창조적인 인류문화 조성에 기여한 여성 문화의 메카로 육성함.

(2) 여성복지 증진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예산 확충과 시대 변화에 부응한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여성교육문화센터 및 여성회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만 있을 뿐 농·어촌적 성격이 강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는 여성들이 여가 및 사회교육,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없음. 농·어촌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휴식공간 확보와 이동문화센터, 산후조리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농·어가 도우미, 여성용 농기계 개발·보급, 여성농·어민단체 지원,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의 농어촌 여성시책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여성의 능력 개발과 소외감을 해소함.

(3)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자립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여성들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모자가정 자립금의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절차 간소화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함.
-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 후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학습지도와 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킴.
-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및 임대아파트의 ‘저단가 주택할당제’ 실시가 필요함. 저소득층 모자가정의 자립을 위하여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 지원함.

(4) 아동 건전 육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

- 영아와 장애아 전담 등 특수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시키고 야간제, 시간제, 휴일보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하여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함.
- 만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범위를 확대시킴. 입양가정 양육보조금의 지급대상을 확대(장애아동 입양가정→정상아동 입양가정)시킴. 시·군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함.

-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단독형, 공동형)의 권장 및 확대를 통하여 취업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함.
-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함.

(5)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가사나 육아 등으로 정규 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주부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기존 1개소(제주 YWCA)에서 각 시·군별로 1개소씩 확충시킴.
- 여성실업자 및 실직 여성가장을 위한 장려금의 확대 지급 및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강화함.
- ‘여성채용목표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함. 남녀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제재의 강화가 필요함. 출산후 유급휴가제의 실시로 여성의 사회참여와 고용 촉진을 강화함.

(6)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여성단체를 네트워크화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여성단체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함. 여성을 위한 쉼터 조성과 다양한 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 여성의 정치참여와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포럼을 구성·운영함. 여성전문 과학기술인력을 발굴하고 육성시키기 위하여 DB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선진지역 교류 및 국외훈련을 실시함.
- 여성사회교육 실시 기관의 교육정보를 네트워크화하여 여성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마.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

(1)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소득,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생활을 직접 보장함.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단순 보호차원의 소득 이전적 복지보다 교육, 직업훈련 등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경제발전에도 기여하는 생산적 복지를 강화함.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가구 등 주거보호가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공동생활 가정(그룹홈 : Group Home) 방식을 도입하여 과중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을 해소토록 함.

(2) 자활지원서비스의 확충

- 지역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활후견사업을 수행키 위해서는 기존 시지역의 자활후견기관과 함께 북군과 남군의 경우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걸쳐 양분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 2개소(분소형태)의 자활후견기관 설치가 필요함.
- 저소득층 자녀중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대입 학자금을 지원하여 인재 육성 및 궁극적인 자활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함. 단순한 차원의 취로사업을 지양하여 간병, 집수리, 방도배 등의 업그레이드(Up-grade)형 사업으로의 지속적인 추진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함.

(3) 사회안전망 구축

- 종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만이 설치되어 있음. 북군과 남군의 경우 사회복지관을 각각 1개소씩 설치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적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도·농 지역간의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복지 증진을 도모함.
- 저소득층(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편부모가정)과 이장, 119구급대, 경찰, 보건소, 자생단체 등의 긴급구호 및 응급구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회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함.

(4)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사회복지 전담인력 확충

- 다양해진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대상자 100가구당 1인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충함.
-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 및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확충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사무소의 설치, 주민복지센터의 확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5)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 수요자 중심의 재가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 단체간의 협력·조정을 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꾀하고 긴급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보함.
-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인력간의 파견·교환 근무를 실시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함.

(6) 사회복지 인력 자원 발굴과 육성

- 도내 사회복지과 졸업생의 유휴인력을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편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의 지원인력으로 활용함.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사회복지지도자로 육성함.

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 민간 자원봉사 활성화

- 생활 속의 자원봉사 육성 : 1도민 1개 단체 가입, 1도민 1가지 봉사활동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함. 각 회사별 자원봉사 모임 결성 및 정기적 자원봉사 전개를 장려함.
- 도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자원봉사협력교를 순차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자원봉사협력교로 지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장려금과 행정적 지원을 하여 청소년 자원봉사를 전도적으로 확산시켜 나감.

(2) 자원봉사 보상제도의 마련과 확대

- 경력인정제도, 상해보험 가입, 세제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확대해 나감.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저축하였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를 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은행제도'를 개발하여 운영함.

-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용품비 등 실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실시함.

(3) 자원봉사관리의 체계화

- 각 부서별, 단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자원봉사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회성 또는 행사 위주의 자원봉사를 지양하고 자원봉사를 전담하는 기관과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결함.
- 자신의 취미나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유형을 체계화하며 전문 자원봉사 영역을 개발하고 전문 자원봉사그룹 결성을 장려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자치단체 내의 부서간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고 기관간 또는 기관내부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감. 나아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함.

사. 장묘문화 개선 및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

(1) 단위면적 축소 추진과 묘지 면적의 엄격한 관리 감독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분묘기당 면적의 내용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
- 기당 면적의 축소를 위한 조례 제정을 모색하고, 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함.

(2) 묘지의 집단화·공원화 추진

- 사설묘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공설묘지를 활성화함.
- 집단묘지 시설 내에는 조경, 편의시설, 환경 등과 같은 부문에도 많은 주의를 기울여 공원화함.
- 도내 공설묘지를 시범대상으로 삼아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의 시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집단묘지를 공원화시킴.

(3) 대안적 묘지제도의 제시

-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의 봉분식 매장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묘지제도를 모색함.
- 납골묘와 납골당을 혼합한 가족묘 등 매장문화와 화장문화의 장점을 조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함.

(4) 화장제 적극 유도

- 노후한 화장장을 현대화하고 산남지역에도 시·군 공동으로 출자하여 화장장을 설치함.
- 무료 화장제도의 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

(5) 납골률 제고와 납골당 시설의 현대화

- 납골율이 50% 수준이 되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함.
- 납골당의 노후한 시설을 현대화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함. 향후 남서부지역(서귀포시, 북제주군 지역)에 공설 납골묘지 각 1개소를 설치함.

(6) 무연고 묘의 정리

- 관련 법규에 따라 기존의 무연고 묘를 점진적으로 정리하되 해당 주민들과의 장기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무연고 묘 이장에 대한 마찰을 최소화함.
- 경작지에 소재한 무연분묘를 우선 이장하되 납골당 또는 공설묘지에 안치함.

(7) 건전한 가정의례 정착

-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적기에 예식장을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무료 예식장 제공을 확대하며, 결혼식을 하지 못한 저소득 동거부부들을 위하여 합동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시설 확보 및 지원체계를 강화함.
- 소생활권 마을 단위로 예식공원, 장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특히 마을특성을 살릴 수 있는 조각공원, 생태공원, 생물공원 등과 어우러진 적정입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장례식장을 병원 영안실과 장례공원 중심으로 건립하여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 특히 상재시 협소한 주거공간을 보완하고, 장례문화를 생활권별로 통합 시스템화함으로써 장례편의와 비용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제3절 지역안전관리의 정보화로 안전 제주 구현

1. 현황

가. 자연재해(풍수해)

- 전통적으로 매년 7월~8월경에 태풍이나 호우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1995~1999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을 살펴보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음.
- 2000년 기준 피해규모는 인명피해 10명, 공공시설 피해 122억원으로 전체 81.9%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14억5천만원(9.7%), 건물 8억7,800만원(5.9%), 선박 3억6,900만원(2.5%), 농경지 800만원(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피해와 인명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표 III-5-16> 풍수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연 도	사망	실종	이재민	피해액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1996	7	10	-	362	0.6	184	-	175	2
1997	-	3	-	5,769	100	42	2,878	2,198	551
1998	2	8	-	1,192	10	366	24	198	594
1999	10	3	-	29,422	546	261	429	14,341	13,845
2000	1	9	225	14,905	878	369	8	12,200	1,450

자료 : 제주도 민방위재난관리과, 내부자료, 2001.

나. 재난사고

- 인위적 재난에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화재 발생, 산불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III-5-17> 연도별 재난사고 유형

(단위 : 건)

유 형 연 도	교통사고	화 재	산 불	익사사고	건물붕괴	기 타
1996	3,251	195	10	25	2	149
1997	3,250	236	14	20	1	146
1998	2,856	391	15	-	2	52
1999	2,857	438	6	19	1	25
2000	3,048	449	5	-	1	39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다. 구조·구급 현황

-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 활동을 분석해 보면 신고건수가 1995년 7,586건에서 2000년 2만318건으로 2.68배, 이송건수가 1995년 6,335건에서 2000년 1만6,556건으로 2.61배, 이송환자 수는 1995년 6,740명에서 2000년 1만8,309명으로 2.72배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

<표 III-5-18> 119 구조·구급대 활동 현황

연 도 \ 구 분	신고건수(건)	이송건수(회)	이송환자수(명)
1996	9,329	7,786	8,411
1997	11,796	9,644	10,376
1998	13,758	10,780	11,642
1999	18,681	14,818	16,436
2000	20,318	16,556	18,309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제주도 소방행정과, 내부자료., 2001.

- 사고 종류별 구조활동을 보면 2000년 기준 구조활동에서 교통사고 구조활동이 364건(41.8%)으로 가장 높고 기타 282건(32.4%), 수난사고 88건(10.1%), 건물사고 71건(8.2%), 화재사고 42건(4.8%), 기계사고 12건(1.4%), 산악사고 12건(1.4%) 순임.

<표 III-5-19> 사고 종류별 구조활동 현황

(단위 : 건)

연도 \ 구 분	계	사 고 종 별						
		교통사고	화재현장	산악사고	수난사고	기계사고	건물사고	기타
1996	512	239	22	10	80	31	51	79
1997	548	222	4	1	73	60	84	104
1998	882	317	5	11	144	16	71	307
1999	1,025	352	27	9	126	13	79	419
2000	871	364	42	12	88	12	71	282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제주도 소방행정과, 내부자료.,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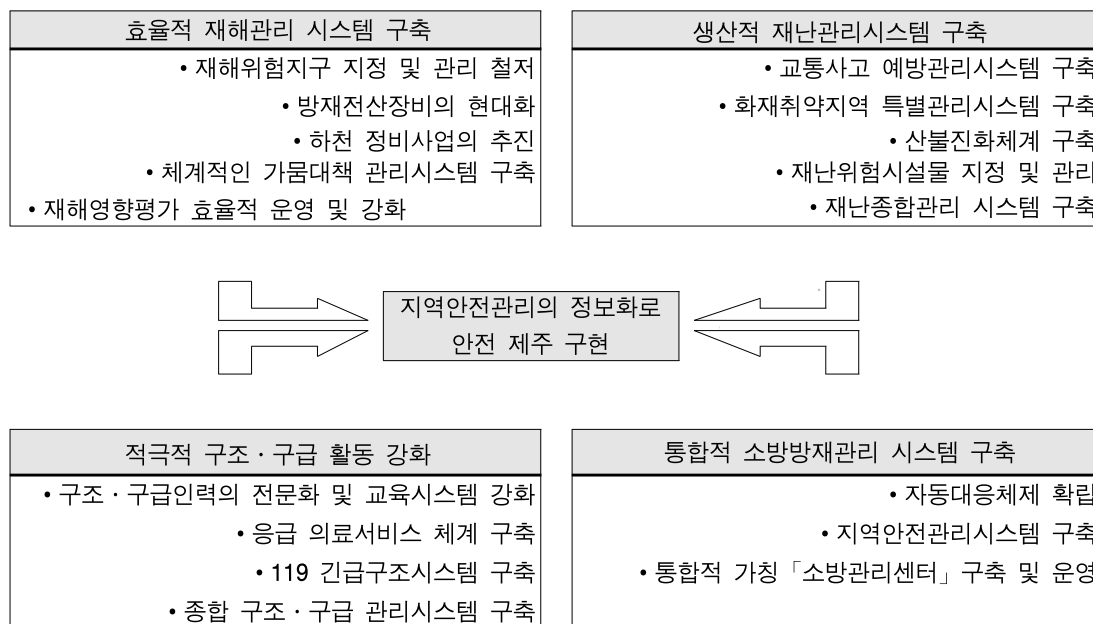
- 구조활동 처리 현황을 보면, 2000년 기준 총 출동건수가 1,187건중에서 처리건수가 707건(59.6%), 미처리건수가 480건(40.4%), 구조인원이 871명으로 출동건수와 구조인원이 매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세계평화의 섬 조성, 각종 국제행사 개최지에 걸맞게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역안전관리 정보화체계를 구축하여 무재해 및 최고의 안전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도민, 내국인, 외국인들에게 재해·재난으로부터 최대한의 신변보호를 위해 안전보장과 수준 높은 안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제주의 위상을 한 차원 높임.
- 지역 특성상 관광을 목적으로 한 외래 관광객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대회 및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내·외국인들을 위해 지역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방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소방관서 신설, 첨단 집단구조·구급장비 보강대책은 계획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함.
- 각종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구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 구조구급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가칭 통합적 「소방관리센터」를 구축·운영함.

나. 기본방향



<그림 III-5-3> 소방·방재 부문의 기본방향

3. 소방·방재부문의 사업계획

가. 자연재해 관리

(1)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재해위험지구로 기 지정된 26개 재해위험지구를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예산을 투자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함.
- 상습침수예상지역에 ‘자동경보시스템’과 침수 정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침수 지역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우량 경보시스템과 자동음성통신시스템의 구축으로 재해상황 발생을 사전에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
- 태풍 및 집중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대비계획을 수립함.
- 재해위험지구 지정 : 제주시 12개, 서귀포시 1개, 북군 5개, 남군 8개 등 총 26개 지구

<표 III-5-20> 주요 재해위험지구 현황

구 분 지 역	지 구 명
제주시(12개)	산지천하류, 산치천, 독사천, 광령천하류, 이호천하류, 화북천, 도근천하류, 흘천하류, 원장천, 방천, 삼수천, 음나물내
서귀포시(1개)	천지연
북제주군(5개)	상명-월림지구, 한림천, 함덕오일시장, 북촌리해동, 금악
남제주군(8개)	천미천, 고수천, 달산봉, 표선, 위미, 신난천, 가시천, 성읍

자료 : 제주도 민방위재난관리과, 내부자료, 2001.

- 재해위험 지구의 등급별 기준 : 재해위험 지구를 1~3등급으로 구분 관리함.

<표 III-5-21> 재해위험지구 등급별 기준

구 분 빈도	1등급	2등급	3등급
피해발생빈도	1990년도 이후 피해발생 회수 4회 이상	1990년도 이후 피해발생 회수 2~3회	1990년도 이후 피해발생 회수 1회

(2) 방재전산장비의 현대화

- 최근 이상기후 등 예상치 못한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설 및 장비를 현대화함.
- 기존 자동 강우량기(30개소)를 LAN방식으로 전환하고 주요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함.
-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금년 190여개소에 설치하고 향후 연차별로 시스템 프로그램 및 통신방식 등을 보완·발전시킴.
- 경계구역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연차별로 확대·시행하고, 향후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사전에 자연재해 발생을 예측함.

(3) 하천 정비

- 하천 및 소하천 지역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
- 하천(60개소) 및 소하천(83개소) 지역 지정

<표 III-5-22> 하천 지역지구 지정(지방 2급 기준)

구 분 지 역	지 구 명
제 주 시(17개)	산지천, 광령천, 이호천, 흘천, 원장천, 조천 등 17개 지역
서귀포시(22개)	연외·호근천, 보목천, 효돈천, 회수천, 서흥천 등 22개 지역
북제주군(9개)	한림천, 웅포천, 수산천, 귀덕천, 금성천, 어음천 등 9개 지역
남제주군(12개)	천미천, 서중천, 신례천, 종남천, 천미천, 신흥천 등 12개 지역

자료 : 각 시·군 건설과, 내부자료, 2001.

<표 III-5-23> 소하천 지역지구 지정

구 분 지 역	지 구 명
제 주 시(17개)	음나물내, 버으내, 병문천지류 등 17개 지역
서귀포시(13개)	선내골내, 용두골내, 법호촌내 등 13개 지역
북제주군(19개)	보말내, 조부천, 왕다리내 등 19개 지역
남제주군(34개)	삼각골천, 멜케천, 흥제기천 등 34개 지역

자료 : 각 시·군 건설과, 내부자료, 2001.

(4) 체계적인 가뭄대책 관리시스템 구축

- 가뭄에 대비하여 농작물의 관수시설 보강 및 지하수를 개발하고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를 강화함.
- 농·어촌 지역 내 밭작물 가뭄 극복을 위하여 저수장, 양수량,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적극 개발하고 저수량을 증대하여 가뭄에 효율적으로 대처함.
- 농업용수 개발 대상 지역에는 소규모 지표수를 개발하여 활용함.

<표 III-5-24> 농업용수 개발 대상지역(소규모 지표수 개발)

지	구	명	수	해	면	적(ha)
남군(8개소) (340ha)		보 성				49
		일 과				47
		안 성				43
		위 미				38
		난 산				47
		온 평				41
		사 계				39
		토 산				36

자료 : 농업기반공사, 내부자료, 2001.

- 1단계 가뭄 대책 준비·계획단계 : 가뭄상황 분석 및 검토(가뭄 대비 점검반 편성, 현장 점검 계획 수립), 영농대비 용수 확보 대책 계획 수립(수리시설, 관정·양수장비 점검·정비, 지하수 탐사 및 암반관정 개발계획 수립, 가뭄상습지 및 물 부족 우려지역 영농대책 수립).
- 2단계 가뭄 우려 초기단계 : 용수대책상황실 설치 운영(밭작물 대책 강구 및 가뭄지역 급수 추진, 농기공 기술지도 요청 및 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등)
- 3단계 가뭄 확산 단계 : 가뭄대책 상황실 확대 편성 운영, 가뭄 극복 3대 운동(저수, 절수, 용수 개발)전개, 가뭄 극복 비상령 발동 및 용수 급수 대책 총력체계 돌입, 정부 관련 업체와 협조체계 강화 등
- 4단계 가뭄대책 마무리단계 : 가뭄대책 마무리 현장 확인 점검, 관정 개발의 사후 관리 및 급수시설의 문제점 파악, 용수 확보를 위하여 굴착된 하천, 배수로의 원상복구,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및 가뭄대책 사업비 정산

나. 재난관리

(1) 교통사고 예방관리시스템 구축

- 조기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운전자에 대한 폭넓은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주민 대상 교통안전문화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운송업체 관리자 및 종사원에 대한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함.
-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교통안전표지 시설 설치, 보·차도 분리 시설, 신호등, 가로안내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함.
- 동·서부산업도로의 개통에 따른 사고위험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면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

(2) 화재취약지역의 특별 관리시스템 구축

- 대형 화재 취약 대상 시설(179개) 지정 및 관리

<표 III-5-25> 대형 화재취약 대상 시설

지 역	시 설 물
제주시, 북제주군 (126개)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통신촬영시설, 운동자동차관련 시설, 대형위험물, 지하가, 복합건축물
서귀포시, 남제주군 (53개)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전시시설, 관광호텔, 종교시설, 위험물, 복합건물

자료 : 제주도 소방방재본부, 내부자료, 2001.

- 대형 화재 발생시 신속하게 진압 및 응급 복구하고 화재취약지역인 재래시장과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에 대한 화재발생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함.
- 도 소방방재본부장 주관하에 신속한 출동체제를 확립하여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활동체제를 정비함.
- 위험물·가스 안전 관리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하고, 화재에 대응하는 소방력의 과학화·전문화를 체계적으로 도모함.

(3) 산불 진화체계 구축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관리 강화

<표 III-5-26> 입산통제구역 지정(2000년)

지 역	개 소	면 적(ha)
제 주 시	11	1,196
서귀포시	14	4,010
북제주군	84	10,608
남제주군	43	5,019
국립공원	4	15,008
합 계	156	35,841

자료 : 제주도 소방방재본부, 내부자료, 2001.

- 입산통제 지역에서는 화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함.
- 관할 시·군에서는 구역 내 산불 방지 최우선 지역을 설정하여 산불감시원 및 공익 근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상시 감시 및 연락체제를 확립함.
- 봄철, 동절기 등 건조기에 집중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함.
- 대형산불 발생시 초동 진화 및 효율적인 산불 방지를 위하여 소방헬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함.
- 산불방지를 위한 도민 스스로의 산불예방 의식개혁과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함.

(4)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관리

- 재난발생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 점검과 보수·정비를 시행함.
-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함.

<표 III-5-27> 재난위험시설 현황 (2000년)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재난위험시설					
교 량	4	3	1	-	-

자료 : 제주도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행정통계」, 2001.

(5) '방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재난에 대비하여 위험시설물 및 환경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DB화하고, 재난발생을 최대한 예측할 수 있는 방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전기, 가스, 통신, 상·하수도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방지 및 사고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도록 함.
- 필요시 관내의 각급 긴급구조·구난기관 및 유관기관의 인력장비가 신속히 재해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구함.
- 재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유형별로 생계비, 사망 및 실종자 위로금, 주택 복구비 등을 지원하여 조속히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함.
- 재해발생 위험 및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소생활권 단위의 이재민 수용소를 지정 관리하고, 일정 규모의 비축물품을 확보하는 등 재해 발생대비 구호 및 지원태세를 갖추.

(6) 도시방재시설 기준 및 규범 강화

- 도시방재시설에 대한 입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요한 도시시설의 정비를 도모하고, 소방·소화활동을 위한 도로 정비, 소방도로 확보, 오픈스페이스의 체계적인 배치 등을 통해 방재 및 피난기능 부여방안을 마련함.
- 건물과의 인동거리를 확보하고 내구성 건물로 도시를 개발하는 방안, 내구성 건물과 지하시설을 견고히 하여 전력, 가스, 상수도 등은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는 방안, 의료시설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방안, 내수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로와 소하천의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 등 도시방재시설 기준을 마련함.
- 도시화로 인한 투수성 면적 감소로 인하여 유역의 침투홍수량, 총유출량 등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있어 하류지역 수해발생에 심각한 우려를 줄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방재기준으로 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함.
-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관리와 예방 교육, 홍보 확대, 범도민적인 안전문화캠페인을 전개함.

다. 구조·구급활동 강화

(1) 전문 소방인력 양성 및 장비 현대화

- 소방의 주업무인 화재 진압과 재해·재난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구급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헬기를 도입하고 소방인력을 확충함.
- 소방업무의 세분화·전문화에 부응하여 직능별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확보함.
- 건축관련분야(건축, 기계, 전기, 소방, 산업안전기사 등), 구조·구급분야(응급의학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위험물·가스분야(위험물 관리, 가스 자격자 등), 해양·항공 분야(항해사, 기관사, 조종사, 정비사 등)의 전문방재 인력을 확보함.

(2) 구조·구급 교육 강화

- 각종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여 구조·구급 담당자 교육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구조·구급 담당자 교육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전문 협회 및 조직에서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전 교육을 통하여 재해 및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요령 등을 쉽게 인지하고 생활화함.
- 구조·구급대원은 전문대원반과 기본대원반으로 자격을 구분하여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편성·실시함.
- 전 도민의 119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과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
-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내 「소방학교」를 신설함.

(3)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적의 침공이나 지역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공, 응급 방재, 구조, 복구체계를 구축함.
- 재해 및 재난 발생 대비 차원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임무 규정을 확대함.

- 민방위대 비상연락망을 체계적으로 구축·보완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장비 동원 협조체제를 확립함.
-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사고발생지역의 민방위대와 민간조직간의 상호 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위하여 지역별 방재특성훈련을 강화시킴.

(4) 응급 의료정보시스템 구축

- 도내 자치단체간 상호 응급협력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
- 1단계(정보 수집) : 도 소방방재본부의 지휘·통제하에 각 자치단체가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함.
- 2단계(정보 분석 및 지원) :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 분석을 통하여 피해발생 지역으로의 출동할 수 있도록 4개 시·군 자치단체간 응급지원시스템을 확고히 함.

(5) 119 구조·구급대 기능 및 서비스 강화

- 일반구조대 운영 확대 및 특수구조대 신설 : 도내 일반구조대가 2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문 구조인력의 확충과 장비의 현대화가 필요함. 특히 산악 및 해난사고 등에 대비한 특수구조대의 신설이 요구됨.
- 119 상황실 내 전문의사 상주 : 119 구조·구급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119 상황실 내에 전문의사를 상주하도록 함.
- 응급구조사 양성 : 119 구급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대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도록 하고, 전 대원들의 자격증 시험응시 기회를 확대시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대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함.
-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계획에 따른 재해·재난시스템과 소방정보화시스템을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119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함.

(6) 무선페이징시스템(일명 안심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확대

- 65세 이상 무의탁 생활보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안심시스템을 운영함.
- 시스템 설치 대상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65세 이상 고령자, 언어·청각·신체장애자 및 보호를 받아야 할 장애인 등

- 2000년 현재 도내 안심시스템이 제주시·북제주군 지역내 720가구,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내 710가구에 기 설치되어 있음. 향후 연도별 시스템 설치 가구 수를 점차 확대·운영함.

(7) 종합 구조·구급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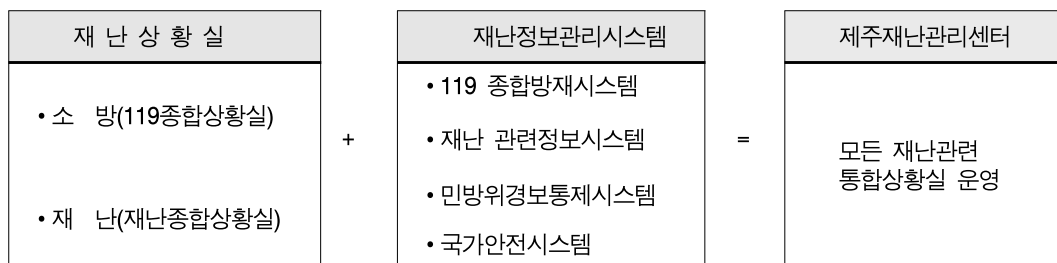
-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접수로부터 출동지령·현장도착·상황종료까지를 자동화하여 신속·정확한 출동과 진압작전 및 인명구조를 전개함.
- 새로운 정보기술, 유선·다중무선, 지리정보시스템(GIS), 위성위치 측정시스템(GPS), 영상정보수신시스템 등을 적용한 재난 구조구급 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119 신고 접수, 지령, 관제, 정보 지원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는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
- 재해신고 접수로부터 출동지령 및 현장 상황 종료까지의 진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함.
- 종합상황실의 운영으로 소방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방재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시스템 조작의 용이성·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최신 장비를 중심으로 하는 진압 체제를 마련하여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함.
-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재래식 지령체제를 개선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령 운영, 지령 관제, 차량 관리, 정보 지원 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함.

(8)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

- 도민들에게 재해 및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안전 문화 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실전체험 공간을 조성함.
- 재난영상 체험관, 화재·전기·응급처치 등 실전 체험시설, 소방역사 및 관련 물품 전시, 도민 이용 체력시설
- 1단계(2002~2003년) : 투자 심사 및 건립 기본 운영방안 마련, 국내 및 선진 안전체험시설 벤치마킹, 2단계(2004년) : 기본 및 실시설계, 3단계(2005~2006년) : 건물 착공 및 개관

(9) 통합적 「재난관리센터」 설치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재난관리센터」를 신설하여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게 함.
- 향후 모든 재난 상황을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자동 대응할 수 있도록 다원화된 각종 상황실을 통합·운영하고 첨단시설과 전문인력을 배치함.
- 소방·민방위·재난 등 관리부서 상황실의 기능과 인력을 ‘재난관리센터’로 통합하고 모든 신고처리체계를 119로 단일화함.
- 관련 정보·자료를 DB화하여 신속한 재난사고를 접수하고, 재난 예방·수습에 만전을 기함.
- 관련 유관기관 공조 및 협조로 명실상부 방재활동의 총 사령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



<그림 Ⅲ-5-4> ‘재난관리센터’ 운영체계

제6장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정주도시

제1절 토지이용 및 도시지역 개발

1. 현황

가. 지목별 토지이용

- 2000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임야가 925km²로 50.1%, 농경지가 541km²로 29.3%, 목장용지가 181km²로 9.8%, 기타가 153km²로 8.3%, 대지가 44km²로 2.2%임.
- 연도별 추이를 보면 농경지 중 과수원, 대지, 기타 등의 토지이용은 계속 증가함. 2000년 현재 농경지는 541.21km²로서 전체의 29.3%이며, 농경지는 2000년도에는 다소 감소하였고 전의 면적은 연평균 1.20% 감소함.
- 목장용지는 연평균 1.12%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의 청정성과 광활한 초지를 활용한 축산진흥의 결과임.

<표 III-6-1>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km²)

구 분	농경지				목장용지	임야	대지	기타	합계
	소계	전	과수원	답					
1991	519.85 (28.5)	387.36 (21.2)	123.39 (6.8)	9.1 (0.5)	163.96 (9.0)	962.32 (52.7)	41.45 (2.3)	138.03 (7.5)	1,825.61 (100.0)
1992	525.29 (28.8)	378.23 (20.7)	138.10 (7.6)	8.96 (0.5)	172.9 (9.5)	944.06 (51.7)	42.88 (2.3)	141.06 (7.7)	1,826.21 (100.0)
1994	532.35 (29.1)	358.68 (19.6)	164.91 (9.0)	8.76 (0.5)	173.58 (9.5)	931.44 (51.0)	45.18 (2.5)	144.05 (7.9)	1,826.60 (100.0)
1996	534.15 (28.9)	362.03 (19.6)	163.52 (8.8)	8.60 (0.5)	183.66 (10.0)	942.23 (51.0)	41.63 (2.3)	143.93 (7.8)	1,845.60 (100.0)
1999	541.61 (29.3)	347.62 (18.8)	185.68 (10.0)	8.31 (0.4)	181.41 (9.8)	928.16 (50.2)	43.74 (2.3)	150.99 (8.1)	1,845.92 (100.0)
2000	541.21 (29.3)	346.17 (18.7)	186.78 (10.1)	8.26 (0.4)	181.23 (9.8)	925.58 (50.1)	44.95 (2.2)	153.32 (8.3)	1,846.29 (100.0)
연평균 증가율 (‘91-’00)	0.45	-1.20	4.71	-1.07	1.12	-0.43	0.90	1.17	0.13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 2000년 현재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총 403.43km²로서 제주시 132.69km², 서귀포시 105.71km², 북제주군 87.99km², 남제주군 77.04km²이며 이는 행정구역 면적 1,845.92km²의 약 7.1%임.

<표 III-6-2> 도시계획구역 면적 현황 (2000년)

(단위 : km²)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03.43	132.69	105.71	87.99	77.04

-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용도 지정 현황을 보면, 녹지지역이 334.03km²로 가장 넓고 주거지역 41.96km², 상업지역 5.57km², 공업지역 3.69km²순임. 미지정된 지역의 면적은 18.18km²로 계획구역면적의 4.5%를 차지함.

<표 III-6-3>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현황 (2000년)

(단위 : km²)

합계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미지정
403.43	41.96	5.57	3.69	334.03	18.18

다.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 도시지역은 매립사업과 도시계획구역 확장으로 12.08km² 증가한 386.33km²임. 준도시지역 중 기존의 관광지구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정밀 조사하여 적정 용도지역으로 조정하고 신규 관광개발지인 괏지·재릉·차귀도지구 등은 준도시지역으로 편입할 예정임.
- 농림지역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법」에 의거 지정된 보전임지인데, 농산물 수입 개방에 의한 경제성 미약 등으로 현재의 면적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준농림지역은 골프장, 관광개발지구, 취락지구 등의 입지로 준도시지역으로의 전환이 감소하는 추세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무수천 일대 용도지역 적정화, 추자·우도면 군립공원, 마라·성산일출봉 군립공원, 서귀포시립공원 지정과 함덕관광지구 중 서우봉 일대를 준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면적이 다소 증가함.

<표 III-6-4>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 현황

(단위 : km²)

구 분		1994	1996	1998	2000
합 계**		1,846.144	1,866.200	1,948.058	2,069.305
육 지	소 계*	1,826.209	1,845.362	1,845.589	1,845.924
	도 시 지 역	374.251 (20.5%)	367.535 (19.9%)	386.193 (20.9%)	386.328 (20.9%)
	준 도 시 지 역	46.325 (2.6%)	55.380 (3.0%)	74.612 (4.0%)	80.027 (4.3%)
	농 립 지 역	162.898 (8.9%)	150.883 (8.1%)	150.579 (8.2%)	150.582 (8.2%)
	준 농 립 지 역	1,052.397 (57.6%)	1,081.478 (58.6%)	1,043.187 (56.5%)	1,036.942 (56.2%)
	자연환경보전지역	190.338 (10.4%)	190.086 (10.3%)	191.018 (10.4%)	192.045 (10.4%)
해 면	소계*	19.935	20.838	102.469	223.381
	도 시 지 역	19.935	20.838	17.569	18.463
	준 도 시 지 역	-	-	0.029	0.029
	자연환경보전지역	-	-	84.871	205.189

주 : 합계(**)는 고시면적을, 소계(*)는 행정구역면적을 말함.

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서 재구성함.

- 2000년 현재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1,845.924km²중에서 도시지역은 20.9%, 준도시지역은 4.3%, 농림지역은 8.1%, 준농림지역은 56.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0.4%임.

<표 III-6-5> 도시계획 현황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 계		395.43	395.14	398.44	402.28	403.46	403.43
시 · 군별	제 주 시	131.53	131.54	131.54	131.54	132.69	132.69
	서귀포시	95.65	95.65	105.71	105.71	105.71	105.71
	북제주군	소계	84.14	84.14	84.15	87.99	87.99
		한림	36.12	36.12	36.12	36.13	36.12
		애월	11.15	11.15	11.16	11.83	11.83
		세화	10.85	10.85	10.85	10.85	10.86
		김녕	7.06	7.06	7.06	7.06	7.06
		조천	8.06	8.06	8.06	11.23	11.22
		한경	10.90	10.90	10.90	10.90	10.90
	남제주군	소계	84.11	83.81	77.04	77.04	77.04
		대정	24.85	24.85	25.09	25.09	25.09
		남원	10.29	10.29	10.21	10.21	10.21
		성산	35.47	35.47	27.32	27.32	27.32
		안덕	7.09	7.09	8.52	8.53	8.52
		표선	6.41	6.11	5.90	5.90	5.90

<표 III-6-6> 시·군별, 도시계획별 용도지역 현황 (2000년)

구 분		용도지역(km ²)					
		계	주거	상업	녹지	공업	미지정
계		403.43 (100.0%)	41.96 (10.4%)	5.57 (1.4%)	334.03 (82.8%)	3.69 (0.9%)	18.18 (4.5%)
제 주 시		132.69	12.53	3.06	110.34	1.45	5.31
서귀포시		105.71	10.97	1.15	88.22	0.41	4.96
북제주군	소계	87.99	8.86	0.66	73.95	0.49	4.03
	한림	36.12	2.60	0.28	30.19	0.35	2.70
	애월	11.83	1.78	0.04	9.57	0.04	0.40
	세화	10.86	1.43	0.06	8.85	0.05	0.47
	김녕	7.06	0.70	0.04	5.91	0.03	0.38
	조천	11.23	1.34	0.20	9.58	0.02	0.08
	한경	10.90	1.01	0.04	9.85	—	—
남제주군	소계	77.04	9.60	0.70	61.52	1.34	3.88
	대정	25.09	2.87	0.27	21.09	0.21	0.65
	남원	10.21	2.25	0.10	7.42	0.13	0.31
	성산	27.32	2.40	0.17	23.27	0.32	1.16
	안덕	8.52	0.98	0.07	5.14	0.66	1.67
	표선	5.90	1.10	0.09	4.60	0.02	0.09

라. 택지개발 현황

<표 III-6-7>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 (2000년)

구 분	위치	면적(m ²)			사업비 (백만원)	계획인구 (세대수)	사업기간
		계	택지	공공용지			
계	7개소	3,794,129.1	2,034,833.8 -일반택지 1,876,775 -상업용지 158,058.8	1,755,046.3	585,098	64,565 (18,165)	
사계지구 (남제주군)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71,048.5	37,201.7	33,846.8	2,774	1,040 (260)	'91.5.1~ '93.4.30
서호지구 (토지공사)	서귀포시 서호, 법환, 강정동 일원	978,421.1	-일반택지 393,743.1 -상업용지 79,544.7	505,133.3	53,873	6,220 (1,520)	'89.5.2~ '2.12.31
일도지구 (토지공사)	제주시 일도2동, 이도2동 일원	1,091,735.1	607,111.6	484,623.5	195,691	19,760 (5,200)	'89.11.28~ '94.6.30
화북지구 (주택공사)	제주시 화북동 일원	222,287.9	149,854.8	72,433.1	40,600	8,746 (2,429)	'92.12.26~ '98.12.31
연동지구 (토지공사)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일원	948,816.5	-일반택지 390,667.8 -상업용지 78,514.1	479,634.6	196,012	18,564 (5,304)	'92.12.28~ '00.3.31
노형지구 (주택공사)	제주시 노형동 일원	365,325	231,958	133,368	88,177	9,185 (3,102)	'00.10.13~ '05.12.31
함덕지구 (토지공사)	북제주군 조천읍 함덕리 일 원	116,495	66,239	46,007	7,971	1,050 (350)	'01.10~ '04.12.31

마. 토지구획정리 사업

<표 III-6-8>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 (2000년)

구 분		개 수	면적(천㎡)		
			계	택지	공공용지
계		20개 지구	11,342	7,474	5,106
제 주 시	제 주 제 1 지 구	제주시 이도동	589	352	237
	제 주 진 성 동 지 구	제주시 삼도동	37	31	6
	제 주 삼 성 혈 지 구	제주시 이도동	149	110	39
	제 주 제 2 지 구	제주시 용담동	583	339	244
	제 주 신 산 지 구	제주시 건입동	570	376	194
	신 제 주 제 1 지 구	제주시 연동	1,422	1,007	415
	제 주 제 3 지 구	제주시 삼도동	983	632	351
	신 제 주 제 2 지 구	제주시 노형동	572	371	201
	제 주 신 산 제 2지구	제주시 건입동	1,015	672	343
	제 주 화 북 공업지구	제주시 화북동	289	214	75
	제 주 화 북 지 구	제주시 화북동	262	174	88
	제 주 이 도 지 구	제주시 이도 2동	829	535	294
	신 제 주 제 3 지 구	제주시 연동	757	492	265
	제 주 노 형 지 구	제주시 노형동	213	133	80
	제 주 삼 양 지 구	제주시 삼양동	658	435	223
	제 주 외 도 지 구	제주시 외도동	751	491	260
	제 주 화 북 상업지구	제주시 화북동	218	142	76
	소 계	17	9,897	6,506	4,079
서 귀 포 시	서 귀 포 제 1 지 구	서귀포시 서귀동	774	542	232
	서 귀 포 동 흥 지 구	서귀포시 동흥동	454	270	184
	서 귀 포 토 평 지 구	서귀포시 토평동	217	156	61
	소 계	3	1,445	968	1,027

바. GIS 구축 현황

<표 III-6-9> 중산간지역 GIS 구축 현황 (2000년)

보전지구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지하수자원	543.9(100)	17.9(3.3)	126.3(23.2)	40.7(7.5)	359.0(66)	—
생 태 계		17.9(3.3)	11.4(2.1)	58.7(10.8)	400.5(73.6)	55.4(10.2)
경 관		51.3(9.4)	23.1(4.3)	322.7(59.3)	106.8(19.6)	39.9(7.3)

주 : 도시계획구역 45.1km² 미포함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경제성장과 더불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제주도의 위상이 증대하고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으로 토지수요의 양적·질적인 수요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구조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과학적인 토지이용 관리체계가 요구됨.
- 주택용지, 상업용지 등의 개발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 보전과 1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지의 보전도 점차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임.
-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및 기능 집중과 상대적으로 인구감소와 기능 저하를 경험하는 서귀포시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균형 발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도심 교통체증과 집적 불이익에 따른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짐.
- 최근 제주시에 인과밀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우선주의의 팽배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난개발이 우려됨.

나. 기본방향

- 제주 경쟁력의 원천은 청정한 환경이라는 인식 아래 GIS 구축에 따른 ‘선계획 후개발’체제를 구축하여 난개발과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 및 확산을 방지함.
-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도시계획제도 기본방향에 따라 인간과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토지이용 및 공급은 하천·수변·습지 등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네트워크화를 미리 감안하여 적절한 개발 가능지를 찾아 이용·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자연지형과 경관, 물과 바람의 순환, 자원 절약 및 순환 이용, 자연과의 조화, 어메니티 증진 등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토지 이용 및 공급을 도모함.
- 토지 이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대규모 단지개발의 경우에는 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개발기준을 제시함.
-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전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타용도로 전용시에는 자연환경 보전 대책을 고려하며 토지의 광역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간의 유기적 공간체계를 정립함.

3. 토지이용 및 도시지역개발부문의 사업계획

가. 과학적인 토지이용 관리

(1)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관리체제 확립

- GIS 구축에 따른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준수하고 개발 가능지의 개발은 주변의 환경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함.
- 도시개발에 필요한 토지 공급은 기존 도시지역 내 미개발 잔여지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환함.
- 토지 공급은 시급도시를 중심으로 고밀도의 압축도시(compact city)개념으로 개발하고 기타 주변도시는 단위 생산성이 낮은 구릉지 개발을 통해 공급토록 추진함.
- 행위규제 내용과 지정 목적이 비슷한 지역·지구를 토지 적성에 맞게 우선적으로 구축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토지 관련 정보를 체계화하고 토지 수급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

(2) 환경 변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시에는 주변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경관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카이라인(skyline) 보전지구’ 등을 지정하여 자연지형을 최대한 보존·관리하도록 함.
- 환경친화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고 환경성 검토는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 토양·지형, 물 순환 체계, 녹지, 식생·동물, 폐기물, 소음 등의 항목 기준을 제시함.
-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 도시개발을 위해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환경기준을 설정하여 최소기준 요건이 충족되면 허용하는 ‘환경기준 설정용도지역제’(performance zoning) 도입을 적극 추진함.
- 시가지 내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을 확충함. 이는 유휴 잔여지땅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휴식 및 건강 증진, 사회문화활동의 장소로 제공하며 시가지 내 공원 확보에 따른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함.

- 화북공업단지에 대해서는 광역행정 차원에서 이전과 육성방안을 강구하되 관련 자치단체들로 (가칭) ‘화북공업단지이전및육성협의회’를 설치, 사회적·환경적·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전 필요성과 대상부지를 검토·선정하고 이전시 각종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함.

(3) 행정구역 단위 통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 국토이용관리체계의 개편으로 새로 실시하는 용도지역에 따라 자치단체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계획 수립 후 보전용지를 철저히 보전하는 한편, 개발대상지의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토록 함.
- 복수의 지자체가 협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역협동계획제도’를 도입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전략을 수립하며, 광역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계획내용은 광역적 문제를 안고 있는 해당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통합토지이용계획은 보전용지와 개발 가능지를 구분하여 계획적으로 토지를 이용·보전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 이전에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의 자연적·인문적 조건에 맞게 계획을 수립토록 함.
- 토지적성평가를 근거로 통합토지이용계획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지구에 대해서는 도시·농촌통합계획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보전용지는 철저한 보전대책을 마련함.

(4) 공익을 우선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토지는 되도록 공영개발로 추진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특히 경제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는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용지(openspace)를 충분히 확보토록 추진함.
- 지방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주택정책 차원의 지원을 병행함.

- 기존 시가지내 토지이용 효율화와 물리적 환경 개선 차원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위주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지 주민 재정착을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추진함.
- 제주시는 중앙에 중심상업, 교육, 문화, 역사기능을, 신제주에 행정·관광기능을 그리고 삼양에는 산업과 주거기능을 육성하며 장래의 위상과 현실성 그리고 환경성을 고려하여 도시공간을 업무 및 생활기능 공간의 다핵구조로 체계화함.

(5) 토지비축제도 도입 및 공공토지 보유 확대

- 도시용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공급, 바람직한 지역개발 유도,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적 ‘토지비축제도’를 도입하여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환수하며 부의 형평분배를 도모하고 장기임대로 토지 소유와 이용을 분리함으로써 토지를 건전한 생산수단으로 이용토록 유도함.
- 토지비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재원조달 측면과 비축토지 이용, 비축규모, 취득 관리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 및 각종 토지이용계획 등을 연계하여 시장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비축규모를 유지토록 함.
- 토지비축제도는 전반적인 토지정책의 틀 및 계획과의 연계 운영이 요구되며 초기 매입비가 막대한 반면 수입은 지속적으로 들어오므로 필요한 재원을 유연하고도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6) 부동산 금융 활성화 및 제도 개편

- 토지 및 부동산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부동산시장 관행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토지 및 부동산 관련 유동화 자산증권화 기법인 부동산 투자신탁(REITs :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과 자산담보부채권 등의 선진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함.
- 토지비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산유동화증권제도(ABS : asset backed securities) 등 부동산금융 활성화와 제도 개편을 통하여 시장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

- 자산보유자가 유동화대상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 또는 신탁한 뒤,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관리·운용·처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활성화해 나감.
- 부동산투자신탁(REITs)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유도하고, 증권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개발·운영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투자자에게 배당토록 함.

나. 준농림지역의 환경 보전적 기능 강화

(1) 준농림지역 내 개발 허용기준 강화

- 도시 인근 및 농어촌지역의 준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 전환되어 소규모 고층아파트 등이 무질서하게 입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개발 허용기준을 강화토록 함.
-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며, 시장·군수가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학교,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한 경우에만 용도 전환을 허용함.
- 경관 보전 및 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보전할 필요성이 높은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건폐율, 층고 등을 시·군 조례로 강화함.
- 기타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 변경은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계획적으로 입지토록 하고 환경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경우에만 허용토록 함.

(2) 소규모 사업지구 통합을 통한 연계 개발

- 준농림지역의 지형적 특성 등의 이유로 계획개발이 곤란할 경우, 인접한 몇 개의 소규모 사업지구를 연계하여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입지 가능하도록 유도함.
- 주택건설사업 대부분이 민간업체에 의한 사업성 위주로 건설되어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가 부족하고 소규모 사업대상지가 기존 사업지구와 연접·개발되어 결국에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미비한 대규모의 주택단지가 조성됨.

- 소규모의 사업이 연접하여 개발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불가능 할 시에는 개발 가능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하여 개발토록 유도함.
- 소규모 개발사업이 불가피할 시에는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단지개발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밀도의 전원주택 개발을 유도함.
- 프로젝트 파이낸싱제도의 도입을 통해 공사는 택지·관광단지·유통단지 등 대형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거나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통합개발을 추진함.

(3) 개발 가능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

- 준농림지역을 개발할 때 기반시설이 계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승인 이전에 주요 공공시설의 공급관리자가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개발이익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내용과 설치시기 등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함.
- 도시기본계획구역 내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의 개발 방향과 도시공간구조를 감안한 합리적인 개발이 추진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함.
- 고밀도 개발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역행하여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과 일치하고 도시적 개발이 바람직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함.

(4)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수립

- 준농림지역 내 행위 제한 내용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토지이용 규제와 지역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로 나누어 이원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함.
- 도시계획구역외에서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시 적용되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수립지침에서 제시하는 공공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충분한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세부시설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
- 소규모 주택지는 대부분 농어촌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변 자연경관, 농지에 미치는 영향, 생태·풍치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호한 스카이라인(skyline)의 보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함.

- 기존의 도시계획구역과 인접한 준농림지역 중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거나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여 계획적 개발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도모함.

(5) 절·상대보전지역의 관리

- 1994년 6월 2일부터 지정·관리되고 있는 절·상대 보전지역은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개정(2000.1.28)으로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의한 지하수, 생태계, 경관보전지구로 세분 지정·관리될 예정이므로 지리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전지역이 지정·고시되면 기존의 절·상대보전지역은 자동 해제됨.
- 절·상대보전지역 제도가 계속 존치되는 도시계획구역 및 일부 도서의 절·상대보전지역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지정·고시 후 여건변화로 보전가치가 퇴색된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정비해 나감.

다. 특성화된 도시지역의 개발·정비

(1) 도시생활권 중심의 기능 확충

- 도시지역은 시가화지역과 비시가화지역을 연계하는 공간구상으로, 시설과 경관을 분산된 집중형태의 현대와 전통의 경관과 시설을 구분하여 개발함으로써 개발의 수요와 보전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생활권 중심의 기능을 확충함.
- 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및 중추업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현대적 경관(developed landscape)을 갖춘 국제교류업무지구로 집중 개발하고 비시가화지역은 생활·문화·관광기능 수행을 위해 전통적 경관(preserved landscape)을 유지하도록 함.

(2) 제주시 : 국제교류기반 확충

-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연계화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취약한 경제기반을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임
-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개발 : 공항 주변에 항공화물 유통·물류단지를 조성하여 1차 산업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무역으로 육성하고 추후 활성화될 업무기능과 연계함.

- 관덕정 주변 지역의 고도를 제한하여 전통 도심으로 정비하며 새로이 개발될 제주공항 주변의 물류단지와 제주대학교 인근의 과학기술단지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는 기능 중심의 현대적인 경관으로 구성, 도심의 전통과 주변의 현대가 어울리게 함.

(3) 서귀포시 : 경관·문화·관광기능 강화

- 전통적인 경관과 문화를 유지하고 중문의 숙박업소, 컨벤션센터, 신시가지의 월드컵 축구 경기장 지역은 현대적인 경관으로 개발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게 함.
- 서귀포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관광도로를 개발하고 해안 주거용 부지는 도로망과 보행 연계를 통하여 해양경관을 최대한 살려 집단화·단지화를 도모토록 함.
- 중문관광단지는 다기능 리조트 시설을 입지시켜 차별화된 관광·쇼핑 메카로 육성함. 특히 한림·성산·대정·구좌지구는 기존 업무기능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자족성을 갖춘 중생활권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동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유통 및 의료기능을 분담토록 함.

제2절 읍·면 및 도서지역 개발

1. 현황

- 1차 산업은 관광산업과 함께 제주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산업의 양대 축을 형성함.
- 농·어촌 지역의 주요 소득원은 감귤을 비롯한 감자, 당근, 양파, 양배추, 맥주보리 등의 발작물과 돼지를 비롯한 축산물, 그리고 넙치, 전복 등 양식업임.
- 연평균 농어가 소득은 전국의 수준보다 매우 높은 편이나 가구당 부채는 많은 편임.
- 농촌상주 인구중 20~30대 젊은층의 점유율은 27.2%로 전국에서 제일 높음.
- 도시지역에 비하여 경제적 소득이 낮고 교육·의료 서비스, 사회복지 시설, 문화공간 등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잠재적인 이주성향은 높음.
- 제주시와 인접한 애월읍과 조천읍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주로 일자리와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제주시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임.
- 행정구역상 제주도 경내에 있는 도서는 유인도 8개, 무인도 55개 등 모두 63개임.
- 총면적은 15.451km²로 이중 유인도가 13.8km², 무인도가 1.651km²이며, 유인도에는 2,168가구, 5,716명이 거주하고 있음.
- 주민의 다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반농반어업, 농업, 상업 등에 종사하며 소득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임.
- 도서 주민들은 교육, 의료, 생필품 구매, 식용수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주하려는 성향이 높음.
- 도서 주민들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지역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함.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농·어촌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은 산발적인 기능별·부문별 접근을 지양하고 총체적인 영역별(territory)·지역별 접근을 지향함.
- 대내적으로는 각종 인·물적 부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내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 도시지역과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및 상위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함.
- 여타 도서로 형성된 지역은 중심 도서와 주변 도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중심도서는 중심지로서의 기반시설과 교육, 의료, 사회·복지시설 등을 입지시키고 주변도서는 기초생활시설을 구비하도록 함.
- 각 도서지역이 구비한 객관적 여건을 기반으로 발전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함.

나. 기본방향

- 중심지와 배후지간의 유기적인 상호 의존성을 제고하고 환경의 자정능력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추진함.
- 지역간 균형 발전과 농촌지역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관광단지·지구와 연계된 배후도시를 육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상업시설 등을 입지시켜 인구를 유입함.
- 도서 지역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경제성만을 고려하지 않고 타 제주도민간의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민의 기초수요 충족에 역점을 둠.
- 기초적인 생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함.
-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을 확충할 때에는 환경의 자정능력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함.

3. 읍·면 및 도서지역 개발부문의 사업계획

가. 읍·면별 발전전략

(1) 한림읍

- 한림항의 항만 기능 확충 및 물류종합센터 육성 : 천혜의 자연항한림항을 서부권 물류 집산지로 육성하고 종합물류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양장, 방파제, 창고시설 등 필요한 부대시설을 확충함.
- 재릉관광지구 중심의 임해관광벨트 구축 :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한림공원 및 비양도 일대를 연계한 임해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서부지역의 선도적 관광지로 개발함.
- 지역 문화회관 건립 : 한림읍 내에 있는 합창단과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서부권 문화 중심지로 육성함. 특히 국악공연장을 건립하여 전통음악을 계승·발전시킴.

(2) 애월읍

- 1차 산업 부문의 특화 전략 : 시설채소와 최첨단 온실을 이용하여 시설채소의 수출산업 기지로 육성하고, 과학 영농, 과채류 재배단지 조성 등 1차 산업을 집중 육성함.
- 제주시와의 접근성이 높고 조망이 좋은 광령지구는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하귀리 농업진흥지역의 인접 지역인 외도지구는 저밀도 택지개발을 유도함.
- 해안도로변 편익시설 설치 : 해안 드라이브나 산책을 즐길 수 있는 휴식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 하이킹 도로, 보행자 도로, 이벤트 도로 등을 조성함.

(3) 구좌읍

- 미래형 대규모 관광지구 개발 : 구좌읍에는 북제주군의 9개 관광지구 가운데 4개의 관광지구가 밀집되어 있음. 4개관광지구를 연계시킨 관광지구로 개발함.
- 배수 개선 사업 : 상습적인 침수피해 해결을 위해 배수체계를 정비하고 중·소규모의 저수지를 개발하여 저류 기능을 강화토록 함.
- 해수욕장 및 친환경적 체험관광지 개발 : 하도리, 종달리 일대는 철새 도래지를 보존하고 해산물 채취 체험 뿐만 아니라 해녀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함. 월랑봉은 패러글라이딩의 최적지이므로 이 곳을 중심으로 레저관광 기반을 구축함.

(4) 조천읍

- 함덕 일대는 함덕관광지구와 연계한 고급형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테마형 삼각 관광 루트 개발 : 돌박물관 - 경주마 육성목장 - 삼다수 공장을 관광벨트화함.
- 문화유적지 복원 및 관광자원화 : 연북정, 조천만세동산, 항일기념관 등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토록 함.
- 낚시 및 생태관광지 개발 : 원앙새 도래지인 북촌 다려도 일대를 낚시 및 생태관광지로 개발함. 특히 다려도 원앙새 도래지 주변을 생태관광지로 육성함.

(5) 한경면

- 감귤 비가림 하우스 재배단지 조성 : 한경면 일대는 비가림 하우스 재배지로 육성하고, 감귤 생산량 및 출하조절이 가능토록 함.
- 녹차 재배단지 조성 : 중산간 일대에 방치되고 있는 목장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녹차 재배단지를 조성함.
- 해안도로 - 분재예술원 - 차귀도 연계 관광루트 개발 : 차귀도, 절부암 등 미개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분재예술원과 연계한 관광루트를 개발함.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 저지리에 문화예술인들이 집단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함.

(6) 대정읍

- 특작 농업 및 청정 축산물 생산 단지 조성 :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기계화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 청정 특작물 및 축산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하여 수출시장 확대
- 안보테마공원 조성 : 고려말 삼별초군의 항쟁지였으며 6·25 한국전쟁 당시 육군 훈련소가 있었던 보성리, 신평리, 구역리, 무릉리 일원에 안보테마공원을 조성함.
- 역사테마관광지 조성 : 대정성지, 추사적거지 등 유배문화와 일본군전적지 등을 이용한 역사테마관광지를 조성함.
- 해상관광 루트 개발 : 해안절경이 아름다운 송악산 해안과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를 연계하여 해양관광코스를 개발·관광상품화함.

(7) 남원읍

- 감귤경쟁력 확보 전략기지 : 다양한 감귤관련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기능성 식품화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대규모 감귤단지를 조성함.
- 영상 관광 루트 및 영상산업단지 조성 : 예촌망, 공천포 해수욕장, 남원 큰엉, 신영제 주영화박물관으로 이어지는 해안경승지를 관광상품화함.

(8) 성산읍

-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기 개발, 성산일출봉 24시간 관람체제 구축 :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일출사진 전시 및 영상상영관을 건립하여 성산 일출제의 축제 분위기를 연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함.
- 난산리 모구악 일대에 국제 규모의 청소년 야영장을 설치하고 오조리 연안 습지 생태학습관 건립하여 자연생태계와 조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9) 안덕면

- 화순향내 종합물류단지 조성 및 기능 보강 : 화순향의 관광, 유통, 저장 기능을 강화하고 집배송단지를 갖춘 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함.
-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 조각가들이 전원 속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인 마을을 조성함.
- 한방진료 및 실버벨리 조성 :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노인들을 위한 휴식과 한방치료 기능을 갖춘 실버벨리를 조성함.

(10) 표선면

- 민속·문화관광 벨트 조성 : 표선민속관광단지, 토산관광지구, 제주민속촌, 성읍민속마을 등을 연계한 민속·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함.
- 친환경적인 성읍 저수지 건설 : 계획 중인 성읍저수지의 외곽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형 호안으로 조성함.
- 중산간 약초 재배단지 조성 : 중산간 일대의 임야, 초지 등을 활용하여 고부가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함.

나. 도서지역 취락구조 개선과 정비

(1) 추자도

- 연안항 조기 완공 및 청정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 : 풍부한 어족자원과 추자 군도의 절경을 활용하여 낚시 관광객을 더욱 많이 유치하는 한편 청정한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화함.
- 낚시 관광 활성화 및 낚시 박물관 건립 : 매년 전국 각지에서 2만여명의 낚시 관광객이 찾고 있으므로 이들을 수용할 음식·숙박시설을 대폭 개선하고 확충함.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규모의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관광 이벤트화함.
- 통합 초·중등학교 건립 : 통합학교를 건립하고 특히 실내 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 화합의 장소로 활용하고 기상 악화시 관광객의 대피 및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함.
- 생활용수 공급 확충 : 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1일 500톤 규모의 담수화 플랜트를 1,000~1,500톤/일 규모로 확충토록 함.

(2) 우도

- 관광기반시설 확충 : 우도 방문 관광객들은 대부분 당일코스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낮음. 음식·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어촌체험마을(Fishing -stay Village)로 지정 육성함.
- 해안도로 조기 착공과 자전거 도로 확충 : 해안도로 13.3km 중 미착공 구간에 대한 조기 착공이 필요함. 해안을 따라 도보나 자전거로 우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함.
- 역사·문화 박물관 건립 : 우도 역사·문화 박물관을 건립을 현재 방치된 연평초등학교를 보수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 기존의 담수화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담수화시설로 교체해 생산단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며, 이를 역사·문화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상품화 함.
- 지역특화작물 재배 및 상품화 : 제주지역 땅콩 재배면적 중 80%정도가 우도임을 감안하여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협업단지를 조성함. 협업단지를 통한 재배기술 공유, 계통출하, 생산량 조절, 가공공장 운영 등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임.

(3) 비양도

-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지역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어항을 시급히 정비하고, 인공 어초 시설을 증대하여 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패류 양식장, 수산물 공동창고 등을 건립하여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
- 중등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성교육 시스템 구축, 홈스쿨링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 체제를 구축함.
- 도서 순회진료, 순회공연, 순회도서관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토록 함. 도항선의 규모를 대형화하여 운항이 중단되는 빈도를 감소시킴.

(4) 가파도

- 어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인공어초 시설을 증대하여 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패류 양식장, 수산물 공동창고 등을 건립하여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함.
- 생활용수 공급 확충 : 수원지 개발 담수화 시설 구축. 낚시, 요트, 스낵 스쿠버 등 해양 위락 및 스포츠 센터로서의 기반을 확충함.
- 도서 순회진료, 순회공연, 순회도서관 등을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강화함.

(5) 마라도

- 관광기반시설 확충 : 대부분 당일코스 관광이므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낮은 편임. 환경친화적인 음식·숙박시설의 확충과 고급화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함.
- 도서 순회진료, 순회공연, 순회도서관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정주의식을 강화함.
- 최남단 공원 조성 : 국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섬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고양하고 장소 마케팅을 위한 각종 이미지 상품을 개발·판매하며 최남단 공원을 조성함.

(6) 기타 무인도

- 각 무인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경관 손상·침식·오염을 유발시키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함.

제3절 친환경적 주거·건설 개발

1. 현황

가. 가구 및 주택

- 주택보급률은 1985년 79.7%에서 1990년 78.3%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가구 수는 13만3,265, 주택 수는 12만9,369호로 주택보급률은 97.08%를 나타내 1가구 1주택에 육박하고 있음.

<표 III-6-10> 가구 수 및 주택 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호, %)

연 구 도 분		1985	1990	1995	1999	2000
제 주	가 구 수(A)	101,072	114,607	117,918	128,962	133,265
	주 택 수(B)	80,511	89,835	110,277	124,773	129,369
	주택 보급률(B/A)	79.7	78.3	93.5	96.8	97.08
시 부	가 구 수(A)	59,263	73,228	79,557	87,795	90,672
	주 택 수(B)	39,194	48,167	74,206	78,832	82,520
	주택 보급률(B/A)	66.1	65.8	93.3	89.8	91.01
군 부	가 구 수(A)	41,809	41,379	38,194	41,167	42,593
	주 택 수(B)	41,317	41,668	49,576	45,941	46,849
	주택 보급률(B/A)	98.8	100.7	129.8	111.6	109.9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과거 10년간 총 가구수는 1만4천가구 이상 증가한데 비해 주택 공급은 약 3만4,900호가 공급되어 가구수 증가를 월등히 앞섬.
- 주택보급률은 군지역의 경우 1985년 이래 거의 100%에 육박하고 시지역의 경우 1990년 약 65%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약 91%임. 따라서 점진적인 주택보급률의 증가로 보아 주택의 양적 문제는 감소하고 있음.
-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의 확장으로 옥외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으며 남향 선호의식으로 인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을 조성하고 있음.
- 신규 또는 재개발의 주택 공급이 산발적인 고층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주택 및 택지공급이 요구됨.

나. 주택유형

- 시지역은 단독주택이 49.7%이나 군지역은 단독주택이 90% 이상으로 대조를 이룸.
- 시지역의 공동주택은 아파트가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급속히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9.5%로 다수를 이루며 다음으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순임.
- 군지역의 경우 연립주택이 4.8%로 공동주택에서 가장 높으나 비율은 미약함.
- 지난 6년간 주택 재고 증가분 1만9,092호 중 아파트가 56.2% 증가하여 다수를 차지하고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의 순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27.6%에서 2000년 35.0%로 7.4% 증가하여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

<표 III-6-11> 주택유형 변화 추이

(단위: 호, %)

구 분 \ 연 도	1985	1990	1995	1999	2000
제 주 도	80,511	89,835	110,277	124,773	129,369
단 독 주 택	93.0	86.2	68.1	66.9	65.0
아 파 트	1.8	5.9	14.5	18.5	19.3
연 립 주 택	1.8	2.6	8.1	8.3	8.4
다 세 대 주 택	0.0	2.1	5.0	6.3	7.3
영 업 용 내 주 택	3.3	3.2	4.3	0.0	0.0
시 부	39,194	48,167	67,500	78,832	82,520
단 독 주 택	87.5	76.0	51.6	51.5	49.7
아 파 트	3.8	10.8	23.2	28.8	29.5
연 립 주 택	3.5	4.5	12.0	10.8	10.5
다 세 대 주 택	0.0	3.7	7.6	8.9	10.3
영 업 용 내 주 택	5.2	4.9	5.7	0.0	0.0
군 부	41,317	41,668	42,777	45,941	46,849
단 독 주 택	98.3	98.1	94.2	93.2	91.9
아 파 트	0.0	0.2	0.8	0.9	1.3
연 립 주 택	0.3	0.3	2.0	4.1	4.8
다 세 대 주 택	0.0	0.1	1.0	1.8	2.0
영 업 용 내 주 택	1.5	1.3	2.0	0.0	0.0

주 : 영업용내 주택은 1998년부터 단독주택에 포함됨.
 자료 : 통계청, 「인구통계총조사」, 1985~1995.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다. 건설업체 및 종사자수

- 건설업은 지역의 주요산업으로서 지역내총생산에서 비중은 12~15%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림·어업 비중의 1/2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음.
-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5~7% 범위 내에서 변동하고 있으나 최근에 그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임.

<표 III-6-12> 산업별 사업체 종사자 수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업체 총 종사자수(명)	126,808	141,581	152,133	150,500	141,428	148,133
농 립 어 업 (%)	0.37	0.76	4.52	5.03	6.11	5.40
제 조 업 (%)	6.18	5.61	5.07	4.84	4.82	4.73
서비스 및 기타(%)	79.39	78.44	76.52	76.59	89.07	77.64
금 융 보 험 업 (%)	7.95	7.89	7.57	7.14	6.51	6.19
건 설 업 (%)	6.11	7.30	6.32	6.40	5.63	6.04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각년도.

- 전문건설업체 수는 10년 동안 3.8배 증가했으나 일반건설업체 수는 10년 동안 15.6배 증가했음.
- 도내 일반건설업체는 187개로서 전국 7,978개의 2.3%로 제주도의 전국 대비 GRDP 비율 1%에 비하면 높음. 이는 도내의 일반건설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과 업체당 생산액의 영세성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I-6-13> 연도별 건설업체 증가 추이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일 반	12	28	28	49	58	69	79	78	90	187
전 문	122	211	207	306	354	379	408	438	438	468
합 계	134	239	235	355	412	448	487	516	528	655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내부자료, 2001.

라. 건설수주액

- 1992년 이후 1997년까지 일반건설업의 수주액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IMF관리체제 이후 수주액이 급감하여 2000년의 수주액은 1997년의 수주액에 미달하고 있음.
- 수주액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수주된 것이며 지역 외에서의 수주액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함.
- 일반건설업체당 평균수주액은 1991년 238억원이었으나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1999년에는 40억원으로, 2000년에는 22억원으로 급감하였음.

<표 III-6-14> 연도별 건설 수주액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지역내 (비중)	2,359 (100.0)	2,362 (96.0)	2,918 (87.8)	2,744 (90.6)	3,345 (91.0)	4,592 (89.1)	2,665 (94.9)	3,353 (93.0)	3,871 (94.7)
지역외 (비중)	- (0.0)	98 (4.0)	405 (12.2)	286 (9.4)	331 (9.0)	561 (10.9)	144 (5.1)	251 (7.0)	217 (5.3)
합 계	2,359	2,460	3,323	3,030	3,676	5,153	2,809	3,604	4,088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내부자료, 2001.

- 1999년도 지역 전체 발주공사액 6,451억원 중 지역업체가 52.0%를 수주하였고 타 지역업체가 나머지 48.0%를 수주하였음.
- 공공부문의 발주공사액 3,857억원 중에서 지역업체가 62.6%를 수주했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지역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발주공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임. 반면에 민간부문의 발주공사액 2,594억원 중에서 지역업체는 36.2%를 수주하는 데 그치고 있음.

<표 III-6-15> 발주공사의 지역업체별 수주 구성 (1999년)

(단위 : 억원, %)

구 분	제 주 업 체		타 지 역 업 체		총 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소 계	3,353	52.0	3,098	48.0	6,451	100.0
공공부문	2,414	62.6	1,443	37.4	3,857	100.0
민간부문	939	36.2	1,655	63.8	2,594	100.0

자료 : 대한건설협회 제주도지회, 내부자료,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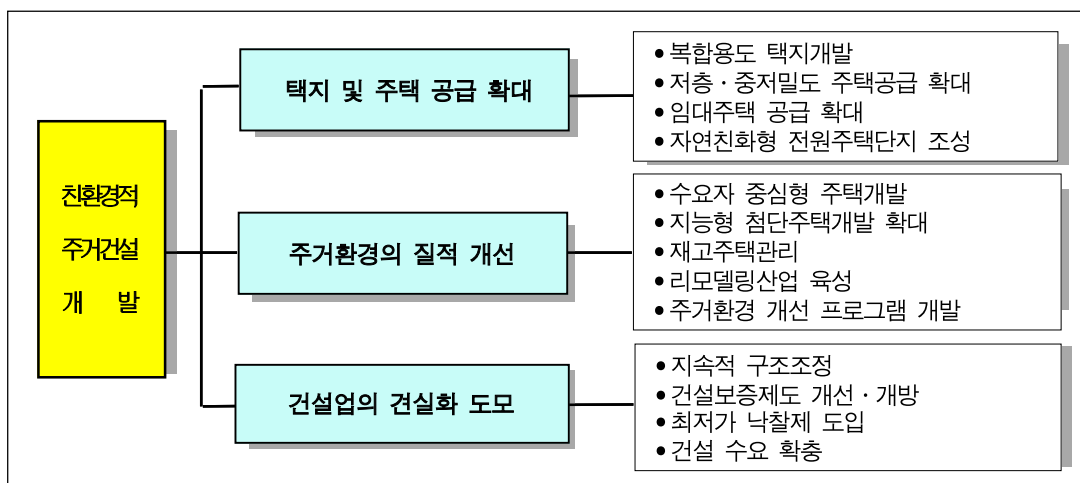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이므로 신규 주택건설, 기존주택의 개량, 주택설비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감.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 위해 쾌적하고, 전원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필요로 하며 그에 따라 공항(제2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 항만(제외항 개발계획), 도로(도로확장 기본계획) 주택택지 등에 대한 대규모 건설투자가 가시화될 것임.

나. 기본방향

- 택지 및 주택단지개발은 녹지와 휴식공간이 확보되고 에너지와 자원소비가 적은 친환경적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주거·건설’ 정책체계의 새로운 접근을 모색함.
- 천혜의 자원경관을 자원으로 중·저밀도의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주택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주거지역과 신주거지역과의 공간적 격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밀도를 조절해 나감.
- 건설업의 건설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장기능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구조조정 둘째,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및 개방 셋째,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실시 넷째, 건설수요를 확충시키는 것임.



<그림 Ⅲ-6-1> 주거 및 건설계획의 기본방향

3. 주거·건설부문의 사업계획

가. 택지 및 주택공급 확대

(1) 복합용도 택지개발 유도

- 도시지역 중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업무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밀도 토지이용의 차원에서 복합용도개발을 유도함.
- 도시 중심부에서는 토지의 효율성과 복합적 토지이용을 위해 공동주택, 특히 주상복합유형을 권장하며 주변지역의 공동주택인 경우 중저층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지역여건에 맞게 도입하도록 함.
- 기존 단독주택, 집합에 가까운 형태에 공유공간을 마련한 주택단지, 현재의 호텔과 유사한 아파트단지, 그리고 유로노인주거단지 방식의 공유집합주택(collective housing)을 활성화하여 주거단위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토록 함.
- 주택정책을 문화정책, 도시정책 및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선진적인 주거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설계, 자재, 장치 산업은 물론 내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2) 저층·중저밀도 주택공급 확대

- 도시주변 읍·면지역에서의 주택 공급은 소규모 단지형의 저층·중저밀도 주택공급을 추진하여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적인 생활기반시설 특히 군지역의 이주사유인 교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자족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로부터의 인구를 유인하거나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억제함.
- 도시 주변의 주택 공급은 주거유형을 다양화하고 단지화하여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공원 및 놀이터와 주차장 등의 시설을 확보하되 이들 지역의 필지 규모가 작을 경우 합필을 유도하거나 담장 허물기를 통해 공동공간을 확보함.
- 주거 환경 정비시 지역의 물리적인 측면에 대한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생활시설을 배치하여 편리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연대감을 제고함.

(3)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임대주택은 주로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민간부분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함.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계획기간 중 총주택재고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을 10%수준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산층용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기존의 임대주택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함.

(4) 자연친화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 자연환경을 이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첨단형 주택과 전원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다중·소량생산방식의 개발형 주택단지 조성에 중점을 둠.
-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건축소재 개발과 생태환경인자를 고려한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외국인이 선호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토록 함.
- 자연지형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주택건립, 목조, 황토 등을 이용한 전통건축양식 등을 도입하고 옥외공간과 녹지, 스카이라인 등을 확보토록 함.
- 도시 내에서도 주거유형의 다양화를 꾀해 도심지역은 업무주거형(업무기능의 확충에 따른 주거와 업무를 동시에 추구하는 오피스텔의 확충)으로 주변지역은 중저층 단지형 공동주택으로 개발을 유도함.

나. 주거환경 개선

(1) 수요자 중심형 주택 개발

- 다양한 주택수요 증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를 다양화하도록 함. 특히 장애인편익주택, 실버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타운하우스(town house), 플랫 하우스(flat house), 중정형 주택(court house), 테라스 하우스(terrace house), 코하우징, 에코하우스(eco-house) 등 특정집단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토록 유인책을 강구함.

- 수변공간이나 인공산, 소생물권 등을 조성하여 기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태보전형 주거단지인 에코주택 건립을 적극 추진하여 고소득층 및 노령층 선호에 부응토록 함.
- 다양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직업형태·가족생활주기·선호 변화를 반영하여 주택내부의 평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설계기법을 도입·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2) 재고 및 감실주택 관리

- 물량 위주의 신규주택 건설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에서 탈피하여 재고주택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증대에 대비하고,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주거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주택단지 내에 녹지면적 비율을 상향조정토록 함.
- 불량주택의 재개발 및 개발가능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적주성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역특성, 입지여건에 따른 구역 및 유형의 세분화로 다양한 주택공급을 유도함.
- 감실주택에 대한 주택 성능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여 향후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함께 주택공급자와 관리자의 책임의식 제고, 무리한 건설공기 단축 방지, 민간주택업자의 책임시공 및 사후관리제도의 의무화 시책을 추진해 나감.

(3)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 개발 및 리모델링산업 육성

-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정비하여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특히 주거환경개선시 커뮤니티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주거유형별 밀도의 다양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재개발기법을 활용함.
-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개·보수, 보증 등과 관련된 금융·보험상품의 다양화, 주택저당채권유통화 제도 도입, 일반금융기관의 주택금융 활성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 공학적 구조, 안전측면 뿐만 아니라 주거수요의 질적 패턴의 변화와 건설기술발달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 자재, 내장재산업은 물론 리모델링산업을 활성화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첨단정보기기가 설치된 인텔리전트 주택 개발과 신소재에 의한 경량자재 개발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글로벌화 대응한 주택정책을 추진함.

(4)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화

- 공동주택의 과학적 유지, 보수, 관리시스템의 개발 등 기술적으로 도입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관리의 효율성을 설계단계부터 고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함.
- 설비 및 배관의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유닛의 조합, 가변성이 높은 플렉시블 배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관리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 효율적인 주거단지가 되도록 함.
- 내구년한 및 결함발생주기 등을 감안하여 하자부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정보화 주택 요소기술, 쾌적한 주택요소기술 등 핵심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형 첨단주택에 대한 종합설계 및 기본모델을 구축하여 지능형 첨단주택단지(Smart House)개발을 유도함.
-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을 주상복합건물, 30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단지, 도심 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까지 확대하고 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제고토록 함.

다.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업 육성

(1) 시장기능에 의한 부실업체 시장퇴출의 제도화

- 시장기능에 의한 부실업체 퇴출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건설보증 시장의 개방과 이행보증제도의 확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Q) 및 적격심사기준의 변별력 제고 등이 있음.
-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건설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시장기능에 의한 부실업체 퇴출을 제도화하여 국제 수준의 건설업체로 육성해 나감.

(2) 건설업체의 등록조건 강화

- 최근 건설업의 난립으로 업체당 수주액의 급감은 건설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으므로 건설업계는 건설업의 등록조건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사무실 의무화 조항, 공제조합에의 의무출자 구좌수 증가, 보유 기술자 숫자의 강화, 자본금의 상향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음.

(3) 건설보증제도의 개선 및 개방

-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업체의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분류함으로써 보증한도를 정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함.
- 건설공제조합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건설보증시장을 은행, 보증보험 및 손해보험사 등에 개방함으로써 건설보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부실건설업체의 퇴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

(4) 현행 적격심사 낙찰제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공사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 심사하여 일정한 점수(85점)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고,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함.
- 지방 중소건설업체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최선의 과제는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는 것임. 법 테두리 내에서 당해 연도의 건설공사 중 공구분할이 가능한 공사는 수개 공구로 나누어 발주함으로써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을 해소함.

(5) 최저가 낙찰제 실시

- 2002년에는 500억원 이상의 공사, 2003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모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함. 무자격 부실기업의 퇴출을 위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실시하여야 함.
- 금융기관이 건설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기초하여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엄격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를 통해 입찰업체의 수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경쟁력이 없는 건설업체들이 시장기능에 의해 퇴출될 수 있도록 함.

(6) 건설업 경기 부양

- 단기대책으로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를 추진함과 아울러 민간부문의 건설공사도 조기 발주하도록 유도하고 각종 금융 및 세제를 지원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시행을 통해서 투자여건을 조성, 리조트 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기존 관광단지개발에 내자 및 외자 유치를 촉진하여 관광개발을 활성화 함.

(7)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의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상향 조정

- 현행 도내 발주기관에서는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을 45%~49%로 차별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등 상당수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의 하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8) 국제입찰대상공사의 지역의무참가

- 국가기관 78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235억원 이상의 국제입찰에 대해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유도 방안으로 적격심사기준에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가점(분야별 취득점수에 최대 12%-조달청)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대형 건설업체의 의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제주지역 내 공공기관이 향후에 발주할 예정인 국제입찰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제7장 자연을 중시하는 환경생태도시

제1절 인간과 자연이 상생하는 환경보전

1. 현황

가. 자연환경

- 지형은 해안지역(해발 200m 이하), 중산간 지역(해발 200~600m), 산악지역(해발 600m 이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면적은 1,015.3km²(54.9%), 589.0km²(31.8%), 245.9km²(13.3%)임.
- 지질은 신생대 제 3기~제 4기초의 서귀포층과 제 4기 플라이스토세에 속하는 성산층, 화순층 및 신양리층 등의 화산쇄설성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암질안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쇄설성 퇴적암층과 현무암, 조면암질안산암, 조면암 등의 화산암류, 기생화산에서 분출된 화산쇄설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녹지율은 2000년 말 현재 90.19%로 1985년의 91.68%, 1995년의 90.56%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음(제주시 83.68%, 서귀포시, 90.02%, 북제주군 91.47%, 남제주군 91.45%).
- 식물분포는 난대림에서부터 아한대림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한라산을 비롯한 계곡의 일부지역에는 제주의 원식생이 다소 남아 있으나 해안지대와 중산간지역에는 해송·삼나무 등 인공림이나 2차림이 발달하고 있음.
- 제주도에 약 1,800여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3,315종의 곤충, 9종의 양서류, 12종의 파충류, 290종의 조류, 23종의 포유류가 분포하고 있음.
- 식물에는 천연기념물 17건, 지방기념물 22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요 식물종으로는 파초일엽, 문주란, 담팔수, 왕벚나무, 녹나무 군락, 제주한란 등임.
- 멸종위기식물로 지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6종이며 이중 제주도에 4종(나도풍란, 한란, 돌매화나무, 매화마름)이 자생하고 있음.

- 보호야생식물로 지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52종이며 이중 제주도에는 26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제주도의 식생중 대표적인 식물군락은 황근군락, 갈대군락, 순비기나무군락, 갯뚝꽃군락, 담팔수군락, 붉가시나무 군락, 구실잣밤나무 군락, 예덕나무 군락, 비자나무군락, 상수리나무 군락, 곰솔군락, 서나무 군락, 갯대추나무 군락, 왕벚나무 군락, 구상나무 군락 등이 있음.

나. 생활환경

(1) 오염현황

- 제주도는 대기환경기준과 하천수질환경기준을 국가의 환경기준보다 강화하여 스위스 등 환경선진국 수준의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아황산가스,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오염도는 국가의 대기환경기준보다 매우 양호한 환경상태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95~'00년도) 오존(O₃)농도 추이를 보면 제주시 0.027~0.033ppm, 북제주군 고산리 0.031~0.043ppm으로 국가의 대기환경기준 0.06ppm(8시간 평균 농도)보다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타지역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2차 오염물질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연도별('96~'00년도) 강우산도 추이는 대기 오염원이 비교적 많은 제주시(4.90~5.38pH)와 오염원이 거의 없는 어승생지역(4.80~5.32pH)의 산성도(pH)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역내 9개 유수하천의 수질은 대부분 하천수질기준 I, II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도천 하류(해수혼합지점)와 창고천의 경우에만 생활하수가 소량 유입되고 있음.
- 외도천의 경우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제주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 처리할 계획으로 동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 창고천 상·하류의 생활하수 유입문제는 현재 건설 중인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 완공예정이므로 동시설이 완비되면 하수관거를 통해 이곳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하여 처리할 계획임.

- 생활계 폐기물 발생량은 2000년의 경우 564톤/일로 1인당 1일 발생량은 1.039kg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1,640톤/일, 지정폐기물은 5.7톤/일이 발생하였음.
- 폐기물의 처리비율은 생활계 폐기물의 경우 매립 64%, 소각 2%, 재활용 34%이고 사업장 폐기물은 매립 0.8%, 소각 0.2%, 재활용 99%임.
- 제주도와 환경부가 운영중인 토양측정망 지점에 대하여 토양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일부 토양오염물질은 전혀 검출이 안되거나 검출된 오염물질의 양도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훨씬 못미치는 미량(자연함유량)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정한 토양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오염물질 배출량

-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사업장의 연료 사용량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데 전체 사업장의 수는 215개소임(배출하는 1~3종 사업장 25개소, 4종과 5종 사업장 190개소)
-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73%에 이르고 있으며 다음이 발전, 난방, 산업순으로 발생하고 있음.
- 오수 발생량은 2000년도 15만5,131m³/일로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전체의 68%인 10만5,407m³/일이고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은 전체의 32%인 4만9,724m³/일임.
- 분뇨 발생량은 2000년도 543m³/일로, 수세식과 수거식의 비율이 각각 86%, 14%이고, 현재 제주도 내에 설치·가동되고 있는 분뇨 처리시설은 7개소이며, 시설용량은 582.5kl/일임.
- 2000년말 현재 도내 축산폐수정화시설은 총 815개소로서 군 관내 지역이 734개소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도내 주요 가축의 축산분뇨발생량은 1일 평균 358만 7,238ℓ이며, 돼지의 분뇨가 전체 축산분뇨발생량의 80.5%를 차지함.
- 2000년말 현재 도내 산업폐수 배출업소는 807개소임.
- 화학비료 공급량은 1997년 11만6,941톤, 1998년 9만8,845톤, 1999년 9만2,563톤, 2000년 9만1,167톤으로 매년 감소함.
- 농약은 2000년 6,404톤으로 1999년도 공급량 6,676톤에 비하여 물량으로는 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처리시설

- 2000년 말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제주처리장(시설용량 130천톤/일, 처리량 71.9천톤/일), 서귀서부처리장(시설용량 15천톤/일, 처리량 3.5천톤/일), 서귀동부처리장(시설용량 20천톤/일, 처리량 11.2톤/일)임.
- 건설 중인 하수처리장은 남제주군 성산·하모·태홍하수종말처리장(2006년 준공 예정), 북제주군 월정·판포하수종말처리장(2006년 완공예정)임.
- 하수관거 시설은 2000년 말 현재 계획 연장 3,686km중 2,015km가 시설되어 54.7%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1년도까지 90%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임.
-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03년에 완공예정임(산북지역 1일 200톤, 산남지역 1일 70톤).
- 폐기물 매립장은 전체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3개소를 제외한 8개 매립장이 위생매립장임.

다. 해양환경

- 제주도 해안선의 길이는 253km로 큰 만이 없는 단조로운 해안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부속도서는 63개로 유인도 8개, 무인도 55개임.
- 연안해역의 환경은 한·난류와 연안수가 교차되는 해역으로 각종 어·패·조류의 산란장 및 생육장으로서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
- 연안해역의 수질은 전국에서 가장 양호하여 수질환경기준 I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해역은 계절에 따라 II등급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항만(제주항, 서귀항, 한림항, 성산항)의 수질환경기준 II~III등급임.
- 해역별 환경상태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로 인해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종의 감소와 연안환경이 훼손되고 있음.
- 해양생물의 분포 및 변화 추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부족하며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목표와 정책이 미흡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미미하며 백화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함.

- 생활하수의 유입량 및 육상양식장 증가에 따른 배출수 유입량 증대, 선박폐기물 투기, 해양오염사고 등으로 연안수질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여름철 저염분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책이 미흡함.
- 급증하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과 내륙 오염물질의 연안유입 증가로 해양오염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기술 및 정보가 미흡함.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자연환경

(1) 개발수요

- 고유한 자연환경 보전,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인간과 동·식물이 생태적으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자연·인간·생물이 공존하며 상호 균형을 유지하는 생물권의 평화로운 상태 유지를 지향함.
- 종 다양성의 보전과 이를 자원으로 이용하며 자연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태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등 생태계의 자연성, 다양성 및 건전성을 보전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2) 기본방향

-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며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함.
- 고유의 자연생태계, 토착종과 재래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종 등 야생 동·식물, 자연동굴 및 경관자원의 보전·관리를 체계적으로 보전함.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구축하여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시 생태공법에 의한 자연친화적 개발을 유도함. 특히 한라산과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는 입지 특성을 고려한 그린네트워크화(Green-networking)를 추진하여 상징성을 부여토록 함.

나. 생활환경

(1) 개발수요

- 환경문제는 오염발생 해당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광역적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광역적인 시각에서 대응책을 마련함.
- 사전 오염대책에 역점을 두고 아울러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대책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조성 등 종합적인 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쾌적성을 확보함.
- 녹화협정 등을 통해 생활주변을 녹화하고, 각종 개발프로젝트의 친환경성 추구, 하천환경의 정비 등을 통하여 깨끗한 수환경을 조성함.
- 다양한 지형 활용, 여유허간의 확보, 도로공간 정비, 역사적 건조물과 사적의 보호 등을 통한 여유로운 환경 조성에 노력함.
-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 양질의 물을 적정하게 공급하며, 주거지역 등의 정온성 확보에 노력함.

(2) 기본방향

-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오염물질의 배출 최소화, 청정기술사용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환경 선진국 권장 수준 이상의 환경기준을 달성토록 함.
-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도시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자원 순환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통합적 환경관리 측면에서 자연환경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경관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달성, 적정한 환경예산 확보, 단지계획의 생태학적 고려, 환경친화적 자원이용 계획을 수립함.
- 권역별 오염현황 및 오염배출량 등에 대한 환경자료를 GIS화 하여 활용하고, 이를 권역별 오염물질 총량규제 기준 설정 및 관리 등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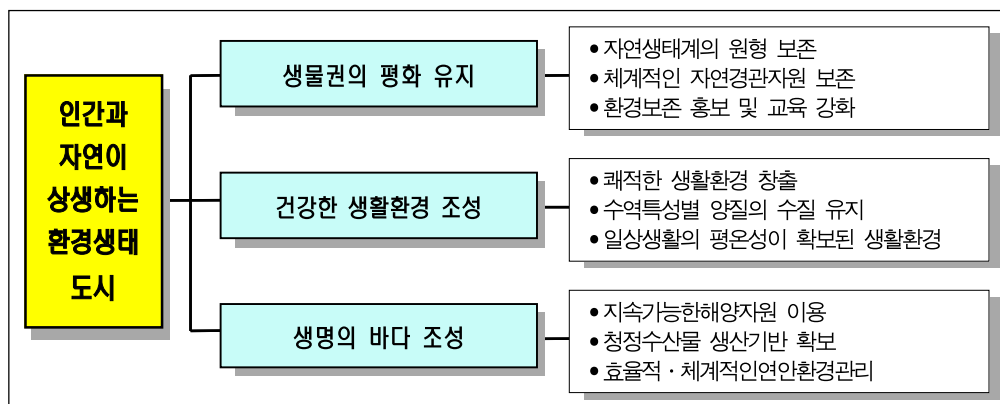
다. 해양환경

(1) 개발수요

- 연안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연안 개발을 유도하고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함.
- 「연안통합관리법」 시행에 따른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지역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생태계 보호와 오염물질 유입량의 저감으로 해역의 생산성을 제고함.
- 주요 연안역에 대한 생태계를 조사하여 연안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기반을 마련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함.
- 인접국가간 해양오염 사고 발생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지역간·국가간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선진 기술, 정보 등의 취득으로 앞서가는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수립함.

(2) 기본방향

-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육상 및 해양오염원의 체계적 관리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여 해양 이용의 건강성 확보 및 청정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보함.
- 연안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연안환경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안해역관리인제’를 도입하여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함.
-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사전에 예방함.



<그림 III-7-1> 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표 III-7-1> 환경지표

구분				단위	현재('00)	발전지표	
						2006	2011
자연환경	한라산	훼손지 복구 면적		천 m ²	41	154	226
		등산로 정비		km	17.5	39.8	42.2
	자생식물 전산화율		%	65	100	100	
	훼손지 오염 복구 면적		ha	5	10	15	
	향토수종 조림 면적		ha	242	542	842	
	지중화율	송전시설	%	4.7	6	15	
		배전시설	%	5.6	6.4	8.0	
생환경	물	하수처리율		%	62.5	90	95
		하수관거 보급률		%	54.7	77.5	90
		상수도 누수율		%	15.3	13.4	12
	대기	대기오염 자동 측정망 수		%	2	4	4
		대기오염 전광판		개소	1	3	3
		도로변 학교 지역 소음도		dB	65	60	58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률		%	12.8	20	25
	토양	토양오염 측정망 (토양오염 우려 지역)		개소	100	50	100
		농약 사용량		ton/year	6,404	4,480	3,360
		화학비료 사용량		ton/year	91,167	63,800	45,000
	폐기물	원단위 (kg/인/일)		kg/day	1.04	1.04	1.04
		처리비율	매립	%	64	20	20
			소각	%	2	40	35
			재활용	%	34	40	45
해양환경	항만수질			등급	Ⅱ ~ Ⅲ	Ⅱ	I ~ Ⅱ
	인공어초투하			ha	3,917	11,060	20,510
	패류종묘방류량			천미	740	1,500	2,000
	치어방류량			천미	1,430	6,000	9,000

3. 환경보전부문의 사업계획

가. 자연환경

(1) 자연생태계 및 종 다양성 보전

(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관리

- 자연생태계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종 다양성을 보전하고 외래종에 의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퇴치함.
- 토착종과 재래종 및 외래종과의 생태학적 관계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토착종 및 재래종 보전을 위한 연구활동 지원 및 교육을 강화함.

(나)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

-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유형,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오톱 시스템(biotope system)을 구축함.
-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등 적극적 보전이 필요한 주요 동·식물의 서식하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도로 개설 등 인위적인 생태계 단절시 생태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생태계 네트워킹을 구축함.
-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지원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다)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의 보호·관리

-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및 서식지를 보호함.
- 서식지의 보존기관에서 천연기념물 및 멸종 위기종에 대한 육성 및 증식에 필요한 연구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함.
- 천연기념물,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해당 종 또는 지역단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보호·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함.
- 보호·관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생물지리 단위에 기초하여 필요한 면적의 토지를 자치단체에서 매수하여 관리함.

(라)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조사

- 중·장기 생태계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DB 구축과 도면화(수치 지도화 등) 작업을 실시함.
- 주기적인 조사와 특정기간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물자원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개발 사업의 적지 선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마) 그린 네트워크 구축

- 한라산~중산간~연안역을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함.
- 하천~공원~녹지를 연결하는 도시형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함.
- 하천의 복개, 과도한 매립을 지양하고 훼손지 복구시 자연형 녹화 또는 정비공법을 이용하여 원래의 자연 모습으로 복원하도록 함.

(바) '자연생태체험학습관' 건립

- 자연보호활동에 필요한 교재와 자료를 개발·보급하기 위한 전시기능을 갖춘.
- 자연보호와 관찰에 대한 강좌와 연수 활동을 수행하는 학습기능을 구비함.
- 자연관찰, 자연보호 지도자를 육성하는 지도자 양성기능을 담당함.

(사) 도시지역의 녹지공간 확충

- 도시지역내 일정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옥상정원을 만들도록 장려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점차적으로 옥상정원을 보급토록 유도함.
- 녹화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든 경우, 포장면을 잔디블럭 녹화 등에 의해 녹화하고, 시각상의 부드러움, 계절감, 여름햇빛의 반사완화와 우수침투의 촉진을 꾀하도록 함과 동시에 입면녹화(벽면녹화 등)를 실시토록 함.

(2) 한라산 및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

(가) 한라산 고유의 생태계 보전 및 관리

- 백록담 분화구, 계곡, 사면 등 고유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함.
- 한라산 및 중산간 일대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한라산 생태보고서를 발행함.
- 한라산 연구소 내에 전문직 공무원을 확충하고 정식 기구화하여 한라산 및 중산간의 생태계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을 제고함.

(나)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특별 보전

- 천연기념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에 대한 실현 가능한 관리수단을 확보함.
- 멸종 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 및 서식지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함.
- 한라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주요 하천과 해역을 UNESCO의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

(다) 한라산 훼손 저감 및 훼손지 복구

- 백록담 분화구, 등반로 등의 훼손 방지를 위한 정상 출입금지, ‘휴식년제’ 등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발전적인 훼손 저감을 실현함.
- 훼손지 복구 사업에 대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족의 영산임을 고려하여 훼손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액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함.

(라) 한라산 국립공원내 친환경적 삭도(케이블카) 설치

- 한라산 훼손을 방지하면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접근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라산 국립공원내 환경친화적인 삭도 설치를 검토함.

(마) 중산간 지역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

- 쓰레기매립장, 분뇨처리시설, 주유소 등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유발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이전토록 함.

(바) ‘비지터센터(Visitor Center)’ 건립 및 자연학습프로그램 개발

- 현재와 같이 단순히 정상까지 등산하는 체제에서 탈피하여 자연학습 탐방형으로 탐방객을 유도함.
- 자연학습 및 환경보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라산에 대한 올바른 탐방과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보호활동을 유도함.
- 한라산 자연생태계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전시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함.

(사) 골프장 건설의 입지 제한 및 관리 강화

- 중산간 지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 설정된 보전지구를 철저히 관리하며, 골프장 건설은 ‘임야면적의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골프장 건설시 원래의 식생 및 자연환경 보전비율 최대화, 절·성토양의 최소화, 생태연결망 구축 등을 통하여 생태계 훼손 및 단절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함.
- 자연 배수 경사를 고려한 저류조 위치 설정, 차수시설의 설치 면적 및 강우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 저류조 용량 설계, 저류조 용수의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 및 용량극대화 방안을 강구함. 기 조성된 골프장별 지하수 사용실태를 조사함.
- 최종 저류조 유입전에 흡착조를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유입수 및 침투수중의 오염물질을 1차 처리하도록 하고, 저류조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 현재 설정되어 있는 수역권별로 지하수 적정개발량을 초과한 수역권에는 신규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하도록 함.

(아) 생물서식공간의 복원

- 도로 등에 의해 단절된 생물서식공간을 연결하여 고립화를 방지하고, 단절된 생물서식공간을 이어줄 수 있도록 에코브리지(Eco-bridge)를 설치하고 지질관찰코스, 동·식물관찰코스 등을 개설함.
- 에코브리지 설치사업은 한라산 및 중산간 일대의 경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 분리된 지역의 에코브리지 설치와 병행하여 신규 개발로 인하여 서식처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은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에코브리지 설치 계획과 설치단계에서의 사전예방조치를 강구함.

(3) 오름의 보전 및 관리

(가) 오름 보전·관리의 현재화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의 보존자원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하여 제주 오름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오름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하여 고시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관지구의 등급별 관리 방안의 실현 수단을 확보함.
- 오름과 관련하여 개별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재검토하여 오름을 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업무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대 지원함.

(나) 종합적인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 제주오름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미래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름별 성인, 역사·인문, 지형·지질, 동·식물, 관광 등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수행함.
- 오름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 종합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대적 보전이 필요한 오름, 훼손 방지가 필요한 오름, 생태관광과 같은 적정 이용이 필요한 오름 등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개별오름에 대하여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
- 관광객 등의 집중 탐방에 따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탐방시설을 설치하고, ‘오름탐방 사전 예약제도’를 시행함.

(다) 오름보전지구 지정 및 공원화

- 보전지역 대상 오름이 사유지인 경우 국·공유지와의 교환, 타지역에서의 개발권 부여, 기금 또는 주민 모금 운동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유화함.
- 오름 탐방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오름(군)을 공원화 하는 경우 오름에 대한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름자원자료센터’ 등을 설치 운영함.

(라) 교육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 오름의 성인 및 가치, 현황 등에 대한 학습교재 개발, 친환경적인 오름 탐방 지침서 등을 개발 활용하며 특정 오름에 대한 과도한 탐방을 자제하도록 함.
- 친환경적인 오름 탐방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등에 대하여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민간 부문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함.

(마) 민간 부문의 오름 보전활동 전개

- 1사 1오름, 1학교 1오름, 1마을 1오름 보전 활동에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구축함.
- 사회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름탐방교실’ 등에 참여함으로써 오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올바른 오름 탐방 활동을 전개함.
- 오름 사면이 불안정한 경우(강우, 서리 등)에는 가급적 오름 탐방을 자제함.
- 관광여행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름 탐방은 행정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탐방 대상 오름을 결정함으로써 집중 탐방에 의한 훼손을 방지함.

(바) 오름 훼손 행위 금지

- 오름에 자생하는 식물과 토석 등의 채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함.
- 오름 사면의 절개, 경작지 내에 있는 이류구(일명 알오름)의 훼손 등 오름의 지형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를 지양함.
- 오름의 적정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특정 오름의 집중 탐방을 방지하기 위해 분산 방문 유도 등 ‘오름탐방사전예약제도’를 시행하고, 친환경적 탐방시설 등을 설치함.

(사) 전시회·강연회 등의 활성화

- 오름을 주제로 하는 사진, 그림, 연구 등에 대한 전시회·강연회 등을 통하여 오름의 가치 및 훼손 실태를 홍보함으로써 오름의 보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
- 오름 탐방시 체험하여 얻은 제반 정보를 공유·관리할 수 있도록 함.

(4)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가) 체계적인 현장 조사 및 습지 평가표 작성

- 「습지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조사 외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습지가 갖고 있는 가치외에 장래에 기대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습지 평가표를 작성하여 보존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학술조사 및 보존 여부 등 보존의 수준을 결정함.
- 습지 평가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실시함.

(나) 오염원 차단

- 습지 오염이나 기능을 저하시키는 생활하수, 농지에서 발생하는 영양염류, 농약성분, 토사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폐기물 투기를 금지함.
- 산정화구호인 경우 습지의 보존 상태나 생태학적·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으로 탐방객이 증가하는 습지에 대하여 토사 유입 및 다양한 동·식물, 곤충의 서식지 훼손을 방지함.

(다) 민간 감시체제 강화

- 자연환경 명예지도원이나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습지의 보존상태, 습지생물의 생육 상태, 철새의 도래시기 및 개체수 파악 등과 같은 기본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함.
- 습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민간 관리자의 관심 제고, 연찬회 또는 연수회 개최, 선진지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관찰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함.
-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습지의 보전을 강화하고 훼손되거나 오염된 습지를 점진적으로 복원함.

(라) 인위적인 훼손 및 매립 방지

- 보존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습지에 대해서는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내에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습지에 대해서는 생태계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매립, 연못 정비사업, 도로 및 하수관로 공사 등으로 습지가 손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함.
- 하천의 자연환경 및 경관적 가치에 대하여 조사·평가하고, 수해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지역이외에는 하천정비를 최대한 억제하며, 정비를 하는 경우에도 지역 하천 특성에 적합한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함.
- 연안 습지를 매립하는 경우에는 연안 습지의 가치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함.
- 조간대와 육지 사이에 위치한 연안습지의 한 형태인 ‘석호’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 대책을 수립함.
- 인위적 요인에 의한 습지의 훼손이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습지보전법」을 기초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습지의 보전 및 관리 기준을 제도화함.
- 습지보호지역 등으로 지정할 경우 주민이 전통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토지이용을 유지하면서 보호하도록 함.
- 습지 보호를 위하여 주민의 토지이용이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해당 주민의 생계수단 보장 또는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하여 대체 수입원을 제공함.

(마)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소책자나 비디오테이프 등 홍보물을 통한 홍보·교육활동,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습지 생태기행,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습지생태학교, 환경관련 교과내용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정례적인 연찬회 개최 등 습지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
- 습지를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이나 지역축제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으로 개발함.
- 습지와 연계하여 비오톱(Biotop), 반딧불, 잠자리 공원, 소하천, 숲, 휴게소, 관찰테크, 습지홍보관, 습지식물원 등 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저 시설만을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안내판이나 축소모형기법 등 소규모 홍보판을 만들어 학습효과를 높임.

(5) 보전자원, 자연동굴 및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가) 보전자원, 자연동굴의 보전 및 관리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에 의한 보존자원의 반출을 제한하고 훼손 방지를 위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함.
- 자연동굴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훼손 방지와 보존대책을 강구하고, 훼손된 동굴을 복원함.
- 자연동굴 인접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함.

(나) 경관생태원칙과 생물지리 단위에 기초한 자연경관 보전

- 경관생태원칙과 생물지리 단위에 기초한 경관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제주도경관관리 조례」를 제정함.
-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 보전을 위한 범도민 경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함.
- 선형적인 경관 평가와 함께 생물지리 단위에 바탕을 둔 면적(面的)인 경관평가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산, 바다, 오름 등 경관 조절점의 다양화 및 경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리하고, 필요시 일정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등 반드시 원형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공공용지로 구입함.

(다)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시설물 설치 및 건설

- 고유의 건축양식과 식재, 도시 건축 시설물의 색채, 고도기준 규정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함.
- 도로의 개설이나 대규모 개발에 의한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며 식재시에도 생태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경관보전지구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입지 및 설치기준을 준수함.

(라) 경관 저해 요인의 제거를 통한 자연경관 개선

- 전주, 송전선 및 송전탑의 연차별 지중화를 추진함.
- 경관 자원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함.

(마) 건축물의 고도기준

- 기존 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의 기준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관계없이 10층이상의 고층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되어 경관훼손 뿐만 아니라 조망권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다 강화된 고도 규제가 제시되어야함.
- 해안지역에서의 조망, 경관훼손 문제도 심각한 바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함.
- 기 개발지구의 건축고도는 도시의 평면확산 방지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기반시설의 허용범위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함께 확충하도록 함.
- 미 개발지구는 조망권을 확보하고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저밀도 수준의 건축고도를 유지하도록 함.

<표 III-7-2> 건축물의 고도기준

시 · 군별	지 역 별		건축물의 최대높이	기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
제 주 시 계 도 구	신제주	상 업 지 역	35m	35 ~ 55m
		준주거 지역	35m	25 ~ 45m
		주 거 지 역	20m	25 ~ 45m
		녹 지 지 역	15m	15m
	신제주 이외의 지 역	상 업 지 역	35m	30 ~ 55m
		준주거 지역	20m	30m
		주 거 지 역	20m	8 ~ 30m
		공 업 지 역	20m	20m
서 귀 포 시 계 도 구		녹 지 지 역	15m	15m
		상 업 지 역	30m	20 ~ 40m
		준주거 지역	20m	15 ~ 30m
		주 거 지 역	20m	12 ~ 30m
		공 업 지 역	20m	
읍 · 면 도시 계 구		녹 지 지 역	15m	
		상 업 지 역	25m	
		준주거 지역	20m	
		주 거 지 역	20m	
		공 업 지 역	20m	
비 도 시 지 역			15m	
관 광 단 지, 관 광 지 구 및 산 업 촉 진 지 구			20m	

주1)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의 공용시설과 철탑·고가수조·싸이로시설·관망탑 등과 같은 특수시설은 ‘제주도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됨.

주2) 관광단지 및 지구에 대한 건축물 고도기준은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함.

(6) 환경용량의 증진

(가) 녹색소비생활의 실천과 자원의 재활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녹색소비운동을 전개함.
- 제품의 사용기간 연장과 재활용 증진으로 원자재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
- 하수처리수 재활용, 도시 미열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하여 천연 자원(수자원, 에너지 등)의 이용량을 근원적으로 감량함.
- ‘자동차청정연료사용시범지역’으로 지정함.

(나) 자정능력의 증진

-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통해 자연의 자정능력을 유지함.
- 환경 생태림 등의 조성으로 환경용량을 향상시킴.

(다) 환경용량의 지속적 관리

- ‘제주도 친환경 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의 환경용량의 자료 보완, 환경여건 변화 수용 등 지역 환경용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함.
- 환경용량을 조사함에 있어 섬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안해역의 환경용량 조사도 포함함.
- 도전역 GIS 시스템과 연계하여 도 전역 및 지역별 환경용량을 산출하고 각종 개발계획 수립, 주요 시설 입지 선정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GIS를 적극 활용함.
- GI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자원, 자연생태, 문화재 등 각종 자연환경 보존 및 개발 관련 직원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별도 부서를 설립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
- 현재의 GIS 구축항목외에 문화재, 작형별 토지이용 실태 등 관련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7) 생태마을의 조성 및 관리 방안

-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생활 및 정주 체계를 갖춘 생태마을을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안·도서형, 농촌·산촌형, 도시인근형, 전통마을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적으로 조성함.

- 생태마을은 1차적으로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곳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함.
- 제주형 생태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 자재, 교통 동선, 용수, 폐기물 처리 계획, 자연친화적 생산활동 및 생태마을 조성으로 인한 효과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함.

(8) 산림자원의 확충 및 관리

- 환경용량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며 조림시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고유의 향토수종으로 식재함을 원칙으로 함.
- 산림 병해충 예찰과 신속한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
- 산림종합정보망(Forennet)을 구축하여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9) 지리정보시스템(GIS)의 효율적 관리·운영

- GIS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기획, 조정, 해당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GIS 전담조직은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의 위상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아울러 GIS 전담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제주도 차원의 GIS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4개 시·군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도, 시·군 및 기타 공공기관의 GIS 구축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각 기관별 역할 및 추진사업을 분담하여 수행함.
- 제주도 및 4개 시·군간 GIS 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GIS 구축 작업의 표준화 도모, 경험과 노하우 공유, 자치단체간 GIS 사업의 연계, 동일부문 GIS의 재활용 등의 효과를 높이도록 함.
- GIS에 의한 보전 등급이 지정·고시되면 자료를 온라인화하여 누구나 직접 열람·출력할 수 있게 하고, 편집 및 복제는 제한함.

(10) 환경보전 의식 제고 및 환경인력의 확충

- 지방의제 21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 및 각 시·군에서 수립한 지방의제 21의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환류 기능을 강화하여 실천력을 확보함.

- 초·중·고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환경전문교사에 의한 교육을 도모함.
- 환경보전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환경대학을 활성화하고 교육 이수 후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환경보전 강좌를 확대함.
- 환경단체의 조사,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에 대한 사전공모를 통하여 각종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함.
- 환경단체의 연구활동에 단기 과제뿐만 아니라 3년 또는 5년 단위의 중장기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증대되고 있는 환경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함. 현재의 환경건설국을 환경국과 건설국으로 분리하여 환경분야 조직의 일원화 및 체계화를 도모함.
- 환경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도시계획 수립 등 각종 개발 계획 수립 시 환경 특성 및 개발에 따르는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서외에 환경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에 환경직 공무원을 둠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함.
- 다양한 동·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식물 등의 전문가를 충원함.
-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서의 직원 및 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환경직(유사직 포함)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고 조성 중인 환경기금을 계획대로 조성하며 점차적으로 그 조성금액을 확대함.

나. 생활환경

(1) 대기 관리

- 저유황유 및 청정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용 보일러 사용 유류를 경유에서 등유로 대체하고 취사 및 보일러에 사용하는 유류를 LPG, LNG로 대체하는 등 청정 연료 공급 비율을 확대함.

- 해저 송전 케이블에 의한 전력 이용을 확대하여 발전용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등 외부 에너지 이용을 확대함.
-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 공급, 태양열 이용 온수기 보급 확대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공급을 확대함.
- 경차 보급 확대, 대기오염배출가스 저감 자동차 보급,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자동차에 의한 배기가스를 줄이고, 배출가스 정기검사제도를 확대 시행함.
- 자동차의 연료를 전기 및 유류(Oil)를 겸한 Hybrid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동차연료청정화지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차량의 매연 후처리장치 부착 확대 및 의무화를 추진함.
-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에 특정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으로써 교통정체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을 저감하고 도민의 교통의식 및 환경의식을 제고함.
- 항공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지역의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함.
- 점오염에 의한 대기오염 발생원 대책을 강구하고 배출 특성에 적합한 처리기술을 도입함. 대기오염 측정망을 현재 2개소에서 2011년까지 4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도심지 주요 도로변을 대상으로 도로변 측정망을 설치 운영함.
- 진공청소차, 살수차 등으로 구입하여 도심지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의 미량오염물질 저감대책을 강구함.
- 도내에 산성비·황사에 대한 측정망을 설치하고, 산성비·황사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한국,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임.

(2) 수질 관리

- 생활 및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5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함.
- 오·폐수 발생량 2001년 160,562m³/일, 2006년 204,433m³/일, 2011년 249,179m³/일로 예상됨에 따라 2006년까지 전체 하수처리시설용량 223,000m³/일을 초과하는 오·폐수발생량 26,179m³/일(2011년 기준)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표 III-7-3> 오·폐수 발생량

(단위 : m³/일)

구 분	2001	2006	2011
생 활 하 수	133,208	171,447	213,695
산 업 폐 수	23,642	28,095	28,095
축 산 폐 수	3,712	4,891	7,389
계	160,562	204,433	249,179

주1) 생활하수발생량은 생활하수 발생량 원단위 산정식($Q=q \times (1-r) \times a$) 적용Q: 생활하수원단위(ℓ /인·일), q: 1인1일급수량, r: 누수율, a: 오수전환율(90%)주2) 1인1일급수량은 2001년 기준 319 ℓ 를 기준으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매년 10%씩 증가, 누수율은 주

주3) 2001년 기준 14.6%에서 매년 0.6%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측하였음.

주4) 공업용수는 본 계획의 용수 수요 추정(공업용수)량의 90%가 폐수로 전환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예측하였음.

주5) 축산폐수는 본 계획의 연도별 주요가축의 주요가축 증식계획과 축종별 원단위 발생량을 기준으로 예측하였음.

- 중산간지역의 하수관로 미정비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적 처리 기법의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도입하되 수자원 확보 처리비용 저감, 환경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함.
- 하수 처리를 행정구역에 따라 처리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탈피함. 특히 행정구역 경계면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거를 연결하여 하수를 배제하도록 함.
- 환경과 경제성을 고려한 하수 배제 방식을 도입함.
- 마을하수도 정비지역에서는 수세식 화장실로 전환함.
-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의 강화(T-N 20mg/ℓ, T-P 2mg/ℓ)에 따른 고도 처리시설을 도입함.
- 하수 및 분뇨의 경제적·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하수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민간위탁하거나 민영화함.
-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의 현대화로 재활용 비율을 높이고 축산분뇨의 야적을 금지함.
- 폐수 발생량에 따른 관리체제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유해성, 오염부하량에 의한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역의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배출수 허용기준을 설정함.
- 강우시 발생하는 비점원 오염에 대한 오염특성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조사함. 강우 초기에 발생하는 비점원 오염물질에 의한 수역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초기 강우에 의한 오염물질의 유출 특성 및 영향 등을 조사·연구함.

- 중수도 및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적극 활용하여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함.
- 일부 중산간 지역에 위치한 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최종 방류수를 재활용 하고 하수처리장과 연계 되도록 함. 폐수 발생 사업장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

(3) 폐기물 관리

-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발생량 등에 관한 폐기물 센서스를 정기적으로 실시함.
-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분리 배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분리 배출의 실효를 얻을 수 있는 기반 구축과 재활용산업 육성이 불가피하므로 폐기물 발생 특성에 적합한 통합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함.
- 폐기물 관리방식을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보다는 발생, 수거·운반, 중간 처리, 최종 처리 등 전과정을 시스템화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폐기물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함.
-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중·장기 폐기물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폐기물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량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질적 제고를 도모함.
-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등과 같은 지정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수거·운반·처리체계를 구축함.
-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하기 위하여 생산자 책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의식제고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함.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처분 실태 감독을 강화함.
- 지정폐기물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분까지의 발생, 유통, 처리의 전과정에 대한 과정별 실명제를 도입·운영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
- 2005년부터 시행되는 시지역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에 부응하여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를 추진함.
- 비위생 매립장이 토양 및 지하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함.

-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는 하수관거와 연결·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하수관거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방류 시스템 또는 막처리 하도록 함.

(4) 토양·지반환경 관리

- 농약병, 페비닐의 유상 수거를 실시함.
- 농업용 토양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토양 분석을 의무화하고 농약 등 화학 물질의 토양 잔류·축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함.
- 토양의 유류오염 방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유류 저장시설의 경우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계측기 설치를 의무화함.
-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위험성이 높은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새로운 농약인 경우 지하수 오염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조사한 후 도내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오염된 토양의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5) 소음 관리

- 자동차의 고속주행에 따른 학교 앞 및 마을 등에 ‘교통진정지구’ 지정 등을 통한 소음 방지대책을 강구함.
- 항공기 소음대책을 추진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방음시설 외에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
- 야간에 발생하는 생활 소음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을 통한 도민의식을 제고하고 확성기 등에 의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함.

(6) 악취 관리

- 축산폐수와 폐기물의 처리·처분시 탈취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함.
- 악취 발생원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와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악취발생제거명령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함.

다. 해양환경

(1)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

(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환경친화적 관리

-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오염 실태와 변화상 등에 대한 연안해역의 수질 및 생태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연안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수협, 어촌계, 마을별로 ‘연안해역관리인지정제도’를 실시하여 연안의 이용 및 개발, 연안의 오염실태, 해양시설물의 변동 상황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안 청소의 날을 지정하여 연안환경을 정화함.
- 해양환경의 가치 및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로 연안정화 활동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나) 오염예방 및 오염환경 개선

-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의한 연안해역 오염원 총량관리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해역별 환경특성에 적합한 해양환경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행함.
- 소규모 어항 및 연안해역에 대해 어촌계별 항내 ‘오염제거담당제도’를 도입하여 자가 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예방함.
- 육상 기인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하고 방치 폐선과 침몰 선박 등에서 유출될 수 있는 폐유, 폐기물 등 해양 기인 오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해양오염 방지체계를 구축함. 나아가 해양환경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역별 특성에 맞는 해양환경의 개선을 도모함.
- 육상양식장이 증가하면서 지역 해안선의 고유한 모습이 사라지고 연안수질의 악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배출수 허용기준 제정, 용수이용의 제한, 공유수면 등의 점·사용허가를 강화함. 단계적으로 신규 육상양식장의 허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양식장 배출수의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연구를 강화함.
- 오염이 심하거나 우려되는 항구의 수질환경 개선으로 연안오염 방지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항만 준설 사업을 전개함.

(다) 여가공간 활용 및 어민의 생활기반 보장

- 어항 및 포구 주변, 낚시터 등에 산책로 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 호우, 태풍 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연안역 폐기물 및 퇴적물 제거작업을 위한 ‘구역 할당제’를 시행함.
- 해안 절경지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주민의 안전 및 자연환경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며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함.
- ‘연안환경감시제도’를 도입하고 어민 등을 연안환경 감시자로 위촉하는 등 연안환경 관리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

(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 도입

- 연안환경을 오염시키는 자 및 매립 등 해안선을 파괴하는 자에게 환경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하여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
- ‘해양환경개선부담금제’의 도입과 함께 해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몽과 홍보활동을 강화함.
- ‘연안관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마) 해양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및 활용

- 해양생태계 및 생물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조류 채취 제한 조치를 발동함.
- 연안생태계 보호를 위해 ‘특별보호·관리지역지정제도’를 실시하고 이로 인한 어민피해를 보상함.
- ‘특별보호·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의 개선, 어류 방류 확대, 해당 지역 환경특성을 고려한 어초시설 등을 설치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
- 연안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에 대한 분포, 서식지, 생태특성 등을 조사하고 DB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
- 연안에 서식하는 해조류, 무척추동물 및 어류 등 다양한 해양생물로부터 신물질 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신물질 또는 기능성 물질을 개발함.

(바) 해양환경 관리체계 확립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유류오염사고 및 선박폐유 투기를 체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역별 수질관리 및 해양환경 측정망을 확대·운용하고, 유지문감식법(Oil Fingerprint Method)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육지 오염물질 정화 및 방재행정기관의 일원화 등 행정체계 보강과 유류 다량 수송어선(유조선 등)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유해물질(HNS) 해상 오염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
- 연안 오염원 관리를 강화하고, 연안어장 정화사업을 전개함. 특히 오염우려해역에 대한 정화사업 추진 및 폐선박의 수거, 밀식양식 및 영양사료의 과다 투입을 제한토록 함.

(2) 연안의 보전 및 개선

(가) 연안보전사업

- 노후 불량한 현 시설의 대체를 위한 개축·증축·신설사업,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침수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 속한 보수·보강사업, 기타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연안시설물 정비사업을 시행함.
- 연안보전을 위해 호안정비사업, 침식방지시설사업, 침수방지시설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지수와 사업별 지수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함.

(나) 해역개선사업

- 생태계 보전, 방치폐선 제거, 통수시설, 연안해역복원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연안 해역 개선사업을 추진함.
- 연안어장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수거, 침체어망 인양 등 어장 환경을 개선하여 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함.

(다) 친수 연안조성사업

- 연안의 지리적 여건상 친수연안 조성이 바람직한 사업, 연안경관보전 및 시민의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친수 연안조성 사업을 전개함.

- 대상사업은 해안 정비 및 해안환경정비에 수반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해변공원, 마리나, 해변산책로 등과 같은 친수 레크레이션 공간 등은 시민의 연안 접근권을 확보하고 해안경관을 보호함.

(3) 연안 통합관리 강화

(가) 생태계 보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

- 제주도의 우수한 경관을 대표하는 해빈과 사구, 조간대 일대는 개발사업 등으로 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생태적 기능과 방재기능의 유지 보전상 필요한 사빈, 사구 및 연안습지에 대해서는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함.
- 도서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연안지역에서 발생하는 하·폐수의 해양으로 직접 배출 억제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해역 오염부하를 저감하고 지속적인 해역정화사업을 실시함.
- 보전에 필요할 경우, 해양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을 금지하고 오염부하(생활하수, 축산폐수, 농업폐수 등) 저감 또는 차단하도록함.
- 연안관리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상의 제주권역 관리방안을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연안지역관리계획을 수립함.

(나) 환경용량을 고려한 연안개발계획 조정

- 연안개발수요는 내륙과의 기능 및 토지개발수요 분담 등을 고려하여 항만, 친수 공간의 활용 등 해양성 입지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이를 억제함.
- 「선 계획, 후 이용·개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 시행 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함.
- 해변의 음식점 및 관광시설로부터 연안해역으로의 오·폐수 배출 및 폐기물 투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는 쉼집·숙박시설 등 각종 위락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 및 쓰레기의 해양오염원 관리 강화, 연안에 산재하고 있는 어촌 및 어항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업폐기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함.

제2절 물부족에 대처한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

1. 현황

가. 수자원 현황

- 수자원 총량은 총강수량 : 33억8,800만 m^3 /년, 증발산량 : 12억5,600만 m^3 /년(총강수량의 37.1%), 직접유출량 : 6억3,800만 m^3 /년(총강수량의 18.8%), 지하수 함양량 : 14억9,400만 m^3 /년(총강수량의 44.1%)에 달하고 있음.
- 하천 유출은 50~60mm이상 호우시 발생하고 유출기간은 연간 4~5일에 불과하여 지표수 이용이 곤란하며 남부지역 30% 미만, 동·서부지역은 15% 미만의 유출율을 보이고 있음.
- 지하수 함양량은 총 강수량의 약 44.1%인 14억9,400만 m^3 /년에 달하며 일평균 약 409만 m^3 의 지하수가 함양되고 있음.
- 수문, 지형, 지질, 지하수 부존 형태 및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도 전역을 4개 대수역 및 16개 소수역으로 구분하였음.
- 지하수는 대수층과 저투수성 지층의 분포 위치에 따라 기저 지하수, 준기저 지하수 및 상위 지하수의 형태로 대별되며 이외에 서귀포층 하부 기반암의 2차 유효공극 내에 강우기원의 기반암 지하수가 부존하고 있음.
- 동부지역의 경우 수두가 낮은 기저 지하수가 분포하므로 해수 침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형수두를 당초 수두의 80% 수준으로 유지하면 지하수 함양량의 36% 개발 가능
- 서부지역은 해안부터 내륙으로 기저, 준기저 및 상위 지하수가 분포하여 지하수 개발 조건이 유리하므로 평형수두를 당초 수두의 65% 수준으로 유지하면 지하수 함양량의 58% 개발 가능
- 남부지역 대부분의 지하수가 상위 지하수 형태로 부존하고 있음. 지하수 함양량의 35% 개발 가능하고, 북부지역은 준기저 및 상위 지하수의 분포로 수두가 비교적 높게 형성되므로 평형수두를 당초 수두의 70%로 유지하면 함양량의 51% 개발 가능
- 제주도 전체의 지하수 개발 가능량은 함양량의 41%인 168만9,000 m^3 /일임.

<표 III-7-4> 수역별 물 수지

수역		면적 (km ²)	강수량 (mm)	강수총량 (백만 m ³)	직접유출 (백만 m ³)	증발산량 (백만 m ³)	지하수 함양량		해안길이당 함양량 (천 m ³ /km)
							연간 (백만 m ³)	일간 (천 m ³)	
합계		1,830.7	1,872	3,388	638	1,256	1,494	4,093	22.2
북부수역	소계	467.7	1,861	860	180	328	352	964	22.8
	애월	85.2	1,527	128	24	60	44	120	10.9
	조천	125.5	1,835	228	30	86	112	307	29.5
	제주	257.0	1,971	504	126	182	196	537	30.0
	- 동제주	77.7	1,961	157	39	57	61	167	29.3
	- 중제주	90.6	1,986	177	44	63	70	192	24.3
	- 서제주	88.7	1,964	170	43	62	65	178	41.4
남부수역	소계	491.3	2,146	1,050	285	336	429	1,176	23.0
	서귀포	307.0	2,226	665	195	207	263	721	24.0
	- 동서귀	117.4	2,507	271	79	75	117	321	38.7
	- 중서귀	106.3	2,198	234	70	74	90	247	26.0
	- 서서귀	83.3	1,900	160	46	58	56	153	12.4
	안덕	59.0	1,743	103	25	42	36	99	18.0
	남원	125.3	2,213	282	65	87	130	356	28.9
동부수역	소계	499.2	1,985	960	129	326	505	1,383	27.5
	구좌	173.7	1,774	301	18	113	170	466	19.4
	성산	115.8	1,840	213	13	75	125	342	17.8
	표선	209.7	2,192	446	98	138	210	575	67.6
서부수역	소계	372.5	1,394	518	44	266	208	570	12.7
	대정	124.8	1,375	169	10	88	71	195	12.7
	한경	104.6	1,280	142	7	79	56	153	9.3
	한림	143.1	1,503	207	27	99	81	222	16.9

주 : 수역은 집수구역으로 행정구역과 상이하며, 면적은 GIS 지형도상의 면적임.

자료 : 제주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수립 보고서」, 1993. 11.

나. 용수 이용 현황

(1) 용수 이용량 총괄

- 2000년 현재 도 전체적으로 평균 36만4,500m³/일, 최대 65만7,900m³/일의 용수를 이용하고 있음.
-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가 42.2%인 5,050만3,000m³/년, 서귀포시 1,838만5,000m³/년(14.6%), 북제주군 3,134만6,000m³/년(25.9%), 남제주군 2,362만m³/년(17.3%)을 이용하고 있음.

(2) 생활용수

- 2000년 현재 생활용수 이용량은 일 평균 24만6,325m³/일, 일 최대 32만1,251m³/일임.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등 도시지역에서 전체의 71%인 17만7,351m³/일을 이용하는 극심한 편재 현상이 나타남.
- 2000년 현재 상수도 수원 시설은 266개소(시설 용량은 48만6,800m³/일)이며, 평시 시설 용량은 여유가 있으나 갈수기에는 취수원의 수량 감소로 안정적 용수 공급이 곤란함.
- 관광용수의 경우 사설관정에 의해 공급되는 호텔 등 숙박시설은 295개 업체이며, 관정 수는 328개소, 개발량은 2만3,565m³/일임.
- 기타 용수는 735개의 사설관정에서 일 최대 6만4,019m³/일이 이용되고 있음

(3) 공업용수

- 공업용수는 전체 159개 업체에 193개 관정이 개발되어 있으나 실제 이용 관정수는 159이며, 일 최대 이용량은 2만3,392m³임.

다.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

- 2000년 현재 염지하수를 제외하면 4,697개의 지하수 관정(139만8,562m³/일)이 개발되어 있음.
- 행정 구역별로 보면 제주시 879공, 서귀포시 1,087공, 북제주군 865공 남제주군 1,861공이 개발되어 있음.
- 지역별로 보면 남부지역이 1,890공으로 44만896m³/일이 개발되어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역별로는 대정수역이 718공으로 17만8,534m³/일로 가장 많음.
- 사설 관정은 3,735공으로 공공 관정에 비해 2,773공이 많으나 개발량은 61만7,252m³/일이고 공공 관정의 78만1,310m³/일에 비해 적음.
- 용도별 지하수 개발 현황은 농·축산용 관정이 3,010공, 72만8,621m³/일로 전체 개발량의 약 52.1%를 차지하며, 생활용수 44.1%, 공업용수 3.6%를 차지하고 있음.

라. 지하수 수질 현황

-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해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형 : Na^+ 및 Cl^- 함량이 비교적 많은 유형으로 주로 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지하수
 - 질산염(NO_3^-)에 의해 영향을 받는 유형 : 양이온 조성은 배경수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음이온에서는 NO_3^- 외에 Cl^- 의 농도가 배경수질보다 높은 중산간 이하지역의 지하수
 - 해수나 NO_3^- 의 영향을 받지 않은 배경수질을 가지는 유형 : 대부분 Ca-HCO_3 형의 수질을 나타내는 중산간 및 고지대 지역 지하수
- 질산성질소의 평균농도는 $5.38\text{mg}/\ell$ 이며, 염소이온의 평균농도는 $23.03\text{mg}/\ell$ 임
- 중금속 및 유기화합물 등은 거의 검출되고 있지 않음.

마. 지하수 관리 현황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지하수 관리
 -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1995년과 2000년 전문 개정에 의해 지하수 관리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보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하수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 지하수 기초조사의 지속적 추진
 - 도 전역 지표지질도 작성완료(축척 1/5만 6개 도엽)
 - 지하수 관측망(75개소), 하천 유출량 관측소(18개소), 수질관리망(100개소) 운영
 - 도 전 지역 용천수 현황조사 완료, 도 전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하수 오염 취약성 조사 완료
- 지하수 보전 홍보 및 교육 강화
- 지하수 관리조직 :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를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확대 개편(2000. 10. 13), 광역상수도 공급, 농업용수 개발, 지하수 관리, 수자원 조사 및 연구업무 등 물 관리 업무 일원화

2. 수요 추정 및 기본방향

가. 수요 추정

- 용수 수요 추정 기준 : 본 종합계획에 반영된 인구, 관광 수요(관광객, 객실수), 농지면적, 가축수 및 공업단지 배치 계획 등의 지표를 토대로 일 최대 이용량 기준으로 추정함.

<표 III-7-5> 용수 수요 추정(상수도)

(단위 : m³/일)

구 분	2001	2006	2011
합 계	355,458	447,149	524,229
생 활 용 수	313,731	400,474	477,554
공 업 용 수	26,269	31,217	31,217
농 축 용 수	15,458	15,458	15,458
북 부 권 역	180,711	226,598	265,155
생 활 용 수	174,954	215,893	254,450
공 업 용 수	3,101	8,049	8,049
농 축 용 수	2,656	2,656	2,656
남 부 권 역	63,655	78,330	91,538
생 활 용 수	58,328	73,003	86,211
공 업 용 수	3,605	3,605	3,605
농 축 용 수	1,722	1,722	1,722
동 부 권 역	50,778	67,831	81,787
생 활 용 수	38,952	56,005	69,961
공 업 용 수	7,477	7,477	7,477
농 축 용 수	4,349	4,349	4,349
서 부 권 역	60,314	74,390	85,749
생 활 용 수	41,497	55,573	66,932
공 업 용 수	12,086	12,086	12,086
농 축 용 수	6,731	6,731	6,731

- 장래 용수 수요 : 상수도 용수 수요는 2001년 35만5천m³/일, 2006년 44만7천m³/일, 2011년 52만4천m³/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용도별 용수 수요 추정 : 생활용수 : 2001년 31만4천m³/일에서 2011년 47만8천m³/일로 1.5배 증가, 농축용수 : 상수도로 급수되는 농축용수는 현재 16천m³/일을 유지, 공업용수 : 2001년 2만6천m³/일에서 2011년 3만1천m³/일로 1.2배 증가

나. 용수 수급 전망

- 기존 상수도 수원시설의 갈수 보장량(355일 지속유량)은 1999년 현재 49만6천m³/일이나, 지자체의 시설 정비 및 폐쇄, 개발계획 등으로 2011년의 갈수 보장량은 현재 갈수 보장량의 91.3%인 45만3천m³/일임.
- 용수 수급 전망 : 제주도의 갈수기 기준으로 2011년 7만1천m³/일의 용수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용수공급시설의 지역적 편중 및 활용도에 따라 지역적으로 해안저지대의 용수 부족이 크게 발생함.
- 지역별 용수 부족 발생 전망 : 제 주 시 : 2011년 2만1천m³/일, 서귀포시 : 2011년 1만2천m³/일, 북제주군 : 2011년 1만7천m³/일, 남제주군 : 2011년 2만1천m³/일

<표 III-7-6> 연도별 상수도 용수 수급 전망

(단위 : m³/일)

구 분	2001	2006	2011	비 고
용 수 수 요	355,458	447,149	524,229	
생 활 용 수	313,731	400,474	477,554	상수도 공급분
공 업 용 수	26,269	31,217	31,217	
농 축 용 수	15,458	15,458	15,458	
공 급 보 장 량	485,411	466,040	452,836	
과 (△)부 족 량	129,953	18,891	△71,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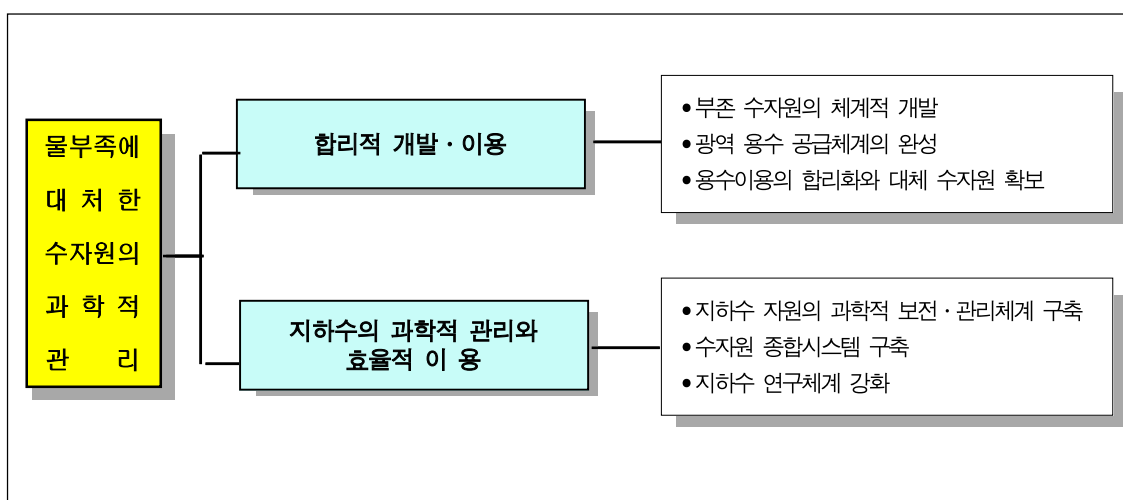
<표 III-7-7> 지역별 상수도 용수 수급 전망

(단위 : m³/일)

구 분		2001	2006	2011
합 계	수 요 량	355,458	447,149	524,229
	공급보장수량	485,411	466,040	452,836
	과(△)부족량	129,953	18,891	△71,393
제 주 시	수 요 량	180,711	226,598	265,155
	공급보장수량	243,618	248,567	243,739
	과(△)부족량	62,907	21,969	△21,416
서 귀 포 시	수 요 량	63,655	78,330	91,538
	공급보장수량	86,024	86,024	79,078
	과(△)부족량	22,369	7,694	△12,460
북 제 주 군	수 요 량	63,945	85,382	102,324
	공급보장수량	95,579	86,259	85,406
	과(△)부족량	31,634	877	△16,918
남 제 주 군	수 요 량	47,147	56,839	65,212
	공급보장수량	60,190	45,190	44,613
	과(△)부족량	13,043	△11,649	△20,599

다. 기본방향

- 본 계획의 발전지표와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지역발전계획을 충분히 수용하여 용수 수요를 예측하고 적기 적소에 원활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용수 수급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함.
-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군 상수도시스템과 물 관리 행정체계를 통합해 수자원 개발·공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지하수 자원의 적정 관리와 극단적인 이상 가뭄을 대비해 중·소규모의 저수지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등 대체수자원 개발방안 및 지하수 인공함양 효과분석 등의 연구사업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함.
- 지하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하수 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체계를 개선함.
- 지하수자원의 최적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 연구체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수자원 정보를 집대성한 수자원정보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함.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자원이용기법과 새로운 수자원 공급원의 확대를 동시에 모색함. 이를 위해 실질적인 공급원인 지표수와 지하수를 조사·이용하기 위한 관리기술개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함.



<그림 Ⅲ-7-2> 수자원 관리 및 이용방향

3. 수자원부문의 사업계획

가. 수원개발 및 상수도 공급

(1) 수원 개발 방안

- 광역상수도 2단계 취수원은 지하수 산출특성 및 잠재오염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수량과 수질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 지점을 선정하여 집단 개발방식으로 대용량을 개발함.
-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용수 수요량 중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시·군 상수도)로부터 공급토록 하여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을 엄격히 제한함.
-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주도농업용수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 지역 또는 권역별로 공급체계를 구축함.

(2) 상수도 공급

- 용수 배분 계획
 - 상수도 공급은 광역상수도를 축으로 지방상수도와 연계가 원활하도록 계획함.
 - 급수권역은 부속도서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광역상수도 I, II단계 계획, 지방상수도 계획 및 지형조건을 토대로 설정 및 분할함.
 - EL.200m 이하에 인구가 집중되고 관광단지 대부분이 위치 또는 계획된 점을 감안하여 EL.200m 이하의 전 지역을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설정함.
- 용수 공급 계획
 -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를 포함한 동부지역은 광역상수도 I 단계 급수권으로, 서부지역(제주시 및 서귀포시 일부 포함)은 II단계 광역상수도 급수권으로 설정함.
 - 소규모 부락이 산재된 중산간 지대는 어승생 수원 및 기존 관정을 이용토록 계획하고, 신규 계획 관광단지의 용수공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광역상수도로 공급함.
 - 장래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수질보전 및 오염관리 측면에서 기존 관정의 정비를 유도하고, 부족 분은 광역 상수도의 배분계획에 포함함.

○ 제주도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시행

- 제주도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은 1단계 공사와 같이 제주도가 국가사업을 위탁 받아 대행함.
- 2011년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를 포함한 서부지역의 안정 용수 공급을 목표로 하는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을 2002년 착수하여 2005년에 완료함.
- 서부지역 8개 수원(장전, 상가, 남읍, 저지, 서광, 금악, 상예, 회수)에서 지하수 90,000 m³/일을 개발함.
- 서부지역의 4개소(장전, 서광, 금악, 회수)에 총 시설용량 88,000m³/일의 정수장을 설치 하고 연장 92.1km의 광역 관로망을 건설하여 용수를 공급함.
 - 도·송수관로 : D200~700mm, L=92.1km

○ 상수도 운영 관리

- 갈수시 취수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수원은 예비시설 또는 농업 용수로 전환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함.
- 기존 상수도시설과 광역상수도시설의 연계 이용이 가능토록 도·송수관망체계를 정비함.
- 지방상수도 관리조직을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공사가 준공되는 시점에서 통합하여 단일 광역관리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함.
- 도서지역에 설치 운영 중인 해수담수화 시설의 가동실태에 대한 체계적 연구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인 담수화 플랜트로 대체해 유지 관리비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

(3) 농업용수 공급

- 상습가뭄지역에 대한 항구대책으로 농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1995~2004)에 따라 농업 용수 개발을 추진하고 2005년 이후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함.
- 정부의 농촌용수 10개년(2002~2011년)에 의거하여 대중규모 저수지 15개소에서 총 7,785천m³의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2,652ha을 추가로 관개함.
- 2005년 이후 옹포, 예레 등 대규모 해안 용천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함.

-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정비하여 집단 시설화하고 수질이 저하된 생활용 관정 및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전환하는 등 농업용 지하수 관정 신규 개발을 최 대한 지양함.

나. 대체수자원 및 관리기술 개발

(1) 대체 수자원 개발

- 장래 토지이용의 변화에 따른 지하수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지표수의 인공함양 방안 연구를 체계적으로 실시함.
- 토지 이용현황, 수문지질 특성, 지하수 개발·이용량 등을 고려해 적절한 지하수 인공 함양방법을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함.

(2)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 시설이 노후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관정은 폐쇄 또는 타 용도로 전환하고, 실 이용량에 비해 허가량이 과다한 관정에 대해서는 허가량을 조정함으로써 적정개발량 대비 지하수 개발율을 80% 이내의 수준에서 관리해 나감.
- 지하수가 과다하게 개발·이용되고 있거나 해수 침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함으로써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관정 소유자가 지하수 이용허가권을 자진 반납할 경우 원상복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사설관정의 정비를 유도함.

(3) 지하수 관리기반 구축

- 도 전역 지하수 모니터링체계 구축 : 지하수위 자료 실시간 송·수신체계 구축, 해수 침투 감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하천 유출량 관측소 확대 설치 운영, 지하수 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지하수 수질 관리망 운영
-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 : 지하지질구조 조사, 대수층 단위의 분류 및 특성 규명, 지하수 순환체계의 해석, 제주도 수문층서의 확립 및 지하수 편람 발간
- 수자원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 수자원 정보 관리시스템 확장, 수자원 개념 모델 개발, 수문분석 시스템 개발, 수자원 종합 관리시스템 개발

(4) 수자원 관리체계의 확립

- 관리제도의 개선 : 「제주도지하수관리조례」의 제정, 제주도 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 및 주기적 보완, 수자원보전계획, 수질보전계획, 수자원개발 및 이용계획을 종합한 제주도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 5년 단위로 수정 및 보완
- 이상 가뭄시 물 사용량 통제를 위한 제도 마련,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농약 및 비료사용 지침 마련
- 관리조직의 개선 : 현행 제주도 및 시·군의 물 관리조직을 통합한 (가칭) ‘제주도수자원관리국’ 신설, 수자원 개발·용수 공급·용수시설의 관리·지하수 관리·수자원 연구·수질 검사·홍보 및 교육 등 전담 및 인력의 전문화
- 지하수 원수대금, 광역상수도 공급, 먹는 샘물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단, 상수도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함.

(5) 수자원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응용연구 강화

-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수자원 이용 효율화와 새로운 수자원 공급원 확대방안을 동시에 모색함. 이를 위해 실질적인 공급원인 지표수와 지하수를 조사하고 이용에 대한 반응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다른 공급원을 찾기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수자원연구실)를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신뢰성을 제고함. 전문 연구 인력의 안정적 확보 및 외부 전문가의 탄력적으로 활용함.
- 제주도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 및 보전 관리에 필요한 기초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최적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지하수 관리기법, 모델링 분석기술, 인공함양, 정수처리기술 등 제주도 수자원 부존 및 이용 특성에 적합한 연구를 추진함.
- 수자원의 지속적 관리·보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함. 지하수 적정 개발 가능한 산정기법 연구, 지하수 오염물질 유동경로 및 저감대책 연구, 지하수 환경의 변화예측 모델링 기법개발 연구,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물 수지분석 방법 연구, 제주지역 농업용수 단위용수량 산정방법 연구, 지하수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산업연관성 연구 등

제3절 친환경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1. 현황

가. 에너지 소비량

- 최종에너지 소비율(전국대비)은 1996년(0.56%), 1997년(0.54%), 1998년(0.50%) 등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1996년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IMF 이전인 1997년에는 778 TOE로 4.57% 증가한 반면 IMF 이후(1998년)에는 661 TOE로 11.2%가 감소함.

<표 III-7-8> 에너지 소비 현황

(단위 : 천 TOE, %)

구 분 \ 연 도	1996	1997	1998
계	744(0.56%)	778(0.54%)	661(0.50%)
석 유	636	655	538
전 력	103	114	118
석 탄	5	4	3
기 타	-	6	1

자료 : 제주도, 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0.

- 석유 소비량은 1996년 63만6천 TOE, 1997년 65만5천 TOE로 1996년에 비해 2.99%로 증가하였음. IMF 후인 1998년에 53만8천 TOE로 IMF 이전에 비해 17.9%가 감소함.
- 석탄 소비량은 1996년에 5천 TOE, 1997년에 4천 TOE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함. 그리고 IMF후인 1998년에는 3천 TOE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고 있어 소비량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임. 전력 소비량은 1996년에 10만3천 TOE이고, 1997년에 11만4천 TOE로 전년 대비 10.7%가 증가함.
- 에너지 소비는 에너지 대체 업종이 상대적으로 적어 타 도시보다 현저히 낮고, 1인당 에너지 소비도 전국 평균의 47~52% 정도임.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6년에 1.42 TOE로 전국대비 50.0% 수준이고, 1997년에 1.47 TOE로, 전국대비 47.4% 수준이고 1998년에 1.47 TOE로, 전국대비 51.6% 수준임.

나. 에너지 유통체계

- 수송·상업 부문에서 전력·석유·가스의 효율적 이용과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가 예상됨.
- 고유 지질 특성으로 도시가스 공급은 부적절함.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공정체제 구축이 요구됨.
- 석유 정제시설이 없고 저장능력 23만4,100bbl의 저유소(LG·SK)만 있음. 최대 석유 비축 일수는 15.5일로 전국 비축일수 64.1일보다 현저하게 적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비축 시설 증설이 요구됨.

<표 III-7-9> 석유저장 시설 현황

구 분 \ 연 도	1998	1999	2000
저장시설(bbl)	208,100	208,100	234,100
소비량(bbl/d)	13,518	14,526	15,142
최대저장일수	15.4	14.3	15.5

자료 : 제주도, 경제정책과, 내부자료, 2000.

다. 전력 공급체계

- 2000년도 발전량은 190만240Mwh(제주~육지 전력 연계선 수전량 75만6,130Mwh 포함)이며 전력판매량은 170만4,936Mwh임.
- 2000~2006년 기간 중 발전량 및 전력 사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전망됨. 2007~2011년 기간 중 발전량 및 전력사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전망됨.

<표 III-7-10> 전력수급 추이 및 전망

(단위 : Mwh)					
구 분 \ 연 도	1990	1995	2000	2006	2011
발 전 량	636,414	1,203,782 (13.6)	1,900,240 (9.7)	2,919,000 (7.4)	3,961,000 (6.3)
전력사용량	545,295	1,052,013 (14.1)	1,704,936 (10.2)	2,619,000 (7.4)	3,551,000 (6.3)

주 : ()는 연평균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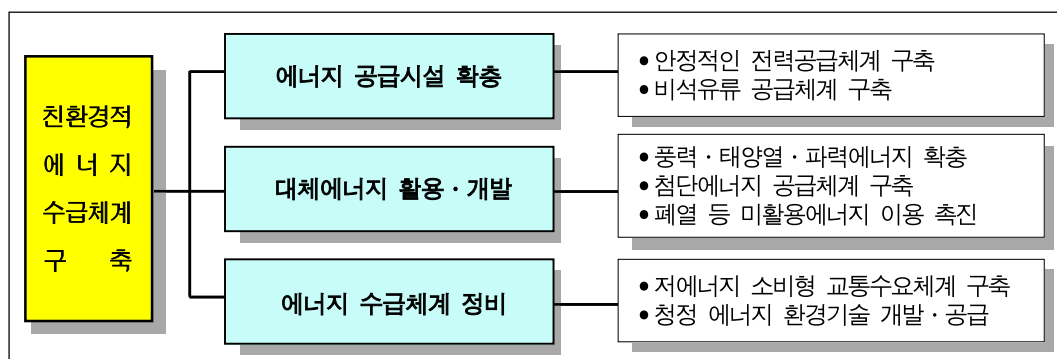
2. 개발수요 및 기본방향

가. 개발수요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물류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항만, 공항, 컨테이너 관련 수송용 석유류 수요 충족을 위한 석유저장시설이 확충되어야함.
- LNG공급의 중심기지를 확보하고 황산화물 연료사용 제한과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 등에 대비함. 특히 도시가스용 소비는 가정난방용 주도로 급증하여 계절간 수요가 점점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어 수급안정이 과제임.

나. 기본방향

- 대기오염에 대한 관심 증가, 오존층 파괴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규제, 지구온실화 규제 추세, 원유가격의 급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석유류 의존도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다양화함.
-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전력 및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등에 의한 대체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나감. 특히 수요관리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및 집단에너지시설을 일정비율을 활용토록 유인함.
-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에너지 수급구조를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형으로 개편해 나가는 한편 대중교통망 확충 등으로 수송기반시설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 시공토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전환해 나감.



<그림 III-7-3> 에너지 공급계획의 기본방향

3. 에너지부문의 사업계획

가. 친환경적 발전 설비 확충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규모의 에너지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함.
- 태양열, 풍력, 파력발전소 등을 확대 건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함.
- 2003년 제주풍력 발전을 증설하고, 천연가스 보급 확대, 공급시설 확충, 원유 도입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비축물량 확대, 하절기 전력공급 예비율 10% 이상 확보, 국제에너지기구(IEA) 가입 등 장기에너지수급계획을 마련함.
-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쓰레기 소각열(폐열) 이용, 중·소형 열병합 발전 보급, 전기 대체 냉방 보급(가스냉방, 방축열, 지역냉방)체계를 마련 함.

나. 비석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활용·개발

-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석유보일러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서 고유가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등 집단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하여도 도시가스의 보급을 확대함.
- 풍력, 태양에너지, 파력발전 등 ‘대체에너지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은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폐열 등 미활용에너지 이용을 촉진함.
- 지역의 친환경적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확산하고 광역소각장의 폐열, 쓰레기 매립장의 메탄가스, 폐 식용유의 바이오 디젤 연료 등을 에너지로 활용토록 기반을 조성하고, ‘대체에너지개발센터’를 설치하여 풍력과 조력, 미생물 등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개발을 추진함.

다. 산업용 대체에너지 활용 촉진

- 감귤단지 및 시설채소재배에 대한 난방시설이 석유에너지 활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고유가 현상이 재현될 경우에 시설재배에 타격을 주어 농가부채 증가, 물가상승의 원인이 될 것임.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가격보조정책을 점진적으로 일정 수준까지 축소하고, 관련 예산을 활용하여 노후 석유난방시설을 태양열 난방시설로 점진적으로 교체 보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농업을 보장하고 석유의존도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대체에너지 활용산업을 발전시켜 나감.
- 고효율, 저비용, 고내구성을 갖는 태양열 및 풍력, 조력 난방시설을 보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용 대체에너지 산업과 시설 설치자를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토록 함.

라. 에너지 절약형 도시구조 유도

- 수송부문뿐만 아니라 에너지 고소비형 도시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수송수단 및 도시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LPG 등 비석유류의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연계교통체계를 확립하여 저에너지 소비형 교통수송체계를 구축함.
- 산업부문에서도 석유류와 전력의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해외의존비율이 낮은 전력에너지에 대한 의존비율을 더욱 확대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에너지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전력에너지 활용촉진 정책을 추진함.
- 에너지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에너지 비용절감 측면과 청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적 수준의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환경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토록 함.

제1장 계획의 추진 체계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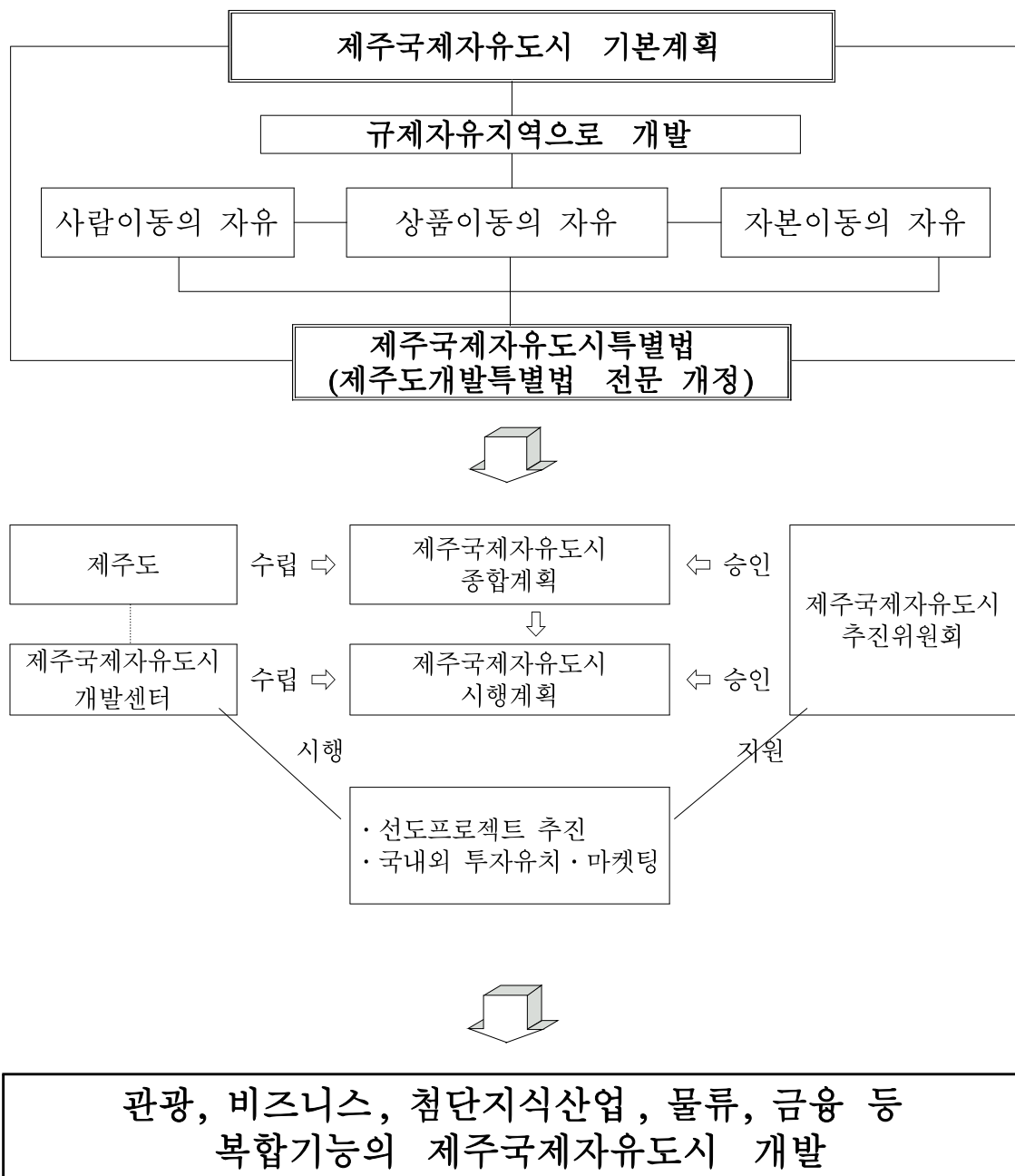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부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장관·통일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제주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및 조정을 담당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변경,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자유무역지역 지정,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토록 함.
- 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함.

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치

- 개발센터의 조직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특수법인으로 설립함.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선도프로젝트 등 개발계획의 수립 및 추진,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투자자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의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토록 함.
- 정부 및 제주도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내국인면세점 운영 수익금, 선도프로젝트 부지 분양대금 및 임대료 수익금, 제주도내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채권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차관과 같은 차입금 등을 운영재원으로 활용토록 함.

- 개발센터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은 중앙정부가 행사하나 제주도지사와 긴밀한 업무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개발센터와 제주도지사간 이견사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함.

제2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체계



<그림 IV-1-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체계

제2장 재정 및 투자계획

제1절 재정운영계획

1. 현황

가. 재정규모

- 2002~2004년 동안 재정 규모는 5조7,822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02년에 1조 8,006억원에서 2004년에 2조658억원으로 증가할 것임.
- 일반회계는 전체의 85.7%인 4조9,56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체의 14.3%이며 재정신장율은 2003년도 6.4%, 2004년도 7.8%임.

<표 IV-2-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망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제 주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북 제 주 군	남 제 주 군
합 계	5,782,205	2,618,488	1,150,757	649,448	835,53005	527,982
일반회계	4,956,262	2,299,141	879,393	563,091	721,936	492,701
특별회계	825,943	319,347	271,364	86,357	113,594	35,281
2002년	1,800,684	840,534	364,398	194,540	240,355	160,857
일반회계	1,536,034	737,551	274,526	168,826	205,390	149,741
특별회계	264,650	102,983	89,872	25,714	34,965	11,116
2003년	1,915,652	863,654	383,574	218,601	274,572	175,251
일반회계	1,639,849	757,273	292,601	189,660	236,821	163,494
특별회계	275,803	106,381	90,973	28,941	37,751	11,7575
2004년	2,065,869	914,300	402,785	236,307	320,603	191,874
일반회계	1,780,379	804,317	312,266	204,605	279,725	179,466
특별회계	285,490	109,983	90,519	31,702	40,878	12,408

자료 : 도, 시·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2000

나. 세입

- 2002~2004년 동안 일반회계 세입은 4조9,022억원으로 전망되며 자주재원 1조 5,750억원, 의존재원 3조3,272억원임.
- 일반회계 세입신장율은 2003년 6.8%, 2004년 8.7%이며 자주재원은 전체의 32.1%, 의존재원은 전체의 67.9%임.

<표 IV-2-2> 세입전망(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제 주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북 제 주 군	남 제 주 군
합 계	4,902,262	2,259,141	879,393	563,091	707,936	492,701
자주재원	1,575,001	763,343	335,643	168,805	223,918	83,292
의존재원	3,327,261	1,495,798	543,750	394,286	484,018	409,409
2002년	1,518,034	722,551	274,526	168,826	202,390	149,741
자주재원	482,438	236,394	107,401	53,193	59,164	26,286
의존재원	1,035,596	486,157	167,125	115,633	143,226	123,455
2003년	1,621,849	744,273	292,601	189,660	231,821	163,494
자주재원	521,709	255,750	111,667	56,124	70,234	27,934
의존재원	1,100,140	488,523	180,934	133,536	161,587	135,560
2004년	1,762,379	792,317	312,266	204,605	273,725	179,466
자주재원	570,854	271,199	116,575	59,488	94,520	29,072
의존재원	1,191,525	521,118	195,691	145,117	179,205	150,394

자료 : 도, 시·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2000.

다. 경상지출

- 2002~2004년 중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경상지출(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1조 7,067억원으로서 총세입의 29.5%를 차지함.
- 경상지출은 2003년 4.7%, 2004년 7.1%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지출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29.9%, 2003년 29.4%, 2004년 29.2%임.

<표 IV-2-3> 경상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제 주 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북 제 주 군	남 제 주 군
합 계	1,706,764	895,180	331,494	178,629	173,154	128,307
일반회계	1,440,550	776,997	255,763	142,942	154,009	110,839
특별회계	266,214	118,183	75,731	35,687	19,145	17,466
2002년	538,590	277,300	105,409	56,805	57,001	42,075
일반회계	450,482	236,503	80,896	45,934	50,538	36,611
특별회계	88,108	40,797	24,513	10,871	6,463	5,464
2003년	564,086	295,687	109,696	58,549	57,735	42,419
일반회계	478,871	259,562	84,283	46,988	51,446	36,592
특별회계	85,215	36,125	25,413	11,561	6,289	5,827
2004년	604,088	322,193	116,389	63,275	58,418	43,813
일반회계	511,197	280,932	90,584	50,020	52,025	37,636
특별회계	92,891	41,261	25,805	13,255	6,393	6,177

자료 : 도, 시·군, 「중기 지방 재정 계획」, 2000

라. 가용재원 전망

- 2002~2004년 중 일반회계 세입액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 가용 재원은 3조 5,157억1,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의 70.9%를 차지함.
- 2002~2004년 중 특별회계 세입액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투자 가용 재원은 5,597억2,9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 세입의 67.8%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 가용 재원은 2003년 7.1%, 2004년 8.2% 신장함.

<표 IV-2-4> 투자가용 재원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02	2003	2004
①총세입	5,782,205	1,800,684	1,915,652	2,065,869
일반회계	4,956,262	1,536,034	1,639,849	1,780,379
특별회계	825,943	264,650	275,803	285,490
②경상지출	1,706,764	538,590	564,086	604,088
일반회계	1,440,550	450,482	478,871	511,197
특별회계	266,214	88,108	85,215	92,891
③-④투자가용	4,075,441	1,262,094	1,351,566	1,461,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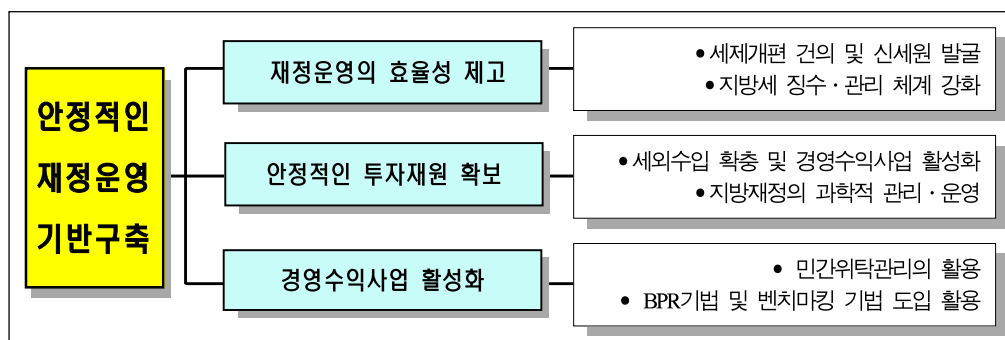
2. 재정수요 및 기본방향

가. 재정수요

- 양적·질적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 증대에 따라 재정수요가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수입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 수립 및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획일적이며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재정 부담의 증대(지원금의 일정비율 부담, 국가사업의 지방전가 등) 및 자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개발관련 투자재원 조달의 다양화, 투자재원조달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역할 설정,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지역간 지원 차등화 등을 위한 방안마련이 과제임.

나. 기본방향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 기반 확충, 분권적 지방재정체계 확립,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지원비율 확대,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조기 실시, 세외수입 확충 등 지방고유재원 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함.
- 자치단체가 계획사업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결정하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적 의사결정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지방재정 증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 등을 강구함.



<그림 IV-2-1> 재정계획의 기본방향

3.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가.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

(1) 투자비 지출의 효율화 전략

-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를 위한 감축관리, 공공재의 범위 조정, 수익자 부담원칙, 일몰법 제정 등의 관리 전략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
- 소극적 전략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근본적인 수단은 될 수 없으며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운용면에서 제도적 장치를 통해 투자적 지출의 효율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재정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현재와 같이 공동세원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재원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체 재원이 빈약한 여건하에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지출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2) 투자 심사 분석 제도의 활성화

- 장기적인 공공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중점사업과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연도별 지방예산과 국고 보조금 산정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 재정 운영이 요청됨.
- 투자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용·편익 분석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이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사업집행 과정에서 점검, 사후평가체계를 수립함.
- ‘투자심사분석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에 의한 투자 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음. 경제성이 없는 투자를 억제하고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 선정 가능, 투·융자 자금의 우선 배정 또는 외자 도입의 지원 자료로 활용, 각종 요금·가격·세율의 결정에 필요한 기준 제공, 투자 사업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할 수 있음.

(3) 성과중심예산방식의 도입

- 현행 예산제도 하에서는 행정조직 단위 별로 인건비, 물건비 등의 경비 구분을 토대로 하여 예산 요구 및 사정이 이루어 지고 있음. 이러한 예산 편성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성과주의 예산편성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성과주의 예산의 장점으로 업무 단위가 표준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공공 서비스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는 업무 단위를 더 늘려야 하며 이 경우 즉각적으로 소요 예산액을 파악할 수 있음. 이것은 예산의 계획 기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가 됨. 일정한 업무단위량에 해당년도의 단위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해당부서의 업무개선에 주력할 수 있음.
- 실적의 평가에 도움을 주 뿐 아니라 장기계획의 수립·실시에 유익하고, 지역주민이나 의회가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기 쉬움. 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고 의회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하며, 효율적인 관리수단을 제공함.

(4) 소비성 재정투자의 생산화

- 지방자치단체의 총량적 재정규모 확대에 따라 많은 사업과 시책에서 보여졌던 재정거품 현상(소규모 분산투자, 낭비적·전시적 투자 등)을 제거하고 투자의 실질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게 노력함.
-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복지개념을 적극 개발하여 복지·문화부문 투자를 생산지향적으로 전환·추진하며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인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는 중범위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함.

(5)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한 광역화 전략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시설, 문화예술회관, 종합레포트타운, 관광지개발,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생활권이 동일한 인접 시·군들이 경쟁적으로 개별 설치할 경우 중복 투자로 인한 재정적 비효율성 현상이 발생하게 됨.
- 1시·군 1개 시설이라는 기초단위 관할구역 중심의 재정투자 관행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공공시설의 지리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광역체계를 구축하여 투자 중복성과 낭비를 억제해야 함.

나.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화(Fiscal Decentralization)와 기업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면 지방세의 감면이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임으로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할증과세 등에 의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국비지원 규모는 물론 각종 일반 공공재원들이 연도별로 매우 불규칙하여 합리적인 세입예측이 어려운 실정임. 이는 자연적인 세수증감요인보다는 인위적·제도적 증감요인이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임.
- 상·하수도, 쓰레기 청소, 체육문화공간, 농어촌개발, 교통 등의 지역공공재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만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감.
-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는 장기간 미조정으로 인하여 수혜도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있음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체계를 현실화해 나감. 유사한 행정서비스 효율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정함.
- 토지개발사업, 건설자재개발사업, 관광유원지개발 등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제고시키고 세입기반을 확충시켜 나감.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대 및 처분이 가능한 수익자산인 잡종재산의 매각재원을 ‘경영수익사업기금’으로 조성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감.
- 제주도 소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 확충을 도모해 나가야 함. 소유재산의 정확한 파악, 관리개선을 통한 세외수입의 누수방지, 기존 수수료체계의 합리화, 현실화, 차등화 및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지금까지 ‘남의 재산관리’라는 인식에서부터 ‘내 재산관리’라는 인식전환으로 관리의 효율화와 합리화를 통하여 주민재정부담을 덜어주면서 수익도 늘려나감.
- 지역 재정기반은 지역경제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물임대사업, 관광지개발, 유료사업장 운영 등 다양한 세외수입원을 개발하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지역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사업에 제3섹터방식의 투자를 통해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토록 함.

다.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1) 대상사업의 영역 확대

- 경영수익사업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의하여 민간부문을 침해하지 않는 공익성 위주의 사업을 대상영역으로 설정함으로써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대상사업을 공익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는 전체 공공부문 영역, 민간 부문과 보완적 경쟁관계에 있는 영역, 회계형태에 관계없이 자치단체가 추진 가능한 영역 등으로 확대해 나감.
-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영역은 현행의 지방공공재 중심의 영역에서 전체 공공부문과 제3섹터방식에 의한 사업영역까지 확대해 나감.

(2) 대상 사업분야의 확대

- 대상 사업분야는 근본적으로 해당지역의 부존자원, 개발수요, 주민정서 등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대상사업분야에서 탈피하여 보다 새로운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는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신규 대상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하여 ‘주민제안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중·장기지역개발계획과 연계성이 있는 대상사업을 물적 시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 나감.
- 해당 자치단체의 유휴부존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사업 중에서 수익성과 지역경제 및 지방재정에 기여도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소득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확대해 나감.

(3) 관련제도의 탄력적 운용

-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체제 확립과 경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개발, 투자효과분석 등에 대한 교육훈련과 ‘효율성 정밀진단제’를 도입하여 인사·재정상의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함.
- 주요 사업별로 표준경영모델을 개발하거나 연구발표회 개최를 통하여 성공·실패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방지함과 동시에 유사한 실패를 거듭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4)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기법 도입

- 공조직의 경영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경영기법인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기법을 도입하여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완전 무의 상태(Zero Base)에서 조직 및 업무과정(Process)을 재설계하여 공익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함.
- 경제적·사회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평가하여 투자사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토록 함으로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뢰성과 창의성을 높여 나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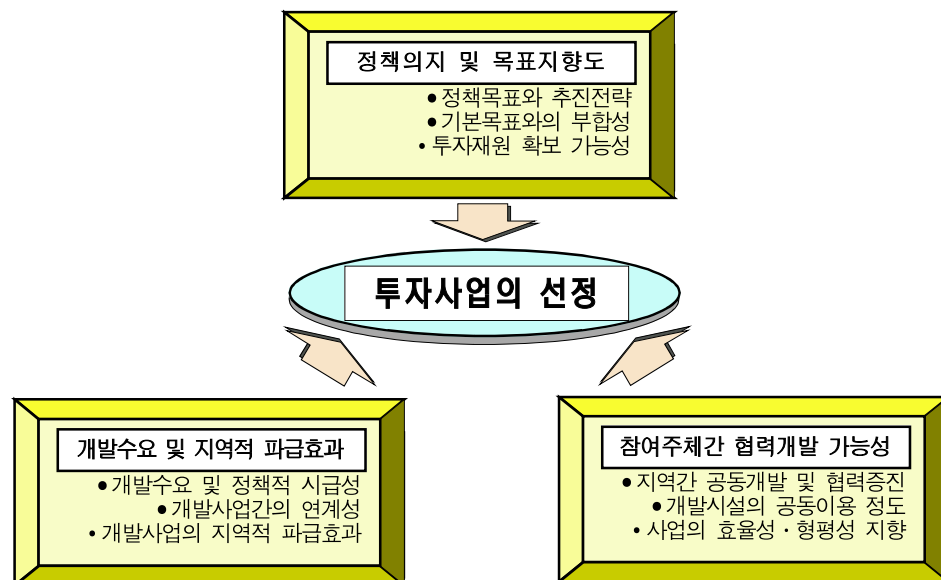
(5) 벤치마킹(Benchmarking)기법 도입

- 벤치마킹(Benchmarking)기법을 경영수익사업에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정보협의체 구성과 표준경영모델 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 나감.
- 경영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을 쉽게 체득하고, 혁신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기업의 고객만족기법을 대민서비스 개선과 행정조직 개편 및 경영행정마인드 구축에 기여토록 함.
- 특히, 전문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필요한 조직체계임. 이와 같은 가상조직원리를 해양관광지개발사업, 레포츠타운 및 골프장 건립사업, 실버타운 운영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제2절 투자계획

1. 투자사업 선정 및 방향

- 투자사업의 선정은 사업주체의 정책의지 및 목표지향도, 계획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적 파급효과, 참여주체간 협력개발 가능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한정된 투자재원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 실시하되, 부문별·단계별로 개발수요, 사업간 연계성, 지역적 파급정도 등을 고려함.
- 구체적인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은 전문가집단을 활용한 델파이 방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계획」 관련 사업의 파급효과, 공청회, 전문가집단 자문회의, 사회단체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을 감안하여 결정함.
- 본 계획의 성격상 사업주체의 선정과 투자재원 확보는 제도의 변화와 지원정책의 방향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사업, 자치단체사업, 민간투자사업,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산·학·관·민 합동개발 등 투자주체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선정함.



<그림 IV-2-2> 투자사업의 선정방향

2. 투자우선순위 결정 및 집행

가. 투자우선순위 결정

- 투자우선순위 결정은 단위 사업별로 순위를 정하는 방법보다는 목표년도인 2011년을 기준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포괄적인 시행사업을 제시하는 방향에서 결정함.
- 이는 투자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 여건의 변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재원 운용방향 변경에 대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집행이 지나치게 경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시기별로 2단계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은 전문가 정책포럼, 자치단체와 연구진간의 합동회의 그리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투자재원의 확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 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연도 투자계획은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봄.

나. 투자사업의 집행

- 본 계획에서 제시된 사업중 국가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사업은 국가정책 기조와 여건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나 계획기조와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관련 계획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함.
- 계획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민·관협력사업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민간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전제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원별 투자계획을 수립함.
- 총 투자규모는 29조4,969여억원이며, 국제화 1조7,596여억원, 관광부문 12조7,820여억원, 문화예술부문 4,065여억원, 산업부문 3조1,869여억원, 해양수산부문 8,576여억원, 사회개발부문 2조662여억원, 정주체계 3조3,149여억원, 환경부문 5,731여억원, 수자원부문 3,531여억원, 재해방지 및 소방부문 1,469여억원, 사회간접자본 4조503여억원 등으로 배분함.
- 재원별로는 국비 6조2,365여억원, 지방비 4조150여억원, 공사·공단 6,384여억원, 민자포함 기타 18조6,071여억원이며, 계획의 상반기인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15조9,293여억원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하반기에 13조5,676여억원을 각각 배분함.

<표 IV-2-5>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상반기	하반기
	계	국비	지방비	공사, 공단	기타	('02~'06)	('07~'11)
합 계	294,969	62,365	40,150	6,384	186,071	159,293	135,676
국제화 부문	17,596	2,610	615	1,761	12,610	5,571	12,025
관 광 부 문	127,820	1,870	3,644	286	122,020	70,412	57,408
관광지정비	86,940	524	383	286	85,747	41,129	45,811
시설정비	38,873	1,050	1,550	0	36,273	28,308	10,565
시장확대	2,007	296	1,711	0	0	974	1,032
문화예술부문	4,065	2,592	1,375	0	98	2,635	1,430
산 업 부 문	31,869	10,312	6,353	195	15,009	15,570	16,299
농림축산업	18,408	7,349	4,269	195	6,595	8,972	9,436
감귤산업	11,201	1,707	1,293	0	8,201	4,599	6,602
지식기반	632	481	137	0	14	632	0
일반경제	1,628	775	654	0	199	1,367	261
해양수산부문	8,576	3,606	2,950	0	2,021	3,710	4,866
사회개발부문	20,662	13,387	6,998	39	238	12,566	8,096
사회, 보건	8,730	5,359	3,334	33	4	4,410	4,320
교육진흥	5,680	5,461	102	0	118	4,621	1,059
체육진흥	5,692	2,300	3,367	6	20	3,058	2,634
청소년육성	560	269	195	0	96	477	83
정 주 체 계	33,149	1,517	4,689	4,103	22,839	18,388	14,761
환 경 부 문	5,731	1,017	4,353	0	362	4,894	837
자연환경	1,624	662	607	0	356	1,016	608
생활환경	3,954	237	3,712	0	6	3,802	152
해양환경	153	119	34	0	0	75	77
수자원 부문	3,531	1,715	1,816	0	0	2,891	640
재해 및 소방	1,469	930	539	0	0	746	723
사회간접자본	40,503	22,810	6,818	0	10,875	21,912	18,592
교 통	29,429	22,672	6,753	0	4	17,262	12,167
정보화	1,390	108	46	0	1,236	1,390	0
에너지	9,684	30	20	0	9,634	3,260	6,425

주) 투자계획은 국가·지방재정 여건, 개발센터 사업수입, 사업성과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국고지원은 연도별 예산편성시 대상사업 및 규모 결정

제3절 자원확충계획

1.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가. 적정 시장수익률 보장

- 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부담 완화 나아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과 높은 효율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함. 특히 민자유치사업은 적정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이나 BOO (Build-Own-Operate)방식으로 추진하여 최소한 15~20%의 수익률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함.
- 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산업단지, 택지개발, 주택사업 등을 부대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사업참여자가 부대사업군에서 특정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신청시 제안하도록 하는 패키지 방안도 고려함.

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민자사업으로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등을 상당정도 감면시키고 개발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함.
-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 및 간소화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제도 등으로 투자자와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동시에 부대사업의 허용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감.

다. 적극적인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 활용

-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의 경우 보통 BOT방식이 도입되고 있음. 우리 나라에서는 도로, 공항, 항만 등의 1종시설의 경우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민간사업자는 운영권을 갖게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그리고 전원 설비, 전산망, 도시공원 등 2종시설의 경우 민간이 소유권을 갖는 BOO방식을 혼합 운영하고 있음.

- 발주공공기관과 체결한 양도계약에 의해 완공된 프로젝트의 제반시설을 운영하여 외부차입에 대한 원금, 이자, 주주의 지분투자자에 대한 합리적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수익을 회수하고 약정기간 만료 시에는 제반시설의 소유권을 발주 주체에게 양도케 함으로써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라. 민간위탁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 민간위탁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타개하고 공공서비스 개선이나 공공사업의 확대를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 직영이나 민자유치 등에서 탈피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3섹터방식으로서의 BOT(Build-Operate-Transfer)방식이나 기부채납방식인 BLT(Build-Lease-Transfer)방식이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등을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도입토록 함.
- 나아가 민간위탁 운영, 민관합작, 사업권 양여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직접투자, 민간 매각 등 다양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함.

마. Bounty/Royalty 계획 도입

- 투자 의도가 있는 기업이 행하는 투자타당성 조사비용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임. 기업과 정부가 부담한 타당성 조사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함.
- 투자가 성사되면 정부는 투자자금의 일정 비율을 하사금으로 지불함. 나아가 정부는 처음 몇 년 동안 투자로 인한 생산액의 일부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Royalty 명목으로 지급함.
-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을 적극 활용함. 투자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실적을 반영한 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

바. 사회·문화적 관행의 개선

-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폐쇄적·배타적인 관행을 제거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은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환경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차적으로 국내 합작 파트너들과 투자유치 기업의 활동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함.

2. 외자유치사업의 활성화

가. 청사진 제시 및 기획유치 전략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실행 가능성까지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투자의 적정수익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킴.
-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시에 이용 가능한 노동력(labour force), 경쟁회사(competitions), 기술력(technology), 소비자의 기호(consumer tastes)등 지역내의 투자환경에 대한 상세하고도 투명한 정보(transparent information)의 제공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임.

나. 법률적·제도적 미비점 보완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정(1998.11)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경직적인 외국인투자지역제도의 운용 등 아직 개선 필요성이 존재함.
- 사업특성상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제주지역의 관광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위험을 낮추는 차원에서 ‘투자진흥지구제도’를 적극 도입함.

다. 차별적인 인센티브제 도입

- 제주지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 비해 차별성 있는 투자인센티브 개발이 긴요함.
- 외국인투자가가 고려하는 사업수행환경 요소로 효과적인 투자인센티브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부패나 행정의 비효율성과 관련된 비용, 교육기관, 주택 등 외국인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사후관리서비스 등도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고 있음
- 한편 제주도의 사업수행환경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접근성 해소를 위한 공항·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추가적 확충도 중요한 과제지만 외국자본에 대한 지역경제 주체의 의식구조도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라. 토지취득절차 간소화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외국인 기업에 대하여 내국인에 상응하는 대우를 위해 토지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관련 전문인력(경영자, 기술자 등)에 대한 토지취득을 전면 허용함과 동시에 취득이 허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종료후 의무처분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무상보조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재정 또는 지방재정에서 일부분을 할애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입지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타당성 조사에 의한 사업성 분석과 사업계획 수립, 민간제 시사항에 대한 평가와 협상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률, 회계, 세무, 금융, 기술 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협상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중심으로 「투자유치전문가 Pool제」를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자유치사업추진기획단」을 상시 운영토록 함.

마.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 인터넷 사이트인 KISC와 JFIC 국제자유도시 웹사이트의 효율적인 활용이 요구됨. 빈번하고도 규칙적인 정보 up-date,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 해외 정보 수집 활동의 강화, 국내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외국기업과의 접점을 확대함.

- 사업수행환경을 포함한 제도적 측면의 보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의 제공뿐만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함.
- 투자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안정 주주를 확보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홍보활동을 강화함.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기업설명회, 투자설명회, 산업시찰 등을 통한 직접적 홍보를 강화함.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과 언론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도 전개함과 동시에 지식기반집적지, 택지개발, 주택사업 등을 부대사업군으로 지정하고, 특정사업을 대상으로한 외자유치시에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함.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 관련시설에 대한 조성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함.

3.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가. 채권시장 기반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건전재정의 테두리내에서 지방채 발행 없이 지방 재정을 운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재정수요 증대 전망과 함께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할 때 공공투자재원으로서 지방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차입선이 가장 높은 민간은행 상환기간을 5년이내의 단기적 차입금에서 상환기간을 장기화하여 지방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 채권시장을 통해 장기의 저리자금을 조달하는 다각화 방안이 필요함.
- 채권유통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채권전문딜러 및 채권유통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채권 허용범위 확대 및 체계적 안전장치의 수반이 요구되고 있음.

나. 지방채 발행의 다양화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장기저리 자금공급을 대폭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국민투자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기금에 의한 인수를 더욱 확대시켜 나감.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과 ‘장기재정계획’을 연계시키는 자본투자계획(CIP)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하여 SOC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채(국제채 포함)발행계획을 수립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 기간동안 민간경영의 수단으로서 양질의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일본의 ‘공영기업금융금고(公營企業金融金庫)’, 미국의 ‘전국개발은행’(National Development Bank)과 같은 형태의 (가칭)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기금’을 조성함.
- 지나친 규제로서의 기재승인제도 등 까다로운 제도적 장치를 가능한 한 완화하여 지방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

제3장 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제1절 지역주민 참여방안

1. 기본방향

- 개발사업의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와 수요를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도민통합을 실현, 행정과 주민이 함께 지역발전을 주도하도록 함.
- 개발사업의 주민참여는 개발사업 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 참여,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라는 결과적 참여와 함께, 주민자본 및 노동에 의한 개발사업이라는 사업적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개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목적으로 하여, 인간중심의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문화를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지역개발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과 부합되고 제주도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개선함.
- 지역기업 및 노동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하여, 개방화된 경제구조 속에서 주민들의 개발사업참여가 시장논리적으로 가능하도록 함.
- 지역개발에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행정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특히 관광개발,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2. 분야별 지역주민 참여방안

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1) 지방자치단체의 고객지향적 행정 구현

-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열린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책예고제, 주민모니터링제 등 다원적 정책결정 방안을 도입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예고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개발사업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발안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에 의한 정책형성을 제도화하고 주민이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함.
- 고객 불만 처리제를 활성화하여 고객 불만의 추적, 평가, 신속한 처리를 보장하고 행정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킴.
- 옴브즈만 제도를 활성화하여 고객의 불만에 대한 정부기관의 처리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얻도록 도와주도록 함.
- 개발정책의 평가에 대한 주민 모니터제를 도입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 팀을 만들어 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시킴.

(2) 지역 정보망(Local Network)활용

-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행정업무 처리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양식의 표준화, 전자결재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함.
- 도내 전 읍·면·동사무소에 사이버 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주민참여 가능사업 추천, 경영지도와 자문,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법적·재정적 절차 안내 및 자문, 국내·외 정보의 즉시 제공과 사업간 연계 서비스 제공 등 사이버컨설팅의 체제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3) 공청회, 위원회 등의 운영 개선

- 정책입안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청회를 개최하며, 공청회 자료의 전문성을 높이고 사전공개제를 실시함.
- 위원회제도는 집행기관이 대부분 위원들을 위촉할 때 행정에 협조적인 사회지도층 인사나 전문가들만을 선임하여 대표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비정부단체나 주민 단체의 위원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함.
- 위원회 안전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이 독점하면, 위원회는 결정된 정책에 대한 형식적 심의나 자문에 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의 관련정보청구제를 실시함.
- 지방행정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투입하고 자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생산형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협력형태로 주민포럼을 구성·활성화하도록 함.

나.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참여

-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투자규모와 범위, 그리고 독자적 경영관리가 가능한 투자관광시설 모형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함.
- 지역사회중심형 관광개발에 대한 연구 및 논의 시스템을 마련, 활성화함.
- 펜션업, 민박, 관광농원 등 개인사업과 문화체험, 생태체험과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마을공동사업은 물론, 각종 관광벤처사업 등 주민들이 투자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함.
- 외생적 개발과 내생적 자율적 개발의 조화를 꾀하여, 도로개설 및 포장, 수리시설의 개선과 확장, 대규모 관광시설 개발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외생적 개발방법을 취하나, 소규모 관광서비스의 제공 등 중·소형 개발사업분야는 주민들의 자율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 환경과 접근성을 고려한 커뮤니티 관광상품(community tourism products)을 개발하여 마을 공동체 전체를 관광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재정측면에서 지원함.
- 지역별 시범특성화와 관광네트워크를 조성하여 무분별한 주민투자사업을 방지하고,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관광시설을 육성함으로써 동종시설의 과잉공급을 억제함.
- 시범사업이 충분한 사업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분석이 끝난 후에는 지역적인 안배와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간수용력을 높여 관광지 이용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경제와 주민의 혜택이 균형을 이루도록 함.

다. 환경정책에 있어 주민참여

- 정책결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절차를 개선함. 지역설명회, 지역포럼, 공청회, 주민투표,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주민참여 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 체계화함.
- 환경분쟁 해결과정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상과 합의를 중시하는 원칙을 세우기 위하여, 협상이나 중재과정에서 사후 약속이행 여부와 주민감시참여를 보장하는 협정서 체결 의무화를 추진함.

- 환경분쟁시 환경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과 합리적인 재원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정기준(Fair Share Criteria)제도를 도입함.
-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일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쉬운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 폭을 확대하고, 위원들의 관련정보청구제를 실시함.
-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과 관련한 제반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며, 제주환경백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함.
-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에 주목하여 지원하고, 특히 각종의 환경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함.

제2절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1. 기본방향

- 개발이익의 주민 귀속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
-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참여를 강화하고, 특히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우선적 고용 등을 통해 소득향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주민들의 개발사업참여가 시장구조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기업 및 노동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유인하고 지원함.
-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궁극적으로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2. 개발이익의 지역화 방안

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되어 수익금 대부분이 역외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자재의 현지조달, 현지주민의 고용, 현지 건설업자 이용 의무화를 추진함.

- 개발에 따른 수익금의 환원문제는 경쟁력이 취약한 부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발수익금의 일정액을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기금으로 조성함.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운영자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조달하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과 기타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활용함.

나. 도민의 투자기회의 확대와 고용촉진

- 대규모 시설투자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원 마련에 지방기업과 공동출자의 형태를 띤 컨소시엄, 지역주민간 합동 컨소시엄 등 지역민간자본 활용체제를 유인, 지원하고, 토지이용권 분양 방식 등을 통하여 소유권의 유보와 지대계약의 갱신으로 지역주민의 주도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활성화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에 따라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는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일정 수준의 도민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다. 지역업체 지원 강화 및 자생 기반 조성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도내 건설업체 등 지역개발업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특화 관광상품 개발, 공정경쟁질서 확립, 대내외 홍보 전문화 및 확대, 협력체제 구축 등, 도내 관광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함.
-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중 쇼핑아울렛 개발 사업에 도내 영세 도소매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쇼핑센터 내 특산물 판매장, 패스트푸드점, 식당 등 지역내 도소매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함.

제3절 특별개발우대사업 육성

1. 기본방향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우대사업을 중심으로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함.
-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육성은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 개발사업지구 인근주민의 불편해소,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소득향상사업을 지원하며, 개발사업시 인근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

2. 육성방안

가. 1차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1차 산업분야 등에서는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경쟁력 부문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책을 도입함.
-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등의 개발참여를 위한 농, 임, 축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투자계획을 마련함
- 필요한 재원과 인력 육성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효성 있는 규정을 제도화함.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선도하는 7개의 선도프로젝트와 같은 차원에서 1차산업에 대한 효율적 개발을 위해 감귤산업을 비롯 1차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첨단 농축산업단지를 개발함.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개발산업지구에 대한 특혜의 범위를 농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감귤의 경우 전업을 희망하는 농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제자유도시 개발에의 참여를 활성화함.

나. 지역주민 참여의욕의 촉진

- 주민 투자여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역관광자원 등 지역내 사업 잠재력을 재평가하고, 주민 사업활동에 대한 컨설팅 활동 등 정보적 지원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개발재원 조달 및 주민 참여의식 고양,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등을 위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공모주(지방채) 제도를 활성화함.
- 관광개발사업의 지역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을 추진함.

다. 1차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농어촌관광의 육성

- 소득향상, 주민참여, 환경보전 등 농어촌관광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가능성에 주목하여, 농어촌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제도와 기반 개선을 추진함.
-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무공해 농수산물 판매 등을 연계하는 종합적 농어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농촌간, 도농간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지역 역사, 문화 자원의 지적재산권 등록 및 캐릭터화 등을 지원하고, 농어촌관광상품과 연계함.
- 농어촌관광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범적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인재육성 및 전문가 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실시함.
- 농지구입, 농가주택 임대, 농가주택 개조 등에 대한 규제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생활인프라 구축에 재정을 투입하며, 지방자치단체 선도 아래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어촌관광의 기반을 마련함.

제4장 지방행정 체계 정비

제1절 행정계획

1. 현황

가. 행정조직 및 기관

- 제주도청의 행정조직은 2001년 6월말 현재 1실 5국 1본부 28과와 5개의 직속기관, 9개의 사업소로 이루어져 있음.
- IMF 이후 1·2단계 구조조정으로 본청기구 중 3국 5과가, 정원은 270명이 감축되었지만 지역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개 사업소 등이 신설되고 127명의 정원이 증원됨.
- 고령화·국제화·정보화·도시화에 대응하여 지역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직 보강과 지방행정 조직 개편이 요구됨.

나. 관공서 및 주요 기관

- 지역의 관공서 및 주요기관은 총 305개소이며, 지방행정관서 79개, 경찰·소방관서 83개, 법원·검찰관서 6개, 기타 중앙관련기관 86개, 신문·방송·전화국 11개, 협동조합 40개임.
- 지역별 분포는 시 지역에 193개소 63.3%, 군부 지역에 112개소 36.7%가 분포되어 있음. 특히 광역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관공서는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입지하고 있으며 기타 군 지역에는 우체국, 지파출소, 소방서 등 기초적인 대민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관서가 주로 분포되어 있음.

<표 IV-4-1> 관공서 및 주요기관 분포 현황 (2000년)

(단위 : 개소)

구 분	제주	시 부			군 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총 계	305(53)	193	135	58	112(53)	60(25)	52(28)
지방행정관서	79(1)	57	37	20	22(1)	11(1)	11
도	1	1	1	-	-	-	-
시·군	4	4	2	2	-	-	-
읍 면 동	43	31	19	12	12	7	5
직속기관	4	4	4	-	-	-	-
도	6	4	2	2	2	-	2
시·군	6	6	6	-	-	-	-
사 업 소	15(1)	10	6	4	5(1)	4(1)	1
시·군	3	-	-	-	3	-	3
출 장 소							
경찰·소방관서	83(2)	40	27	13	43(2)	24(2)	19
경찰청	1	1	1	-	-	-	-
경찰서*	3	3	2	1	-	-	-
지파출소	37	20	14	6	17	11	6
소방본부	1	1	1	-	-	-	-
소방서	2	2	1	1	-	-	-
소방파출소	19(2)	9	6	3	10(2)	5(2)	5
의용소방대	20	4	2	2	16	8	8
법원·검찰관서	6	5	3	2	1	1	-
법원(지원)	2	2	1	1	-	-	-
등기소	1	1	-	1	-	-	-
검찰(지청)	1	1	1	-	-	-	-
교도소**	2	1	1	-	-	1	-
기타중앙관련기관	86	63	50	13	23	12	11
보훈청	1	1	1	-	-	-	-
교육청	4	4	3	1	-	-	-
우체국관서	47	25	19	6	22	11	11
세무서	1	1	1	-	-	-	-
농산물검사소	2	2	1	1	-	-	-
기타중앙직속기관	31	30	25	5	1	1	-
신문·방송·전화국	11(8)	10	9	1	1(8)	1(4)	(4)
신문사***	4	4	4	-	-	-	-
전화국	3(8)	3	2	1	(8)	(4)	(4)
방송사	4	3	3	-	1	1	-
협 동 조 합	40(42)	18	9	9	22(42)	11(18)	11(24)
농 협	24(27)	9	3	6	15(27)	9(11)	6(16)
수 협	6(13)	2	1	1	4(13)	2(6)	2(7)
축 산	4(2)	4	4	-	(2)	(1)	(1)
산 림	2	2	1	1	-	-	-
기 타	4	1	-	1	3	-	3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1.

주1 : () 지소

주2 : * 해양경찰서 포함, ** 소년원 등 포함, *** 종합일간 신문사에 한함.

다. 지방행정 인력

- 2000년 12월 현재 공무원 수는 4,215명이며 직능별로는 일반직이 2,435명으로 전체 지방행정 인력의 57.8%를 차지하고 단순적인 기능인력은 1,010명으로 2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직은 17명으로 0.4%에 불과함. 행정수요의 다원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인력의 전문성 제고, 교육훈련, 정보화 마인드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음.
- 공무원 1인당 인구 수는 전체로는 127명이며 시부지역은 평균 222명, 군부지역은 평균 142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제주시는 공무원 1인당 인구 수가 263명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많음.

<표 IV-4-2> 지방행정 인력 분포현황 (2000년)

(단위 : 명)

구 분	계	지 방 행 정 공 무 원						
		정무직	별정직	전문직	특정직	일반직	연구지도직	기능직
합 계	4,215(8)	5	136	17	422(1)	2,435(5)	190(2)	1,010
본 청	572(5)	1	21	11	39(1)	381(4)	3	116
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	418(3)	-	24	6	-	157(1)	104(2)	127
시 · 군	2,042	4	88	-	-	1,293	83	574
읍 · 면 · 동	799	-	3	-	-	604	-	192
소 방 서	384	-	-	-	383	-	-	1

자료 : 제주도, 「제주통계연보」,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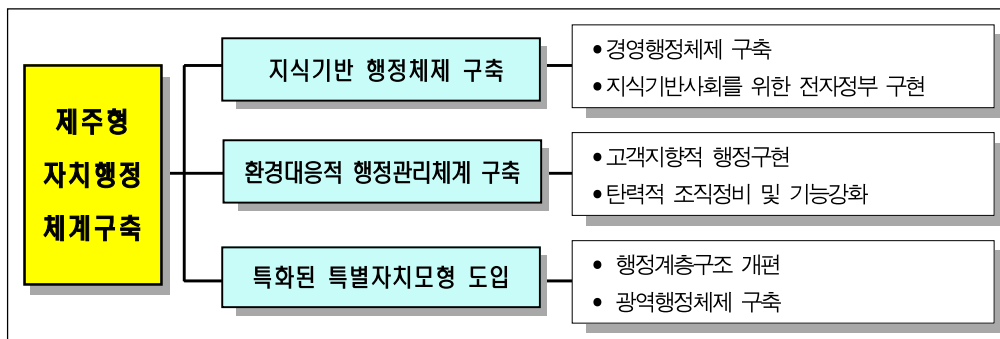
주 : ()는 국가공무원임.

- 정보화 진전과 자율권 확대 및 주민참여 활성화로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관리체계와 규제적 행정수요가 감소되고 사회적 유동성이 크게 증대됨으로써 지역공간 체계를 변화시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로이 형성시킬 수 있는 광역행정 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2. 계획의 기본방향

- 행정을 위한 효율이 아닌 도민을 위한 효율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 지속적인 자기혁신 역량 제고, 연공서열적인 인사제도 개선, 창조적 개혁 행정, 위기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 제주형 자치행정체계를 구축함.
- 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도민의 참여행정 및 공공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 경쟁력 제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둠.

- 행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서비스 공급능력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 공급 상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과감한 권한이양을 도모하고 담당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실적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사고과제를 실시토록 함.
- 지역주민들이 정책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수립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정 영역에서 주민이 행정과 협력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참여적 행정 체계를 구축함.
- 조직 진단 및 설계를 통해 정보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지식기반화를 위한 직능교육의 확대와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특화된 특별자치모형을 도입함.



<그림 IV-4-1> 지식기반형 글로벌 행정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3. 지식기반형 글로벌 행정체제 구축

가. 경영행정 체제 구축

(1) 능력주의 신인사체제 구축

- 인사제도의 틀을 능력주의로 전면 개편하여 인력의 질을 높이며 개개인의 희망과 적성을 존중하고 능력과 업무 특성을 결합하는 탄력적인 인사제도인 신인사제도를 적극 도입함.

- 교육훈련을 자기개발의 수단으로 삼도록 유형별 평가체계를 강화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다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
-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의한 발탁 승진을 단행하여 유능한 자에게 더 많은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활용하며 조직의 세대교체를 통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함.
- 공무원의 자발적인 지식 공유와 창조를 중시하는 행정문화를 형성하고 지식기반화 추진을 위하여 조직 개편 및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함.

(2) 개방직 확대 및 민간기법 도입

- 경쟁적인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전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함.
- 우선 고급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약직 제도 및 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부 전문인력의 과감한 충원을 통하여 신선한 인재를 수혈하고 내부 공무원들과 경쟁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감.
- 개인의 능력·실적 공헌도를 평가하며 이에 입각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체계인 연봉제를 도입하고 일정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토록 하고 같은 직렬 내지 수직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함.
- 능력 중시형 봉급체계를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직무 중심의 교육 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전문화·지식기반화되고 있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토록 함.
- 관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과감한 조직 혁신을 도모하고 엄정한 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그 평가결과를 급여와 승진인사에 반영하며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영화, 민간위탁, 공공·민간경쟁 입찰제를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함.

(3) 국제화·정보화에 대응한 행정체계 구축

- 국제화·정보화시대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여 공무원의 외국어 및 정보관리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문 행정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함.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기초생활 회화 중심의 직장 외국어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이중 회화실력이 중급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는 사설 외국어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함. 아울러 자체 전산교육, 전문기관 교육, 민간 기업체 특별연수 등을 통하여 직원의 전산 정보능력을 높여 나감.
-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정보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전자기기 등의 발전에 대응하여 행정의 일반적인 관리양태, 감독통제의 스타일,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네트워크를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함.

(4) 목표관리제도의 내실화

- 공공정책이나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공무원 개개인의 담당 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확보하고 업무 실적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관리 제도를 내실화 함.
- 기관별 업무와 목적을 명확히 재정의하고 연도별 성과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도민에게 공포하고 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관리자에게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관리상의 자유 재량권을 부여함.
- 목표 대비 실제 성과를 측정하여 이를 최고관리자와 예산 및 인사관리기관에 보고하여 향후 사업자금의 배정, 사업내용의 변경, 기관 및 개인단위의 보상과 제재 등을 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함.
- 성과 결과는 의회 또는 외부감사기관에 제공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함.

나. 지식기반사회를 위한 전자정부 구현

(1) 글로벌화를 주도할 전자정부 구현

- 전자정부는 공통의 정보통신기반 위에 하나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떤 방법으로든 신속하게 제공·활용할 수 있는 정부를 의미함. 전자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의 구축과 정보의 공동 활용이 요구됨.
- 전자정부는 통합된 서비스, 셀프서비스 정부, 전자서비스 전달, 정부기능의 민간이양, 창의적인 파트너십 구축, 새로운 정부의 재창출,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 시민 반응의 환류 증진 등을 주요 축으로 함.

(2) 창조적 지식경영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구축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대응하여 행정에도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직구성원의 지식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조직 전체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토록 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경직된 관료형 조직을 유연화하고 민주적 지식창조형 조직구조로 전환하며 통합적 정보관리 시스템, ‘인터넷도정정책포럼’ 등 지식정보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용함.
- 광범위한 영역에서 주민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지금까지의 ‘요구형적 행정시스템’에서 ‘자율창조형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행정의 중심이 하드(Hard)에서 소프트(Soft)로 전환된 창조적 지식경영시스템을 도입함.

(3) 재택민원행정 실현

- 행정처리절차의 간소화 및 양식의 표준화를 통해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조속히 실현함.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각종 민원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재택민원행정을 실현함.
- 문서 간소화를 위해 재택민원행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LAN망의 보급·확대를 통해 전자결재,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및 화상회의의 활용도를 높이며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함.
- 온라인 행정업무 처리와 절차의 간소화, 양식의 표준화 등을 통해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전자결재, 전자우편 활성화를 통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함.

(4) PC통신 서비스창구 개설

- 행정기관을 정보 습득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내 읍·면·동사무소에 PC통신서비스 창구를 설치·운영함.
-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는 각종 여행정보, 영화·공연 등의 예약서비스, 교육 관련 자료 및 각종 소프트웨어(Software) 등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정보 소외현상을 해소함.
- 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정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해외 중소기업 신기술 및 제품정보, 인터넷폰 상담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5) 정보망(Network)을 이용한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사이버컨설팅이 가능하게 하는 제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
- 지역주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주민참여 가능사업 추천, 경영지도와 자문,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법적·재정적 절차 안내 및 자문, 국내·외 정보의 즉시 제공과 연계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자본과 한정된 기술로도 지역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

4. 환경대응적 행정관리체제 구축

가. 고객지향적 행정 구현

(1) 참여행정의 제고

- 가치관의 다원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열린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등 주민 만족 및 수요자 중심의 일괄행정서비스시스템(one stop service system)을 구축함.
- 정책예고제, 주민모니터링 등 다원적 정책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행정참여를 유도하도록 함.
- 지역주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발안제를 활성화하여 주민에 의한 정책형성을 제도화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하고 행정조직에 책임경영 개념을 도입함.

(2)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책임행정체제 구축

- 공공과 민간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열린 공무원제도를 실현하고 행정서비스의 민간참여를 확대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도모함.
- 기업과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주민이 활동하기 편한 행정체제를 구축토록 함.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토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

- 기업가적 예산제도 도입, 투자심사제도 활성화, 성과주의 감사제도 도입 등으로 경직적 비용을 절감하고 필수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

(3) 시민평가제도의 도입

- 행정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 정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결과를 행정과정에 투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도민 행정 서비스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함
- 차별화된 고객별 만족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 분야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불만족 요인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함. 이러한 시민평가는 목표관리제나 실적평가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

(4) 다양한 고객만족 행정 전개

- ‘고객 보상제’를 도입하여 공공조직이 고객서비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정한 형태의 보상(보통 금전적)을 해줌.
- 옴브즈만 제도를 강화하여 고객의 불만에 대한 정부기관의 처리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얻도록 도와줌.
-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형식적·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 보고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신사고 실천운동’을 추진함.

나. 탄력적 조직 정비 및 기능 강화

(1)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역할 강화

- 도의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립·집행되고 있는 개발계획이나 사업들간에 발생 하는 상충 문제를 사전에 계획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2) 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 시간적으로 한정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적 조직인 과제수행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계선조직이 지니는 경직성을 보완하고 조직의 신축성과 전문성을 제고함.
- 계획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련부서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수행에 앞서 계획 집행의 시의성, 지역주민의 요구 부합성, 미래 지향성, 지역발전 및 개발효과 등을 검토함.

(3) 기획 및 행정관리 분야 기능 강화

- 개방화와 지식기반화에 부응한 기획 및 관리기능의 강화, 지역통계기능의 확충, 공무원교육기능의 강화, 자치단체간·국가간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광역적 행정 수요 증대 및 갈등·분쟁해결에 역점을 두는 조직 개편과 기능 확대가 요구됨.

(4) 지식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 경제통상실을 신설하여 국제통상 교류 협력, 국제물류 및 유통, 자유무역지대 조성, 세계표준화 경쟁의 심화,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급성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5) 지역교통 및 도시안전 분야

- 도시 및 지역개발 관련기구를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건설 및 도시계획분야의 기능을 확대·조정함.
- 첨단화·과학화되고 있는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재배치하고 권역별 지역교통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함.
- 첨단화·과학화되고 있는 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재배치하고 ‘권역별 지역교통협의회’를 구성하여 교통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함.

제2절 특별자치계획

1. 현황

가. 현황

- 제주의 행정구역은 조선 말기와 일제 초기에 확정된 체계를 골조로 하여 자치계층은 1도 2시·2군의 2계층구조, 행정계층은 1도 2시·2군 43 읍·면·동의 3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행정리는 203개 임.
- 1955년에 제주시가 북제주군에서, 1981년에 서귀포시가 남제주군에서 분리되었으며 인구는 경기도의 약 1/15, 면적은 경북의 약 1/10에 불과함.
- 전국 기초자치단체 구역의 평균면적이 430km²임에 반해 제주시가 255.33km², 서귀포시가 254.57km², 북제주군이 721.06km², 남제주군 614.96km²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협소한데 비해,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매우 큼.

나. 과제

- 인구, 면적 규모에 비해 행정계층 수가 많아 문서 전달과 결재단계가 늘어나게 되어, 의사결정비용, 거래비용을 증대시키고 왜곡된 의사전달로 업무상 갈등이 야기되고 일관성 유지가 곤란함.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적 정책 수행이 곤란하며 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로 인한 균등한 삶의 질 보장이 곤란하고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됨.
- 지방화·세계화시대에 도·시·군의 다계층구조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중앙정부에 대한 접근능력에 있어서도 역량을 분산시킴.
- 행정전산화로 통제범위(관할구역수)가 확대되고 있어 현재의 다계층제인 지방자치·행정계층구조(계층수)에 대한 축소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수용하고 생활권과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의 일치, 행·재정적 능률 제고, 주민참여의 활성화 도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행정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함.

2. 특별자치계획의 목표와 원칙

가. 계획의 목표

-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참여 자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의 보호 울타리를 벗어나 자립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립기반체제를 구축함.
- 제주지역 어디서나 균등한 삶이 보장된 상향적으로 평균화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함.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 능률성을 제고함.
- 규모의 경제효과를 달성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함.

나. 계획의 원칙

- 행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 행정비용, 재정능력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함.
- 행정의 민주성 증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 주민선호 등 2가지 기준을 고려함.

다. 특별자치 대안 모색

- 계층구조의 대안은 권한조정모형과 단일자치구역모형으로 구분됨.
- 권한조정모형은 현재의 계층구조를 유지하면서 기능적 조정과 사무적 재배분 혹은 행정구역 개편을 시도하는 안이며 단일자치구역모형은 현재의 2계층제의 계층구조를 하나의 단일 계층으로 전환하는 방안임.

<표 IV-4-3> 계층구조 개편대안

구 분 대 안	1안	2안	3안	4안
권 한 조 정 모 형	1도 2시·2군	1도 2시 동·서군	1도 2시 4군체제	1도2통합시
단일자치구역 모형	시장·군수 임명	시·군 폐지	광역자치단체 폐지	-

3. 특별자치계획의 최적 대안

-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1도 2시 2군 체제를 유지하되 현행체제의 보완적 관점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중복성과 비능률, 방만한 경영을 극소화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시장군수 임명제내지 시·군폐지제를 근간으로 한 단일자치구역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두거나 「제주도행정특례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확보하도록 함.

<표 IV-4-4> 계층구조 개편 대안의 장·단점

모형	구분	장 점	단 점
권한 조정 모형	1도 2시 2군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으로 2계층제이나 독립적인 사무배분으로 단층제적 효과 · 기존체제 유지로 실천 가능성이 높고 혼란 최소화 · 광역 조정기능 강화 · 시·군의 자치행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와 시·군간 명확한 사무배분의 기준 설정 곤란 · 자치단체간 갈등 요인 상존 · 광역행정 수행 곤란 · 이중 행정으로 행정비용 낭비 초래
	1도 2시 동·서군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과 행정권 일치 ·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일체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청 소재 유치에 따른 지역 갈등 조장 가능 · 주소체계 변경 등 막대한 예산 소요
	1도 2시 4군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기능 강화 · 주민의견의 신속한 행정 투영 · 직접민주주의 실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행정 수행 곤란 · 중복 행정으로 행정비용 낭비 · 규모의 경제 미실현
	1도 2통합시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통합적 접근으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수요에 부응한 차별된 행정서비스 제공 곤란 · 비용과 수익의 괴리
단일 자치 구역 모형	시장·군수 임명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광역행정 추구 · 지방정치 비용 절감 · 지방행정 비용 절감 · 행정 책임 명확화 · 지역 재정력 향상 · 지역 균형발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단위 정치세력 반발 · 지방자치 후퇴 비난 · 광역자치단체장 권한의 비대화 · 주민의견 수렴의 소극성 · 책임행정 체제 약화
	시·군 폐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행정 강화 · 지방행정 비용의 획기적 절감 · 효율적 광역행정 수행 · 정치적 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강력한 반발 · 잠재적 정치세력의 반발 · 지방자치 후퇴 비난 · 도의 통솔범위 확대
	도 폐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자기완결성 효과 ·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효과 · 도 단위 선거비용 절감 · 지방행정 비용의 획기적 절감 · 행정책임의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폐지에 대한 도민의 정서적 허탈감과 반발 · 도 단위 정치인, 공무원들의 반발 · 전면적 개편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부담 증가